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50-10

2012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13. 5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서론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3
1.1. FTA 추진 현황	3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7
1.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12
2.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개요	16
2.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16
2.2. 성과평가 범위 및 성과지표 개발	17
2.3. 성과계측과 성과평가 방법	26

제2장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성과평가

1. 종합평가	31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37
2.1. 축산업 경쟁력 제고	37
2.1.1. 개괄	37
2.1.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40
2.1.3. 성과분석	43
2.1.4. 개선과제	45
2.2. 축산물 수급관리	46
2.2.1. 개괄	46
2.2.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48
2.2.3. 성과분석	49
2.2.4. 개선과제	50
2.3. 축산물 위생 안전성	51
2.3.1. 개괄	51
2.3.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52
2.3.3. 성과분석	53
2.3.4. 개선과제	54
2.4. 친환경 축산	54
2.4.1. 개괄	54
2.4.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56
2.4.3. 성과분석	57
2.4.4. 개선과제	58
2.5. 가축방역	59
2.5.1. 개괄	59
2.5.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60

2.5.3. 성과분석	61
2.5.4. 개선과제	61
2.6. 축산 기술보급	62
2.6.1. 개괄	62
2.6.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63
2.6.3. 성과분석	65
2.6.4. 개선과제	66
3. 정책 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67
3.1. 정책 수혜자 설문조사	67
3.1.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현황	67
3.1.2. 지원사업별 만족도	70
3.1.3.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75
3.1.4.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77
3.1.5.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	78
3.1.6.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사업	86
3.2. 심층면담 결과	90
3.2.1.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90
3.2.2.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91
3.2.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93
3.2.4. 가축개량지원 사업	95
4. 계량경제분석: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계측	98
4.1. 연구 목적	98
4.2. 연구 방법 및 자료	98
4.2.1. 연구 방법	98
4.2.2. 연구 범위	102
4.2.3. 연구 자료	102
4.3. 생산성 계측	105
4.3.1. 부분별 생산성 지수 계측	105
4.3.2. 총요소생산성 계측	107
4.4. 사회후생분석	111
4.4.1. 분석 개요	111
4.4.2. 분석 모형	112
4.4.3. 사용 자료	115
4.4.4. 사회후생변화 분석 결과	117
4.5. 요약 및 시사점	120

제3장 원예분야 경쟁력제고 성과평가

1. 종합평가	123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127

2.1. 원예부분 생산경쟁력 제고	127
2.1.1. 개괄	127
2.1.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130
2.1.3. 성과분석	132
2.1.4. 개선과제	133
2.2. 원예부분 유통경쟁력 제고	134
2.2.1. 개괄	134
2.2.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137
2.2.3. 성과분석	140
2.2.4. 개선과제	142
3.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143
3.1.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143
3.1.1. 조사개요 및 응답현황	143
3.1.2. 지원사업별 만족도	147
3.1.3. FTA가 과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152
3.1.4.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154
3.1.5. 시행중인 FTA 보완대책	155
3.1.6.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산업	160
3.2. 심층면담 결과	162
3.2.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설 사업	162
3.2.2. 농산물브랜드육성 지원 사업	164
3.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지원 사업	165
4. 계량경제분석: 원예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계측	166
4.1. 연구 목적	166
4.2. 연구 방법 및 자료	166
4.2.1.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DID) Model)	166
4.2.2. 생산성 및 효율성 계측	168
4.2.3. 수익성 계측	170
4.2.4. 분석 자료	171
4.3. 분석결과	172
4.3.1. 데이터 분석	172
4.3.2. 생산성 및 효율성 효과 계측 결과	173
4.3.3. 수익성 효과 계측 결과	175
4.4. 요약 및 시사점	177

제4장 근본적 체질개선(맞춤형 농정,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1. 종합평가	181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186
2.1. 신규농업인력 육성	186

2.1.1. 개괄	186
2.1.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187
2.1.3. 성과분석	188
2.1.4. 개선과제	188
2.2.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189
2.2.1. 개괄	189
2.2.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190
2.2.3. 성과분석	192
2.2.4. 개선사항	193
2.3. 농가경영 안정화	194
2.3.1. 개괄	194
2.3.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196
2.3.3. 성과분석	197
2.3.4. 개선과제	198
2.4. 영농규모화	199
2.4.1. 개괄	199
2.4.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00
2.4.3. 성과분석	201
2.4.4. 개선과제	202
2.5. 생산기반조성	203
2.5.1. 개괄	203
2.5.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04
2.5.3. 성과분석	205
2.5.4. 개선과제	206
2.6. 친환경농업 육성	206
2.6.1. 개괄	206
2.6.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09
2.6.3. 성과분석	211
2.6.4. 개선과제	213
2.7. 식품산업 육성	214
2.7.1. 개괄	214
2.7.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16
2.7.3. 성과분석	217
2.7.4. 개선과제	218
2.8. 종자산업 육성	218
2.8.1. 개괄	218
2.8.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20
2.8.3. 성과분석	222
2.8.4. 개선과제	222

2.9. R&D 및 펀드 투자 확대	223
2.9.1. 개괄	223
2.9.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24
2.9.3. 성과분석	226
2.10. 농식품 수출 촉진	227
2.10.1. 개괄	227
2.10.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28
2.10.3. 성과분석	229
2.10.4. 개선과제	230
3.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231
3.1.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231
3.1.1. 신규농업인력육성	231
3.1.2. 경영안정화	235
3.1.3. 영농규모화	242
3.1.4. 친환경농업육성	245
3.2. 심층면담 결과	246
3.2.1. 농업재해보험	246
3.2.2. 농지연금	249
3.2.3.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250
4. 계량경제분석	253
4.1. 농업재해보험의 농업소득 안정화 효과	253
4.1.1. 서론	253
4.1.2. 분석모형	253
4.1.3. 분석결과	255
4.2. 식품제조업의 경영분석	256
4.2.1. 경영분석 지표	256
4.2.2. 이용자료	258
4.2.3. 식품제조업의 경영분석	258
〈부록〉 FTA 피해보전대책 개요	279
1. 개괄	277
2. 피해보전직불제	281
3. 폐업지원제	287

표 목차

표 1-1. FTA 추진 경과 (2013년 5월 현재)	5
표 1-2. 2012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15
표 1-3.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지표	21
표 2-1. 축산분야 품목별 경쟁력 제고 유형화 예산 및 실적 현황(2012년)	36
표 2-2. 축산분야 응답자 영농경력	68
표 2-3. 축산분야 응답자 학력	68
표 2-4. 축산분야 응답자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생산량	69
표 2-5. FTA 보완대책 중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80
표 2-6. FTA 보완대책 중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2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80
표 2-7. 축산분야처리시설(공동자원화시설) 운영현황	90
표 2-8. 퇴비 생산 및 수급 현황	92
표 2-9. 번식우 산출 및 투입 항목 내용(기준 1년, 두당)	102
표 2-10. 번식우 산출 및 투입 항목 기초 통계량(1998~2011)	103
표 2-11. 비육우 산출 및 투입 항목 내용(기준 1년, 두당)	103
표 2-12. 비육우 산출 및 투입 항목 기초 통계량(1998~2011)	104
표 2-13. 한우 번식우 부분별 생산성 지수 및 변화율	105
표 2-14. 한우 비육우 부분별 생산성 지수(증체량 기준)	106
표 2-15. 번식우 투입·산출지수 및 총요소생산성지수	107
표 2-16. 비육우 투입·산출지수 및 총요소생산성 지수	108
표 2-17. 번식우와 비육우의 (조정된) 총요소생산성지수 증감률 비교	109
표 2-18. 번식우와 비육우의 수익/비용 증감률 비교	110
표 2-19. 생산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	112
표 2-20. 2007년 한우고기 수급현황	115
표 2-21. 2007년 한우고기 수요량 (지육 환산)	115
표 2-22. 한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치	116
표 2-23. 투융자 탄성치 추정	116
표 2-24. 축산부문 투융자 내역	117
표 2-25. 탄성치	118
표 2-26. 민감도 분석 1	118
표 2-27. 민감도 분석 2	119
표 2-28. 민감도 분석 3	120
표 3-1. 원예분야 품목별 경쟁력 제고 유형화 예산 및 실적 현황(2012년)	126
표 3-2. 원예분야 응답자 학력	144

표 3-3. 원예분야 응답자 영농경력	144
표 3-3. 원예분야 응답자 영농경력	144
표 3-4. 거점 APC별 사업만족도 및 경영지표 현황	163
표 3-5. DID 모델의 계수 비교	167
표 3-6. FTA 지원 및 미지원 시군	171
표 3-7. 생산성 및 효율성 지표의 평균값 비교	172
표 3-8. 수익성 지표의 평균값 비교	173
표 3-9. 정책지원 시기와 지원여부에 따른 이증차분 분석결과	174
표 3-10. 수익성 효과 추정 결과	175
표 3-11. 정책시점과 지원여부가 조수입 및 경영비에 미친 영향	176
표 4-1. 근본적 체질개선 유형화 예산 및 실적 현황(2012년)	184
표 4-2. 2012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247
표 4-3. 품목별 영농규모 가입 조건	247
표 4-4.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선정) 및 자금실행 현황	251
표 4-5. 정책자금 용도별 중요도 평가 결과(5점 척도)	252
표 4-6. 이증차분법 평가	254
표 4-7. 과수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소득 변화	255
표 4-8. 농업재해보험 이증차분 분석결과	256
표 4-9.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성장성 비교(1990~2011년)	259
표 4-10.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비교(1990~2011년)	259
표 4-11.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수익성 비교(1990~2011년)	264
표 4-12.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비교(1990~2011년)	265
표 4-13.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안정성 비교(1990~2011년)	270
표 4-14.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성 비교(1990~2011년)	271
부표 1. 미국의 TAA와 국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비교	278
부표 2. 무역조정지원제도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비교	280
부표 3.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282
부표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283
부표 5.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 절차	286
부표 6. 폐업지원제도	288
부표 7.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289
부표 8.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절차	292

그림 목차

그림 1-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13년 5월 현재)	4
그림 1-2. FTA 국내대책 농업분야 투융자 지원계획 규모(25조 1천억 원)	8
그림 1-3. 한·미 FTA 대비 농업부문 투융자계획 규모(23.1조)와 주요 사업	10
그림 1-4. 한·EU FTA 대책 및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11
그림 1-5. 농업 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12
그림 1-6. 분야별 FTA 국내대책 집행실적 (2008~2012년 합계, 억 원)	13
그림 1-7. 2012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14
그림 1-8. FTA 국내보완대책 품목별 경쟁력 제고 유형화	18
그림 1-9. FTA 국내보완대책 근본적 체질개선 유형화	18
그림 1-10. 성과지표 개발원칙	19
그림 1-11.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체계도	26
그림 2-1. 축산분야 응답자 연령	67
그림 2-2. 축산분야 응답자 축산물 판매수익	68
그림 2-3. 축산분야 측정별 응답 농가 수	69
그림 2-4. 축산분야 응답자 거주지역	70
그림 2-5.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70
그림 2-6.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71
그림 2-7.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72
그림 2-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만족도	72
그림 2-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73
그림 2-1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74
그림 2-11. 기타 사업 만족도	74
그림 2-12. 기타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75
그림 2-13.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75
그림 2-14.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축산분야)	76
그림 2-15.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축산분야)	77
그림 2-16. FTA보완대책 중 소득증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축산분야)	79
그림 2-17.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축산분야)	81
그림 2-18.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82
그림 2-19.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2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83
그림 2-20.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축산분야)	84
그림 2-21.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85
그림 2-22.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축산분야)	87
그림 2-23.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확대 필요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88

그림 2-24.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축소가 필요사업	89
그림 2-25. 생산성 향상이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	111
그림 3-1. 원예분야 응답자 연령	143
그림 3-2. 원예분야 응답자 거주 지역	144
그림 3-3. 원예분야 응답자 재배품목	145
그림 3-4. 원예분야 응답자 판매수익	145
그림 3-5. 원예분야 응답자 출하물량	146
그림 3-6. FTA 보완대책 사업별 수혜자	147
그림 3-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147
그림 3-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요인	148
그림 3-9.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불만족요인	149
그림 3-10. 과원규모화사업 만족도	149
그림 3-11. 과원규모화사업 만족요인	150
그림 3-12. 과원규모화사업 불만족요인	150
그림 3-13. 기타 사업 만족도	151
그림 3-14. 기타 사업 불만족요인	152
그림 3-15. 기타 사업 만족요인	151
그림 3-16. FTA가 과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152
그림 3-17.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원예분야)	153
그림 3-18. FTA가 부정적 영향이 적은 이유	154
그림 3-19.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원예분야)	155
그림 3-20. FTA 보완대책 중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원예분야)	156
그림 3-21.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 되는 사업	157
그림 3-22. FTA 보완대책 중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원예분야)	158
그림 3-23.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원예분야)	159
그림 3-24.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업 1순위 교차분석(원예분야)	160
그림 3-25.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원예분야)	161
그림 3-26.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축소가 필요한 사업(원예분야)	161
그림 3-27. DID 모형도	167
그림 3-28. 생산성 및 효율성의 DDI 계수	174
그림 4-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정책수혜자 만족도	231
그림 4-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만족 이유	231
그림 4-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불만족 이유	232
그림 4-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수혜 전후 농업소득 변화	232
그림 4-5. 후계농업인육성사업 보완 및 개선사항	233
그림 4-6.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정책수혜자 만족도	233

그림 4-7.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만족 이유	233
그림 4-8.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불만족 이유	234
그림 4-9.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수혜 전후 농업소득 변화	234
그림 4-10.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보완 및 개선사항	235
그림 4-11. 농어업재해보험 정책수혜자 만족도	235
그림 4-12.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만족 이유	235
그림 4-13.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불만족 이유	236
그림 4-14. 농업재해보험 보상금의 피해보상 비율 평가	236
그림 4-15. 농업재해보험금 수령액의 손실회복 기여도	236
그림 4-16. 농어업재해보험 보완 및 개선사항	237
그림 4-17. 발농업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37
그림 4-18. 발농업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237
그림 4-19. 발농업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38
그림 4-20. 발농업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238
그림 4-2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38
그림 4-22.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239
그림 4-23.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39
그림 4-2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240
그림 4-25. 농기계임대사업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40
그림 4-26.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만족 이유	240
그림 4-27.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	241
그림 4-28. 농기계임대사업 수혜 전후 농업소득 변화	241
그림 4-29. 농기계임대사업 보완 및 개선사항	242
그림 4-30. 경영이양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42
그림 4-31.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242
그림 4-32.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43
그림 4-33. 경영이양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243
그림 4-34. 농지연금에 대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43
그림 4-35. 농지연금에 대한 만족 이유	244
그림 4-36. 농지연금에 대한 불만족 이유	244
그림 4-37. 농지연금 보완 및 개선사항	244
그림 4-38. 친환경농업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45
그림 4-39.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245
그림 4-40.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46
그림 4-41.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1순위)	246
그림 4-42.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261

그림 4-43.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261
그림 4-44.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262
그림 4-45.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	263
그림 4-46.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 비교(1990~2011년)	263
그림 4-47.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비교(1990~2011년)	264
그림 4-48.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1990~2011년)	266
그림 4-49.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1990~2011년) ..	267
그림 4-50.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기업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267
그림 4-51.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268
그림 4-52.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269
그림 4-53.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	269
그림 4-54.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부채비율 비교(1990~2011년)	272
그림 4-55.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비교(1990~2011년)	272
그림 4-56.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유동비율 비교(1990~2011년)	273
그림 4-57.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동비율 비교(1990~2011년)	273
그림 4-58.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 비교(1990~2011년)	274
그림 4-59.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 비교(1990~2011년)	274



제1장 서론

제 1 장

서 론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1.1. FTA 추진 현황

-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DDA와 같은 다자 무역체제의 진전이 지체되면서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FTA 추진에 두어왔다.¹⁾ 우리나라는 2002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지난 10년간 47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 칠레 이외에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싱가포르(2004년 11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2005년 7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2006년 4월), 인도(2008년 9월), 유럽연합(EU) 27개국(2009년 10월), 페루(2010년 8월), 미국(2010년 12월 재협상 타결), 터키(2012년 3월), 콜롬비아(2012년 6월) 등이다.
- 기체결된 9개의 FTA는 이미 발효가 된 상태이며,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는 현재 국회 비준을 준비 중이며 현재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베트남,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 등이다.

1) OECD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110.3%로 G20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9%로 17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그림 1-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13년 5월 현재)

• 2013년 1월 현재 47국과 10개 FTA 체결(9개 발효), 15개 FTA 협상 진행/준비



○ 우리 정부는 거대경제권이자 주요 교역파트너인 EU, 미국과 개방수준이 높은 FTA를 체결하여 가시적인 교역확대를 도모한 반면, 신흥시장인 인도, 페루, 터키, 콜롬비아와는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여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2년 5월에는 한·중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온 주요국과의 양자간 FTA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쉽(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결속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산물 순수입국이며 전반적인 농업경쟁력이 비교열위인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FTA 협상과정에서 주요 민감품목의 개방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개방 수준을 낮추고, 수입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표 1-1. FTA 추진 경과 (2013년 5월 현재)

구분	대상국가	진행 상황	비고
협정발효 (9건, 46개국)	칠레	발효(2004.4.1)	* 우리 측 양허율: 99.8% (공: 100%, 농: 98.5%)
	싱가포르	발효(2006.3.2)	* 우리 측 양허율: 91.6% (공: 91.6%, 농: 66.6%)
	EFTA ¹⁾ (4)	발효(2006.9.1)	* 우리 측 양허율: 98.5% (공: 99.7%, 농: 對스위스 34%, 對노르웨이 46%, 對아이슬란드 58%)
	아세안(10)	발효(2007.6.1)	* 우리 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3.2%)
	인도	발효(2010.1.1)	* 우리 측 양허율: 93.2% (공: 98.8%, 농: 55.2%)
	EU(27)	발효(2011.7.1)	* 우리 측 양허율: 99.6% (공: 100%, 농: 97.1%)
	페루	발효(2011.8.1)	* 우리 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4.5%)
	미국	발효(2012.3.15)	* 우리 측 양허율: 99.9% (공:100%, 농: 98.0%)
	터키	발효(2012.5.1)	* 우리 측 양허율: 99.6% (공:100%, 농: 96.7%)
타결(1건)	콜롬비아	국내절차진행	2012.6.25 타결선언, 8.31 가서명
협상진행 (10건, 23개국)	중국	제4차 협상(2012.10, 경주)	2012.10. 제4차 협상(경주)
	호주	제5차 협상 (2010.5, 캔버라)	2012.7. 수석대표 간 회의(시드니), 차기 협상 미정
	인도네시아	제1차 협상(2012.7, 인니)	2012.12 제2차 협상
	베트남	제1차 협상(2012.9)	제2차 협상 미정
	캐나다	제13차 협상(2008.3)	2012.9.6~7 상품분야 회기간 협상(서울) 2012.10. 회기간 협상(오타와) 2012.11. 수석대표간 협의(동경)
	한·중·일	공동연구완료 (2010.5~ 2011.12)	2012.9. 제3차 사전 실무협의(서울), 2012.10. 공청회 개최 2012.11. 협상개시 선언(아세안+6 정상회의)
	RCEP ²⁾ (15)	작업반회의(2012.8)	2012.10. 공청회 개최 2012.11. 협상개시 선언(아세안+6 정상회의)
	뉴질랜드	제4차 협상(2010.5, 웰링턴)	제5차 협상일정 미정
	GCC ³⁾ (6)	제3차 협상(2009.7, 서울)	제4차 협상일정 미정
	멕시코	제2차 협상(2008.6)	2012년 하반기 중 협상 재개 예정
준비 또는 여건조성 (5건)	일본	제6차 협상(2004.11)	2012년 3차례(4~6월)의 과장급 실무협의 개최, 차기협상여부 미정
	Mercosur ⁴⁾ (5)	공동연구 완료 (2005.5~2006.10)	2009.7. 공동협약체 설립, 향후 일정 미정
	러시아	공동연구 2차 회의(2008.7)	공동연구 3차 회의 일정 미정
	SACU ⁵⁾	공동연구 개시 합의(2008.12)	향후 일정 미정
	이스라엘	공동연구 완료 (2009.8~2010.4)	향후 일정 미정

주 1)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RCEP: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3)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4)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자료: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발효된 한·EU FTA와 한·미 FTA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EU와 미국은 농산물 분야의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하였다.

-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농산물 교역국이며, EU와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체 농산물 수입(280억 달러, 2012년 기준)의 22.4%(62.7억 달러)를 차지하며, EU는 9.4%(26.2억 달러) 수준이다.
 -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2007.4)된 이후 EU는 이에 상응하는 농산물 시장개방을 우리 측에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09년 10월에 타결된 한·EU FTA의 농산물 양허안은 한·미 FTA 양허내용과 비슷하지만, 주요 민감품목(축산물, 양념채소, 인삼)의 개방수준은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이다.
 - EU가 관심을 가진 품목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 포도주 등이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진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한 전체 축산물과 신선과일(오렌지, 포도, 체리 등)등 이었다.
- 우리나라는 EU,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오렌지, 포도, 감자(칩용) 등의 품목에는 계절관세를 설정하여 국내 수확·유통기간 동안 생산농가를 보호하거나, 사과와 배에 최장 20년까지의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하여 시장개방에 대응할 준비(경쟁력 제고)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 과일과 과채에 관한 협상에서는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 식물검역 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보다 민감하게 다루어졌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인 오렌지와 포도에는 계절관세를 설정하였고,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과와 배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번을 분리하여 시장보호 수준을 높이는 양허안을 도출하였다.²⁾
- 쇠고기와 돼지고기, 곡물과 같이 수입 규모가 크고 수입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품목들은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ASG를 설정하였다. 또한,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식용, 가공용, 사료용 등 용도를 구분하여 시장개방 폭을 달리하였으며, 관세감축과 TRQ 증량을 병행하여 양허하였다.

2) 우리나라의 주요 품종인 후지사과의 관세철폐 기간은 20년으로 하고, 기타 품종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함. ASG는 후지의 경우 23년, 기타는 10년 간 적용됨. ASG 발동기준은 초기에 9,000톤에서 시작하여 12,000톤으로 증량됨. 배도 사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이 개방됨. 동양배의 관세철폐 기간은 20년, 기타 품종의 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나 ASG는 적용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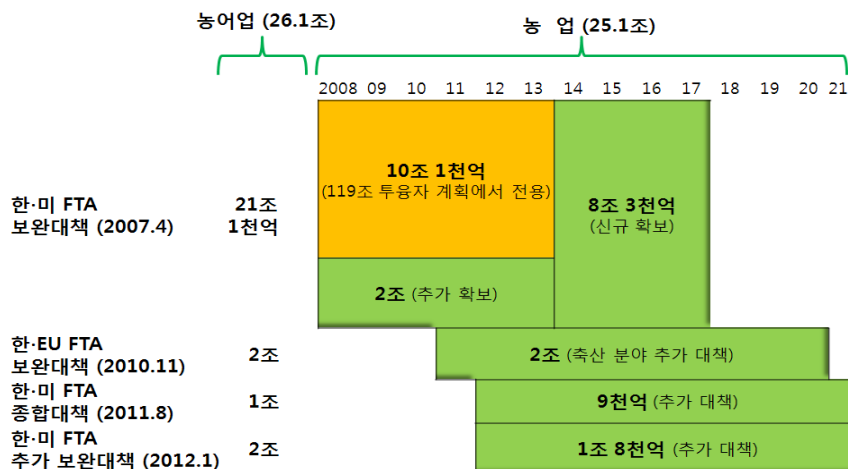
- 반면,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대부분 단기에 관세를 철폐하였는데, 즉시철폐 포함 5년 이내 단기철폐 품목들은 주로 가공용 원료, 사료곡물, 종자(종축)용 등으로 투입재 성격이 강한 품목이다. 따라서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인하 폭이 큰 품목은 고율의 기준관세가 단기 철폐되는 품목과 이행 첫날 기준관세를 큰 폭으로 감축하는 품목이다.
- 정부는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제의 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여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및 관세율 쿼터(TRQ) 제공, 계절관세 도입, 관세의 부분철폐 또는 철폐기간의 연장,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설정 등을 통해 국내 농업의 대응기간을 확보하고 수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축산물 양허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광범위한 국가를 대상으로 빠르게 FTA가 추진되면서 농업인의 불안감이 커져 왔고, 중국과의 FTA 협상개시로 인해 농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정부는 한·칠레 FTA 때부터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의 국내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이 법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을 FTA 기금으로 조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사업을 실시하였다.
- 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이후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조 4천억 원 규모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2007년 6월).
 - 국내보완대책의 기본방향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 2007년 한·미 FTA 협상타결 당시 정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보완대책에 제시된 투융자 규모는 10년간(2008~2017년) 20조 4천억 원³⁾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다.
- 2011년에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한·미 FTA 과급영향을 다시 추정한 결과 피해규모는 12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조 원의 추가적인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다(2011년 8월). 또한, 2012년 1월에는 한·미 FTA 비준에 앞서 2조 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두 차례의 추가 보완대책을 통해 농업분야에 추가 배정된 투융자 규모는 2조 7천억 원이며, 나머지 3천억 원은 수산분야 지원에 활용된다.
-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한 농업분야의 한·미 FTA 국내대책 투융자 규모는 23조 1천억 원이며 한·EU FTA의 발효에 앞서, 정부는 2010년 11월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향후 10여년 동안 FTA 이행과 관련한 국내대책으로 정부가 농업분야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투융자 규모는 총 25조 1천억 원에 달한다.

그림 1-2. FTA 국내대책 농업분야 투융자 지원계획 규모(25조 1천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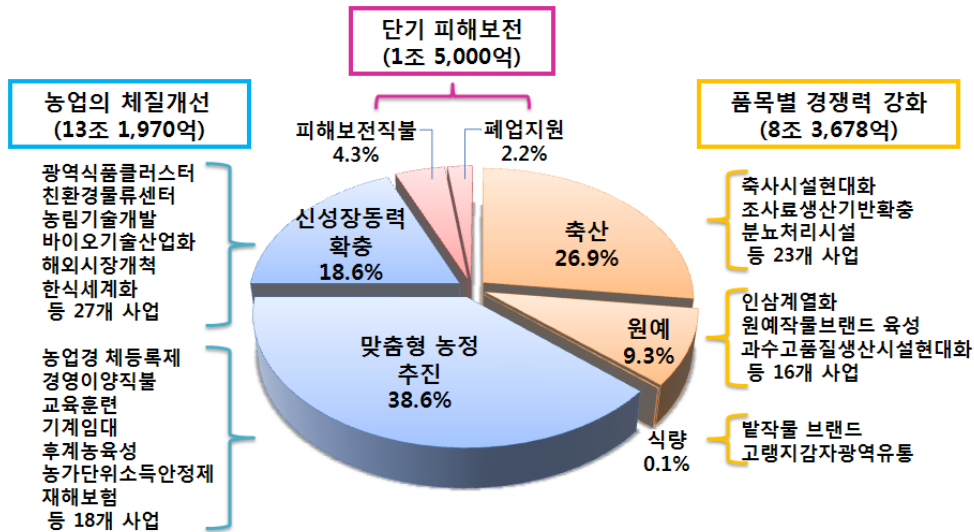
3) 이는 수산분야 7천억 원을 제외한 규모로, 2007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15년간의 농업부문 생산감소액 10조 470억 원에 기초한 것임.

-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투융자 사업이며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는 보완적으로 운용된다.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FTA 이행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 수입피해 보전대상 품목을 전체 농축산물로 확대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발동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에 한하여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폐업지원을 실시한다.
 - 둘째,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에 대한 경쟁력 향상 추진을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
 - 셋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를 위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고령농 비중이 높은 농업인력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하며, 규모화, 전업화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를 확충하고 기술개발 확대, 고품질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 넷째, 농촌을 농업의 다양한 산업과 국민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 지역 개발 및 복지기반을 확충한다.

- 2012년 1월에 발표된 추가 지원계획까지 포함하여 농업분야 한·미 FTA 국내대책의 투융자 규모는 총 23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전체 투융자액의 57.2%인 13조 2천억 원이 맞춤형농정(8조 9천 억)과 신성장동력 창출(4조 3천 억) 등 한국농업의 체질개선 사업들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투융자금액의 36.3%에 해당하는 약 8조 4천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축산업 지원이 6조 2천억 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이 과일, 채소 등 원예부문으로 2조 2천억 원이 지원된다.

- 단기적 피해보전 대책에는 총 투융자액의 6.5%가량인 1조 5천억 원(피해보전직불 1조 원, 폐업지원 5천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이 증가할 경우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대책은 지원 기간 동안 추진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림 1-3. 한·미 FTA 대비 농업부문 투융자계획 규모(23.1조)와 주요 사업



주: 2012년 1월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피해보전직불(가격차 보상)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 품목별로 당해년 시장가격이 지난 5개년 가격 가운데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발동 기준가격)의 90% 미만이 될 경우, 발동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 90%를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조치는 한·칠레 FTA 대책에서 시행된 발동기준 80%, 보상수준 85%보다 개선된 조치로, 발동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이다.⁴⁾ 피해보전직불 제도가 운영되는 기간은 한·EU FTA 발효 직후부터 10년으로 한·칠레 FTA 대책보다 3년이 연장되었다.
- 폐업보상은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을 갖춘 품목 가운데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으로 한정되며, 보상수준은 순이익의 3년분이고 폐업보상 기간은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이다.
 - 한·칠레 FTA 대책에서 폐업 보상액의 산출기준은 순수입(조수입에서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제외)이었으나 한·미 FTA 대책에서는 순이익(순수입에서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 제외)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4) 정부는 2012년 1월에 발표한 추가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기존(2011년 7월 한·EU FTA 대책)의 85%에서 90%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이러한 조치는 한·칠레 FTA 대책 당시 수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복숭아를 비롯하여 과다한 폐업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2011년 8월(1조 원)과 2012년 1월(2조 원)에 발표된 정부의 추가대책에는 피해 보전뿐만 아니라,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추가대책을 통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과 과수를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하였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하였다.⁵⁾
- 또한 발농업 직불제의 도입⁶⁾과 친환경 직불금 단가의 상향 조정⁷⁾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을 도모한다.

그림 1-4. 한·EU FTA 대책 및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한·EU FTA 보완대책 (축산분야 중심, 2010.11)	한·미 FTA 종합대책 (2007년 대책 보완, 2011.08)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2012.01)
<p>재정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분야 중심, 시설현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 (2조원 추가)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 완화 (80%→85%), 보전비율 상향 (85%→90%), 시행기간 연장 (7년→10년) <p>세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상속공제액 상향 (2억원→5억원) 축산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품목 확대 (12개→22개) <p>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관리체계 확대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p>재정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1조원 추가) <p>세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로 무관세 범위 확대 면세유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p>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 10억→30억) 농업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p>재정지원 [2조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 완화 (85%→90%) 발농업 직불제 도입 (19개 품목, 40만원/ha) 시설현대화사업 공자금리 인하 (3%→1%) 친환경 직불금 단가 50% 상향 조정 <p>세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수입사로 할당관세 적용 사유품목 확대 (11개→22개) 무관세 적용품목 확대 (5개→16개)

5)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 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시켰음(2012년 1월).

6) 2012년부터 19개 품목(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쌀,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을 발농업직불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2012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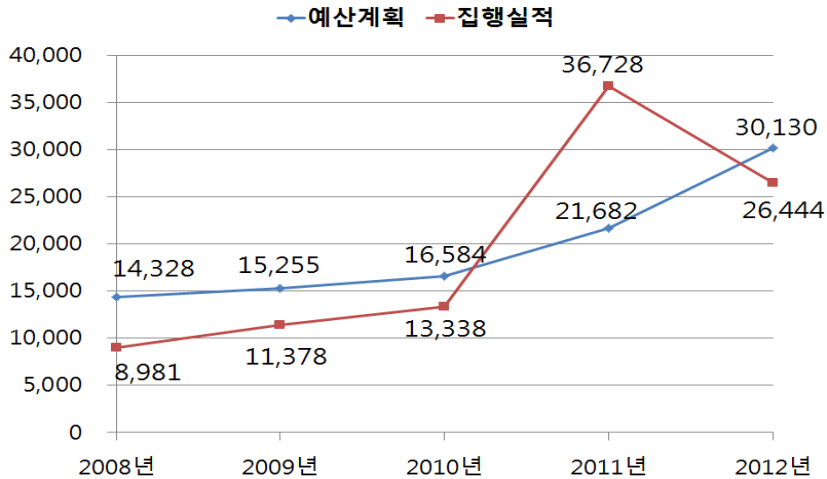
7)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논: 31~39만원/ha, 밭: 67~79만원/ha)를 50% 수준 상향 조정하며,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음(2012년 1월).

- 농업인의 경영·소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으로는, ① 축산소득 비과세, ② 수입 사료 무관세 범위 확대, ③ 면세유 공급 확대, ④ 배합사료, 비료, 농약 등 영농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유지(향후 10년간) 등을 제시하였다.⁸⁾
-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는 농어가 신용보증한도 확대, 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등이 있다.

1.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 2007년 4월에 타결이 예상되었던 한·미 FTA가 재협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2008년부터 계획된 FTA 국내보완대책의 본격적인 시행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정부는 FTA 이행에 앞서 주요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2008년 이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왔다.

그림 1-5. 농업 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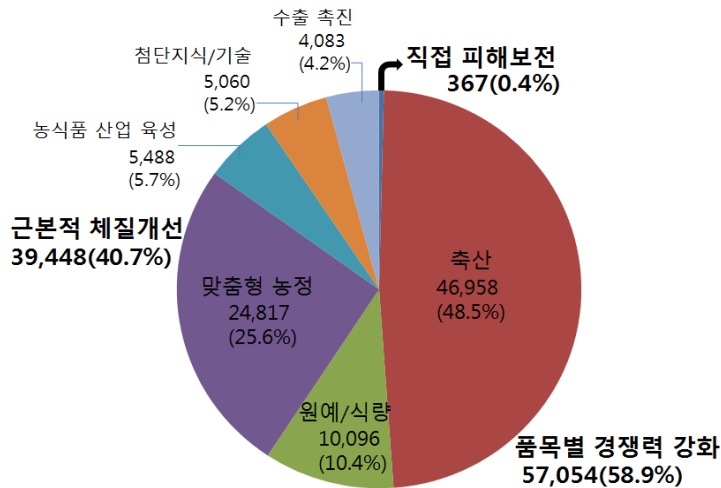
주: 한·EU FTA 국내대책 예산은 2011년부터 반영되었으며, 2011년 예산과 실적은 각각 5,193억 원, 2조 1,725억 원 이고, 2012년 예산과 실적은 각각 5,477억 원, 4,466억 원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8) 면세유와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28.8조 원)를 포함하여 세제지원 규모는 29.8조 원 수준에 달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농업분야 FTA 국내대책의 세부사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9조 7,979억 원이며, 2012년까지 실제 정부가 집행한 실적은 9조 6,869억 원이었다.⁹⁾
 - 그러나 한·미 FTA의 발효가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의 집행이 유보된 결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예산대비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2011년에 초과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가축방역의 일환으로 구제역발생(2010년 말)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급(1조 6,678억 원)에 기인하며 당해연도 집행실적인 3조 6,728억 원에서 살처분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4%에 달한다.

-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각각 전체 지원액의 48.5%(4조 6,958억 원)와 25.6%(2조 4,817억 원)가 소요되었다. 원예 및 식량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행된 투융자도 10.4%(1조 96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육성과 첨단지식/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각각 5,488억 원과 5,060억 원 규모로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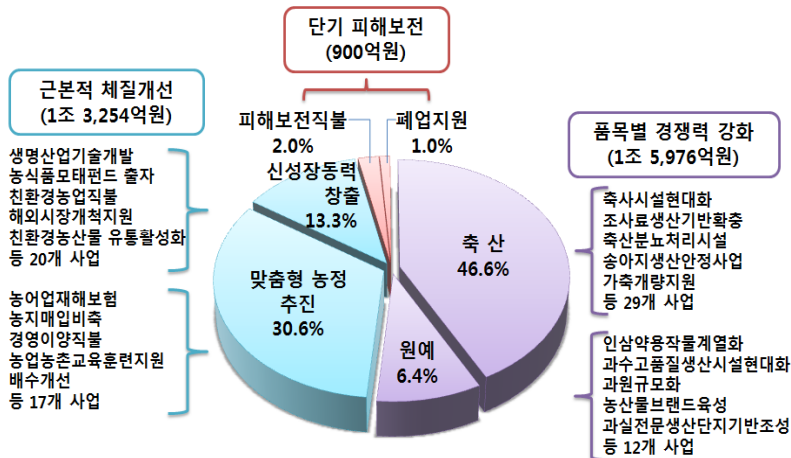
그림 1-6. 분야별 FTA 국내대책 집행실적 (2008~2012년 합계, 억 원)



주: 직접 피해보전의 실적(367억 원)은 2008년에 지급된 폐원보상금에 해당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FTA 투융자 예산과 실적에는 정부의 재정 외에도 이차보전으로 투입된 농협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이차보전으로는 2008~2012년에 예산으로 배정된 1조 1,122억 원 중에서 4,475억 원이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 용자)', '후계농업 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에 집행되었음.

그림 1-7. 2012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2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예산은 약 3조 123억 원으로,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1조 5,976억 원, 근본적 체질개선에 1조 3,254억 원, 단기 피해보전에 900억 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 2012년 FTA 국내보완대책의 집행실적은 2조 6,444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8%였다.
 - 직접 피해보전대책으로 당초 9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2011년도 피해보전대책'의 발동요건을 충족한 FTA와 품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 관련 집행실적은 없었다.
 - 품목별 경쟁력제고 관련 예산은 1조 5,976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집행된 투융자액은 1조 2,313억 원으로 집행률이 77%에 불과한데 이는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세부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와 '도축가공업체 지원' 등의 이차보전 관련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¹⁰⁾
 - 근본적 체질개선 관련 예산은 1조 3,254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집행 실적은 1조 4,131억 원으로 당초 예산을 초과하였다(집행률 107%).

10)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2012년도 이차보전 예산은 2,125억 원이었으나, 집행된 금액 356억 원에 불과하고,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의 예산은 1,500억 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은 557억 원임.

표 1-2. 2012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A)	실적(B)	집행률(%) (B/A)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30,130	26,444	87.8
직접피해보전	900	0	0.0
품목별 경쟁력 제고	15,976	12,313	77.1
근본적 체질개선	13,254	14,131	106.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계기로 정부는 FTA 국내대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시장차별화와 식품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단계에 걸쳐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이력추적제'의 도입은 국내 축산물의 시장차별화와 수요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¹⁾
- 또한, 장기적인 산업발전을 목표로 정부의 투융자는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금융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R&D 투자 분야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우수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농어업 분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투융자 사업들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 이러한 중장기 파급효과는 충분한 실적과 관련된 통계가 누적된 이후에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도 예산사업들을 대상으로 정량화된 성과지표를 구축하고, 당해년도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11) 수입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추진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 12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유통단계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추진된 쇠고기이력추적제는 2009년 6월부터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전상곤 등(2010)은 “쇠고기 수요 환경 변화가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시행으로 소비자잉여는 4,921억 원 증가, 생산자잉여는 5,444억 원 증가하여 사회 전체 잉여가 1조 365억 원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음.

2.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개요

2.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의 세부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국내보완대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FTA 국내보완대책이 수립된 이후 2008년 이래로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FTA 국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국내대책에 포함된 농어업분야 186개 세부과제를 예산(재정)사업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류하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2012년도 기준).¹²⁾
- 그러나 FTA 국내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거나, 변화된 대내외 여건과 사업효과에 따라 신속적으로 세부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그동안 구축되지 못하였다.
 - 그동안 사업 시행을 「FTA 국내대책본부」가 주도하여 개별 사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던 까닭에, 성과보다는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관리된 경향이 있으며, 추진 상황 평가 역시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적인 성과 측정에 기초하는 등 성과평가와 성과관리가 객관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예산 사업의 경우, 성과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별로 독립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FTA 대책이 농어업 경쟁력 향상 및 체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여건이었다.
- 한·미 FTA 발효(2012.3.15)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에 대한 국회, 농업인 등의 관심이 높으며, 농업분야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예산조정을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FTA 특별법』을 개정하였다(2012.10.22).

12)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FTA 국내대책본부」는 산업자원통신부로 이관되었음.

- 『FTA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국내 대책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그리고 "FTA 사업 투융자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각각 국회 농식품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된 『FTA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국내대책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개발·측정, 사업수혜자 만족도조사, 성과평가 등을 수행한다.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2012년도 하반기부터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2013년 상반기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보완·수정·개선과 관련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식적인 정책건의의 형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적인 세부사업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 성과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2.2. 성과평가 범위 및 성과지표 개발

- 2012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80개 사업중 예산은 구분되어 집행되었으나, 동일한 사업으로 평가가 가능한 사업¹³⁾이 존재하며 2012년 예산은 책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사업¹⁴⁾들이 있다. 제외한 76개 사업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주요 정책목표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였다.
- FTA 국내보완대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품목별 경쟁력 제고, 근본적 체질개선, 직접 피해보전)로 분류될 수 있음(대분류)
 - 품목별 경쟁력 제고 39개 사업: 축산 27개 사업, 원예 12개 사업
 - 근본적 체질개선 37개 사업: 맞춤형농정 16개 사업, 신성장동력 21개 사업
 - 직접 피해보전의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가 있으나 2011년도 피해보전대책의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과지표는 개발되었으나 성과평가에서 제외하였다.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용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살처분보상금+시도가축방역사업 → 가축방역사업

14)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폐업지원제

그림 1-8. FTA 국내보완대책 품목별 경쟁력 제고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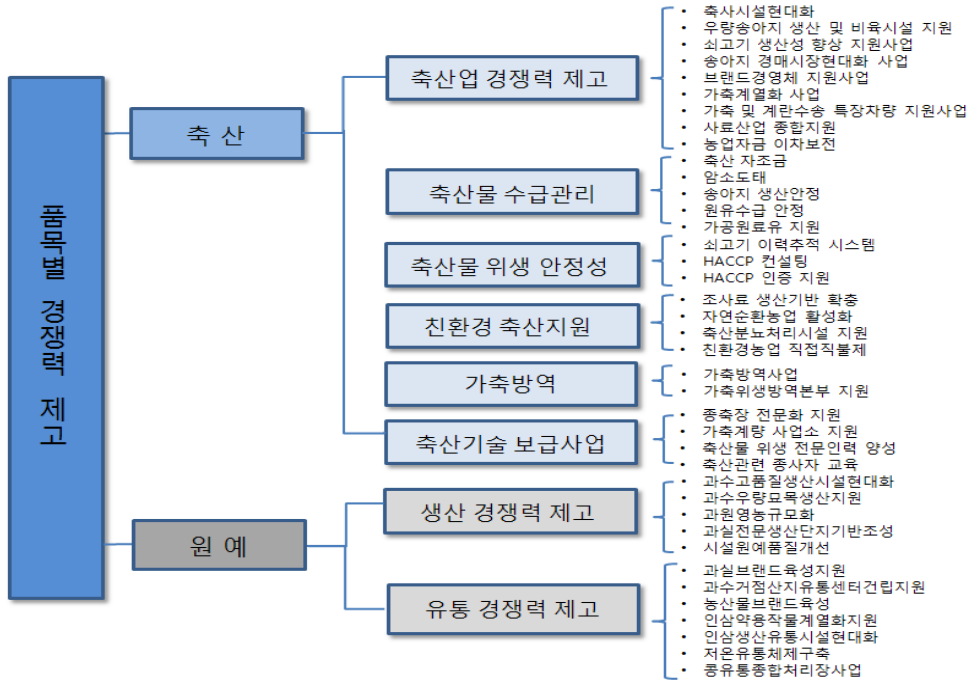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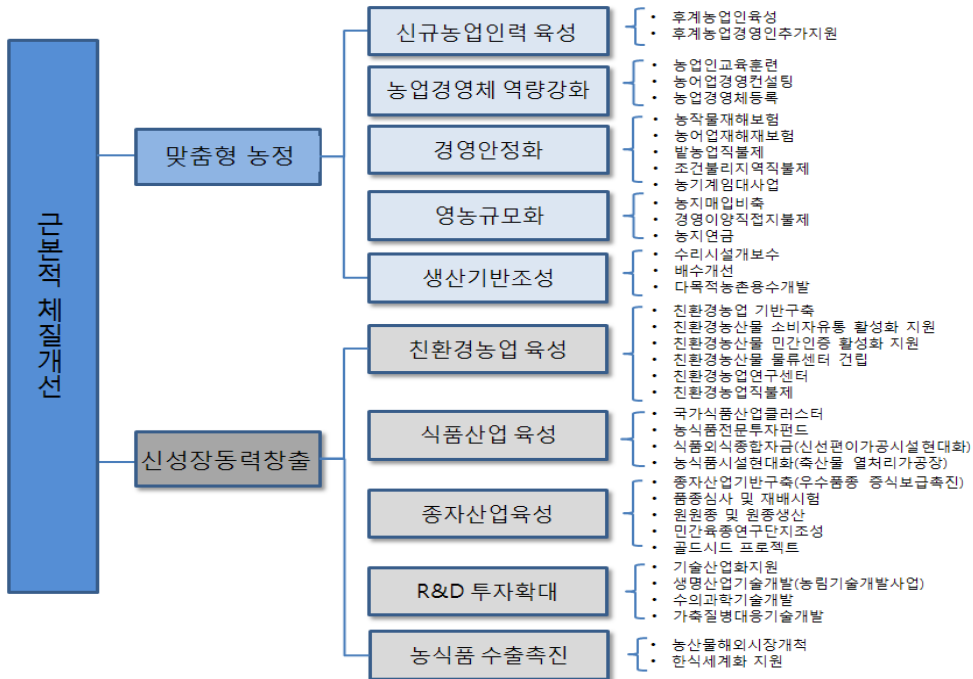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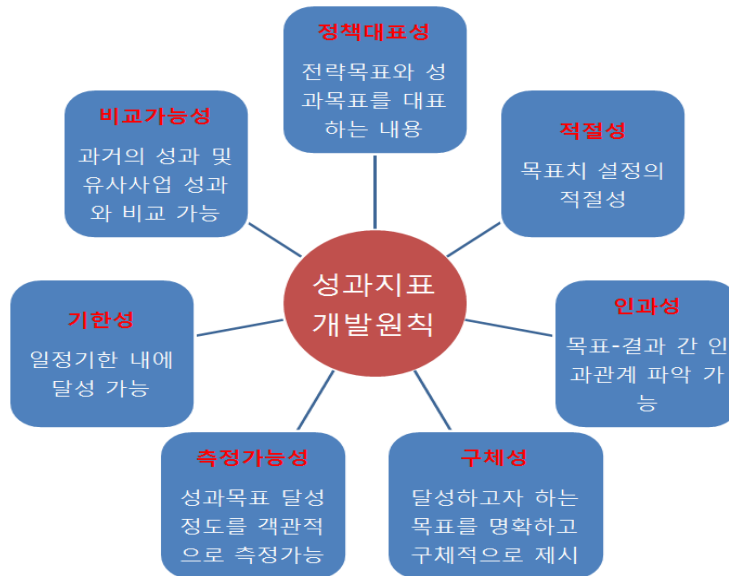
그림 1-9. FTA 국내보완대책 근본적 체질개선 유형화



- 본 보고서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세 가지 분야를 18가지 사업군으로 세분하였다(중분류).
 - 18개 사업군은 76개 세부사업으로 재분류하였다(그림 1-8~9 참조).

- 다양한 세부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와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목표(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분명한 위치 구분(구조화)과 상호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목표(전략목표)는 FTA 국내대책을 수립하게 된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큰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제시된 목표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다.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구성하는 하위목표로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단위의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이다.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양적, 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로 구체적인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지표(계량지표)와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정성지표(비계량지표)로 구성된다.

그림 1-10. 성과지표 개발원칙



자료: '성과지표개발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06) 내용 편집 사용

- 특히,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 줄 뿐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대상자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적절한 지표 선정이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정책대표성, 적절성, 인과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이 성과지표 개발시 고려된다(그림 1-10 참조).

-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세부사업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사업부서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고, 상기의 성과지표 개발원칙을 고려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조정하였다.

-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2012년 하반기(2012.9~12)에 상기의 76개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함께 18개 사업군에 대한 공통(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¹⁵⁾
 -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다수의 학계 전문가가 성과지표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다(위탁연구 수행, 자문의견 수렴, 최종결과 검토 등).
 - 또한, 해당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성과측정에 있어 정량적인 성과 외에도 정성적인 성과도 함께 계측될 수 있도록 농업인 설문조사, 사업수혜자 심층면담 등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고, 사업에 따라서는 주지표뿐만 아니라 활용가능한 보조지표도 추가적으로 검토·개발하였다.
 - 개발된 성과지표는 매년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선·보완될 예정이며, 「농업인등 지원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인 지표개발과 성과 측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표 1-3>은 2012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18개 사업군과 76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5) 8개 사업군 중에서 개별사업들의 성격이 상이하여 공통지표가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통지표를 개발하지 않았음.

표 1-3.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지표

사업군	세부사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축사시설현대화 (1) 축사시설 현대화	한 육 우	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한우 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조사
		양 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MSY,두/년)	도축두수/월평균 모돈두수
		양 계	일당증체량	일당증체 체중(g)/일
		낙 농	두당산유량 (ℓ /년)	총 원유 생산량/젖소 마리 수
	○ 축사시설현대화 (2)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한우 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조사	
	○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한우 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조사	
	○ 송아지경매 시장현대화사업	송아지 경매두수 비율(%)	(송아지 경매두수/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두수)×100	
	○ 축산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 (1) 브랜드경영체 지원 사업	한우 브랜드 유통비중(%)	(브랜드 경영체 출하두수/전국 등급 판정두수)×100	
		돼지 브랜드 유통비중(%)	(브랜드 경영체 출하두수/전국 등급 판정두수)×100	
	○ 축산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 (2) 가축계열화 사업	가축계열화율(%)	(양계 계열화 사업자 도축두수/양계 총 도축두수)×100	
		○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 사업	가축 수송 점유율(%)	(특장차량 수송물량/연간도축실적)×100
	계란 수송 점유율(%)		(특장차량 수송물량/연간 계란생산실적)×100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	사료가격 안정	월별 최고가격-최저가격	
		사료가격 안정화율(%)	(목표가격범위/(월별최고가격-최저가격))×100	
○ 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지원	거점도축장 도축점유율(%)	(거점도축장 도축두수/전체 도축두수)×100		
축산물 수급 관리	○ 축산 자조금 사업	만족도 조사	자조금 위원회 활동에 대한 생산자의 만족도 조사	
	○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사업	암소감축율(%)	(감축된 암소수/목표 감축대상 암소수)×100	
	○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가입율(%)	(계약 암소수/목표 감축대상 암소수)×100	
	○ 원유수급안정 지원 사업	낙농진흥회 원유잉여율 (%)	(원유잉여량/원유생산량)×100	
	○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가공원료유 지원율(%)	(가공원료유 지원물량/전체 잉여원유량)×100	
축산물 위생 안전성	○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사업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 증가율(%)	{(해당년도 조회건수-전년도 조회건수)/전년도 조회건수}×100	
	○ HACCP 컨설팅 사업	HACCP 지정건수(건)	HACCP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자료	
	○ HACCP 인증 지원사업	HACCP 인증농가(업체) 수	HACCP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자료	
친환경 축산 지원	○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	사료작물 재배면적 증가율 추이(%)	(비교년도 재배면적-기준연도 재배면적)/기준연도 재배면적×100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율(%)	(퇴액비 사용량/전체 가축분뇨 발생량)×100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축산분뇨 자원화율(%)	(자원화 물량/전체가축분뇨 발생량)×100	

사업군	세부사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유기, 무항생제)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 비중(%)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100
가축 방역	○ 가축방역사업 (살처분 보상금, 시도 가축방역)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율 (%)	{(최근 3년간 평균 발생건수-당해연도 발생건수)/ 최근 3년간 평균 발생건수}×100
	○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사업	구제역 검사물량 달성도(%)	(구제역 검사 달성도/연간 구제역 검사 계획물량)×100
축산 기술 보급 사업	○ 종축장 전문화 지원 사업	종돈 산자수	요크셔 산자기준
	○ 가축개량사업소 지원 사업	한우 1등급 출현율(%)	(1등급 이상 한우 두수/한우 등급 판정두수) ×100
		젖소산유량(kg/두/년)	검정참여농가의 검정우 1산차 연간 두당 산유량
	○ 축산물위생전문인력 양성사업	식육처리 교육이수자	식육처리교육이수자(농협중앙회)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교육이수자 수(명)	교육이수 농가 수	
생산 경쟁력 제고	공통지표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10a당 평균수량-기준연도(04) 10a당 평균수량)×100
	○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10a당 평균수량-기준연도(07) 10a당 평균수량)×100
	○ 과수우량묘목생산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	(자체보증 묘목 공급량/총 묘목 수요량)×100
		자체보증 묘목 생산율(%)	(자체보증 묘목 생산량/묘포장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총 묘목 생산량)×100
	○ 과원영농규모화	과수전업농 증가율(%)	(당해연도 과수전업농 수-기준연도(04) 과수전업농 수)/기준연도 과수전업농 수×100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10a당 평균수량-기준연도(07) 10a당 평균수량)×100
	○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사업추진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사업미추진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국내 고추자급률 목표달성도		국내 고추 생산량/고추 소비량	
유통 경쟁력 제고	공통지표	지원대상 조직 매출액 증가율 (%)	{(당해연도 매출액-기준연도 매출액)/기준연도 매출액}×100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고품질브랜드 과실생산량/과실생산량)×100
		계약(약정)출하비율(%)	(계약(약정)재배 매입금액/취급액)×100
	○ 과수거점산지유통 센터건립지원	거점APC매출액 성장률(%)	(당년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100
	○ 농산물브랜드육성	원예브랜드농산물 매출액 비율(%)	(브랜드 부여된 농산물 매출액/경영체 전체 매출액)×100
		발작물브랜드경영체생산량 목표달성도	Σ브랜드경영체 생산량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인삼이력관리 유통물량 비율(%)	당년도 안전성검사 실시물량/최근 3개년 평균 수삼 유통물량×100
		인삼계약재배비율(%)	(당년도 계약재배 이력관리 면적/최근 3개년 평균 신규재배면적)×100
	○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 수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 수
	○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유통물량 비중(%)	지원조직의 (채소·버섯류 저온유통물량/채소·버섯류 총 취급물량)×100

사업군	세부사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 공유통중합처리장 (시범사업)	지원대상조직 매출액 증가율 (%)	{(당해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X100
신규 농업 인력 육성	○ 공통지표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	{(선정 후계농업인 수-영농미종사자 수)/선정 후계농업인 수} X 100
	○ 후계농업인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증가율(%)	{(당해년 선정 후계농 수-최근 3년 평균 후계농 수) /최근 3년 평균 후계농 수} X100
	○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자 수	(선정자수(명))
농업 경영체 역량 강화	○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증가율(%)	{(교육 후 역량지수-교육 전 역량지수)/교육 전 역량지수} X100 *조사항목의 5점 척도 평균치
	○ 농어업경영컨설팅	컨설팅 전후의 소득증가율(%)	{(평가 연도 매출액-전년 매출액)/전년 매출액} X100 - 조사방법: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정책 활용도(%)	(해당연도 정책연계 농림사업수-전년도 정책연계사업수)/전년도 정책연계사업수 X100
경영 안정화	○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보험 가입률(%)	(보험가입면적/대상면적) X 100
	○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 재보험금 지급율 (%)	(재보험금지급액/재보험금 청구액) X 100
	○ 발농업직불제	주요 발작물의 경지면적 변화율(%) * 주요 발작물: 겉보리, 쌀 보리, 맥주보리, 밀, 콩	{(당해년도 경지면적-최근 5년간 평균 경지면적)/ 최근 5년간 평균 경지면적} X 100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정주농 비율 증가율(%)	해당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 *정주농 비율=(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 X 100
	○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비중 (%)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전체 농가 수) X 100
영농 규모화	○ 농지매입비축	'13년 이후: 농지매입비축 목표 면적 달성률(%) '12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당해연도 달성면적/당해연도 목표 면적) X 100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재배면적) X 100
	○ 경영이양직불제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률 (%)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 면적/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 면적) X 100
	○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율(%)	(가입자 수/목표농가 수) X 100
생산 기반 조성	○ 수리시설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율 (누계%)	(개보수 완료 개소수/개보수 대상 개소수) X 100
	○ 배수개선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 해소율(%)	{(최근 3개년 준공지구 총 수해면적-최근 3개년 배수개선사업완료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면적)/최근 3개년 준공지구 총 수해면적} X 100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수리안전담율(%)	(수리안전담 면적/전체 논면적) X 100
친환경 농업 육성	○ 공통지표	친환경 인증 목표 비중 달성률(%)	(당해 연도 친환경 인증 면적 비중/목표 친환경 인증 면적 비중) X 100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광역친환경농업단지내 친환경 인증면적(ha)	연도별 인증면적 추이
	○ 친환경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유기) 유통시장 규모 비중(%)	(친환경농산물 유통 규모액/전체 농산물 유통 규모액) X 100
	○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민간인증기관 점유율(%)	(민간 인증면적/전체 친환경인증면적) X 100
	○ 친환경농산물물류 센터 건립	물류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중(%)	(물류센터들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액/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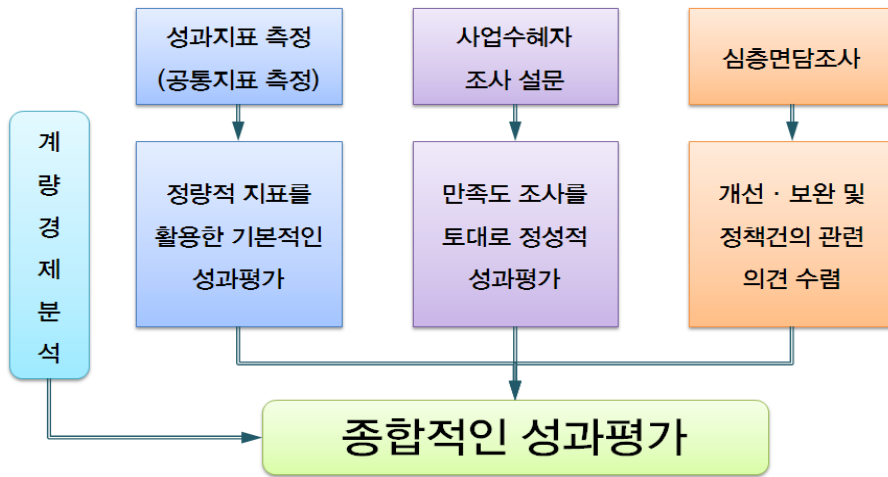
사업군	세부사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친환경인증 상승 농업인 비중 (%) 참여 전임연구인력 당 친환경 농업 연구개발 성과 증가율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누적 개수	(친환경인증 상승 농업인(또는 농가) 수/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교육 및 지도 수혜 대상 농업인(또는 농가 수))×100 * 친환경 인증 상승 농업인(또는 농가) 범위 - 무농약 이상 신규 인증 농업인(또는 농가) 수 - 인증 면적 증가 농업인(또는 농가) 수 - 인증 품목 수 증가 농업인(또는 농가) 수 - 인증단계 상승(저농약→무농약, 무농약→유기농) 농업인(또는 농가) 수 0.5(참여 전임연구인력(전임교수, 전담연구원) 당 최근 3년 대비 SCI급 논문개재 건수 증가율)+0.5(참여 전임연구인력(전임교수, 전담연구원) 당 최근 3년 대비 특허출원/등록 증가율) - [당년도 실적(논문개재 건수×당년도 Impact Factor)/최근 3년간 평균실적 -1]×100 - [당년도 실적(특허출원 및 등록건수)/최근 3년간 평균실적 -1]×100 연차별 목표 대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누적 개수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재배(인증)면적 비중(%)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전체 농산물 재배면적)×100
식품 산업 육성	공통지표	식품제조업체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	(국내산 원료 사용량/전체 원료 사용량)×100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MOU 체결 식품기업 및 연구소 수	MOU 체결 회사 및 연구소 수(개소수)
	○ 신선편이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수혜 업체수(누계)	신선편이 가공업체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수(누계)
	○ 축산물 열처리가 공장(전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열처리가공장 수(누계)	열처리가공장 수(누계)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식품기업 투자액	연도별 식품기업 및 식품산업 관련기업에 투자된 금액
종자 산업 육성	공통지표	국내 종자(품종) 보급률(%)	(국산종자 재배면적/전체 재배면적)×100
	○ 종자산업기반구축	주요 품목의 국산 품종 보급률(%) *딸기, 장미, 국화, 마늘 등	(국산품종 재배면적/전체 재배면적)×100
	○ 품종심사 및 재배 시험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실적(지수)	0.5×(신품종개발비 지원건수)+0.5×(해외출원비 지원 건수)
	○ 원원종 및 원종생산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량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원종·원종 소요량 × 1.5 *조사방법: 매년 1월조사, 지원사업 결과자료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단지내 입주업체의 품종보호 출원건수(매년 50건) *2015년 이후 측정가능	연도별 품종보호 건수 (대규모 업체 : 5건, 중규모 3건, 소규모 1건)
	○ 골든씨드 프로젝트	GSP 수입대체 품목종자에 대한 국내 보급률(%) *2013년 이후 측정 가능	(GSP 수입대체 품목종자 이용량/GSP 수입대체 품목 종자 전체 이용량)×100 *수입대체품목: 돼지, 닭,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김, 버섯
R&D 투자 확대	○ 농림바이오산업화 기술개발(2011년부터 사업명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변경)	①실용화성과 ②산업화성과 ③과학적성과 ④산업기반구축성과	① 실용화 성과=지식재산권[(특허출원건수×0.3)+(특허등록건수×0.7)] ② 산업화 성과=기술이전[(산업체기술이전 건수×0.4)+(농어업인기술이전건수×0.2)]+기술사업화 건수[(사업화건수×0.4)

사업군	세부사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③ 과학적 성과=논문(SCI급 논문건수×0.7)+(비SCI급 논문건수×0.3)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인력양성 건수×0.6)+(교육지도건수×0.4)]
	○ 생명산업기술개발	①실용화성과 ②산업화성과 ③과학적성과 ④산업기반구축성과	① 실용화 성과=지식재산권[(특허출원건수×0.3)+(특허등록건수×0.7)] ② 산업화 성과=기술이전[(산업체기술이전 건수×0.4)+(농어업인기술이전건수×0.2)]+기술사업화건수[(사업화건수×0.4)] ③ 과학적 성과=논문(SCI급 논문건수×0.7)+(비SCI급 논문건수×0.3)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인력양성 건수×0.6)+(교육지도건수×0.4)]
	○ 농림수산검역검사 기술개발 (구 수의과학기술개발)	$0.20 \times (\text{검역검사정책 제안지수}) + 0.20 \times (\text{검역검사가이드라인 개발지수}) + 0.15 \times (\text{검역검사기술의 관련산업 영향지수}) + 0.15 \times (\text{검역검사기술 국제화 지수}) + 0.15 \times (\text{검역검사기술 보급지수}) + 0.1 \times (\text{검역검사분야 지적재산권지수}) + 0.05 \times (\text{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지수})$	① 검역검사정책 제안지수= $0.4 \times (\text{법, 시행규칙 제개정}) + 0.35 \times (\text{훈령, 예규, 고시, 지침 제개정}) + 0.25 \times (\text{기타정책건의})$ ② 검역검사가이드라인 개발지수= $0.2 \times (\text{동·식물질병 표준검사법}) + 0.25 \times (\text{질병방제 표준기술}) + 0.2 \times (\text{독성·위해성 평가법}) + 0.25 \times (\text{축수산물중 유해물질 분석법}) + 0.1 \times (\text{기타})$ ③ 검역검사기술의 관련산업 영향지수= $[0.1 \times (\text{산업체 공동연구 건수}) + 0.9 \times (\text{통상실시권 계약건수})] / (\text{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10억원)})$ ④ 검역검사기술 국제화 지수= $[(0.6 \times \text{OIE 표준실험실 운영건수}) + 0.35 \times (\text{검역검사실험실 공식인증건수}) + 0.05 \times (\text{국제공동연구건수})] / [\text{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10억원)}]$ ⑤ 검역검사기술 보급지수= $(0.3 \times \text{기술잡지계재건수} + 0.5 \times \text{현장방문교육건수} + 0.2 \times \text{홍보책자 발간 건수}) / \text{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억원)}$ ⑥ 검역검사분야 지적재산권지수= $[0.4 \times \text{해외특허등록} + 0.3 \times \text{국내특허등록} + 0.2 \times \text{해외특허출원} + 0.1 \times \text{국내특허출원}] / [\text{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10억원)}]$ ⑦ 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지수= $[0.7 \times \sum (\text{SCI급 저널별 Impact Factor} \times \text{SCI급 저널별 논문건수}) + 0.3 \times \sum (\text{비SCI급 저널별 Impact Factor} \times \text{논문건수})] / \text{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억원)}$
	○ 가축질병대응 기술 개발(과학기술정책)	①실용화성과 ②산업화성과 ③과학적성과 ④산업기반구축성과	① 실용화 성과=지식재산권[(특허출원건수×0.3)+(특허등록건수×0.7)] ② 산업화 성과=기술이전[(산업체기술이전 건수×0.4)+(농어업인기술이전건수×0.2)]+기술사업화건수[(사업화건수×0.4)] ③ 과학적 성과=논문(SCI급 논문건수×0.7)+(비SCI급 논문건수×0.3)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인력양성 건수×0.6)+(교육지도건수×0.4)]
농식품 수출 촉진	○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수출전략품목의 수출액 증가율(%)	(당해년도 수치-전년도 수치)/전년도 수치×100
	○ 한식세계화지원	국내 외식(한식)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증감율(%)	(사업시행 이후 5개년 수치-사업이전 수치)/사업이전 수치×100

2.3. 성과계측과 성과평가 방법

- 2012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평가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1-11.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체계도



- 먼저 2012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76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계측하여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성과지표를 구성하는 통계자료 분석과 측정결과 해석).
- 정책목표별로 재분류된 18개 사업군에 대한 성과는 해당 사업군별로 개발된 공통지표에 대한 측정결과와 각 사업군에 포함된 개별 세부사업들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동향과 관련 품목의 국내외 시장수급 변화, 대내외 주요 경제 환경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 다음으로 농업인(사업수혜자)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기존 정량적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 방식과는 차별화된 성과평가를 추진하였다. 성과지표 측정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혜자의 애로사항이나 정책건의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였다.

- 주요 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성과지표 측정 외에도, 사업수혜자나 해당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만족도와 그 원인, 사업군 내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순위, 개선·보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였다.
 - 축산분야 경쟁력제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혜자 174농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농가(KREI 통신원) 116농가, 총 29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원예분야 경쟁력제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혜자 184농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농가(KREI 통신원) 174농가, 총 358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맞춤형농정 분야 세부사업들의 수혜농가 271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뿐만 아니라 지원규모나 시설규모가 큰 주요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기관과 사업수혜자(농가단위가 아닌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사업만족도와 그 원인, 개선·보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향후 개선과제'와 '농업인 정책건의 사항'으로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관련 심층면담 대상 사업(4개)
 - ※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개량
 - 원예분야 경쟁력제고 관련 심층면담 대상 사업(3개)
 -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농산물브랜드, 인삼약용작물계열화
 - 근본적 체질개선 관련 심층면담 대상 사업(3개)
 -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농업재해보험, 농지연금
- 또한, 다각적 측면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을 평가하기 위해 계량경제분석을 통한 성과계측도 실시하였다.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계측을 통해 2008년 이후 축산분야 품목별 경쟁력제고에 투입된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실적이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한우산업을 구조화한 균형대체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을 통해 축산분야 투융자 실적으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를 계측하였다.

- 또한,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활용해 과수분야 FTA 국내보완대책(기금사업) 대상 지역 농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농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계측하여 비교하고 FTA 투융자 지원이 과수농가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적용하여 계측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중차분모형(DID)을 이용하여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와 미가입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제2장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성과평가

제 2 장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성과평가

1. 종합평가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물 위생 안전성, 친환경 축산 지원, 가축방역, 축산기술 보급 등 6개 사업 분야에 2012년에 1조 3,97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실적 1조 170억 원).
- 2008년 전후의 한우산업 투융자 실적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FTA 투융자가 고려된 2008년 이후 한우 번식우의 생산성이 2008년 이전에 비해 5.45% 향상되고, 비육우는 8.48%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그러나, 한우부문의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투입재 비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수익/비용 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는 축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반면, 시장차별화를 위한 축산경영 종합자금지원사업은 축산물 브랜드 출하물량 증가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었다.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평가의 주요 지표인 한우 1등급 출현율과 모돈의 두당 출하 두수(MSY)는 2010년 말 구제역 발생과 공급과잉에 따른 도태물량 증가로 2012년 목표대비 실적 다소 미흡하다. 그러나 낙농의 두당 산유량과 양계의 일당 증체량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 2012년 모돈의 두당 출하두수(MSY)는 목표(17.3두) 대비 낮은 15.6두 수준이었으나, 2013년 2월 기준 모돈의 두당 출하두수(MSY)는 17.5두 달성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가 만족도 조사결과, 59.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환경 개선과 생산비절감, 품질향상을 만족 이유로 응답하였다.
- 축산경영종합자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브랜드경영체육성사업과 가축(양계) 계열화사업은 2012년 기준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또한, 사료가격안정사업도 국제곡물가격이 불안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사료 가격 변동 폭을 줄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
-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9개 세부사업)의 14개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은 5개, 미달은 4개로 계측되었다(성과목표가 없는 성과지표 5개 존재).
- 한우 1등급 출현율 지표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과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가축질병의 예방과 축사단위당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 관련정책 사업과의 연계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지적되었다.
-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사업과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의 연계를 통해 수송과 도축전 과정의 동물복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축산물 수급 관리

-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만족도는 높고, 원유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여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사육기반이 안정된 이후에는 가임암소수에 따른 체제로 개편(2012년)됨에 따라 수급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은 암소 비육기간을 고려하고 집중출하로 인한 수급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사업기간을 2013년 5월까지 연장하면서 2012년 목표 대비 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 사업은 2012년에 10만 두를 목표로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암소를 고기소로 출하하기 위해 필요한 비육기간, 연말 집중출하에 따른 가격 불안정 해소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013년 5월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이다.
-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률은 사육기반이 안정되면서 보전금 차등지급 체제로 개편(2012년)함에 따라 2008년 108%에서 2012년 66.4%로 하락하였으나, 수급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수급관리 차원에서 송아지에 대한 보전금의 차등지급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성과목표 설정의 변경이 필요하다.
 - 사육 마릿수(만 마리): 238('98) → 141('02) → 292('10) → 295('11) → 306('12)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률 = (계약 암소수 / 전년도 말 가임 암소수)×100
- 축산물 수급 관리 사업(5개 세부사업)의 5개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 2개, 미달 1개로 계측되었다.(성과목표가 없는 성과지표 2개 존재)
- 축산물수급관리는 생산과정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률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사업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 축산물 수급관리는 생산측면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축산물 위생 안전성

-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사업은 소비자의 이력정보 조회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HACCP 컨설팅 및 인증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의 참여는 확대 추세이다.
- 축산물 위생 안전성분야(3개 세부사업)는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3개의 지표 모두 성과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참여 추이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 1,679천건('09) → 12,910천건('12)

· HACCP 인증농가(업체)수: 273개소('08) → 4,059개소('12)

- 축산물 위생 안전성은 소비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해당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정착을 위해 단속업무 강화가 필요하다.
- HACCP 인증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친환경 축산 지원

-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 사업과 친환경 농업(축산분야) 직불제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율 상승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량 증가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목표설정으로 2012년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경우 2012년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2011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조사료 증산대책에 따라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성과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수혜농가 만족도 조사결과, 53.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비 절감과 생산량 증가를 만족이유로 응답하였다.
- 친환경축산 지원 분야(4개 세부사업)는 4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은 3개, 미달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율 지표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향후 자연순환농업 성과지표를 별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경종과 축산의 연계성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순환농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 지자체 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가축방역

- 구제역 발생으로 2011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실적이 미흡하였으나, 2012년에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구제역 검사물량 실적도 당초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2012년 가축방역사업과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사업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가축방역 분야는 2개 성과지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 효율적 가축방역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축사 내 밀집사육 제한 및 사육농가간의 일정거리 유지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축산기술 보급

-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제고를 위한 종축장 전문화지원사업과 가축개량사업소 지원사업은 종돈의 산자수 증가와 젖소 산유량 증가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축산관련종사자의 교육 이수자 수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축산기술 보급 사업은 전체적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축산기술보급 분야(4개 세부사업)의 5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성과목표가 없는 성과지표 2개 존재).
 - 당초 한우개량 성과지표는 비거세 18개월령 체중으로 설정되었으나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한우 1등급 출현율로 대체되었다. 한우 1등급 출현율 지표는 2012년 암소감축 정책으로 인해 한우개량의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1. 축산분야 품목별 경쟁력 제고 유형화 예산 및 실적 현황(2012년)

단위 : 억 원

구분	사업명	회계	예산	실적
총계			13,976	10,170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사시설현대화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포함)	FTA기금	2,760	1,754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응자)	농협자금	2,125	356
	쇠고기생산성향상	축발기금	25	9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축발기금	10	5
	축산경영종합자금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발기금	1,396	1,343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축발기금	16	11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축발기금	600	597
	가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지원	농특회계	1,500	557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자조금	축발기금	214	193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 (축산물수급안정의 내역, '12년 신규)	축발기금	300	300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축산물수급관리의 내역)	축발기금	63	426
	원유수급안정(학교급식, 원유수급조절)	축발기금	416	316
	원유수급안정(낙농체험관광)	축발기금	4	4
	가공원료유지원	FTA기금	72	10
축산물 위생 안정성	축산물이력제(육류이력추적시스템)	축발기금	165	165
	축산물HACCP 컨설팅	축발기금	26	26
	축산물HACCP인증지원(축산물HACCP 전담조직지원)	농특회계	72	71
친환경 축산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발기금	1,240	1,125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발기금	242	242
	축산분뇨처리시설	농특회계	708	656
	친환경농업직접지불(유기, 무항향제)	농특회계	70	70
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 시도가축방역	농특회계	1,151	1,306
	가축위생방역본부	축발기금	198	193
축산기술 보급사업	종축장전문화지원(종축시설현대화)	축발기금	247	136
	가축개량지원	축발기금	327	279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축발기금	7	7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특회계	22	13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2.1. 축산업 경쟁력 제고

2.1.1. 개괄

사업명		개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 목적	▪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 내용	▪ 축사시설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지정)
		지원 대상 및 자격	▪ 축종별 전업농 이상(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용자)과 이차 보전방식(용자) 대상으로 구분 ▪ 2011.12.31 이전에 축산업 등록된 축사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 시설 지원	사업 목적	▪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 비 절감
		지원 내용	▪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 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단(경영체)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760억 원 ▪ 실적 : 1,754억 원
이차보전 용자		▪ 예산 : 2,125억 원 ▪ 실적 : 356억 원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	
	지원내용	▪ 초음파 진단료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기초한우사업단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5억 원 ▪ 실적 : 9억 원	
송아지 경매 시장 현대화 사업	사업목적	▪ 우량송아지 공급시장을 활성화하여 한우 개량 촉진 및 고급육 생산 기반 마련	
	지원내용	▪ 경매시설, 전자경매시스템, 차량소독시설, 부대시설 등 비용에 대하여 용자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축협에 경매관련 시설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10억 원 ▪ 실적 : 5억 원 	
축산 경영 종합 자금	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 ▪ 브랜드육 판매확보 및 판로 확대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회원농가 생산 지원 ▪ 브랜드 경영체 운영 지원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 추진 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가축 계열화 사업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경영체 중심의 일괄경영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경영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계열화 사업자 및 계열화 참여 농가
		2012년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1,396억 원 ▪ 실적 : 1,343억 원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 차량 지원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체계 현대화를 통해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구입 및 특수 장비 설치비(냉난방 시설, 급수시설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돼지, 가금(닭, 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이용자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16억 원 ▪ 실적 : 11억 원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 품질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600억 원 ▪ 실적 : 597억 원 	

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지원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및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보안,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도축 가공 업체 지원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1,500억 원 ▪ 실적 : 557억 원

- 축산업 경쟁력 제고분야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쇠고기 생산성향상 지원 사업,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가축 및 수송차량 지원 사업,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축산물 도축 가공업체지원사업)이 포함되어있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쇠고기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송아지 경매장 지원사업은 사육 환경의 개선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 한우 1등급 출현율,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는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의 여파로 달성도가 100%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다시 예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 중에 있으며 낙농의 두당 산유량도 최근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 양계의 일당 증체량은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량송아지 공급시장을 육성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가축시장에서 경매로 거래되는 송아지 비율은 약 69% 수준이다.
- 축산경영종합자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브랜드경영체육성사업은 한우와 돼지 모두 2012년 기준으로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이고 양계의 계열화율도 전 기간에 걸쳐 100% 이상의 성과 달성도를 보였다.
- 가축 및 수송 특장차량의 지원을 통해 취급하고 있는 가축과 계란의 수송비율은 '12년 기준 5%의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실적자료가 6월 이후 가용한 상황이다.
- 사료산업종합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사료가격의 범위는 매년 100원/kg 이내이며, 2011년과 2012년 모두 성과목표 대비 100%의 성과 달성도를 보였다.

- 거점도축장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2012년부터로 2012년 기준 거점도축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축 도축두수점유율은 소의 경우 38.8%, 돼지의 경우 30.9% 수준이다.
- 이상의 사업들은 사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혜 농가의 만족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1.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공식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한 육 우	한우 1등급 출현율(%)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통계자료 활용
		양 돈	연간 모든 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당해연도 도축두수/전년도 말 모든 두수)
		육 계	일당증체량	일당증체 체중(g)/일
		낙 농	두당산유량 (l /년)	(총 원유 생산량/젖소 마리 수)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한우 1등급 출현율(%)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통계자료 활용	
최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한우 1등급 출현율(%)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통계자료 활용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송아지 경매두수 비율(%)	(송아지 경매두수/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두수)×100	
축산경영 종합자금 지원사업	브랜드 경영체 지원	한우브랜드 연간 출하물량(평균두수)	정부자금지원 한우 브랜드 경영체의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돼지브랜드 연간 출하 물량(평균두수)	정부자금지원 돼지 브랜드 경영체의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가축(양계) 계열화 사업	가축계열화율(%)	(양계 계열화 사업자 도축두수/양계 총 도축두수)×100	

가축 및 수송 특장차량 지원	가축 수송 점유율(%)	(특장차량 수송물량/연간도축실적)×100
	계란 수송 점유율(%)	(특장차량 수송물량/연간 계란생산실적)×100
사료산업종합지원	사료가격 안정	월별 최고가격-최저가격
축산물 도축 가공 업체 지원	거점도축장 도축점유율(%)	(거점도축장 도축두수/전체 도축두수)×100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한우 우	1등급 출현율(%)	목표	52	55	57	64	65
		실적	54.0	56.7	63.1	62.4	58.1
		달성률(%)	103.8	103.1	110.7	97.5	89.4
양돈	연간 모든 두당 출하 두수 (MSY, 두/년)	목표	14.0	15.0	16.0	16.5	17.3
		실적	14.4	15.2	15.1	14.5	15.6
		달성률(%)	102.9	101.3	94.4	87.9	90.2
양계	일당 증체량 (g/일)	목표	-	-	39.5	40	41.8
		실적	-	-	43.5	43.2	43.3
		달성률(%)	-	-	110.1	108.0	103.6
낙농	두당산유량 (ℓ/년)	목표	8,350	8,560	8,560	8,560	8,560
		실적	8,567	8,654	8,325	8,379	8,640
		달성률(%)	102.6	101.1	97.3	97.9	100.9
한우 1등급 출현율(%)	목표	52	55	57	64	65	
	실적	54.0	56.7	63.1	62.4	58.1	
	달성률(%)	103.8	103.1	110.7	97.5	89.4	
송아지 경매두수 비율(%)	목표	-	-	-	신규지표	-	
	실적	-	-	-	-	69	
	달성률(%)	-	-	-	-	-	
한우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두)	목표	-	-	-	2,428	2,481	
	실적	-	-	-	2,517	3,176	
	달성률(%)	-	-	-	103.7	128.0	

돼지브랜드 연간 출하 물량 (두)	목표	-	-	-	85,236	87,685
	실적	-	-	-	75,611	103,039
	달성률(%)	-	-	-	88.7	117.5
가축(양계) 계열화율 (%)	목표	74	75	80	85	85
	실적	85	85	85	94	6월 이후
	달성률(%)	114.9	113.3	106.3	110.6	-
가축 수송 점유율(%)	목표	-	-	-	신규지표	5
	실적	-	-	-	-	6월 이후
	달성률(%)	-	-	-	-	-
계란 수송 점유율(%)	목표	-	-	-	신규지표	5
	실적	-	-	-	-	6월 이후
	달성률(%)	-	-	-	-	-
사료가격 안정 (원/kg)	목표	-	-	-	100원 이내	100원 이내
	실적	-	-	-	78	20
	달성률(%)	-	-	-	100	100
거점도축장 도축 점유율 (%)	목표					-
	실적				신규지표	6.9
	달성률(%)					-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한우 1등급 출현율	○	○	○	X	X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	○	X	X	X
	일당증체량	-	-	○	○	○
	두당산유량	X	X	X	X	○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한우 1등급 출현율	○	○	○	X	X
쇠고기 생산성향상 지원 사업	한우 1등급 출현율	○	○	○	X	X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송아지 경매두수 비율	-	-	-	-	-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한우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	-	-	○	○
	돼지 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	-	-	X	○
가축계열화사업	가축 계열화율	○	○	○	○	-
가축 및 수송 특장차량 지원	가축수송 점유율	-	-	-	-	-
	계란수송 점유율	-	-	-	-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료가격 안정	-	-	-	○	○
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지원	거점도축장 도축점유율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축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평가〉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10	4		5	4

단위: 개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1.3. 성과분석

- 주요 축종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는 사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의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우 1등급 출현율은 2010년까지는 성과목표 대비 100%의 달성도를 보였으나 2010년 말 구제역 발생이후 각각 97.5%와 89.4%의 성과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 한우 1등급 출현율 : 54.0%('08) → 63.1%('10) → 58.1%('12)
 - 달성도 : 103.8%('08) → 110.7%('10) → 89.4%('12)
 - 모든의 두당 출하마리수는 2010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FMD)의 여파로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이후 평년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의 여파로 당초 설정했던 목표수준에는 미달하였다.

- 모든 두당 출하마리수 : 14.4두('08) → 15.1두('10) → 15.6두('12)
 - 달성도 : 102.9%('08) → 94.4%('10) → 90.2%('12)
 - 양계의 일당 증체량은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달성도를 보였다.
 - 양계 일당 증체량 : 43.5g('10) → 43.2g('11) → 43.3g('12)
 - 달성도 : 110.1%('10) → 108.0%('11) → 103.6%('12)
 - 낙농 두당 산유량은 2011년까지는 성과목표 대비 약 98% 수준의 달성도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104.0%의 달성도를 보였다.
 - 낙농 두당 산유량 : 8,567 l ('08) → 8,325 l ('10) → 8,640 l ('12)
 - 달성도 : 102.6%('08) → 97.3%('10) → 100.9%('12)
-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경매되는 송아지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두수 대비 '12년 기준 약 69% 수준이다.
- 경매두수 184천두('12)/가축시장 거래 송아지 두수 266천두('12)
- 한우 브랜드 출하물량은 '11년과 '12년 모두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돼지 브랜드 유통물량은 '11년 88.7%, '12년 117.5%의 성과를 보였다.
- 브랜드 유통물량 한우 3,176두('12), 돼지 103,039두('12)
 - 달성도 한우 128.0%('12), 돼지 117.5%('12)
- 가축(양계)의 계열화율은 전 기간에 걸쳐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 가축(양계) 계열화율 85%('08) → 85%('10) → 94%('11)
 - 달성도 114.9%('09) → 106.3%('10) → 110.6%('11)
- 가축 및 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은 한·미 FTA 발효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발효가 지연되면서 2012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성과지표인 가축수송점유율과 계란수송점유율의 달성목표가 각각 5%로 설정되었으나 6월 이후에 자료산출이 가능하다.
- 사료가격의 목표범위는 매년 100원/kg 이며, 2011년과 2012년에 사료가격은 각각 78원/kg과 20원/kg으로 목표 범위 내에 형성되었다.(달성률 100%).

- 사료가격 범위 : 78원/kg('11) → 20원('12)
- 달성도 : 100%('11) → 100%('12)

○ 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지원사업은 2010년에 계획이 수립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신규사업인 관계로 2013년부터 성과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해당사업의 성과지표는 거점도축장의 도축점유율로 2012년에 소는 38.8%, 돼지는 3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1.4. 개선과제

- 가축사육 및 유통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경쟁력제고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타 분야의 사업들과 밀접하게 융합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가축질병의 발생, 사료비의 상승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 확산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위당 사육규모축소 및 축사간의 거리 제한 등 제도적·교육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의 지원은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혐오감을 감소시키고 위생적인 수송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으며 품질유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 나아가, 수송 후 도축장이나 선별장에서 대기 시간이 증가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의 이동과정에서도 동물복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2.2. 축산물 수급관리

2.2.1. 개괄

사업명		개요
축산 자조금 사업	사업목적	▪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지원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지원 대상 및 자격	▪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14억 원 ▪ 실적 : 193억 원
암소 도태 사업	사업목적	▪ 한우사육두수 연착륙을 유도하여 적정두수 유지 ▪ 유전적 문제가 있는 암소를 감축하고 한우 전체 유전능력 제고
	지원내용	▪ 미경산우 두당 50만원 지원 ▪ 경산우 두 당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경산우, 미경산우, 사육농가 이모색, 흑비경 발현우와 2등급 이하 거세수소 생산암소 60개월령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300억 원 ▪ 실적 : 300억 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사업목적	▪ 번식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 유도
	지원내용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관리수수료
	지원 대상 및 자격	▪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가입 농가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63억 원 ▪ 실적 : 426억 원
원유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우유 수급안정 및 국내 낙농 생산기반유지
	지원내용	▪ 계약물량을 초과한 잉여원유 처리에 소요되는 차액 보전
	지원 대상 및 자격	▪ 점유 일원화 권역 내 낙농가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416억 원(학교급식, 원유수급조절), 4억 원(낙농체험관광) ▪ 실적 : 316억 원(학교급식, 원유수급조절), 4억 원(낙농체험관광)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일정량의 국산원유를 유가공 원료유로 지원함으로써 FTA에 따른 피해 완화 ▪ 계절적 수급불균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의 활용도를 높여 국산 유제품의 자급률 도모
	지원내용	▪ 가공원료유 매입 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 보조
	지원 대상 및 자격	▪ 가공원유 생산 희망자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72억 원 ▪ 실적 : 10억 원

- 축산물 수급관리 분야는 축산자조금사업, 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 가공원료유지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참여농가의 만족도는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였다.
- 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은 2012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암소의 비육기간 고려, 연말 집중출하에 따른 가격불안정 예방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013년 5월말까지 연장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2012년에 암소감축률은 목표 대비 65%의 달성도를 보였다. 나머지 35%는 2013년에 시행되고 있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구제역의 여파로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가 2010년과 2011년에 약 9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에는 보전금의 차등지급에 따라 성과목표의 설정이 어려워 성과목표가 제시되지 못했다.
- 낙농진흥회 원유잉여율은 구제역의 여파로 잉여원유가 감소함에 따라 성과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2011년의 경우 구제역의 여파로 인해 잉여물량이 감소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으며, 2012년에도 물량이 부족하여 약 1천 톤 정도만 시행하였다.
- 축산물수급관리는 생산과정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달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2.2.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공식
축산 자조금 사업	만족도 조사	자조금 위원회 활동에 대한 생산자의 만족도 조사
암소감축장려금지원 사업	암소감축율(%)	(감축된 암소수/목표 감축대상 암소수)×100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가입율(%)	(계약 암소수/전년도 말 가임 암소수)×100
원유수급안정지원 사업	낙농진흥회 원유잉여율(%)	(원유잉여량/원유생산량)×100
가공원료유지원사업	가공원료유 지원율(%)	(가공원료유 지원물량/전체 잉여원유량)×100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축산 자조금 만족도 조사 (%)	목표	-	-	-	신규지표	65.0
	실적	-	-	-	-	66.9
	달성률(%)	-	-	-	-	102.9
암소 감축율 (%)	목표	-	-	-	신규지표	100.0
	실적	-	-	-	-	65.0
	달성률(%)	-	-	-	-	65.0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가입율 (%)	목표	93.3	90.0	90.0	90.0	-
	실적	108.5	104.4	92.8	88.9	66.4
	달성률(%)	116.3	116.0	103.1	98.8	-
낙농진흥회 원유 잉여율 (%)	목표	16.3	18.0	17.5	11.6	6.0
	실적	14.4	11.8	7.9	0	0.8
	달성률(%)	113.2	152.5	221.5	-	750.0
가공원료유 지원율(%)	목표	-	-	-	-	-
	실적	-	-	-	신규지표	-
	달성률(%)	-	-	-	-	-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축산 자조금 사업	만족도 조사	-	-	-	-	○
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	암소 감축율	-	-	-	-	X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가입율	○	○	○	X	-
원유수급 안정지원	낙농진흥회 원유잉여율	○	◎	◎	○	◎
가공원료유 지원	가공원료유 지원율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축산물 수급관리 성과평가〉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2	3	1

단위: 개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2.3. 성과분석

- 축산자조금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2년 신규지표로 성과목표 대비 102.9%의 성과를 보였다.
 - 만족도 조사결과 66.9점('12)
 - 달성도 102.9%('12)

- 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은 2012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이 미완료(성과목표 대비 65% 수준 달성)되어 2013년에 미완료 분에 한해 추진되고 있다.
 - 암소감축률 : 65.0%('12) → 잔여분 35.0%('13년에 추진 중)
 - 달성도 : 65.0%('12)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대한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90% 수준을 보였고 2012년에는 보전금의 차등지급방침에 따라 한우농가의 가입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 가입율 : 108.5%('08) → 92.8%('10) → 66.4%('12)
 - 달성도 : 116.3%('08) → 103.1%('10)

-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율은 2010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의 여파로 잉여원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성과목표를 크게 상회하였다.
 - 원유잉여율 : 14.4%('08) → 7.9%('10) → 0.8%('12)
 - 달성도 : 113.2%('08) → 221.5%('10) → 750.0%('12)

-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2011년에 신규로 도입되었으나 구제역의 여파로 잉여원유량이 부족하여 2011년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2012년에도 잉여량이 많지 않아 약 1천 톤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2.2.4. 개선과제

- 축산물수급관리는 생산과정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달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생산 측면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2.3. 축산물 위생 안전성

2.3.1. 개괄

사업명		개요
최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사업	사업목적	▪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방역 등의 효율성을 도모,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지원내용	▪ 귀표부착비, 이력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국내 소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165억 원 ▪ 실적 : 165억 원
HACCP 컨설팅 사업	사업목적	▪ HACCP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지원내용	▪ 소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 농가, 젖소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 농가 ▪ 닭 사육농가 : 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인 33.0㎡ 이상인 업소
	지원 대상 및 자격	▪ 축산농가와 축산물 작업장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 및 영업자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6억 원 ▪ 실적 : 26억 원
HACCP 인증 지원사업	사업목적	▪ 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업무 효율성 향상 ▪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향상 ▪ 국민의 보건 증진
	지원내용	▪ 운영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HACCP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72억 원 ▪ 실적 : 71억 원

○ 축산물 위생 안전성 분야 사업은 최고기 이력추적시스템사업, HACCP 컨설팅 사업, HACCP인증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관리하여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쇠고기의 이력 정보조회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HACCP 지정건수와 HACCP 인증농가(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축산물 위생 안전성 분야는 소비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단속업무의 강화가 중시된다.

2.3.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공식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사업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천건)	해당연도 조회건수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컨설팅 사업	HACCP 지정건수(건)	HACCP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자료
HACCP인증 지원 사업	HACCP 인증농가(업체) 수	HACCP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자료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천건)	목표	-	-	-	-	-
	실적	-	1,679	7,205	7,751	12,910
	달성률(%)	-	-	-	-	-
HACCP 지정 건수(건)	목표	-	-	-	-	-
	실적	474	747	1,254	1,362	1,525
	달성률(%)	-	-	-	-	-
HACCP 인증농가 (업체)수	목표	-	-	-	-	-
	실적	273	771	1,682	2,641	4,059
	달성률(%)	-	-	-	-	-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최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사업	최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 (천건)	-	-	-	-	-
HACCP 컨설팅 사업	HACCP 지정건수(건)	-	-	-	-	-
HACCP 인증지원 사업	HACCP 인증농가 (업체) 수	-	-	-	-	-

〈2012년 축산물 위생 안전성 성과평가〉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3		-	-	-

단위: 개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3.3. 성과분석

-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사업의 성과지표인 쇠고기 이력정보조회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력정보 조회건수 : 1,679천 건('09) → 7,205천 건('10) → 12,910천 건('12)

- HACCP 컨설팅 사업의 성과지표인 HACCP 지정건수는 대상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지정건수 : 474개소('08) → 1,254개소('10) → 1,525개소('12)

- HACCP 인증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HACCP 인증 농가(업체)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인증농가(업체)수 : 273개소('08) → 1,682개소('10) → 4,059개소('12)

2.3.4. 개선과제

- 쇠고기 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HACCP 컨설팅지원 및 인증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업무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4 친환경 축산

2.4.1. 개괄

사업명		개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부존자원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 조사료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 제조, 이용하는 농가경영체, 생산자단체, 섬유질가공공장(TMR, TMF) ▪ 축산업 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및 지역 농·축협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1,240억 원 ▪ 실적 : 1,125억 원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및 알선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지원(출하선급금, 농산물 매취자금, 원재료 구입비, 외상미수금, 임대료,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교육·홍보비)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242억 원 ▪ 실적 : 242억 원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시설(퇴·액비화 시설) ▪ 공동자원화시설 ▪ 정착촌 구조 개선 ▪ 액비저장조시설 ▪ 액비유통센터(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장비구입비용지원(액비 성분분석기, 부속도 판정기)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전문유통업체 등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708억 원 ▪ 실적 : 656억 원
친환경농 업 직접 지불제 사업 (유기, 무항 생제)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소득유지 등을 통해 추구 ▪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70억 원 ▪ 실적 : 70억 원

- 친환경축산지원분야 사업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축산 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0년과 조사료 증산대책에 따라 성과목표를 의욕적으로 설정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는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조사료 재배면적도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축산분뇨를 생산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의 축산분뇨 자원화율은 전 기간에 걸쳐 100%이상의 성과달성도를 보였으며 자원화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비중도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웰빙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지원과 함께 친환경축산에 대한 교육사업도 강화되어야 한다.

2.4.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공식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작물 재배면적 증가율 추이(%)	{(비교년도 재배면적-기준연도 재배면적)/기준연도 재배면적}×10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율(%)	(퇴액비 사용량/전체 가축분뇨 발생량)×100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	축산분뇨 자원화율(%)	(자원화 물량/전체 가축분뇨 발생량)×10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유기,무항생제)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 비중(%)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100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사료작물 재배면적 증가율 추이(%)	목표	16.5	42.7	61.6	54.9	101.2
	실적	17.7	47.0	48.8	58.5	63.4
	달성률(%)	107.4	110.0	79.2	106.7	62.7
축산분뇨 자원화율(%)	목표	84	85	86.0	87.5	88.5
	실적	84.3	85.6	86.6	87.6	88.7
	달성률(%)	100.4	100.7	100.7	100.2	100.2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 비중(%)	목표	0.4	4.0	10.0	11.0	12.0
	실적	3.6	6.0	10.0	12.9	13.3
	달성률(%)	900.0	150.0	100.0	117.3	110.8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료작물 재배면적 증가율추이(%)	○	○	X	○	X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율(%)	○	○	○	○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산분뇨 자원화율(%)	○	○	○	○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 무항생제)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비중(%)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친환경 축산지원 성과평가〉

단위: 개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4			3	1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4.3. 성과분석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성과지표인 조사료 재배면적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조사료 증산대책에 따라 2012년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실적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료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재배면적 증가율 추이 : 17.7%('08) → 48.8%('10) → 63.4%('12)
- 달성도 : 107.4%('09) → 79.2%('10) → 62.7%('12)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축산분뇨 자원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였다. 자원화 물량도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축산분뇨자원화율 : 84.3%('08) → 86.6%('10) → 88.7%('12)
- 달성도 : 100.4%('08) → 100.7%('10) → 100.2%('12)

- 친환경농업(축산) 직접지불제 사업의 성과지표인 친환경축산물의 생산비중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목표 대비 115.3%~117.3%의 안정적인 달성도를 나타냈다.
 - 친환경 축산물 생산비중 : 3.6%('08) → 10.0%('10) → 13.3%('12)
 - 달성도 : 900.0%('08) → 100.0%('10) → 110.8%('12)

2.4.4. 개선과제

- 현재 조사료 유통센터의 가동률이 높지 않다. 조사료 유통센터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료 재배면적의 확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작부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 수확능률의 향상을 위한 중대형 농기계의 보급 등을 고려하는 한편, 조사료 재배면적에 대한 성과목표를 보다 현실성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퇴액비 살포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검정 등 기술적·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고, 살포인력의 상시적 활용을 위한 사업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퇴액비의 부숙문제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환경보전 등의 효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보조 및 용자의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5. 가축방역

2.5.1. 개괄

사업명		개요
가축 방역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 및 오염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긴급방역재,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 구제 약품구입비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사업비, 예방접종 시술비 및 소 부루셀라병 채혈비 시험소 방역장비 구입비 및 방역보조원 인건비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 장려금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 및 대한수의사회 등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400억 원(살처분보상금), 751억 원(시도가축방역) 실적 : 350억 원(살처분보상금), 956억 원(시도가축방역)
가축 위생 방역 본부 지원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체계로 전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본부 운영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위생방역본부, 8도본부, 40출장소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98억 원 실적 : 193억 원

- 가축방역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 2010년 말 구제역 발생으로 2011년 주요 가축의 전염병 발생 감소율 실적이 크게 미흡하였으나, 가축 예방접종 및 방역 강화를 통해 2012년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율이 크게 향상되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
- 구제역 검사물량도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과거(2008~200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과실적도 각각 목표를 달성하였다.
- 가축 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축산농가에게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적 예방노력이 강조된다.

2.5.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공식
가축방역 사업 (살처분 보상금, 시도가축방역)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율(%)	{(최근 3년간 평균 발생건수-당해연도 발생건수)/최근 3년간 평균 발생건수}×100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사업	구제역검사물량 달성도 (%)	(구제역 검사 달성도/연간 구제역 검사 계획물량)×100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율(%)	목표	3.0	31.0	29.5	35.0	32.0
	실적	43.0	31.0	29.5	19.3	33.5
	달성률(%)	-	100.0	100.0	55.1	104.7
구제역 검사물량 달성도(%)	목표(건)	9,572	9,850	9,532	60,500	67,500
	실적(건)	9,770	10,175	15,819	85,222	71,192
	달성률(%)	102.1	103.3	166.0	140.9	105.5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가축방역사업 (살처분 보상금, 시도 가축방역)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율(%)	-	○	○	X	○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사업	구제역 검사물량 달성도 (%)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가축방역 성과평가〉

단위: 개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2	-		2	

-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5.3. 성과분석

- 가축방역 사업의 성과지표인 주요 가축의 전염병 발생 감소율은 구제역 발생연도인 2011년을 제외하고는 가축 전염병 발생건수가 감소하여 성과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에는 구제역의 여파로 성과달성도가 55.1%에 머물렀다.
 -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율 : 31.0%('09) → 19.3%('11) → 33.5%('12)
 - 달성도 : 100.0%('08) → 55.1%('11) → 104.7%('12)

-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구제역 검사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성과 달성도는 10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66.0%와 140.9%의 성과달성도를 보였다.
 - 구제역 검사물량 : 9,770건('08) → 15,819건('10) → 71,192건('12)
 - 달성도 : 102.1%('08) → 166.0%('10) → 105.5%('12)

2.5.4. 개선과제

-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질병 예방노력과 함께 밀집사육제한 및 사육농가간의 일정거리유지 등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가축방역지원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2.6. 축산 기술보급

2.6.1. 개괄

사업명		개요
종축장 전문화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를 유도, 가축 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
	지원내용	▪ 시설개선 사업비(축사 및 내부시설, 정액제조실 등) ▪ 운영자금(종축구입비, 청정화 소요비용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 종축업 및 정액 등 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 된 농가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47억 원 ▪ 실적 : 136억 원
가축 개량 사업소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우량정액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순종개량방법에 의한 소 능력향 상, 우량 소 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
	지원내용	▪ 혈통 번식 이동관리 및 발육조사 등 농가사례비와 조합관리비 지 원 ▪ 검정비(젖소에 대한 생산, 혈통관리,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우유성분분석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가, 도 가축개량기관(축산기술센터), 지역축협(생축장), 낙협(검 정소)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327억 원 ▪ 실적 : 279억 원
축산물 위생 전문 인력 양성	사업목적	▪ 축산물 위생검사 전문 인력 양성 및 식육처리와 가공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한 국내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지원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협중앙회 축산물 위생교육원(축산물 소비자 및 영업자)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7억 원 ▪ 실적 : 7억 원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사업	사업목적	▪ 가축방역, 질병, 사업평가반, 사양 등 교육을 통해 축산에 대한 경영 능력 향상
	지원내용	▪ 교육비(강사수당, 인쇄비, 농장사용료, 현장지도비, 차량임대료, 사 무 다과비 등) ▪ 교육운영비 ▪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자체, 대학, 연수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등 축산관련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2억 원 ▪ 실적 : 13억 원

- 축산기술보급 관련 사업은 종축장 전문화지원사업, 가축개량사업소 지원사업, 축산물 위생전문인력양성 사업(식육교육센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을 포함한다.
- 종축장 전문화지원사업은 종돈 산자수 증가로 성과목표가 100% 수준에서 달성되었으며, 생산성의 향상이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우 1등급 출현율은 가축개량사업소 지원사업은 젖소 두당 산유량 증가로 낙농부문에서의 성과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구제역과 암소도태물량증가로 한우부문에서의 성과는 다소 미흡하였다.
- 식육처리 교육이수자수는 2011년도 구제역의 여파로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경험하였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수자수는 2012년 성과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2.6.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공식
종축장 전문화 지원 사업	종돈 산자수	요크셔 산자기준
가축개량사업소 지원 사업	한우 1등급 출현율(%)	(1등급 이상 한우 두수/한우 등급 판정두수) × 100
	젖소산유량 (kg/두/년)	검정참여농가의 검정우 1산차 연간 두당 산유량
축산물위생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식육교육센터)	식육처리 교육이수자	식육처리교육이수자(농협중앙회)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교육이수자수(명)	교육이수 농가수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종돈 산자수 (두)	목표	10.8	10.9	10.9	11.0	11.0
	실적	10.8	10.9	11.0	11.6	11.2
	달성률(%)	100.0	100.0	100.9	105.5	101.8
한우 1등급 출현율(%)	목표	52	55	57	64	65
	실적	54.0	56.7	63.1	62.4	58.1
	달성률(%)	103.8	103.1	110.7	97.5	89.4
젖소 산유량 (kg/두/년)	목표	8,390	8,600	8,600	8,623	8,623
	실적	8,553	8,567	8,584	8,601	8,802
	달성률(%)	101.9	99.6	99.8	99.7	102.1
식육처리 교육 이수자(명)	목표	-	-	-	-	-
	실적	477	750	838	726	1,010
	달성률(%)	-	-	-	-	-
교육 이수자수 (명)	목표	-	-	-	-	21,000
	실적	-	-	-	-	35,000
	달성률(%)	-	-	-	-	175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종축장 전문화 지원	종돈 산자수	○	○	○	○	○
가축개량 사업소 지원	한우 1등급 출현율(%)	○	○	○	X	X
	젖소 산유량 (kg/두/년)	○	X	X	X	○
축산물위생 전문인력 양성 (식육교육센터)	식육처리 교육이수자수 (명)	-	-	-	-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교육이수자수 (명)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기술보급사업 성과평가〉

단위: 개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3	1	1	2	-

-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6.3. 성과분석

- 종축장 전문화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종돈의 산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 기간을 통해 성과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 종돈산자수 : 10,8두('08) → 11,0두('10) → 11,2두('12)
 - 달성도 : 100.0%('08) → 100.9%('10) → 101.8%('12)

- 한우 및 젓소를 개량하기 위한 가축개량사업소지원사업은 한우의 품질향상과 젓소의 산유량 증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우 1등급 출현율은 구제역의 발생 이전에는 100%이상의 성과가 달성되었으나 구제역의 여파와 암소감축사업으로 2012년에는 89.4% 수준의 달성도를 보였다.
 - 한우 1등급 출현율 : 54.0%('08) → 63.1%('10) → 58.1%('12)
 - 달성도 : 103.8%('08) → 110.7%('10) → 89.4%('12)
 - 젓소 검정참여농가의 검정우 1산차 연간 두당 산유량은 전 기간에 걸쳐 성과목표 대비 100% 수준에 가까운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 산유량 : 8,553kg('08) → 8,584kg('10) → 8,802kg('12)
 - 달성도 : 101.9%('08) → 99.8%('10) → 102.1%('12)

- 축산물위생 전문인력양성 사업(식육교육센터)의 성과지표인 식육처리 교육이수자수는 구제역의 여파가 있던 '1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교육이수실적 : 477명('08) → 838명('10) → 1,010명('12)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수실적은 2012년 신규지표이며, 목표 대비 175%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업실적이 발생한 만큼 향후 좀 더 도전적인 성과목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2.6.4. 개선과제

-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가축 개량은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며,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가축개량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의 개선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정책 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3.1. 정책 수혜자 설문조사

3.1.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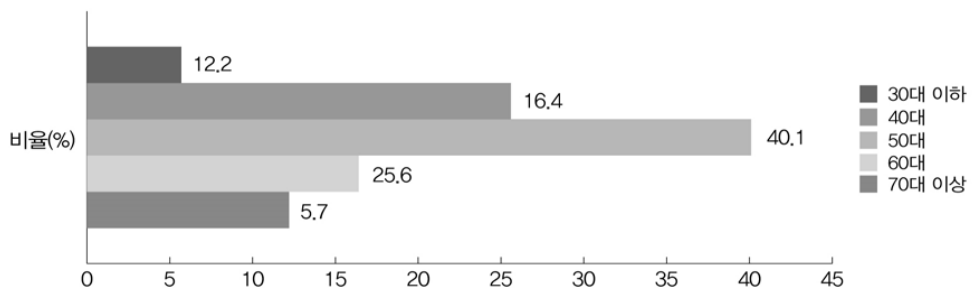
가. 조사개요

- 설문조사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기타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에는 지원받은 사업의 만족 및 불만족 요인과 FTA시행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만족도와 견해 등이 포함되었으며, 통계 분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축산분야 경쟁력제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혜자 174농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 농가(KREI 통신원) 116농가, 총 29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응답자 현황

-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대는 평균 54세이며, 30대 이하가 12.2%, 40대가 16.4%, 50대가 40.1%, 60대가 25.6%, 70대 이상이 5.7%로 나타나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2-1. 축산분야 응답자 연령



- 50대 이하의 농가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들을 지원 받은 축산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영농경력은 평균 23년으로 10년 미만이 15.5%, 10년~19년이 17.3%, 20년~29년이 24.4%, 30년~39년이 29.2%, 40년 이상이 11.1%으로 나타나, 20년에서 39년 사이의 경력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2-2. 축산분야 응답자 영농경력

구 분	10년 미만	10년 ~19년	20년 ~29년	30년 ~39년	40년 이상	미기재	합 계
비율(%)	15.5	17.3	24.4	29.2	11.1	2.5	100

- 학력은 중졸 이하가 22.4%, 고졸이 40.2%, 대졸이 35.2%, 대학원 졸업이 2.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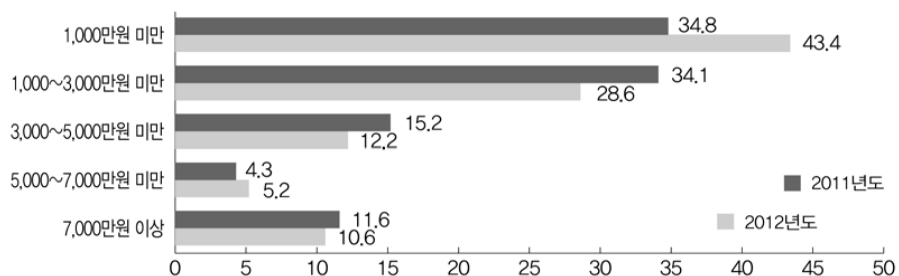
표 2-3. 축산분야 응답자 학력

구 분	비율(%)
중학교 졸업 이하	22.4
고등학교 졸업	40.2
대학교 졸업	35.2
대학원 졸업 이상	2.2
합계	100.0

주:결측값(미기재자)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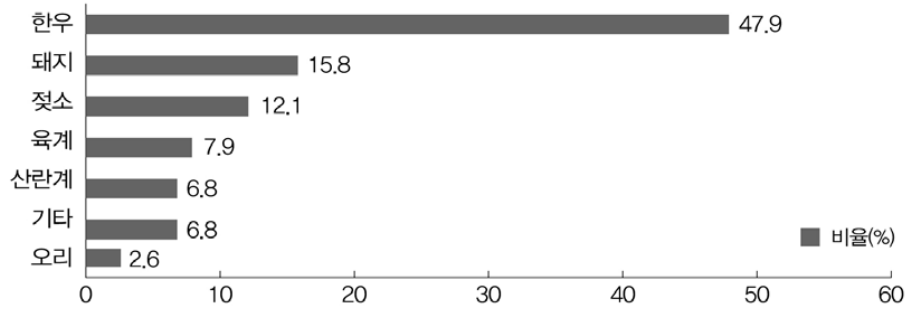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2011년도 평균 수익은 3,232만원이며, 3,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다. 2012년도의 평균수익은 2,607만원이었으며, 3,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 축산분야 응답자 축산물 판매수익



- 축종별 응답 농가 수는 한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돼지, 젓소, 육계, 산란계, 기타(양봉, 사슴 등), 오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축산분야 축종별 응답 농가 수



- 응답자들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생산량은 2011년 한우가 평균 35두, 돼지는 3,315두, 육계는 71만 4,559두, 산란계 285만 9,143알, 오리 7만 두, 원유 2만 1,510kg, 기타는 29만 5,020드림이었다. 2012년에는 한우가 평균 35두, 돼지는 3,427두, 육계는 61만 3,325두, 산란계는 1,36만 9,250알, 오리는 6만 4,333두, 원유는 34,872kg, 기타 347,161드림이었다. 돼지와 젓소, 기타 품목은 2012년에 사육두수 및 생산량이 증가된 반면, 육계와 산란계, 오리는 2012년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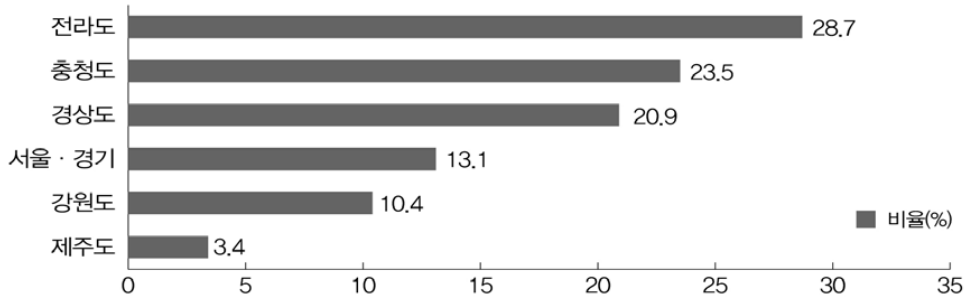
표 2-4. 축산분야 응답자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생산량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한우 (두)	35	35
돼지 (두)	3,315	3,427
육계 (두)	714,559	613,325
산란계 (알)	2,859,143	1,369,250
오리 (두)	70,000	64,333
원유 (kg)	21,510	34,872
기타 (드림)	295,020	348,161

* 결측값(미기재자)은 제외함

-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은 전라도가 가장 많았고, 충청도, 경상도, 서울·경기, 강원도, 제주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축산분야 응답자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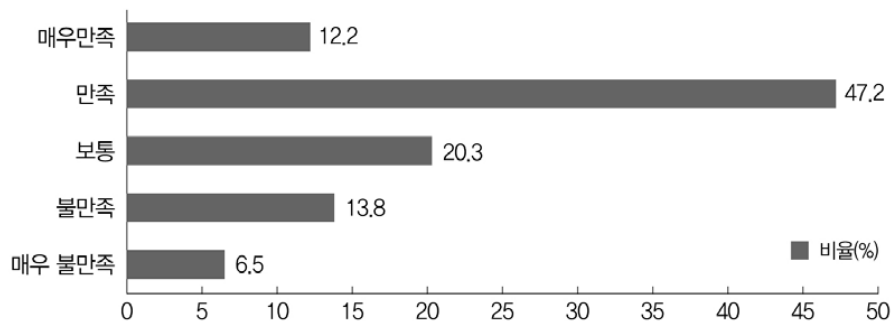


3.1.2. 지원사업별 만족도

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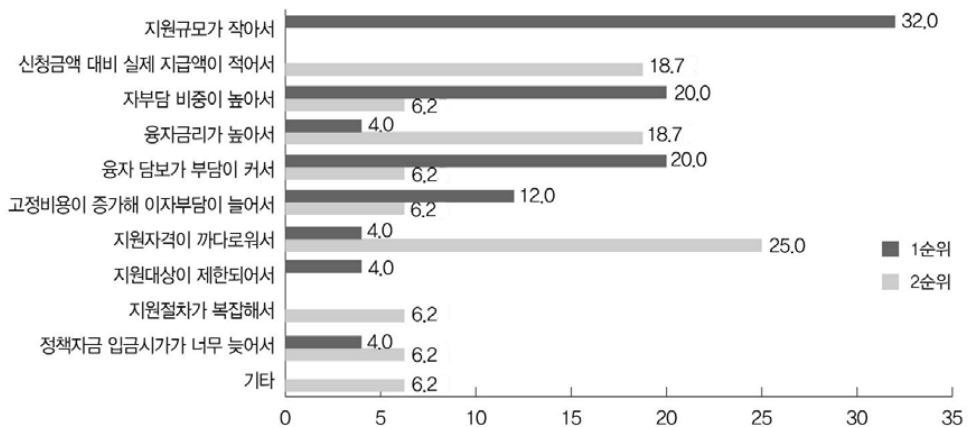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는 124명의 응답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만족'하는 응답자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20.3%, '불만족' 13.8%, '매우 만족' 12.2%, '매우 불만족' 6.5%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중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1순위는 '지원규모가 작아서'가 32%로 조사되었고, '자부담 비중이 높아서'가 2위로 20%가 응답했으며, '고정비용이 증가해 이자부담이 늘어서'가 12%, 그 외에도 '융자금리가 높아서', '지원자격이 까다로워서', '지원대상이 제한되어서', '정책자금 입금시기가 너무 늦어서'가 각각 4%씩으로 조사되었다.
- 2순위 중 가장 응답자가 많은 답변은 '지원자격이 까다로워서'가 26%이며, '신청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적어서'가 19%, '자부담 비중이 높아서'와 '융자담보가 부담이 커서', '고정비용이 증가해 이자부담이 늘어서', '지원절차가 복잡해서', '정책자금 입금시기가 너무 늦어서', '기타'가 각각 6%씩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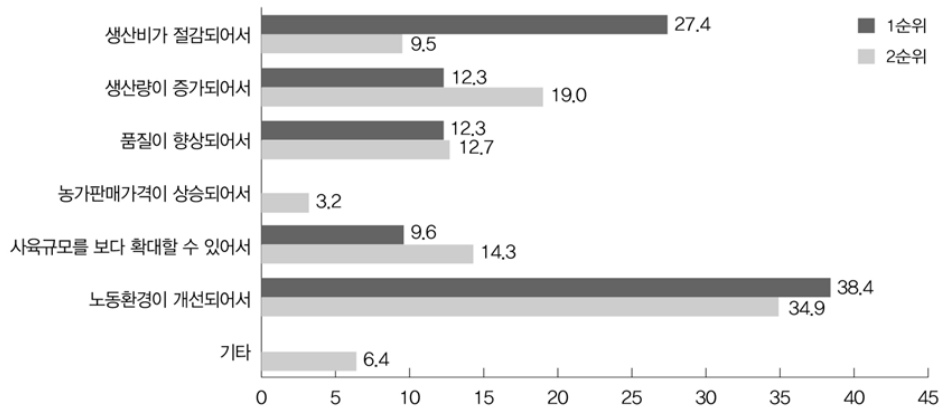
그림 2-6.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만족하는 응답자는 총 73명으로 만족하는 이유는 1순위 기준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38.4%, '생산비가 절감되어서' 27.4%,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12.3%, '품질이 향상되어서' 12.3%, '사육규모를 보다 확대할 수 있어서'가 9.6%로 나타났다.
- 2순위 기준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 34.9%,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19.0%, '사육규모를 보다 확대할 수 있어서' 14.3%, '품질이 향상되어서' 12.7%, '생산비가 절감되어서' 9.5%, '기타' 6.4%, '농가판매가격이 상승되어서'가 3.2%로 나타났다.

- 1순위와 2순위 검토 결과 노동환경 개선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외에도 생산량 증가와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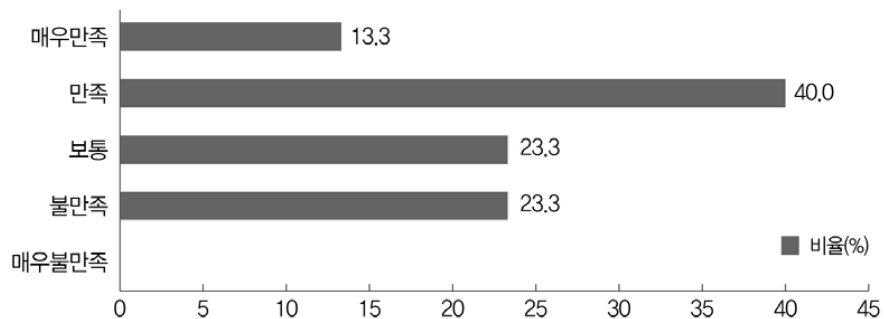
그림 2-7.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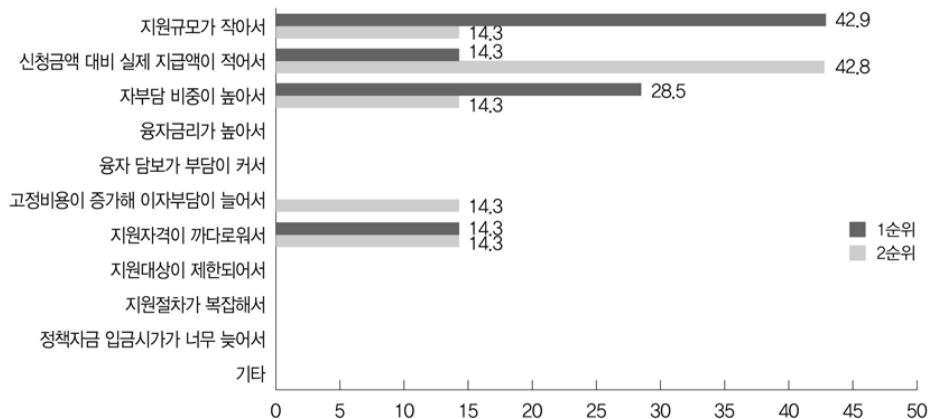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원 받은 응답자는 33명이었으며, 미기재자 3명을 제외한 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만족'이 40%, '불만족' 23.3%, '보통' 23.3%, '매우만족' 13.3%로 나타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7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만족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불만족이라고 답한 이유 중 이유 중 1순위는 '지원 규모가 작아서' 42.9%, '자부담 비중이 높아서' 28.5%, '신청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적어서'가 14.3%, '지원자격이 까다로워서'도 14.3%로 나타났다.
- 2순위는 '신청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적어서' 42.8%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지원규모가 작아서', '자부담 비중이 높아서', '고정비용이 증가해 이자부담이 늘어서', '지원자격이 까다로워서'가 각각 14.3%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들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지원 규모와 실제 지급액 수준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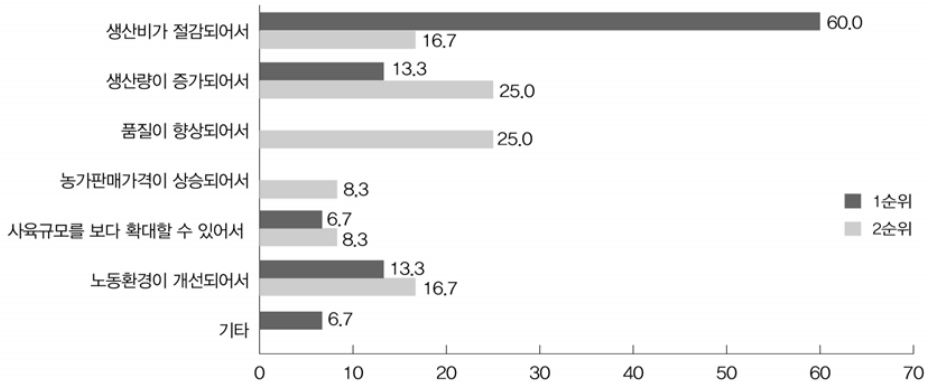
그림 2-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16명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순위 기준으로 '생산비가 절감되어서'가 60.0%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이 증가되어서'와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각각 13.3%, '사육규모를 보다 확대할 수 있어서'와 '기타'가 각각 6.7%로 나타났다.
- 2순위 기준으로 '생산량이 증가되어서'와 '품질이 향상되어서'가 각각 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생산비가 절감되어서',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16.7%씩, 그 다음으로 '농가판매가격이 상승되어서'와 '사육규모를 보다 확대할 수 있어서'가 8.3%씩 응답하였다.

- 응답자들은 생산비 절감에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생산량 증가와 품질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있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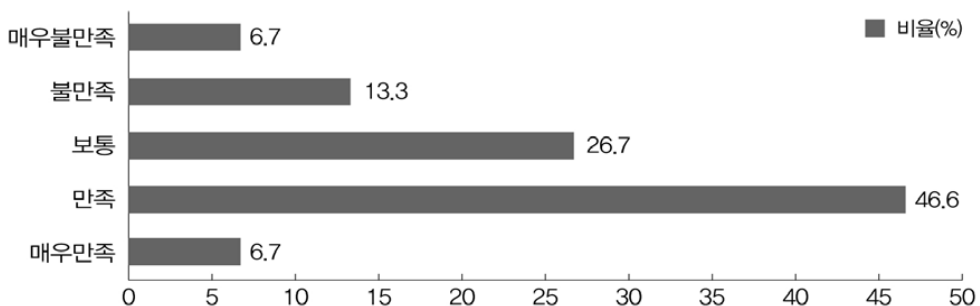


다. 기타 사업

- 기타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가축개량,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의미한다. 지원받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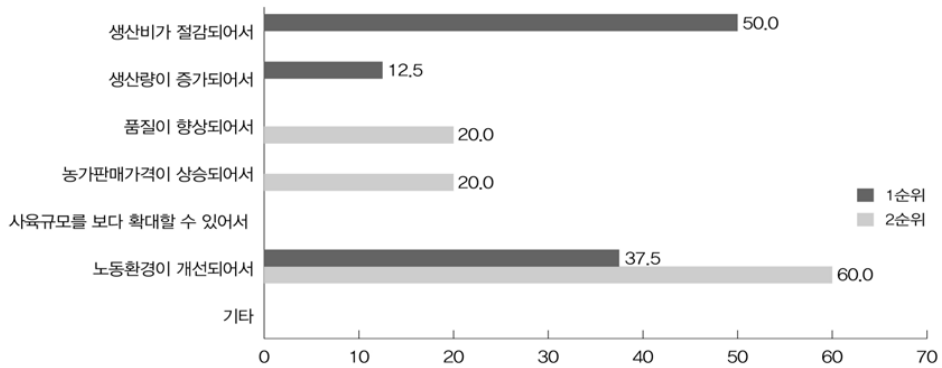
- 기타 사업에 총 15명이 응답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이 46.6%, '보통'이 26.7%, '불만족'이 13.3%, '매우 불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6.7%로 나타났다.

그림 2-11. 기타 사업 만족도



- 기타 사업에 만족한 응답자는 총 8명이며, 만족이유는 1순위 기준으로 '생산비가 절감되어서' 50%,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37.5%,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12.5%로 조사되었다.
- 2순위 기준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60.0%, '품질이 향상되어서'와 '농가판매가격이 상승되어서'가 각각 20%로 나타났다.
- 기타 사업 지원에 만족한 농가들의 주요 이유가 생산비 절감과 노동환경 개선 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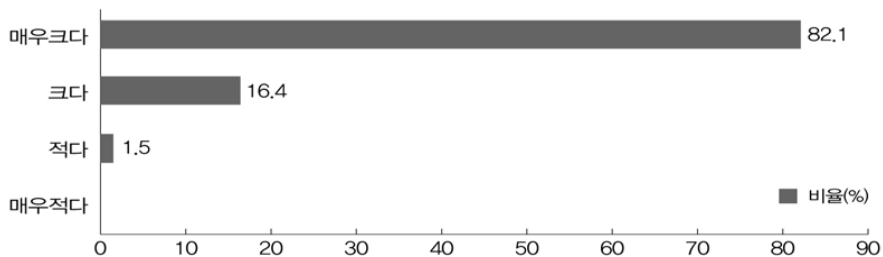
그림 2-12. 기타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3.1.3.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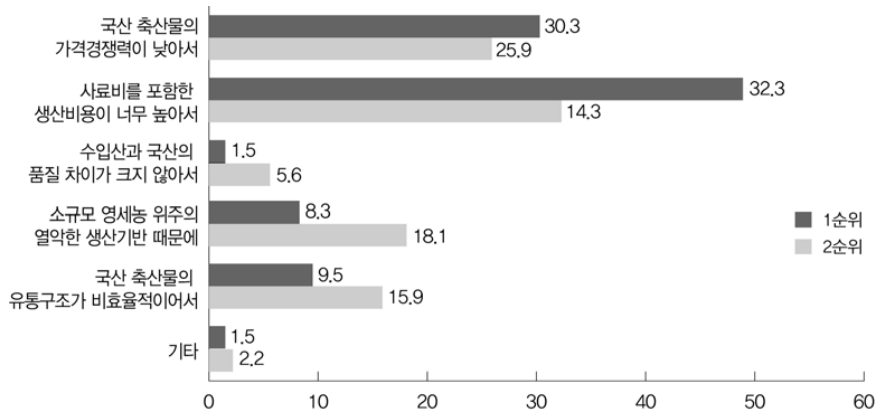
- FTA로 인해 축산 부문의 수입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가 82.1%, '크다'가 16.4%, '적다'가 1.5%, '매우 적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FTA가 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2-13.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원받는 사업별로 견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매우 크다'와 '크다'로 대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이유는 1순위 기준으로 '사료비를 포함한 생산비용이 너무 높아서'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서'가 30.3%, '국산 축산물의 유통구조가 비효율적이어서' 9.5%, '소규모 영세농 위주의 열악한 생산기반 때문에' 8.3%, '수입산과 국산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서'가 1.5%로 나타났다.
- 2순위도 1순위와 비슷하게 나타나 응답자들은 높은 생산비용과 국산 축산물의 낮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FTA 수입개방의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14.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축산분야)



- 지원사업 별로 응답자의 FTA수입개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교차분석 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6) FTA가 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원사업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p-value=0.209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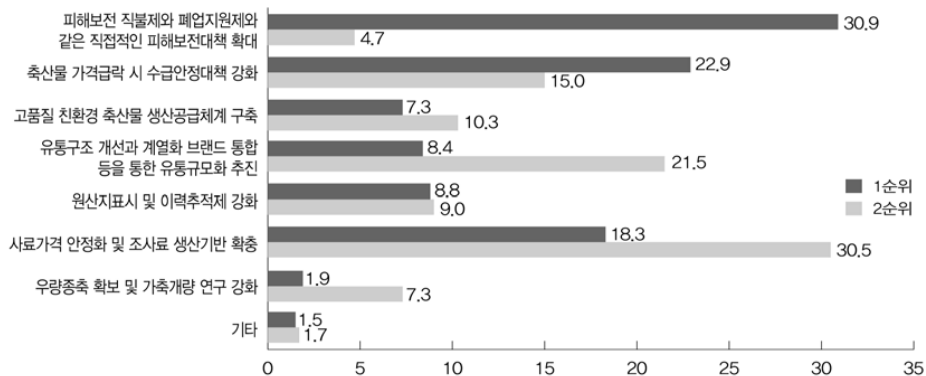
17) 사업 별 응답자가 FTA 수입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1순위에 의견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따라서 교차 분석 결과 p-value=0.562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 별 응답자들이 FTA 수입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2순위에 의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결과 p-value=0.697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3.1.4.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축산부문의 대책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1순위 기준으로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 지원제 같은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책의 확대'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축산물 가격급락 시 수급안정대책 강화' 22.9%, '사료가격 안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8.3%,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제 강화' 8.8%, '유통구조 개선과 계열화, 브랜드 통합 등을 통한 유통규모화 추진'이 8.4%,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은 7.3%, '우량종축 확보 및 가축개량 연구 강화'가 1.9%,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
- 2순위 기준으로 '사료가격안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30.5%, '유통구조 개선과 계열화, 브랜드 통합 등을 통한 유통규모화 추진'이 21.5%, '축산물 가격급락 시 수급안정대책 강화' 15%,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은 10.3%,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제 강화' 9%, '우량종축 확보 및 가축개량 연구 강화'가 7.3%,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 지원제 같은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책의 확대'가 4.7%, '기타' 1.7%순으로 조사되었다.
- 분석결과 FTA로 인한 대책수립 시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책 확대와 사료가격 안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축산분야)



- 지원사업과 FTA 대책 수립이 상호 영향이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2순위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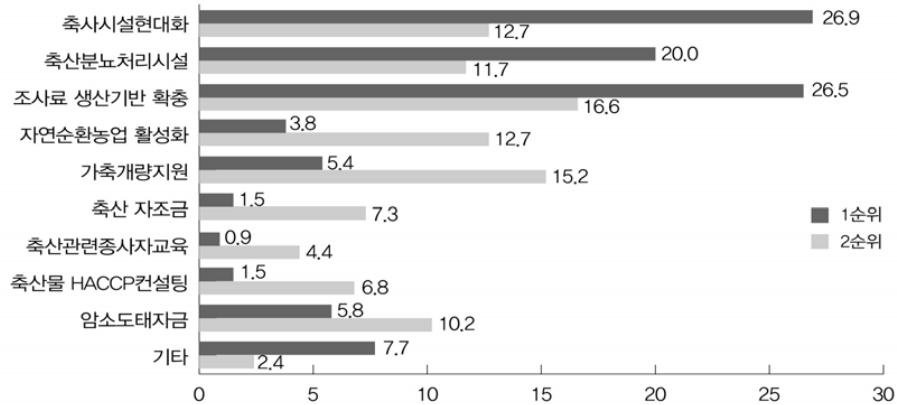
3.1.5.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

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소득증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사업은 1순위 기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6.5%, '축산분뇨처리시설' 20%, '기타 사업' 7.7%,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 5.8%, '가축개량지원' 5.4%,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지원' 3.8%, '축산 자조금'과 '축산물 HACCP컨설팅'이 각 1.5%,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 0.9%로 나타났다.
- 2순위 기준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16.6%, '가축개량지원' 15.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지원'이 각 12.7%, '축산분뇨처리시설' 11.7%, '한우함수감축장려금 지원' 10.2%, '축산 자조금'이 7.3%, '축산물 HACCP컨설팅'이 6.8%,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 4.4%, '기타 사업'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소득증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일정 부분 설문조사에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의 참여비율이 높았다는 점도 있겠지만, 그 만큼 두 사업이 생산비 절감이나 근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지원받는 사업에 따라 FTA 대책수립 시 고려사항 1순위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 결과 p-value=0.46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별로 구분한 응답자 간에 FTA 대책수립 시 고려사항 2순위의 의견차이가 존재하는지 교차분석 결과 p-value=0.526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6. FTA보완대책 중 소득증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축산분야)



- FTA 지원대책 중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 상호간(1순위 기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소득증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16.2%) 외에 '축산분뇨처리시설'(10.4%)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원받는 축산농가들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7.3%) 외에 '축사시설현대화'(2.3%)와 '축산분뇨처리시설'(1.5%) 및 '한우암소감축장려금'(0.8%)이 도움 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축산농가들은 '축산분뇨처리시설'(1.2%), '조사료생산기반확충'(1.2%), '자연순환농업활성화'(1.2%) 등이 도움 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받지 않는 농가들 역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10.8%)과 '축사시설현대화'(7.7%) 및 '축산분뇨처리시설'(6.9%), '한우암소감축장려금'(3.8%)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들의 의견 차이는 대부분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 두 사업 외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19) 지원사업 별 응답자가 정부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간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교차분석 한 결과 p-value=0.003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FTA 보완대책 중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구 분	축사시설 현대화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타(%)	지원받는 사업 없음(%)	합계(%)
축사시설현대화	16.2	2.3	0.8	7.7	26.9
축산분뇨처리시설	10.4	1.5	1.2	6.9	2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7.3	7.3	1.2	10.8	26.5
자연순환농업활성화	1.5	0	1.2	1.2	3.8
가축개량지원	2.7	0	0.4	2.3	5.4
축산 자조금	1.2	0	0	0.4	1.5
축산관련종사자교육	0.4	0	0	0.4	0.8
축산물HACCP컨설팅	0.8	0	0	0.8	1.5
한우암소감축장려금	1.2	0.8	0	3.8	5.8
기 타	4.6	0.8	0.4	1.9	7.7
합 계	46.2	12.7	5	36.2	100

*결측값(미기재자)은 제외함

- FTA 지원대책 중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 2순위의 상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표 2-6. FTA 보완대책 중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2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구 분	축사시설 현대화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타(%)	지원받는 사업 없음(%)	합계(%)
축사시설현대화	5.9	1.5	0	5.4	12.7
축산분뇨처리시설	8.8	1.0	0.5	1.5	11.7
조사료생산기반확충	5.4	2.9	1.0	7.3	16.6
자연순환농업활성화	6.8	0.5	1.0	4.4	12.7
가축개량지원	5.4	2.4	1.0	6.3	15.1
축산 자조금	3.4	0	0	3.9	7.3
축산관련종사자교육	1.5	1.0	0.5	1.5	4.4
축산물HACCP컨설팅	4.4	1.5	0	1.0	6.8
한우암소감축장려금	1.0	2.0	0.5	6.8	10.2
기 타	1.5	0.5	0	0.5	2.4
합 계	43.9	13.2	4.4	38.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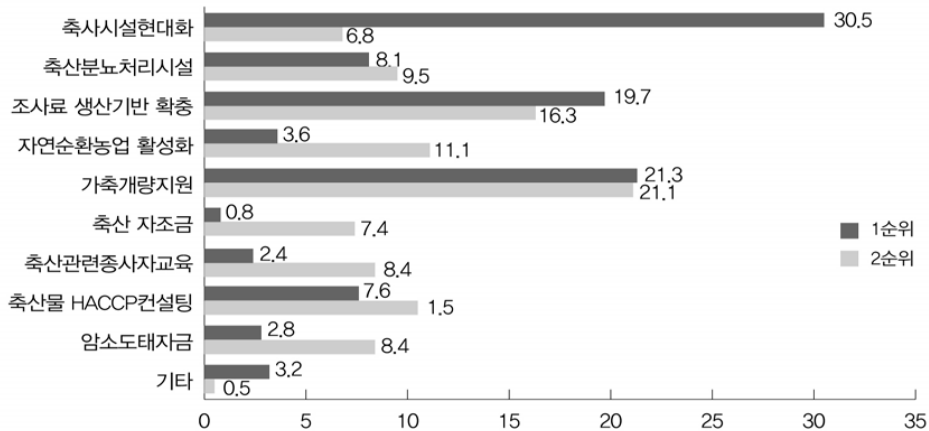
* 결측값(미기재자)은 제외함

20) FTA 정부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2순위에서 응답자 간 의견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p-value=0.06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 품질향상(판매단가 상승, 부가가치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사업 중 1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30.5%으로 가장 많았고, '가축개량지원'이 21.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9.7%, '축산분뇨처리시설' 8.0%, '축산물 HACCP 컨설팅' 7.6%, '자연순환 농업활성화'가 3.6%, '기타 사업' 3.2%, '한우암소감축장려금' 2.8%, '축산관련종사자교육' 2.4%, '축산 자조금'이 0.8% 순으로 나타났다.
- 2순위 기준으로 '가축개량지원'이 21.1%로 가장 높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16.3%,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11.1%, '축산물 HACCP컨설팅' 10.5%, '축산분뇨처리시설' 9.5%, '축산관련종사자교육'과 '한우암소감축장려금'이 각 8.4%, '축산자조금' 7.4%, '축사시설현대화' 6.8%, '기타' 0.5%로 나타났다.
- 품질이 향상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외에도 가축개량 사업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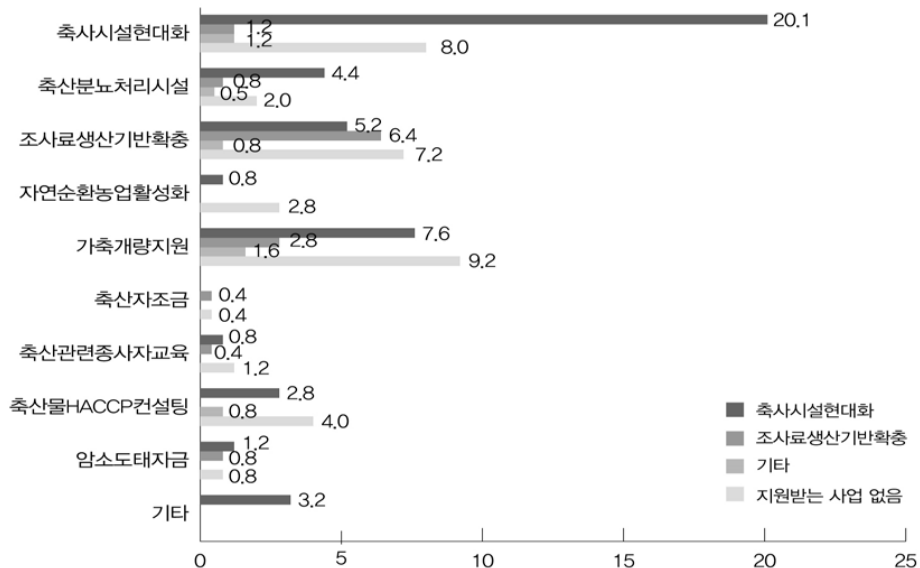
그림 2-17.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축산분야)



- 지원 받고 있는 사업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FTA 지원사업 중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와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는 역시 '축사시설 현대화'(20.1%)가 품질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이 외에는 '가축개량지원'(7.6%)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5.2%)과 '축산분뇨 처리시설'(4.4%)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6.4%) 외에 '가축개량지원'(2.8%)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지원받는 사업이 없는 응답자들은 '가축개량지원'(9.2%)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축사시설현대화'(8.0%)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7.2%), '축산물 HACCP 컨설팅'(4.0%)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받고 있는 응답자들은 당연히 지원 받는 사업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지만, 기타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가축개량지원사업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업을 지원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은 가축개량지원사업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이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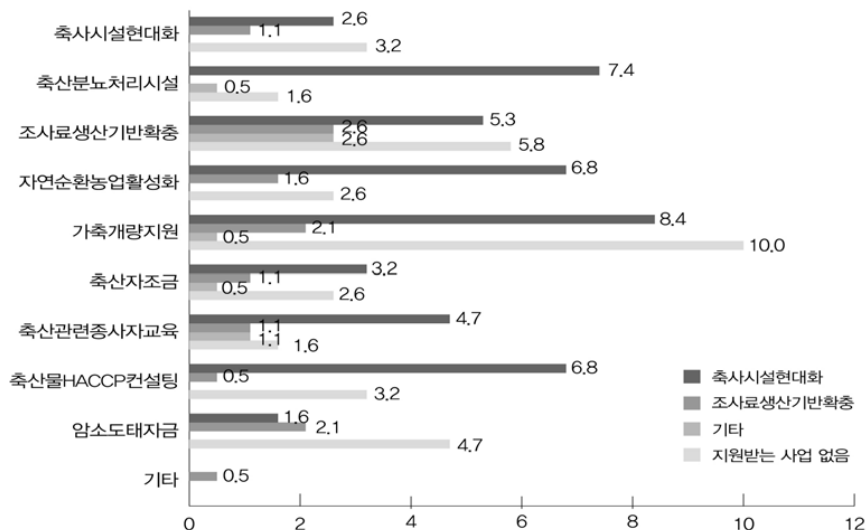
그림 2-18.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21) FTA 정부지원사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p-value=0.000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받고 있는 사업과 FTA 지원사업 중 품질향상에 도움 되는 사업 2순위의 교차분석에서도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²²⁾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가축개량지원'(8.4%)과 '축산분뇨처리시설'(7.4%), '자연순환농업활성화'(6.8%), '축산물 HACCP컨설팅'(6.8%)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2.6%)과 '가축개량지원'(2.1%), '한우암소감축장려금'(2.1%)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기타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2.6%)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지원받는 사업이 없는 응답자들은 '가축개량지원'(10.0%)이 가장 도움이 되며 그 외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5.8%), '한우암소감축장려금'(4.7%) 등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응답자 별 차이가 있는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가축개량지원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이 도움이 된 반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한우암소감축장려금이, 기타 사업을 지원받은 응답자들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원 받은 사업이 없는 응답자들은 가축개량지원사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 주로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그림 2-19.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2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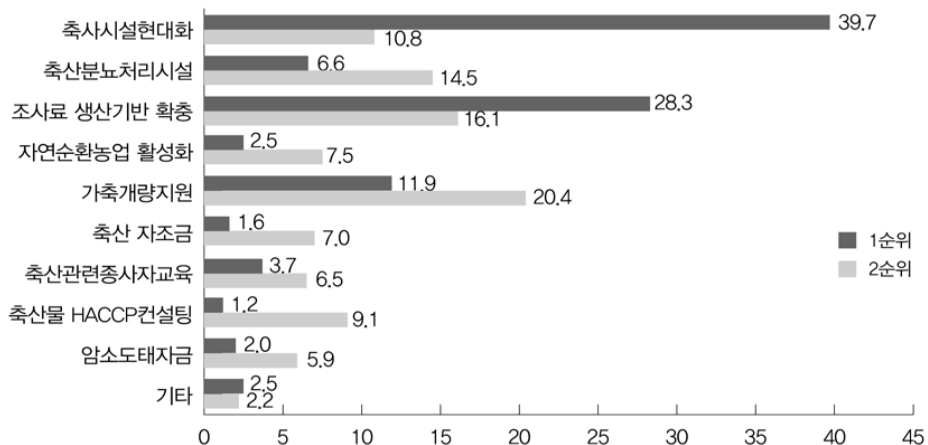


22) 지원 받는 사업에 따라 구분한 응답자와 정부지원사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2순위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 결과 p-value=0.017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생산성 향상(생산량 증가 또는 비용절감)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사업 중 1순위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가 39.7%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28.3%, '가축개량지원'은 11.9%, '축산분뇨처리시설'이 6.6%, '축산관련종사자교육' 3.7%, '자연순환 농업활성화'와 '기타사업'이 각각 2.5%,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이 2%, '축산자조금' 1.6%, '축산물 HACCP컨설팅' 1.2%로 조사되었다.
- 2순위에서는 '가축개량지원'이 20.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16.1%,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4.5%, '축사시설 현대화'가 10.8%, '축산물 HACCP컨설팅' 9.1%,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7.5%, '축산자조금' 7%, '축산관련종사자교육' 6.5%,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이 5.9%, '기타사업' 2.2%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미 많은 응답자가 지원받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제외하고 가축개량지원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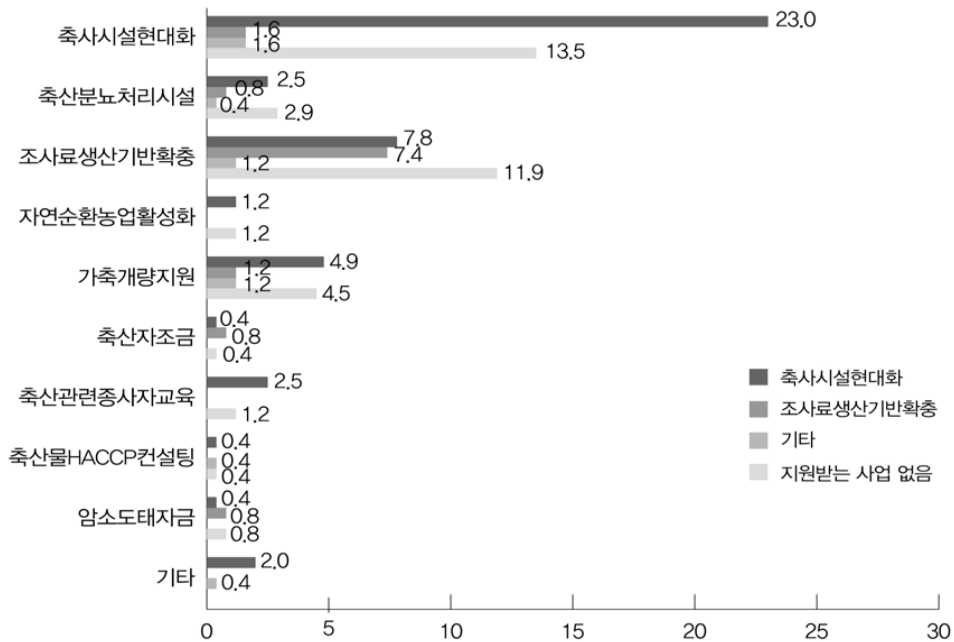
그림 2-20.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축산분야)



- 지원 사업으로 구분한 응답자와 정부지원사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는 역시 '축사시설 현대화'(23%)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이외에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7.8%)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7.4%)이 가장 도움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1.6%) 및 '가축개량지원'(1.2%) 등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축사시설 현대화'(1.6%) 및 '조사료생산기반확충'(1.2%), '가축개량지원'(1.2%)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지원받는 사업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13.5%), '조사료생산기반확충'(11.9%), '가축개량지원'(4.5%) 순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응답자들 모두 축사시설 현대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이 두 사업을 지원받지 않는 응답자들은 그 외에도 가축개량지원 사업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21.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23) 응답자와 정부지원사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간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교차 분석 결과 p-value=0.004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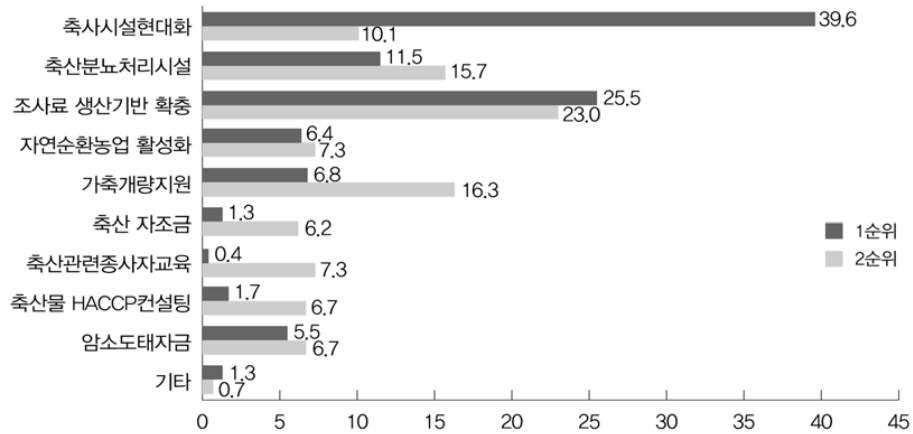
- 지원받는 사업에 따른 응답자와 정부지원사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2 순위 사업을 교차분석 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3.1.6.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사업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FTA 국내대책의 일환으로 투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융자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투융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투융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 사업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가 39.6%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25.5%, '축산분뇨처리시설' 11.5%, '가축개량지원' 6.8%, '자연순환 농업활성화'가 6.4%, '한우암소감축장려금' 5.5%, '축산물HACCP 컨설팅' 1.7%, '축산자조금'과 '기타사업' 각 1.3%,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0.4% 순으로 나타났다.
- 2순위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3%, '가축개량지원' 16.3%, '축산분뇨처리시설' 15.7%, '축사시설현대화' 10.1%, '자연순환 농업활성화'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 각각 7.3%, '축산물HACCP 컨설팅'과 '한우암소감축장려금' 각각 6.7%, '기타' 0.7%로 나타났다.
- 이미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경우 투융자를 확대하거나 적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가축개량 지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도 투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4) 지원사업 별 응답자와 정부지원사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2순위 간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교차분석 결과 p-value=0.059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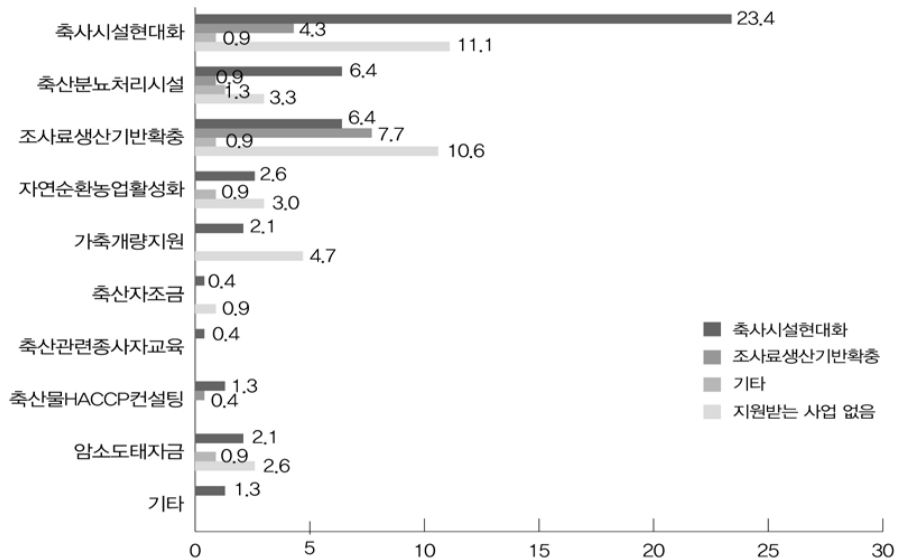
그림 2-22.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축산분야)



- 투융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 1순위와 지원 사업별 응답자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투융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23.4%), '축산분뇨처리시설'(6.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6.4%) 등으로 응답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당연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7.7%)과 '축사시설현대화'(4.3%) 등으로 응답하였고 기타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축산분뇨처리시설'(1.3%)과와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한우암소감축장려금'(각 0.9%)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원받는 사업이 없는 응답자들은 '축사시설현대화'(11.1%)와 '조사료생산기반확충'(10.6%), '가축개량지원'(4.7%) 및 '축산분뇨처리시설'(3%), '자연순환 농업활성화'(3%)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당연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의 투융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응답했지만, 현재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은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가축개량 지원 등의 사업의 투융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5) 지원사업 별 응답자와 투융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 1순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p-value=0.000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3. FTA 보완대책 중 투용자 확대 필요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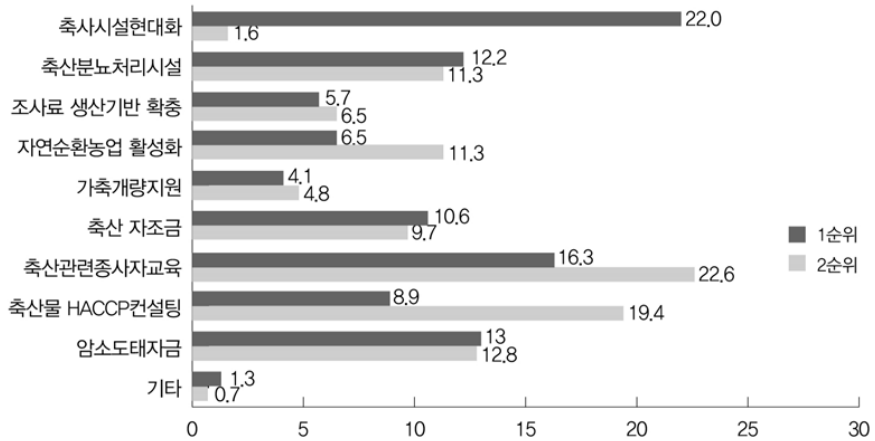


- 투용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 2순위와 지원사업 별 응답자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상호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 투용자를 축소가 필요한 분야 중 1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로 22%,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이 16.3%, '한우암소감축장려금'은 13%, '축산분뇨처리시설' 12.2%, '축산자조금' 10.6%, '축산물HACCP컨설팅' 8.9%, '자연순환농업활성화' 6.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5.7%, '가축개량지원' 4.1%, '기타' 0.7% 순으로 응답하였다.
- 2순위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 22.6%, '축산물HACCP컨설팅' 19.4%, '한우암소감축장려금' 12.8%,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각 11.3%, '축산자조금' 9.7%, '조사료생산기반확충' 6.5%, '가축개량지원' 4.8%, '축사시설현대화' 1.6% 순으로 나타났다.

26) 지원사업 별 응답자와 투용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 2순위 간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교차분석 결과 p-value=0.195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앞의 조사 결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투용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용자 축소 역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확대의견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과 '한우암소감축장려금'사업 등의 투용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24. FTA 보완대책 중 투용자 축소가 필요사업



- 투용자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와 지원 사업별 응답자 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27) 지원사업 별 응답자와 투용자를 축소해야 할 분야 1순위 간 의견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p-value=0.878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사업 별 응답자와 투용자를 축소해야 할 분야 2순위 간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교차분석 결과 p-value=0.312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2. 심층면담 결과

-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주요 10개 사업(축산분야 4개, 원예분야 3개, 맞춤형농정 3개)에 대한 현장(지자체, 생산자 단체, 농협 등)의 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 축산분야 4개 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개량

3.2.1.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가. 사업 만족도 및 현황

- 지자체 5군데, 생산자 단체(축협포함) 4군데를 조사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조사되었으나,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된 시점에서 이 사업은 만족도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사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지역내 모든 물량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의견과 악취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대부분 공동자원화시설이며 경축자원화시설과 에너지자원화시설은 시설 설립 및 운영상의 문제로 시군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축산농가로부터 분뇨수거료(평균 14,800원/톤)를 받고 있으나, 이윤 창출은 물론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인다.

표 2-7. 축산분뇨처리시설(공동자원화시설) 운영현황

	일 최대 처리량(톤)	일 평균 처리량(톤)	분뇨 수거료 (원/톤)	액비 생산비 (원/톤)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 평균)	106.3	101.3	14,800	19,000

나. 정책 건의

- 현재 보조금 70%, 용자 30%로 지원되고 있지만, 용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아닌 자부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이윤창출의 목적이 아니므로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고 퇴비를 자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수반되는 시설을 위한 비용에 대한 현실적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원화시설이 증가하여 시설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시설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체 선발, 시설 유지보수(감가상각 및 규모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분뇨반입량이 적은 시설과 많은 시설에 대해 가동률 차이가 나타나 시설 운영에서 비효율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시설의 거점화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 퇴비의 경우, 현재 소포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무상으로 지급해도 농가의 인력 부족으로 살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퇴비의 소포장 혹은 액비와 같은 살포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 순환농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 살포 대상 필지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모든 필지에 대해 발급 받아야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정지역 혹은 품목에 대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업무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용에 있어 전문인력부재로 인해 분야 전문기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2.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가. 사업 만족도 및 현황

- 지자체, 생산자 단체(축협포함) 등 7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6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 활성화로 지역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가 용이해졌고 경종농가의 비료살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연순환농업의 장점

- 경종농가의 경우 벼 줄기가 굵어지는 등 작물의 생육이 원활해짐에 따른 품질향상
- 화학비료의 사용이 적어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며, 벼의 경우 수확량이 20% 증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 감소로 인해 농가의 생산비가 감소하고 경영 개선
- 친환경 농가들에게 고품질·저비용 퇴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역의 친환경농업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됨.

○ 자연순환농업의 단점

- 가축분뇨퇴비의 불안정한 유통구조와 퇴비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높지 않음.
- 덜 부숙된 퇴비 사용시 주변 농가의 퇴비공장(혹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환경 민원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 발생
- 일부 퇴비 공장에서는 사용하는 연료와 전기가 농업용으로 공급되지 않는 축협과 공장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

○ 수급은 대부분 지역농·축협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는 농업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퇴비의 생산원가는 평균 3,000원 이상이며, 가격보조를 포함하여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가격은 1,700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2-8. 퇴비 생산 및 수급 현황

	가격(20kg 기준)			생산·소비(만포)	
	가격	가격보조	농가 공급가격	지역내 생산량	판매량
퇴비공장 (영암, 장흥, 담양)	3,333원	1,567원	1,767원	87	23

* 2012년 3개 시·군 평균 실적

나. 정책 건의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에 대한 융자 자금 지원은 현행 이자율 3%에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시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균등상환이나 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이자율에 대해 현재 0%대에 가까운 현실에서 농업에 투자되는 자금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가 고령화로 인해 퇴비의 살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살포장비와 펠렛(살포를 위해 알갱이처럼 만든 퇴비) 생산시설이 지원된다면, 포장비 절감, 살포 노동비 절감 등 많은 측면에서 경영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료공장을 공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농업 부산물 처리시설로 분류하면 농업용 전기와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3.2.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가. 사업 만족도 및 현황

- 지자체 4곳, 생산자 단체(축협포함) 6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7점으로 조사됨. 해외악성전염병우려, 수입조사료의 단가변동심화, 수입 조사료 내용물 확인의 어려움 등 사업의 만족도보다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TMR 사료공장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료의 생산부터 수확까지 사료공장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료로 재배되는 품목에는 벳짚, 호밀, 청보리, 옥수수 등이 있었으며, 외국 종자인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IRG), 수단그라스 등도 주로 재배되고 있다.

나. 정책 건의

- 현재 조사료의 수확에 있어 지원되는 기계의 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고가의 장비로 기계장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비율(현행 20%)을 높이거나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농가 또는 전국적으로 조사료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1톨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개량, 재배기술보급 등을 통해 품질의 균일화를 통해 지역간의 생산품질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거래단위 또한 "톨"에서 "kg"으로 변화시켜 생산, 유통, 운영 측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실제로 조사료 원료를 수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톨에 8만 원 수준이지만, 생산장려금은 6만 원 수준이며, 보조비율 또한 100% 보조에서 90% 보조, 10% 자부담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원료수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수분함량이 동일한 경우 수입산조사료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국내산 조사료 이용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조사료 생산에 있어 단지화·규모화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단지화·규모화된 농가 및 생산단체에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여 단지화·규모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3.2.4. 가축개량지원 사업

가. 사업 만족도 및 현황

- 한국종축개량협회(5명, 각 축종 담당자 포함),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 육종농가를 조사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관련 보조금 지급으로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실질적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로 검정 사례비 지원의 경우 그 금액이 인건비 이하로 책정되어, 개량에 따른 손실분이 보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가축 개량의 국가단위 주요 목적은 도체중, 근내지방, 등심단면적, 등지방 두께 등에 있으며, 농가단위의 목적은 가축의 온순성, 번식력, 내병성, 사료효율, 발굽 모양 등에 있다. 이에 따라 한우 암소 검정, 육종농가 육성, 종자 개량 등에 주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지속적인 지원으로 한우 및 젓소, 종돈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 한우 수소 도체중이 1995년 491kg에서 2010년 552kg으로 약 12.4% 향상, 1등급 출현율은 1995년 12.8%에서 2010년 62.5%로 약 5배 상승
 - 뿐만 아니라 근내지방도 수치도 상승하여 비육기간 단축, 육량 증가, 육질 향상 등으로 전체 한우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돼지의 경우, 가축개량 차원에서 두 당 산자수 증가는 산업 및 농가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당 산자수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 젓소 산유량도 1995년 대비 2010년 약 42% 증가하였다.

- 국내 가축개량 사업에서 기초적인 지원 부재로 육종 산업이 지자체나 조합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농가단위로 이루어지다보니 불경기에 개량축을 도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나. 정책 건의

-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며, 육종의 주체를 국가단위에서 민간 혹은 지자체 단위로 이전하여 한우개량의 다양성 확보 및 시장위주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지원대상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전국한우 능력 평가 대회 및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 등 개량우(한우, 젃소 등)에 대한 능력 평가를 통해 농가간 경쟁 및 교육(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한 개량의 욕을 향상시키고 입상한 농가는 송아지 판매력 증가 등의 소득 증진 효과가 있으며 입상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번식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 하지만 현재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 1억 5천~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2,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추가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 또한, 혈통 등록제를 활성화하여 평가 받은 혈통 등록우 경매시장을 운영하면 한우 및 송아지 거래에 신뢰도를 높이고 능력에 따른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유통 투명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종돈의 경우에도 우수 종돈 개량을 위해 종돈네트워크 사업을 시행중이지만 국내 사육중인 종돈이 다수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정액의 약 10%만 교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돈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더 우수한 종돈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능력검정을 위해서는 검정 비용뿐만 아니라, 검정을 위해 수태지를 거세하지 못하면 돼지가격이 거세 돼지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최소한의 돼지만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검정비용과 비거세로 인한 가격하락분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검정횟수가 증가하고 종돈의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젓소의 생산성은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며, 가까운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의 약 60~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량우의 수출도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젓소의 개량 방향은 유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유성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국내에는 유성분 분석을 위한 장비가 부족하고 세계시장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전산장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장비 및 연구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국내 젓소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개량우(젓소) 수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유전자적 향상 및 개량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단위의 개량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지원이 요구되며, 현재 슛놈 가축(정액) 위주의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 개체의 개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암놈 개량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계량경제분석: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계측

4.1.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FTA 체결 이후 집행된 FTA 투융자(2008년 이전은 투융자로 분류되고, 2008년 이후는 FTA 투융자으로 분류됨)의 성과를 축산분야에 국한하여 계량적으로 계측하는 데 있다.
- 축산분야의 투융자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한우와 관련된 항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우를 비육우와 번식우와 분리하여 FTA 투융자가 한우의 생산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2. 연구 방법 및 자료

4.2.1. 연구 방법²⁸⁾

- 생산성은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로 정의됨. 산출을 물량으로 볼 경우 물적 생산성, 부가가치로 볼 경우 부가가치생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투입물을 기준으로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 부분 생산성과 총산출량에 대한 총투입량의 비율로 측정되는 총요소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생산성 분석 방법은 모수적 접근과 비모수적 접근(Chavas et al. 1993), 계량경제학적 접근과 수리계획법적 접근(Lovell, 1993), 지수법과 계량경제학적 방법(Sudit 1995)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비모수적 접근법인 지수법과 모수적 접근법인 함수추정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28) 이 절의 내용은 농촌진흥청(2008, pp. 59-62)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함.

-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자주 이용되는 지수는 디비지아지수, 톤퀴비스트 지수, 맘퀴스트 지수 등이며, 함수추정법으로는 콥더글러스(C-D)함수, 초월대수(thanslog)함수 등이 많이 자주 이용된다.
- 일반적으로 생산함수는 복합투입물과 복합 산출물 형태로 표현되고 이러한 복합 투입물과 복합산출물은 하나의 투입물 지수와 산출물 지수로 정리되어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이용된다.
- 생산성 분석에서 이질적인 자료를 통합하는데 디비지아지수가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디비지아 지수는 가격과 수량에 대한 연속함수를 가정하여 도출된다.
- 일반적으로 (X_1, X_2, \dots, X_n) 의 생산요소로 $(Y_1, Y_2 \dots Y_n)$ 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어진 생산요소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생산물을 결정짓는 관계식은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quad F(X_1, X_2, \dots, X_n, Y_1, Y_2 \dots Y_n) = 0$$

- 이 때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총산출물을 총투입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Y는 산출물 총계, X는 투입물 총계를 나타낸다.

$$(2) \quad TFP = Y/X$$

- 총산출물 및 총 투입물의 변화율을 구하기 위하여 (2)식에 자연대수를 취하고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즉, 총요소생산성(TFP) 변화율은 총산출물 변화율(\dot{Y})에서 총투입물 변화율(\dot{X})을 차감한 값이 된다.

$$(3) \quad \dot{TFP} = \dot{Y} - \dot{X}$$

- 총산출물 및 총투입물을 구하기 위하여 기중치를 이용한 개별 산출물 및투입물을 함께 (aggregate)하는 방법 중 유용하고 설득력이 있는 방법으로 디비지아지수를 이용한다.

- 디비지아지수는 각 구성요소들의 성장률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정의된다.
- 이 때, 구성요소들이 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다.
- 따라서 총투입물(X)과 총산출물(Y)의 디비지아지수 증가율은 식(4)와 식(5)가 된다.
- 여기서 P_i 는 i 산출물 가격, Y_i 는 i 산출물, \dot{Y}_i 는 i 산출물증가율, 그리고 $\sum_j P_j \cdot Y_j$ 는 총수입이다.
- W_i 는 i 투입물 가격, X_i 는 i 투입물, \dot{X}_i 은 i 투입물 증가율, 그리고 $\sum_j W_j \cdot X_j$ 는 총비용이다.
- 디비지아지수를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증가율(TFP_D)은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4) \dot{Y} = \sum_i \frac{P_i \cdot Y_i}{\sum_j P_j \cdot Y_j} \cdot \dot{Y}_i$$

$$(5) \dot{X} = \sum_i \frac{W_i \cdot X_i}{\sum_j W_j \cdot X_j} \cdot \dot{X}_i$$

$$(6) TFP_D = \sum \frac{P_i \cdot Y_i}{\sum P_j \cdot Y_j} \cdot \dot{Y}_i - \sum \frac{W_i \cdot X_i}{\sum W_j \cdot X_j} \cdot \dot{X}_i$$

- 위 식은 연속함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는 연간 자료는 이산자료이다. 따라서 연간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속함수를 이산근사치로 바꾸어야하며 이 때, 일반적으로 톤퀴비스트 근사치가 사용된다.
- 톤퀴비스트 근사치를 이용한 대수형태의 산출물 증가율은 식 (7)과 같다. 여기서 P_{it} 는 t 기에 i 산출물 가격, Y_{it} 는 t 기의 i 산출물이며, $\sum P_{jt} \cdot Y_{jt}$ 는 t 기에 있어 총수입을 나타내며 식 (7)은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톤퀴비스트 근사치를 이용한 대수형태의 투입물 증가율은 식 (9)와 같다. 여기서 W_{it} 는 t 기에 i 투입물 가격, X_{it} 는 t 기에 i 투입물이며, $\sum W_{jt} \cdot X_{jt}$ 는 t 기에 있어 총비용을 나타내며 식 (9)는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dot{Y} = \Delta \log Y = \log(Y_t/Y_{t-1}) = \sum r_{it} \log(Y_{it}/Y_{it-1})$$

$$\text{단, } r_{it} = \frac{1}{2} \left(\frac{P_{it} \cdot Y_{it}}{\sum P_{jt} \cdot Y_{jt}} + \frac{P_{it-1} \cdot Y_{it-1}}{\sum P_{jt-1} \cdot Y_{jt-1}} \right)$$

$$(8) Y_t = Y_{t-1} \times \exp(\sum r_{it} \log(Y_{it}/Y_{it-1}))$$

$$(9) \dot{X} = \Delta \log X = \log(X_t/X_{t-1}) = \sum s_{it} \log(X_{it}/X_{it-1})$$

$$\text{단, } s_{it} = \frac{1}{2} \left(\frac{W_{it} \cdot X_{it}}{\sum W_{jt} \cdot X_{jt}} + \frac{W_{it-1} \cdot X_{it-1}}{\sum W_{jt-1} \cdot X_{jt-1}} \right)$$

$$(10) X_t = X_{t-1} \times \exp(\sum s_{it} \log(X_{it}/X_{it-1}))$$

- 따라서 톤퀴비스트지수를 이용한 중요소생산성 변화율(*TFP*)과 중요소생산성(*TFP*)은 식 (11)과 식 (12)와 같다.

$$(11) \dot{TFP} = \Delta \log Y - \Delta \log X = \sum r_{it} \log(Y_{it}/Y_{it-1}) - \sum s_{it} \log(X_{it}/X_{it-1})$$

$$(12) TFP = Y_t/X_t = \frac{Y_{t-1} \times \exp(\sum r_{it} \log(Y_{it}/Y_{it-1}))}{X_{t-1} \times \exp(\sum s_{it} \log(X_{it}/X_{it-1}))}$$

- 식(6)과 (11)을 비교해보면, 톤퀴비스트지수는 디비지아지수에서 사용하는 분배 몫 대신 두기간의 분배 몫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2.2. 연구 범위

- 축산부문 FTA 투용자 중 거의 대다수가 한우와 관련된 투용자 사업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축산부문 FTA 투용자 성과 분석을 함에 있어서 한우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 한우는 크게 번식우와 비육우로 나눌 수 있으며, 앞의 톤퀴비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번식우와 비육우의 총요소생산성(TFP)에 얼마만큼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지를 계측하고자 한다.

4.2.3. 연구 자료

가. 번식우 사용자료

- 번식우 부문의 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이용하였다.

표 2-9. 번식우 산출 및 투입 항목 내용(기준 1년, 두당)

구분		수량(y,x)	가격(p,w)
산출물(y,p)		송아지 번식률(%)(y1)	송아지 판매가격/두(p)
투입물(x,w)	사료	사료투입량(x1)	사료구입가격/kg(w1)
	노동	노동투입량(일,시간)(x2)	노임/일(w2)
	자본	자본투입량(원)(x3)	투입단가(w3)
	기타	기타투입량(x4)	기타 투입단가(w4)

주: 모든가격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가치로 전환된 값임.

표 2-10. 번식우 산출 및 투입 항목 기초 통계량(1998~201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량 (y,x)	산출물 (y)	송아지 번식률(%)(y)	77	2	72	79
	투입물 (x)	사료투입량(kg)(x1)	3,700	671	3,052	4,768
		노동투입량(시간)(x2)	53	7	45	69
		유동자본투입량(원)(x3)	723,036	160,796	550,955	1,005,759
		토지자본투입량(원)(x4)	869,078	124,806	679,283	1,026,802
		고정자본투입량(원)(x5)	3,098,557	763,796	1,904,590	3,970,235
가격 (p,w)	산출물 (y)	송아지판매가격(원/두)(p)	1,953,821	711,541	596,500	2,906,000
	투입물 (x)	사료구입가격(원/kg)(w1)	164	52	100	245
		노동단가(원/일)(w2)	4861.02	956.45	3091.76	6285.32
		유동자본이자율(%)(w3)	4.4	0.1	4.1	4.6
		토지자본이자율(%)(w4)	2.2	0.5	1.	2.6
		고정자본이자율(%)(w5)	8.9	0.5	7.7	9.3

자료: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

나. 비육우 사용자료

- 비육우 부문의 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이용하였다.

표 2-11. 비육우 산출 및 투입 항목 내용(기준 1년, 두당)

구분		수량(y,x)	가격(p,w)
산출물(y)		송아지 번식률(%)(y1)	비육우 판매가격/kg(p)
		증체량:두당 연간증체량	
투입물(x)	밀소	송아지구입시체중(kg)(x1)	구입가격/kg(w1)
	사료	사료투입량(x2)	사료구입가격/kg(w2)
	노동	노동투입량(일,시간)(x3)	노임/일(w3)
	자본	자본투입량(원)(x4)	투입단가(이자율)(w4)
	기타	기타투입량(x5)	기타 투입단가(w5)

주: 생산비를 투입가격과 수량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투입요소에 대해서는 최규섭 등(2000 여름)이 이용한 방식에 따름.

표 2-12. 비육우 산출 및 투입 항목 기초 통계량(1998~201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출물 (y)	생산량:두당출하 체중(kg)(y)	626	50	550	715		
	증체량:두당연간 증체량	306	20	277	332		
수량 (y,x)	투입물 (x)	송아지구입시체중 (kg)(x1)	146	11	128	166	
		사료투입량(x2)	5,316	772	4,293	6,365	
		노동투입량 (일,시간)(x3)	52	5	40	59	
		유동자본투입량 (원)(x4)	907,319	243,339	699,325	1,466,922	
		토지자본투입량 (원)(x5)	613,394	168,044	345,657	836,554	
		고정자본투입량 (원)(x6)	2,455,351	586,021	1,501,879	3,384,316	
가격 (p,w)	투입물 (x)	산출물 (y)	비육우판매가격 (원/kg)(p)	4,242,890	899,400	2,336,658	5,298,106
		송아지구입가격 (원/kg)(w1)	11,032	2,520	6,673	14,243	
		사료구입가격 (원/kg)(w2)	232	54	183	347	
		노동단가 (원/일)(w3)	3,657	1,469	1,366.0	6,463	
		유동자본이자율 (%)(w4)	37.1	10.7	22.2	51.4	
		토지자본이자율 (%)(w5)	3.5	0.9	1.5	4.6	
		고정자본이자율 (%)(w6)	4.5	1.2	2.9	7.1	

자료: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

4.3. 생산성 계측

4.3.1. 부분별 생산성 지수 계측

가. 한우 번식우

○ 한우 번식우에 대한 부분별 생산성 지수를 계측한 결과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3. 한우 번식우 부분별 생산성 지수 및 변화율

연도	사료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1998	1.430	4.602	1.477
1999	1.504	4.129	1.405
2000	1.528	4.627	1.468
2001	1.487	5.119	1.383
2002	1.477	5.384	1.351
2003	1.957	5.152	1.292
2004	2.002	5.464	1.275
2005	2.037	5.731	1.201
2006	2.067	5.974	1.226
2007	2.086	6.297	1.223
2008	2.066	6.297	1.266
2009	1.931	5.868	1.224
2010	1.924	6.172	1.259
2011	1.715	5.716	1.210

나. 한우 비육우

○ 한우 비육우에 대한 부분별 생산성 지수를 계측한 결과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4. 한우 비육우 부분별 생산성 지수(증체량 기준)

연도	가축생산성	사료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1998	2.584	1.169	8.463	1.730
1999	2.442	1.149	5.629	2.034
2000	2.480	1.161	5.945	2.124
2001	2.475	1.189	6.755	2.125
2002	2.357	1.126	6.505	2.011
2003	2.147	1.110	7.204	1.783
2004	2.127	1.099	7.215	1.859
2005	2.000	1.044	7.179	1.814
2006	2.086	1.037	7.369	1.845
2007	1.840	1.007	7.922	1.753
2008	1.897	0.968	7.337	1.517
2009	1.957	0.969	7.873	1.178
2010	1.956	1.011	8.132	1.474
2011	1.679	1.062	8.188	1.537

4.3.2. 총요소생산성 계측

가. 한우 번식우

○ 한우 번식우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한 결과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5. 번식우 투입·산출지수 및 총요소생산성지수

연도	투입물량지수 (A)	산출물량지수 (B)	총요소생산성지수 (B/A)	조정된 총요소생산성지수
1998	0.456	0.933	2.048	2.393
1999	0.435	0.915	2.104	3.078
2000	0.423	0.920	2.174	3.679
2001	0.430	0.922	2.147	4.363
2002	0.437	0.919	2.101	5.139
2003	0.411	0.906	2.205	5.705
2004	0.413	0.909	2.200	5.086
2005	0.411	0.891	2.169	5.320
2006	0.404	0.892	2.208	5.144
2007	0.389	0.883	2.267	5.490
2008	0.409	0.931	2.273	4.738
2009	0.420	0.900	2.143	5.023
2010	0.411	0.912	2.218	5.875
2011	0.420	0.859	2.045	3.513

주: “조정된 총요소생산성지수”는 “총요소생산성지수”에 연도별 암소평균가격을 곱하여 조정된 값임.

나. 한우 비육우

○ 한우 비육우에 대한 중요소생산성을 계측한 결과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6. 비육우 투입·산출지수 및 중요소생산성 지수

연도	투입물량지수	산출물량지수	중요소생산성지수	조정된 중요소생산성지수
1998	0.562	1.216	2.162	1.633
1999	0.582	1.194	2.052	1.541
2000	0.587	1.231	2.096	2.040
2001	0.580	1.238	2.135	2.474
2002	0.602	1.222	2.031	2.609
2003	0.618	1.176	1.903	2.649
2004	0.602	1.142	1.895	2.333
2005	0.617	1.110	1.798	2.610
2006	0.597	1.104	1.849	2.456
2007	0.625	1.062	1.699	2.414
2008	0.627	1.053	1.679	2.155
2009	0.659	1.101	1.671	2.809
2010	0.646	1.122	1.737	2.922
2011	0.625	1.025	1.640	1.989

주: “조정된 중요소생산성지수”는 “중요소생산성지수”에 연도별 평균 지육경락가격을 곱하여 조정된 값임. 그 이유는 등급제를 실시하면서 산출물의 단위당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주기 위한 것임.

다. 기간별 총요소생산성지수 증감률 비교

- 총요소생산성 지수를 FTA 보조금 지급 이전 10년의 평균치와 이후 4년의 평균치를 비교해 본 결과, 번식우는 5.45%의 생산성 향상이 비육우는 8.48%의 생산성 향상이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2-17. 번식우와 비육우의 (조정된) 총요소생산성지수 증감률 비교

연도	번식우	비육우
1998	2.393	1.633
1999	3.078	1.541
2000	3.679	2.040
2001	4.363	2.474
2002	5.139	2.609
2003	5.705	2.649
2004	5.086	2.333
2005	5.320	2.610
2006	5.144	2.456
2007	5.490	2.414
2008	4.738	2.155
2009	5.023	2.809
2010	5.875	2.922
2011	3.513	1.989
FTA 투용자 지급 이전		
1998~2007[10년 평균(A)]	4.540	2.276
FTA 투용자 지급 이후		
2008~2011[4년 평균(B)]	4.787	2.469
변화율[(B-A)/A]	5.45%	8.48%

라. 기간별 수익/비용 증감률 비교

- 수익/비용 증감률을 FTA 투용자 집행 이전 10년의 평균치와 이후 4년의 평균치를 비교해 본 결과, 번식우는 33.21% 감소하고 비육우는 32.84%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 생산성 향상(번식우: 5.45%, 비육우: 8.48%)에도 불구하고 투입재 비용 상승과 산출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체 수익/비용 증감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수익/비용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8. 번식우와 비육우의 수익/비용 증감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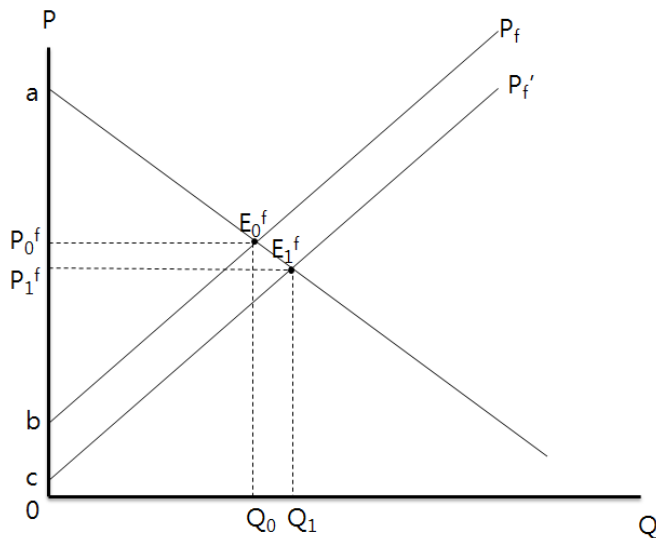
연도	번식우	비육우
1998	0.268	0.535
1999	0.452	0.767
2000	0.538	0.796
2001	0.720	0.796
2002	0.854	0.810
2003	1.051	0.681
2004	0.899	0.490
2005	0.884	0.495
2006	0.796	0.510
2007	0.675	0.467
2008	0.466	0.380
2009	0.507	0.457
2010	0.588	0.486
2011	0.350	0.383
FTA 투용자 지급 이전		
1998~2007[10년 평균(A)]	0.714	0.635
FTA 투용자 지급 이후		
2008~2011[4년 평균(B)]	0.478	0.426
변화율[(B-A)/A]	-33.21%	-32.84%

4.4. 사회후생분석

4.4.1. 분석 개요

- FTA 투융자 지급으로 산지 농가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그림을 통해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투융자 지급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최초의 농가 공급곡선 P^f 가 P_1^f 으로 이동하게 된다.
- 균형점이 E_0^f 에서 E_1^f 으로 이동하며, 균형가격은 P_0^f 에서 P_1^f 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Q_0 에서 Q_1 로 증가한다.

그림 2-25. 생산성 향상이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산지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사회후생효과를 보면 소비자 잉여는 $\Delta aE_0^f P_0^f$ 에서 $\Delta aE_1^f P_1^f$ 로 초기 소비자잉여에 비해 $\Delta P_0^f E_0^f E_1^f P_1^f$ 만큼 증가한다. 생산자 잉여는 $\Delta P_0^f E_0^f b$ 에서 $\Delta P_1^f E_1^f c$ 로 초기 생산자잉여에 비해 증가한다.

표 2-19. 생산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

		초기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시장균형	산지가격	P_o^f	P_1^f
	균형거래량	Q_o	Q_1
사회후생	생산자	$\Delta P_0^f E_0^f b$	$\Delta P_1^f E_1^f c$
	소비자	$\Delta a E_0^f P_0^f$	$\Delta a E_1^f P_1^f$

4.4.2. 분석 모형

가. 이론적 모형

- FTA 투용자 집행(예를 들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산지에서 농가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가정하고 산지에서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지에서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로 나누어서 공급측면의 생산성 향상을 계측하고자 한다.
- 산지에서 한우고기 공급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Q_S^F 는 농장에서 출하되는 한우고기 공급량(지육기준), P^F 는 한육우 사육농가들이 받는 농가수취가격(지육기준)이다.
 - 한우고기 공급은 자체가격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자체 가격 이외의 외생적인 요인들을 변수 Y 로 표현하였다.

$$(1) Q_S^F = Q_S^F(P^F | Y)$$

- 한우고기 공급량(Q_S^F)은 도축두수(NS)에 생체중(LW)과 지육율(SR)에 곱한 것이다. 이 때 도축두수(NS)는 한우의 재고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재고두수는 암소의 번식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도축두수(NS)는 암소두수(NBF)에 번식률(BR)을 곱하고 재고두수를 도축두수로 전환하는 모수값(CR)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우고기 공급량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아래 식에서 번식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은 번식률(BR)상승으로 표현되고, 비육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은 재고두수를 도축두수로 전환하는 모수값(CR)의 상승으로 표현된다.

$$(1-1) \quad Q_S^F = (NS) * LW * SR = (NBF * BR * CR) * LW * SR$$

- 산지에서 한우고기 수요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Q_D^F 는 한우고기 수요량(지육기준)이고, P^F 는 한우고기 가격임(지육기준).

$$(2) \quad Q_D^F = Q_D^F(P^F)$$

- 마지막으로 산지 한우시장 수급균형식은 아래와 같다.

$$(3) \quad Q_S^F = Q_D^F$$

나. 비교정태분석 EDM 모형

- FTA 투용자 집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 전후의 비교정태분석을 위해 EDM 모형을 유도하면 아래와 같다.
- 공급함수를 전미분하여 변화율의 형태로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dQ^S = \frac{\partial Q^S}{\partial P} \cdot dP + \frac{\partial Q^S}{\partial Y} \cdot dY \quad \text{양변을 } Q^S \text{로 나누면,}$$

$$\frac{dQ^S}{Q^S} = \frac{\partial Q^S}{\partial P} \cdot \frac{P}{Q^S} \cdot \frac{dP}{P} + \frac{\partial Q^S}{\partial Y} \cdot \frac{Y}{Q^S} \cdot \frac{dY}{Y}$$

$$= \epsilon \cdot \frac{dP}{P} + \epsilon_y \cdot \frac{dY}{Y}$$

$$(1) \quad EQ^S = \epsilon \cdot EP + \beta$$

(ϵ : 공급의 가격탄력성, β : 외생적 변화에 의한 공급량 변화율)

○ 수요함수를 전미분하여 변화율의 형태로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dQ^D = \frac{\partial Q^D}{\partial P} \cdot dP \quad \text{양변을 } Q^D \text{로 나누면,}$$

$$\frac{dQ^D}{Q^D} = \frac{\partial Q^D}{\partial P} \cdot \frac{dP}{Q^D}$$

$$\frac{dQ^D}{Q^D} = \frac{\partial Q^D}{\partial P} \cdot \frac{P}{Q^D} \cdot \frac{dP}{P} = \eta \cdot \frac{dP}{P}$$

(2) $EQ^D = \eta \cdot EP$ ($\eta (< 0)$: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급균형식을 전미분하여 변화율의 형태로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dQ^D = dQ^S$$

$$\frac{dQ^D}{Q^D} = \frac{dQ^S}{Q^D} = \frac{dQ^S}{Q^S}$$

(3) $EQ^D = EQ^S = EQ$

○ 마지막으로 FTA 투용자 집행에 따라 한우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식 (1-1)을 전미분하여 변화율의 형태로 유도하면 아래와 같다.

- 이 중 FTA 투용자 집행에 따른 번식농가의 번식률 향상은 변수 EBR 에 의해 표현되고, 비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은 변수 ECR 에 의해 표현된다.

$$\beta = ENBF + EBR + ECR + ELW + ESR$$

- 따라서, 앞의 식 (1)'은 아래의 식으로 다시 표현된다.

(1)' $EQ^S = \epsilon \cdot EP + \beta$, ($\beta = EBR + ECR$)

○ 앞에서 유도된 함수들을 하나의 모형 체계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Q = \epsilon \cdot EP + \beta$$

$$EQ = \eta \cdot EP$$

○ 매트릭스 형태로 계산하여, 해 값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EQ = \frac{-\eta\beta}{\epsilon - \eta}, \quad EP = \frac{-\beta}{\epsilon - \eta}$$

4.4.3. 사용 자료

가. 초기균형값

○ FTA 투융자 집행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비교정태분석을 위해 초기 균형 값으로 2007년의 시장균형물량과 균형가격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2-20. 2007년 한우고기 수급현황

내생변수		단위	2007년	출처
$Q_S^F (= Q_D^F)$	한우고기 수요량 (=공급량)	천톤 (지육기준)	176.50	농협중앙회
P^F	한우고기 도매가격	원/kg (지육기준)	14,209 (한우 전체)	축산물품질평가원

표 2-21. 2007년 한우고기 수요량 (지육 환산)

	도축두수(두)	생체중(kg)	지육율(%)	지육중량(천톤)
한우암소	212,518	559	59	70.09
한우수소	281,361	641	59	106.41
합계				176.50

나. 사용 모수값

표 2-22. 한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치²⁹⁾

		탄성치	t-value
η	수요의 가격탄성치	-1.05	-2.17**
ϵ	공급의 가격탄성치	0.44	3.62***

다. 생산성 향상 계측

- 축산부문 투용자내역(살처분제외)을 설명변수로 하고 번식우와 비육우의 총요소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탄성치를 계측한 결과, 번식우는 0.018로 계측되었고 비육우는 0.097로 계측되었다.
 - 이 탄성치에 아래 표에서 계산된 FTA 투용자 증감내역(68.0%)을 곱해 주면, 번식우는 1.2% 생산성향상이 비육우는 6.6%의 생산성 향상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 따라서 EBR=1.2%, ECR=6.6%가 되어, FTA 보조금 지급에 따른 한우 부문 전체 생산성 향상은 7.8%가 된다. 앞의 6.6%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후생분석에 서는 이 수치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표 2-23. 투용자 탄성치 추정

	log(번식우지수)	log(비육우지수)
상수항	0.635 (3.236)	0.124 (-0.184)
log(FTA투용자, 살처분제외)	0.0179 (0.764)	0.0965 (1.197)
더미 2011 (구제역 고려)	-0.0816 (-2.635)	-0.3071 (-2.890)

주: 괄호안은 t-value 임.

29) 탄성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의 위탁 보고서 중 일부인 전상곤의 “축산물 가격안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비교경제분석모형개발 -쇠고기산업과 양돈산업을 중심으로-”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음.

표 2-24. 축산부문 투융자 내역

년도	축산부문 투융자 내역(억원)	축산부문 투융자 내역(억원) -살처분보상금 제외-
2001	2,342	2,342
2002	3,933	3,933
2003	3,495	3,495
2004	3,241	2,855
2005	4,940	3,893
2006	5,943	4,095
2007(A)	5,028	4,173
2008	6,967	5,740
2009	7,117	6,540
2010	10,428	7,521
2011	24,268	8,236
2008~2011 4년 평균(B)		7,009
보조금 증감률 ((B-A)/A)		68.0%

4.4.4. 사회후생변화 분석 결과

가. 기본시나리오

- 앞서 제시한 초기값, 탄성치, 그리고 FTA 보조금에 따른 생산성 향상효과(7.8%) 등을 기초로 FTA 투융자 집행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후생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계측하고자 한다.
- FTA 투융자 집행에 따라 생산자 잉여는 2008년 이후 연평균 2,218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FTA 투융자 집행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34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FTA 보조금 지급에 따라 사회적 잉여(생산자 잉여+소비자 잉여)는 2008년 이후 연평균 3,5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5. 탄성치 ($\eta = -1.05, \epsilon = 0.44$)

	FTA 투용자이전(A)	FTA 투용자이후(B)	변화분 (B-A)
생산자 잉여(억 원)	28,499	30,716	2,218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3,288	1,346
합계			3,563

나. 민감도 분석

- 탄성치의 변화에 따라 사회후생 효과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탄성치를 가정하고 시나리오별로 후생 효과를 비교하였다.
- 민감도 분석 1에서는 앞서 주어진 수요의 탄성치가 변하지 않고, 공급의 가격탄성치가 변할 때 사회후생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계측하였다.
-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공급탄성치가 비탄력적일수록 사회후생효과의 증대분은 커지고 사회후생증가분은 2,838~6,491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26. 민감도 분석 1

탄성치	FTA 투용자이전(A)	FTA 투용자이후(B)	변화분 (B-A)
$\eta = -1.05, \epsilon = 0.44$ (기본시나리오)			
생산자 잉여(억 원)	28,499	30,716	2,218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3,288	1,346
합계			3,563
$\eta = -1.05, \epsilon = 0.2$			
생산자 잉여(억 원)	62,697	67,576	4,879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3,555	1,612
합계			6,491
$\eta = -1.05, \epsilon = 0.6$			
생산자 잉여(억 원)	20,899	22,525	1,626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3,154	1,212
합계			2,838

- 민감도 분석 2에서는 앞서 주어진 수요의 탄성치가 보다 비탄력적으로 변할 때 (-1.05에서 -0.5로)를 가정하고 그 효과를 계측하였다.
-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보다 비탄력적일수록 사회후생효과의 증대분은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후생증가분은 2,486~6,243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27. 민감도 분석 2

탄성치	FTA 투용자이전(A)	FTA 투용자이후(B)	변화분 (B-A)
$\eta = -0.5, \epsilon = 0.44$			
생산자 잉여(억 원)	28,499	30,716	2,218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2,951	1,009
합계			3,227
$\eta = -0.5, \epsilon = 0.2$			
생산자 잉여(억 원)	62,697	67,576	4,879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3,307	1,364
합계			6,243
$\eta = -0.5, \epsilon = 0.6$			
생산자 잉여(억 원)	20,899	22,525	1,626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2,802	860
합계			2,486

- 민감도 분석 3에서는 앞서 주어진 수요의 탄성치가 보다 탄력적으로 변할 때 (-1.05에서 -1.5로)를 가정하고 그 효과를 계측하였다.
-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보다 탄력적일수록 사회후생효과의 증대분은 조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후생증가분은 2,991~6,575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28. 민감도 분석 3

탄성치	FTA 투용자이전(A)	FTA 투용자이후(B)	변화분 (B-A)
$\eta = -1.5, \epsilon = 0.44$			
생산자 잉여(억 원)	28,499	30,716	2,218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3,423	1,480
합계			3,698
$\eta = -1.5, \epsilon = 0.2$			
생산자 잉여(억 원)	62,697	67,576	4,879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3,639	1,696
합계			6,575
$\eta = -1.5, \epsilon = 0.6$			
생산자 잉여(억 원)	20,899	22,525	1,626
소비자 잉여(억 원)	11,942	13,307	1,364
합계			2,991

4.5. 요약 및 시사점

- 2008년 이전 축산분야 투용자 실적과 2008년 이후 FTA 축산분야 투용자가 한우 부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한우 번식우 부문은 FTA 투용자 집행 이전에 비해 5.45%의 생산성 향상이, 한우 비육우 부문은 8.48%의 생산성 향상이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 투입재 비용 상승과 산출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체 수익/비용 구조는 악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용 증감률은 FTA 투용자 집행 이전 10년의 평균 치와 이후 4년의 평균치를 비교해 본 결과, 번식우는 33.21% 감소하고 비육우는 32.84%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고 만약 생산성 향상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수익/비용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FTA 축산분야 (한우) 투용자 집행에 따라 생산자 잉여는 2008년 이후 연평균 2,218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소비자 잉여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346억 원 증가 하는 것으로, 사회전체적으로(생산자 잉여+소비자 잉여)는 2008년 이후 연평균 3,56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제3장 원예분야 경쟁력제고 성과평가

제 3 장

원예분야 경쟁력제고 성과평가

1. 종합평가

- 원예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및 유통 경쟁력 제고 사업에 2012년 2,58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실적 : 3,114억 원).

- 과수부문의 FTA 기금 사업을 지원받은 지역의 과수농가와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의 생산성·효율성 및 수익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FTA 기금사업을 지원받은 과수농가의 생산성(MPI)이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비해 7.3% 향상된 것으로 계측되었다. 기술효율성(TECI)은 2.5%, 기술진보(TCI)는 2.2% 개선되었다. 수익성의 경우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에 비해 10a 당 21,350원의 경영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과수분야에 대한 FTA 투융자 지원은 생산량 증대,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노동시간 감축 등), 최종산출물의 부가가치 증대, 유통비용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FTA 기금 사업을 통해 과수농가는 품질개선과 다품종개발에 나섬으로써 과일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과일별로 수급상황과 생산구조, 기술수준, 규모화 정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FTA 기금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품목별로 가장 효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생산경쟁력 제고

- 원예분야 생산경쟁력 제고 분야는 5개 세부사업, 7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기준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인 성과지표는 1개, 미달한 지표는 4개, 성과목표가 없는 지표는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기준 성과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성과지표인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이다.
 - 2012년 기준 성과목표에 미달한 지표(4개)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의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의 '자체보증묘목점유율'과 '자체보증묘목생산율',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과수전업농증가율'로, 주요한 원인은 태풍과 병충해 피해이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은 한·칠레 FTA 대책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이유로 과수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 72.6%, 보통 14.9%, 불만족 12.5%).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과실의 단수는 최근 3년간 병해충과 태풍의 영향으로 목표 대비 실적은 하락하고 있다.

- 병해충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을 공급해 과수부문의 생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은 총 묘목 공급량 중 자체보증 묘목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 : 45.8%('10) → 50.4%('11) → 52.3%('12)

- 과원규모화사업도 영농규모 확대와 생산량 증가를 이유로 과수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만족 75.9%, 보통 13.8%, 불만족 10.3%).
 - 과원영농규모화는 과수재배를 전업으로 삼는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보다 쉽게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 조정 등의 사업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유통경쟁력 제고

- 원예분야 유통경쟁력 제고 분야는 6개 세부사업, 10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인 성과지표는 9개, 미달한 지표는 1개이다.
 - 2012년 성과목표에 미달한 성과지표는 공통지표인 '산지유통조직 평균 매출액 성장률'로 주요 원인은 2012년도 태풍 피해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거점 APC 매출액은 목표대비 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거점 APC의 매출액 성장률: 18.0%('11) → 27.9%('12)

- 과실 공동브랜드 유통비중도 증가 추세이다.
 - 과실 공동브랜드 유통비중: 8.8%('10) → 9.6%('11) → 8.4%('12)
 - 2012년 공동계산율은 57.4%로 목표 대비 14.8% 초과달성했다.

-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원예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중과 발작물브랜드 경영체 생산량은 연도별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 원예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중 : 81.6%('11) → 87.2%('12)
 - 발작물브랜드 경영체 생산량 비중 : 49%('10) → 60%('11) → 89%('12)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사업과 인삼전문생산단지조성 사업의 성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인삼 이력관리유통물량 비중 : 7.6%('10) → 7.1%('11) → 9.2%('12)
 - 인삼 계약재배 이력관리 비중 : 10.4%('10) → 12.6%('11) → 14.4%('12)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성과지표인 저온유통물량비중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 저온유통물량 비중 : 14.7%('10) → 26.7%('11) → 39.1%('12)

표 3-1. 원예분야 품목별 경쟁력 제고 유형화 예산 및 실적 현황(2012년)

단위 : 억 원

구분	사업명	회계	예산	실적
총계			2,588	3,114
생산 경쟁력 제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FTA기금	627	627
	과수우량묘목생산	FTA기금	7	7
	과원규모화	FTA기금	276	276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FTA기금	106	106
	시설원예 농산물품질개선사업	FTA기금	722	1,048
유통 경쟁력 제고	과실브랜드육성지원	FTA기금	13	12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FTA기금	82	82
	농산물브랜드육성 (원예브랜드+밭작물브랜드)	농안기금	140	140
	인삼약용작물계열화	농안기금	519	720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FTA기금	13	13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농안기금	71	71
	콩유통종합처리장('12년 신규)	농특회계	12	12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2.1. 원예부분 생산경쟁력 제고

2.1.1. 개괄

사업명		개요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생산비, 에너지 절감,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방풍시설·조수방제시설·관수시설)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역(품목) 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627억 원 ▪ 실적 : 627억 원
과수 우량 묘목 생산 지원	사업목적	▪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고품질 과일생산 촉진
	지원내용	▪ 묘목 생산 비용 :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포 조성, 자근묘 발근, 품종 접목, 병해충 방제, 시비, 결가지 발생 및 유인 등 ▪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충해 검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 및 자격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감(단감, 뽕은감) 등)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7억 원 ▪ 실적 : 7억 원
과원 영농 규모화 사업	사업목적	▪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및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 육성
	지원내용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과원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차료 지원(과원임대차사업)
	지원 대상 및 자격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과원 매도·임대대상자)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원매입·임대대상자)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76억 원 ▪ 실적 : 276억 원

과실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거점으로 육성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수단지 관개용수 개발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설치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비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 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20ha이상)으로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 약정한 지구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06억 원 실적 : 106억 원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수출 기반구축을 위한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및 증·개축 지원 비가림재배시설 집중 지원으로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자급기반 유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보광시설, 관수시설, ERP 시스템, 무인방제기 등 (시설현대화)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단지 증·개축) 원예특작시설내재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의 내재형 단동 비닐하우스 및 등 고시의 지역별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 APC, 농협, 영농법인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농업인(법인포함)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722억 원 실적 : 1,048억 원

- 원예분야 생산경쟁력 제고 대책은 과실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강화해 생산거점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의 성과로 주요과실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08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병해충과 태풍의 영향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하락하고 있다.
 - '12년 주요과실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13.4% 증가하였으나 목표대비 달성률은 오히려 하락해 2012년에 91.5%에 그쳤다.

- 병해충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을 공급해 과수부문의 생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총 묘목 공급량 중 자체보증 묘목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보증 묘목 생산율은 '08년도에 계획되었던 생산율 목표치(70%)를 초과한 이후 최근 70% 근방으로 회귀하고 있다.
- 과수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경우, 과수전업농이 전체 과수공급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자 과수전업농 증가율을 신규지표로 설정하였다. '12년도 과수전업농수의 증가율은 101.6%로 목표(102%)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과수전업농의 증가와 함께 과수전업농의 생산량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09년 46.8%에서 '11년 47.6%로 개선되었다.
-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시설원에 현대화를 지원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품질개선을 통해 주요 양념채소인 고추자급률 목표달성도를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증가율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비해 10.4% 높게 나타났고, 국내 고추자급률은 2012년도에 56.7%에 이르렀다.
- 이러한 원예부문 생산경쟁력제고 분야 사업들 중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의 성과지표인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기후와 병해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외부 변수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과수농가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또한, 과원영농규모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보다 쉽게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 조정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2.1.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공식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10\text{a당 평균수량}-\text{기준연도('04) } 10\text{a당 평균수량})/\text{기준연도('04) } 10\text{a당 평균수량}\} \times 100$
과수우량묘목생산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	$(\text{자체보증 묘목 공급량}/\text{총 묘목 공급량}) \times 100$
	자체보증 묘목 생산율(%)	$(\text{자체보증 묘목 생산량}/\text{묘포장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총 묘목 생산량}) \times 100$
과원영농규모화	과수전업농 증가율(%)	$\{(\text{당해연도 과수전업농 수}-\text{기준연도('11) 과수전업농 수})/\text{기준연도('11) 과수전업농 수}\} \times 100$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10\text{a당 평균수량}-\text{기준연도('04) } 10\text{a당 평균수량})/\text{기준연도('04) } 10\text{a당 평균수량}\} \times 100$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사업추진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사업미추진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고추자금률	국내 고추 생산량/고추 소비량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목표	117	121	121	123	124
	실적	117	122	121.2	118.4	113.4
	달성률(%)	100.0	100.8	100.1	96.3	91.5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	목표	21	37.0	45.0	52.0	54.0
	실적	21	37.1	45.8	50.4	52.3
	달성률(%)	100.0	100.3	101.8	96.9	96.9
자체보증 묘목 생산율(%)	목표	-	-	-	-	신규지표
	실적	80.8	71.8	83.5	76.7	72.7
	달성률(%)	-	-	-	-	-

과수전업농 증가율(%)	목표	-	-	-	신규지표	102
	실적	-	-	-	-	101.6
	달성률(%)	-	-	-	-	99.6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 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목표	-	5	5	8	10
	실적	-	18.9	4	26.6	10.4
	달성률(%)	-	378.0	80.0	332	104.0
고추자금률	목표	-	-	-	-	신규지표
	실적	-	-	-	-	56.7
	달성률(%)	-	-	-	-	-

구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	○	○	X	X
과수우량묘목 생산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	○	○	○	X	X
	자체보증 묘목 생산율(%)	-	-	-	-	-
과원영농규모화	과수전업농 증가율(%)	-	-	-	-	X
과실전문생산 단지기반조성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	○	○	X	X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	X	◎	○
	고추자금률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원예부분 생산경쟁력 제고 성과평가〉

단위: 개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4	2	0	1	3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1.3. 성과분석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의 성과로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08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병해충과 태풍의 영향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하락하고 있다.
 - '12년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13.4% 증가하였으나 목표대비 달성률은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인다.
 - 달성률: 100.0('08)→ 100.1('10) → 91.5('12)
 - 이러한 달성률 하락 원인은 병해와 태풍의 영향으로 단위(10a 당 생산량)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사과: 1,485kg/10a('10) → 1,218kg/10a('11) → 1,285kg/10a('12)
 - 배: 1,896kg/10a('10) → 1,926kg/10a('11) → 1,206kg/10a('12)
 - 단감: 1,186kg/10a('10) → 1,201kg/10a('11) → 1,242kg/10a('12)
 - 포도: 1,739kg/10a('10) → 1,543kg/10a('11) → 1,644kg/10a('12)
 - 복숭아: 996kg/10a('10) → 1,342kg/10a('11) → 1,342kg/10a('12)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으로 총 묘목 공급량 중 자체보증 묘목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보증 묘목 생산율은 '08년도에 계획되었던 생산율 목표치(70%)를 초과한 이후 최근 70% 근방으로 회귀하고 있다.
 -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 45.8%('10) → 50.4%('11) → 52.3%('12)
 -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 대비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병해의 증가로 목표치의 증가 폭이 완화되는 등 다소 주춤하고 있다.
 - 점유율 목표: 45.0%('10) → 52.0%('11) → 54.0%('12)
 - 달성율: 101.8%('10) → 96.9%('11) → 96.9%('12)
 - 자체보증 묘목 생산량은 '08년도 계획되었던 목표 생산율(70%)을 달성한 이후 당초 목표 생산율(70%) 근방으로 회귀하였다.
 - 자체보증 묘목 생산율: 83.5%('10) → 76.7%('11) → 72.7%('12)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규모화 된 과수전업농을 육성하여 이들이 전체 과수공급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2년도 과수전업농 수의 성장률은 목표치인 102%에 근접한 101.6%의 실적을 거두었다.

- '12년도 과수전업농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22,766명
 - 전업농 증가율: 20,242명('08) → 21,116명('10) → 22,766명('12)
 - 과수전업농의 증가와 함께 과수전업농의 생산량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 46.8%('09) → 48.4%('10) → 47.6%('11)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증가율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비해 10.4% 높게 나타났다.
-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상대적 수출증가율: 4%('10) → 26.6%('11) → 10.4%('12)
 - 품질개선을 통해 대표적인 양념채소인 고추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 고추자급률: 56.7%('12)

2.1.4. 개선과제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에서 과수농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인 병해와 태풍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사업에서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은 당초 계획되었던 점유율 목표치(60%)에 근접해 있는 반면, 자체보증 묘목 생산율은 목표치(70%)를 이미 달성한 이후 주춤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 과원영농규모화는 과수농사를 전업으로 삼는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보다 쉽게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과원매매 규제 완화,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의 사업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 원예부분 유통경쟁력 제고

2.2.1. 개괄

사업명		개요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가능하고 국내과실을 대표 할 수 있는 전국 공동브랜드 육성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등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상품개발비, 교육용기자재 구입비 등 광고 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등(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수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과실 브랜드 경영체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3억 원 실적 : 12억 원
과수 거점 산지 유통 센터 건립 지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82억 원 실적 : 82억 원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작물 및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회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경영컨설팅 등(조직운영 지원) 브랜드 개발·관리, 상품판촉 등(마케팅 지원) 공정육묘장, 우량종구 생산단지 등 공동이용시설·장비(생산기반 조성 지원)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종합처리시설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작물(채소류), 발작물 브랜드 경영체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40억 원 실적 : 140억 원

인삼 약용 작물 계열화 지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유통·가공구조를 생산자단체의 계열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현대화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재배(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계약에 참여하는 농가에 계약자금 지원) 수매사업(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전 계약대상자의 생산 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519억 원 실적 : 720억 원
인삼 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 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유통시설현대화(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계획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작규모 200ha 이상 규모로 조직화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농림수산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법인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3억 원 실적 : 13억 원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의 신규설치 저온수송차량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 김치가공업체(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또는 참여조직 우선 선정)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71억 원 실적 : 71억 원
공유통 종합 처리장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도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이용 시설·장비 조성 지원 종합처리시설 지원(정선시설, 선별시설, 저장창고, 저온저장창고 등) 재배기술 교육·컨설팅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산콩 주산단지의 농업법인 및 지역조합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2억 원 실적 : 12억 원

- 원예산업 유통경쟁력 제고 분야는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립지원 사업은 과실 주산지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을 지원해 산지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삼고자 시행하고 있다. 주산지의 공동계산율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평균매출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산지유통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산 과일의 물량증가에 대응하여 국산과일의 유통단계에 일관된 품질관리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과일을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과실공동브랜드 유통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 사업은 FTA이행에 따른 시장개방화와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과 같은 유통변화에 농업 경영체가 대응력을 갖추도록 우수농산물브랜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과지표인 원예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중과 발작물브랜드 경영체 생산량은 연도별 목표치를 달성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사업은 인삼·약용작물의 유통구조를 현대화하기 위해 생산단체의 계열화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인삼 이력관리유통물량비율과 인삼 계약재배이력관리비중으로 설정된 성과지표는 모두 증가하였고, 연도별 목표치도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 인삼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생산 권역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을 당초 목표했던 대로 연도별로 2개씩³⁰⁾ 지정하였다.

30) 실제 사업에서는 2년에 걸쳐 4개씩 지정하는 것이나 연도별 표기를 위해 연도별 2개씩으로 분할하여 표시함.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막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예냉 등 저온처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저온유통물량비중은 '10년 14.7%에서 '12년 39.1%로 크게 증가하였고, '12년도에는 목표대비 130.3% 초과 달성되었다.
- 원예산업 유통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2.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공식
공통지표	산지유통조직 평균 매출액 성장률(%)	(당해연도 평균 매출액-전년도 평균 매출액)/전년도 평균 매출액×100
	거점APC매출액 성장률(%)	(당년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100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과실 공동브랜드 유통비중(%)	(공동브랜드 과실생산량/주요과실생산량)×100
	계약(약정) 출하비율(%)	(계약(약정)재배 매입금액/취급액)×100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거점APC매출액 성장률(%)	(당년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100
농산물브랜드육성	원예브랜드농산물 매출액 비율(%)	(브랜드 부여된 농산물 매출액/경영체 전체 매출액)×100
	발작물브랜드 경영체생산량 목표달성도	∑브랜드경영체 생산량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인삼이력관리 유통물량 비율(%)	당년도 안전성검사 실시물량/최근 3개년 평균 수삼유통물량×100
	인삼계약재배 비율(%)	(당년도 계약재배 이력관리 면적/최근 3개년 평균 신규재배면적)×100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 수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 수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유통물량 비중(%)	지원조직의 (채소·버섯류 저온유통물량/채소·버섯류 총 취급물량)×100
콩유통종합처리장	지원대상조직 매출액 증가율(%)	{(당해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자유통 조직 평균 매출액 증가율(%)	목표	-	2.0	5.0	7.0	7.5
	실적	5.3	4.5	9.9	19.4	7.1
	달성률(%)	-	225.0	198.0	277.0	94.7
거점APC 매출액 성장률(%)	목표	-	-	-	5	12
	실적	-	-	-	18	27.9
	달성률(%)	-	-	-	360	233
과실 공동브랜드 유통비중(%)	목표	5.0	7.0	8.5	9.5	9.5
	실적	5.2	7.8	8.8	9.6	8.4
	달성률(%)	104.0	111.4	103.1	101.1	88.4
공동계산율 (계약 출하비율)(%)	목표	-	-	-	-	45.0
	실적	-	-	-	-	57.4
	달성률(%)	-	-	-	-	114.8
원예브랜드농산 물 매출액 비율(%)	목표	-	-	-	70	85
	실적	-	-	-	81.6	87.2
	달성률(%)	-	-	-	116.6	102.6
발작물브랜드 경영체생산량 목표달성도 (천 톤)	목표	-	-	40	57	87
	실적	-	-	49	60	89
	달성률(%)	-	-	122.5	105.3	102.3
인삼이력 관리 유통물량 비율(%)	목표	10.1	10.1	7.0	7.6	7.6
	실적	11.9	8.5	7.6	7.1	9.2
	달성률(%)	117.8	84.2	108.6	93.4	121.1
인삼 계약재배 이력관리 비율(%)	목표	13.6	15	10	10.4	12.2
	실적	18.6	16.6	10.4	12.6	14.4
	달성률(%)	136.8	110.7	104.0	121.2	118.0
인삼전문 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 수	목표	-	-	2	2	2
	실적	-	-	2	2	2
	달성률(%)	-	-	100	100	100
저온유통 물량 비중(%)	목표	-	-	14.7	20	30
	실적	-	-	14.7	26.7	39.1
	달성률(%)	-	-	100	133.5	130.3
지원대상 조직 매출액 증가율(%)	목표	2012년 시범사업				
	실적					
	달성률(%)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공통지표	산지유통조직 평균 매출액 성장률(%)	-	◎	◎	◎	X
	거점APC매출액 성장률(%)	-	-	-	◎	◎
과실브랜드육성지 원	과실 공동브랜드 유통비중(%)	○	○	○	○	○
	계약(약정) 출하비율(%)	-	-	-	-	○
과수거점산지유통 센터건립지원	거점APC매출액 성장률(%)	-	-	-	◎	◎
농산물브랜드육성	원예브랜드농산물 매출액 비율(%)	-	-	-	○	○
	발작물브랜드 경영체생산량 목표달성도(천 톤)	-	-	○	○	○
인삼약용작물계열 화	인삼이력관리 유통물량 비율(%)	○	X	○	X	○
	인삼계약재배 비율(%)	◎	○	○	○	○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 수	-	-	○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유통물량 비중(%)	-	-	○	◎	◎
공유통종합처리장	지원대상조직 매출액 증가율(%)	2012년 시범사업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원예부분 유통경쟁력 제고 성과평가〉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2	7	1

단위: 개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2.3. 성과분석

- 거점 APC 매출액은 목표대비 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거점 APC의 매출액 성장률: 18%('11) → 27.9%('12)
 - 같은 기간 설정된 거점 APC 매출액 목표치는 각각 5%, 12%였는데, 모두 360%, 233% 초과달성하였다.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으로 과실 공동브랜드 유통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다소 하락하여 공동브랜드 유통비중이 낮아졌다.
 - 과실 공동브랜드 유통비중: 8.8%('10) → 9.6%('11) → 8.4%('12)
 - 목표대비 달성율: 103.1%('10) → 101.1%('11) → 88.4%('12)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설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주산지의 공동계산율은 목표를 초과하였고, 평균매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거점 APC의 매출액 성장률: 18%('11) → 27.9%('12)
 - '12년도 공동계산율은 57.4%로 목표 대비 114.8%로 달성하였다.
 - 목표 출하비율: 45%('12), 실제 출하비율: 57.4%('12)

-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원예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중과 발작물브랜드 경영체 생산량은 연도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원예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중은 '11년 81.6%에서 '12년 87.2%로 5.6p(포인트) 성장하였고, 연도별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다.
 - 실적치: 81.6%('11) → 87.2%('12)
 - 달성도: 116.6%('11) → 102.6%('12)
 - 발작물브랜드 경영체 생산량은 '10년 49천 톤에서 '12년 89천 톤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최근 3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실적치: 49천 톤('10) → 60천 톤('11) → 89천 톤('12)
 - 달성도: 122.5%('10) → 105.3%('11) → 102.3%('12)

- 인삼·약용작물 계열화 사업의 성과지표인 인삼 이력관리유통물량비율과 인삼 계약재배이력관리비중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도별 목표치도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 인삼 이력관리유통물량 비중은 '10년 7.6%에서 '12년 9.2%로 성장하였고,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치는 '11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달성되었으며, '12년에는 목표 대비 121.1% 달성하였다.
 - 실적치: 7.6%('10) → 7.1%('11) → 9.2%('12)
 - 목표 달성도: 108.6%('10) → 93.4%('11) → 121.1%('12)
 - 인삼 계약재배 이력관리 비중은 '10년 10.4%에서 '12년 14.4%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치를 모두 초과달성하였다.
 - 실적치: 10.4%('10) → 12.6%('11) → 14.4%('12)
 - 목표 달성도: 104.0%('10) → 121.2%('11) → 118.0%('12)

-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 사업은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을 당초 목표했던 대로 연도별로 2개씩³¹⁾ 지정하여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의 성과지표인 저온유통물량비중 목표치를 초과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온유통물량 비중은 '10년 14.7%에서 '12년 39.1%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 목표대비 달성률은 130.3%에 달했다.
 - 실적치: 14.7%('10) → 26.7%('11) → 39.1%('12)
 - 달성도: 100%('10) → 133.5%('11) → 130.3%('12)

31) 실제 사업에서는 2년에 걸쳐 4개씩 지정하는 것이나 연도별 표기를 위해 연도별 2개씩으로 분할하여 표시함.

2.2.4. 개선과제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에서 과실 공동브랜드 유통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2년처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하락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유통비중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외생변수의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설 지원 사업에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들의 평균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 시설투자 중심의 사업 지원 외에 교육·훈련, 마케팅, 브랜드개발, 유통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사업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 농산물브랜드육성 지원 사업으로 원예브랜드 농산물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지원 받은 발작물브랜드경영체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사업추진기관 및 사업수요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종합적·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보강하고자 한다.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지원 사업으로 인삼이력관리유통물량 비율과 계약재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유통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므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이력관리된 인삼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방안을 고려 중이다.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지원받은 조직의 저온유통물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므로 저온유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3.1.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3.1.1. 조사개요 및 응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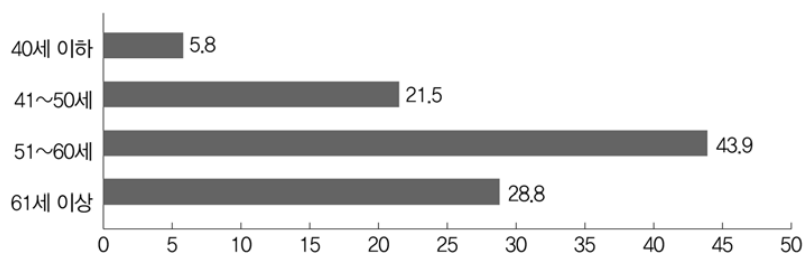
가. 조사개요

-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2013년 3월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농산물 브랜드육성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에는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만족도, 지원받은 사업의 만족 및 불만족 요인 등이 포함되었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내용도 함께 조사하였다.
- 원예분야 경쟁력제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혜자 184농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 농가(KREI 통신원) 174농가, 총 358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나. 응답자 현황

- 설문 조사에 응한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9.5%, 남성 90.5%로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응답자 연령은 40세 이하가 5.8%, 41~50세가 21.5%, 51~60세가 43.9%, 61세 이상이 28.8%로 50대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1. 원예분야 응답자 연령



-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22.2%, 고졸이 45.2%, 대졸이 28.9%, 대학원졸업 이상이 3.7%로 고졸과 대졸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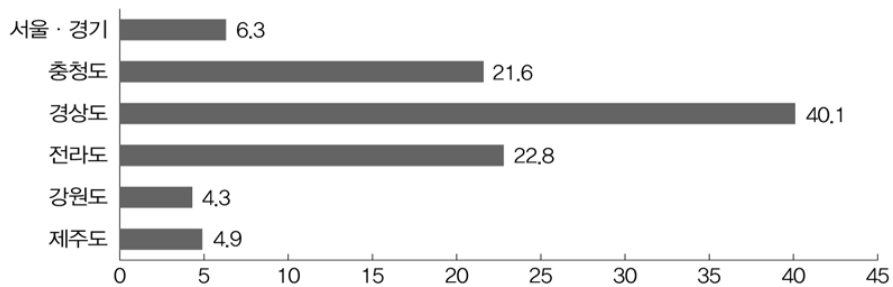
표 3-2. 원예분야 응답자 학력

구 분	비율(%)
중학교 졸업 이하	22.2
고등학교 졸업	45.2
대학교 졸업	28.9
대학원 졸업 이상	3.7
합계	100

주: 미기재자 33명 제외

- 거주 지역은 경상도가 40.1%, 전라도가 22.8%, 충청도는 21.6%, 서울 및 경기도는 6.3%, 제주도는 4.9%, 강원도는 4.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원예분야 응답자 거주 지역



- 영농경력은 10년 이하가 30.5%, 11~20년이 26.2%, 21~30년이 22.2%, 31~40년이 13.7%, 41년 이상이 7.4%로, 응답자의 평균 영농경력은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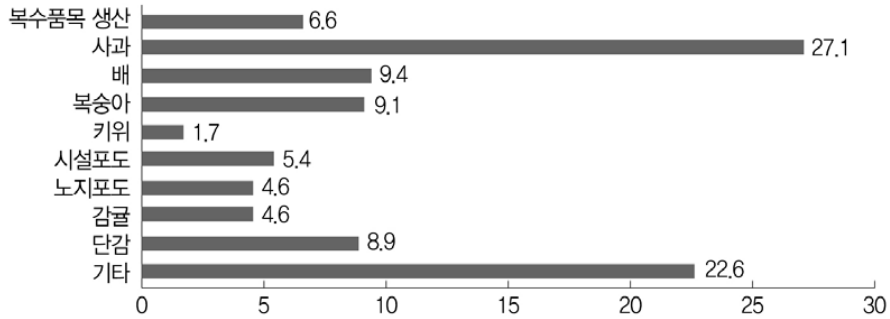
표 3-3. 원예분야 응답자 영농경력

구 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40년	41년 이상	합계
비율(%)	30.5	26.2	22.2	13.7	7.4	100

주: 미기재자 7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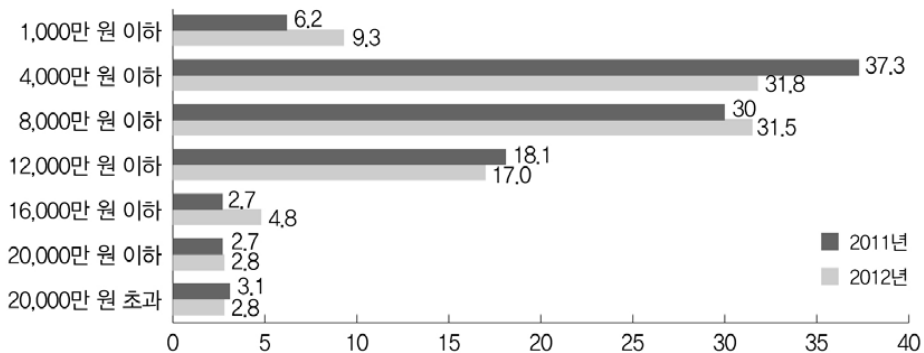
- 응답자의 재배과일은 사과가 2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가 9.4%, 복숭아가 9.1% 순이었고, 복수의 품목을 재배하는 응답자는 6.6%였다.

그림 3-3. 원예분야 응답자 재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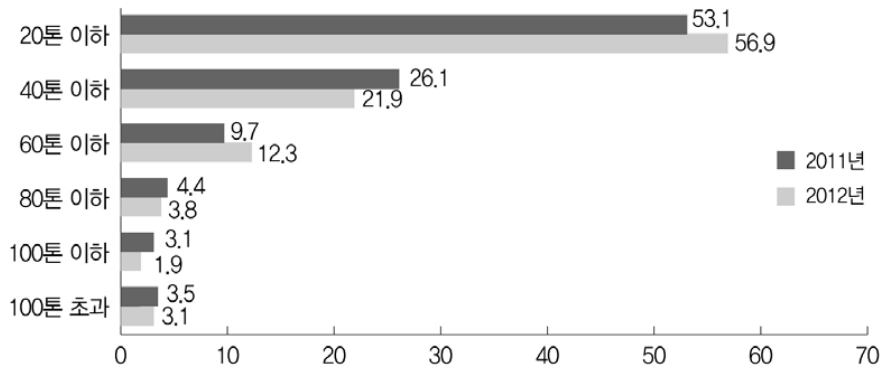
- 2011년과 2012년 응답자의 판매수익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001~4,000만 원이 37.3%, 4,001~8,000만 원이 30.0%, 8,001~12,000만 원이 18.1% 순으로 가장 많았고, 1천만 원 이하 6.2% 12,001~16,000만 원, 16,001~20,000만 원이 2.7%로 가장 적었다.
- 2012년 역시 1,001~4,000만 원이 31.8%, 4,001~8,000만 원은 31.5%, 1000만 원 이하 9.3%, 8,001~12,000만 원은 17% 순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고, 12,001~16,000만 원은 4.8%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그림 3-4. 원예분야 응답자 판매수익



- 출하량을 보면, 2011년, 2012년 모두 20톤 이하가 각각 53.1%, 56.9%로 가장 많았다.
- 두 해 모두 다음으로 21~40톤이 각각 26.1%, 21.9%이고, 41~60톤이 각각 9.7%, 12.3% 순으로 나타났다.
- 20톤 이하는 2011년 대비 2012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61~80톤부터는 2011년 대비 2012년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5. 원예분야 응답자 출하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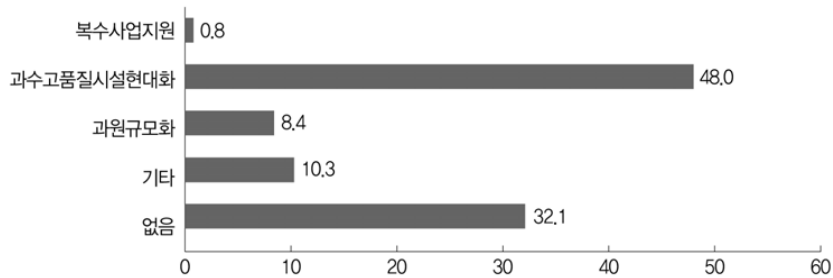


3.1.2. 지원사업별 만족도

가.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별 수혜자 현황

- 지원받는 사업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이 4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사업이 10.3%, 과원규모화 사업이 8.4%, 복수사업 지원이 0.8%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FTA 대책으로 포함된 어떠한 사업도 지원받지 않는 응답자는 32.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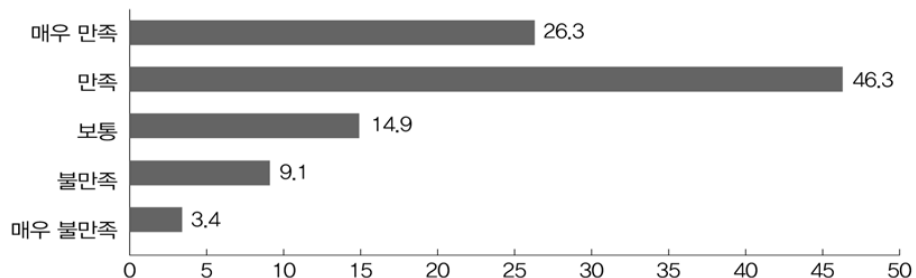
그림 3-6. FTA 보완대책 사업별 수혜자



나.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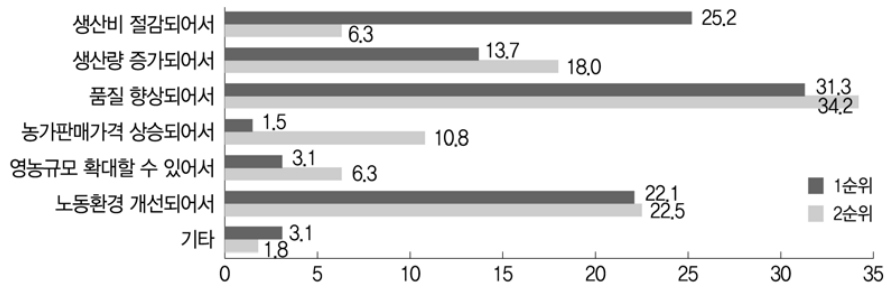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의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6.3%, '매우 만족'이 26.3%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은 9.1%, '매우 불만족'은 3.4%에 불과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수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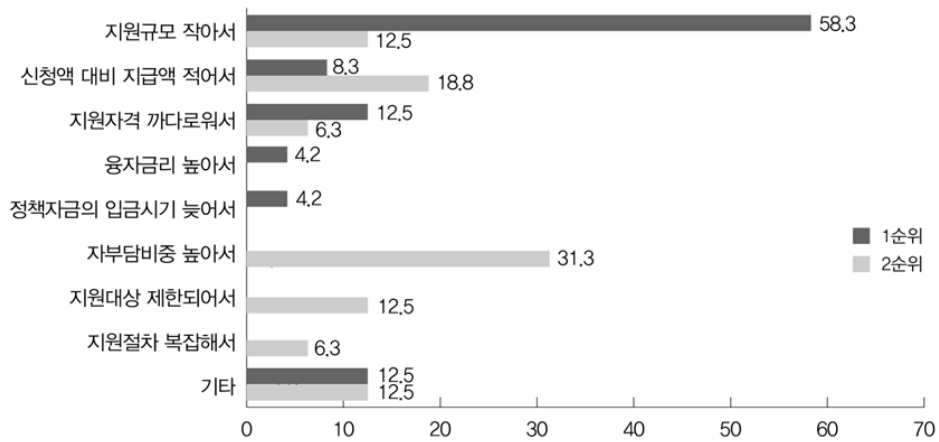
- 응답자들은 대체로 해당 사업을 통해 품질향상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만족 1순위 요인으로는 '품질이 향상되어서'가 31.3%, '생산비가 절감되어서'가 25.2%,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22.1%, '생산량이 증가해서'가 13.7%,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서'가 3.1%, '농가판매가격이 상승해서'가 1.5%로 나타났다.
 - 사업의 만족 2순위 요인으로는 '품질이 향상되어서'가 34.2%,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22.5%, '생산량이 증가해서'가 18.0%, '농가판매가격이 상승해서'가 10.8%, '생산비가 절감되어서'와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서'가 6.3%로 나타났다.

그림 3-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요인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불만족 1순위 요인으로는 '지원규모가 작아서'가 58.3%, '지원자격이 까다로워서'가 12.5%, '신청액 대비 지급액이 적어서'가 8.3%, '융자금리가 높아서'와 '정책자금의 입금시기가 늦어서'가 4.2%로 나타났고, 그밖에 기타요인은 12.5%로 나타났다.
- 불만족 2순위 요인으로는 '자부담비중이 높아서'가 31.3%, '신청액 대비 지급액 적어서'가 18.8%, '지원규모가 작아서'와 '지원대상이 제한되어서'가 12.5%,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서'가 6.3%로 나타났고, 그밖에 기타요인은 1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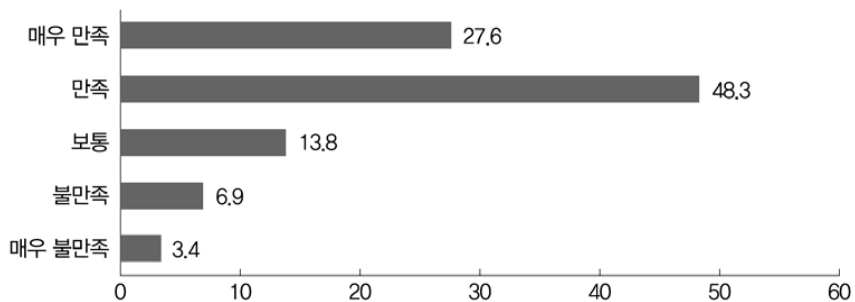
그림 3-9.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불만족요인



다. 과원규모화 사업

- 과원규모화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만족'이 48.3%, '매우 만족'이 27.6%, '보통'이 13.8%, '불만족'이 6.9%, '매우 불만족'이 3.4%로 나타나 수혜 농업인들이 대체로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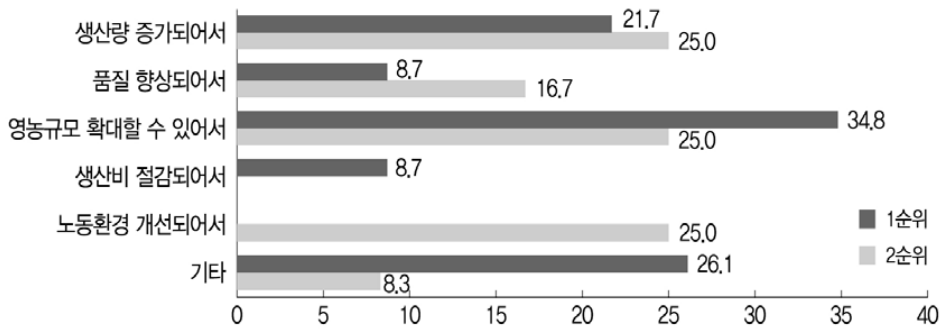
그림 3-10. 과원규모화사업 만족도



- 사업수혜과수농가들은 사업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나 생산량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수혜과수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원규모화 사업의 만족 1순위 요인으로는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서'가 34.8%, '생산량이 증가되어서'가 21.7%, '생산비가 절감되어서'와 '품질 향상되어서'가 각각 8.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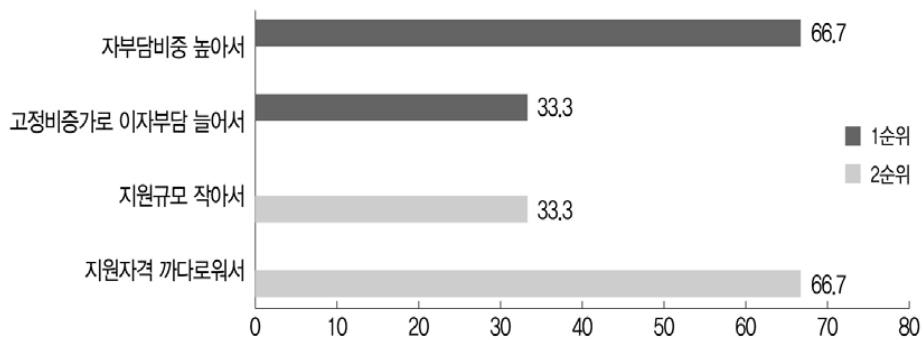
- 사업의 만족 2순위 요인으로는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서'와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25.0%, '품질이 향상되어서'가 16.7%로 응답하였다.

그림 3-11. 과원규모화사업 만족요인



- 과원규모화 사업의 불만족 1순위 요인으로는 '자부담비중이 높아서'가 66.7%, '고정비증가로 이자부담 늘어서'가 33.3%로 나타났고, 2순위 요인으로는 '지원자격 까다로워서'가 66.7%, '지원규모 작아서'가 3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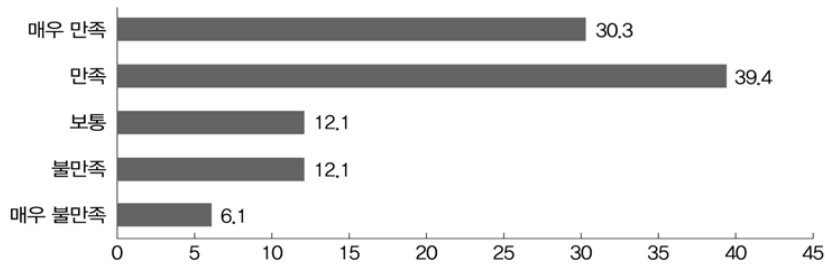
그림 3-12. 과원규모화사업 불만족요인



라. 기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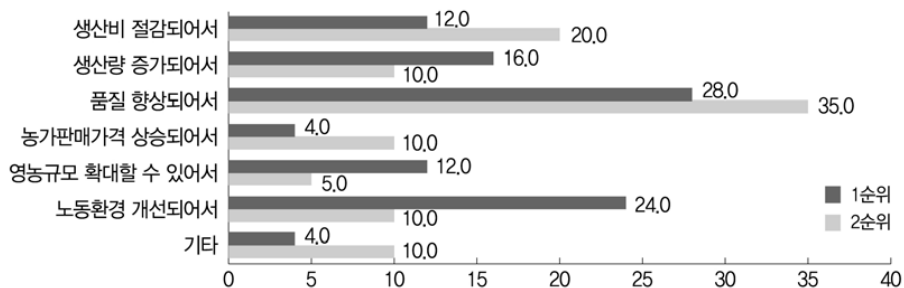
- 기타 사업(발작물 브랜드 육성,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39.4%, '매우 만족'이 30.3%, '보통'과 '불만족'이 12.1%, '매우 불만족'이 6.1%로 나타나 다른 사업과 함께 만족하는 응답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3-13. 기타 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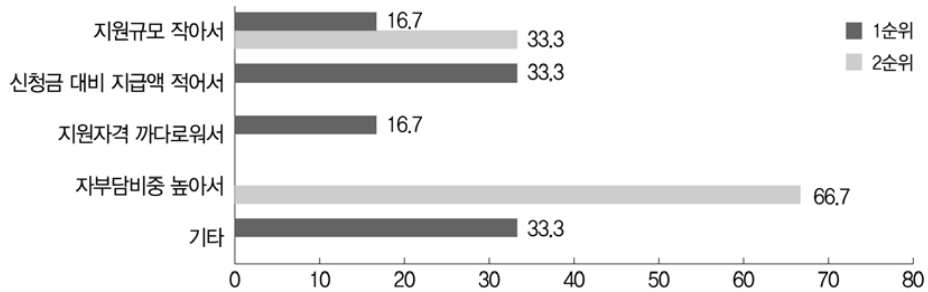
- 기타 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는 품질향상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다음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을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기타 사업의 만족 1순위 요인으로는 '품질이 향상되어서'가 28.0%,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24.0%, '생산량이 증가되어서'가 16.0%, '생산비가 절감되어서'와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서'가 12.0%, '농가판매가격이 상승되어서'가 4.0%로 나타났다.
 - 해당 사업의 만족 2순위 요인으로는 1순위 요인과 마찬가지로 '품질이 향상되어서'가 3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산비가 절감되어서'가 20.0%,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농가판매가격이 상승되어서'와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가 10.0%,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서'가 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기타 사업 만족요인



- 기타 사업에 대한 불만족 1순위 요인으로는 '신청금 대비 지급액이 적어서'가 33.3%, '지원규모가 작아서'와 '지원자격이 까다로워서'가 16.7%로 나타났고, 2순위 요인으로는 '자부담비중이 높아서'가 66.7%, '지원규모가 작아서'가 3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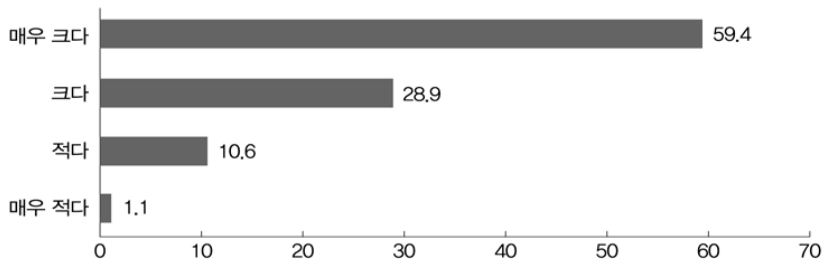
그림 3-14. 기타 사업 불만족요인



3.1.3. FTA가 과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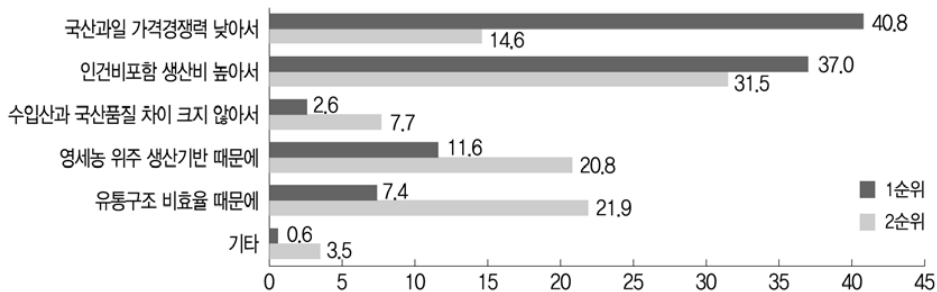
- FTA가 국내 과수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에 대해 '매우 크다'가 59.4%, '크다'가 28.9%, '적다'가 10.6%, '매우 적다'가 1.1%로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과수농가들이 FTA가 국내 과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6. FTA가 과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 FTA가 국내 과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변한 응답자들 중, 그렇게 생각한 1순위 요인으로는 '국산과일 가격경쟁력이 낮아서'가 40.8%, '인건비 포함 생산비가 높아서'가 37.0%, '영세농 위주의 생산기반 때문'에'가 11.6%, '유통구조의 비효율 때문'에'가 7.4%, '수입산과 국산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서'가 2.6%로 나타났다.
-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 2순위 요인으로는 '인건비 포함 생산비가 높아서'가 31.5%, '유통구조의 비효율 때문'에'가 21.9%, '영세농 위주의 생산기반 때문'에'가 20.8%, '국산과일 가격경쟁력이 낮아서'가 14.6%, '수입산과 국산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서'가 7.7%로 조사되었다.
-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응답자들이 FTA로 인해 우리 과수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 요인으로는 생산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국산과일의 낮은 가격경쟁력이 차지한 한편, 수입산과 국산의 품질 차이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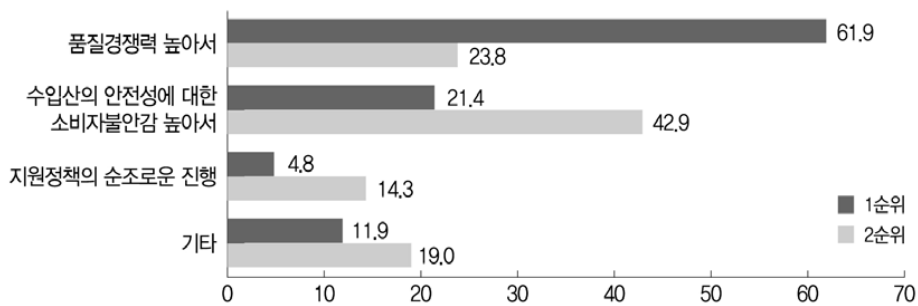
그림 3-17.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원예분야)



- FTA로 인해 우리 과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즉,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 응답자들 중, 그렇게 생각한 1순위 요인으로는 '품질경쟁력이 높아서'가 61.9%, '수입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불안감이 높아서'가 21.4%, '지원정책의 순조로운 진행'이 4.8%로 나타났다.

- 2순위 요인으로는 '수입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불안감이 높아서'가 42.9%, '품질경쟁력이 높아서'가 23.8%, '지원정책의 순조로운 진행'이 14.3%로 나타났다.
-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응답자들이 FTA로 인해 우리 과수산업에 끼칠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 요인으로는 '품질경쟁력'이 6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수입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2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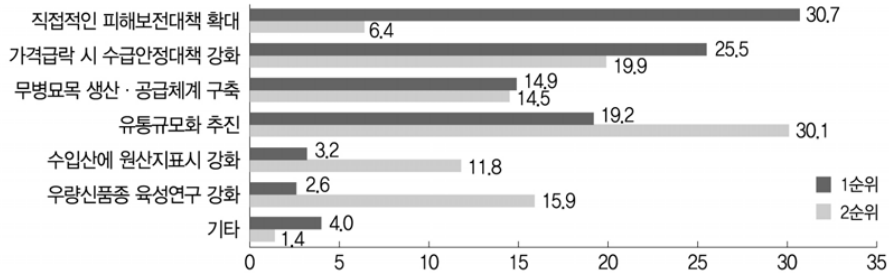
그림 3-18. FTA가 부정적 영향이 적은 이유



3.1.4.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 FTA에 대응하기 위한 과수산업 대책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1순위로는 '직접적인 피해보전대책 확대'가 30.7%, '가격급락 시 수급안정대책 강화'가 25.5%, '유통규모화 추진'이 19.2%, '무병묘목 생산·공급체계 구축'이 14.9%, '수입산의 원산지표시 강화'가 3.2%, '우량신품종 육성연구 강화'가 2.6%로 조사되었다.
- 우선적 고려사항 2순위로는 '유통규모화' 추진이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격급락 시 수급안정대책 강화'가 19.9%, '우량신품종 육성연구 강화'가 15.9%, '무병묘목 생산·공급체계 구축'이 14.5%, '수입산의 원산지표시 강화'가 11.8%, '직접적인 피해보전대책 확대'가 6.4% 순으로 나타났다.
-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FTA 대응을 위한 과수산업 대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유통규모화 추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수급안정대책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원예분야)



- 지원받는 사업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수립 시 우선 고려사항 간의 상호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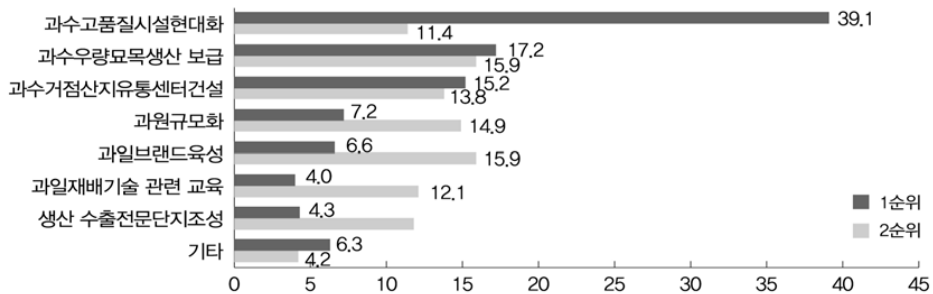
3.1.5. 시행중인 FTA 보완대책

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지원사업 중에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로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39.1%,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이 17.2%,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이 15.2%, '과원규모화'가 7.2%, '과일브랜드육성'이 6.6%, '생산 및 수출전문단지 조성'이 4.3%, '과일재배기술 관련 교육'이 4.0%로 조사되었다.
- 소득증대에 도움 되는 사업 2순위로는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과 '과일브랜드육성'이 15.9%, '과원규모화'가 14.9%,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이 13.8%, '과일재배기술 관련 교육'이 12.1%, '생산 및 수출전문단지조성'이 11.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11.4%로 조사되었다.
- 1순위와 2순위를 합쳤을 때에는,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32)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지원받는 사업과 FTA 대응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1순위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χ^2 -statistic=11.589, Degrees of Freedom=24, p-value=0.984이고, FTA 대응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1순위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χ^2 -statistic=27.005, Degrees of Freedom=24, p-value=0.304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림 3-20. FTA 보완대책 중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원예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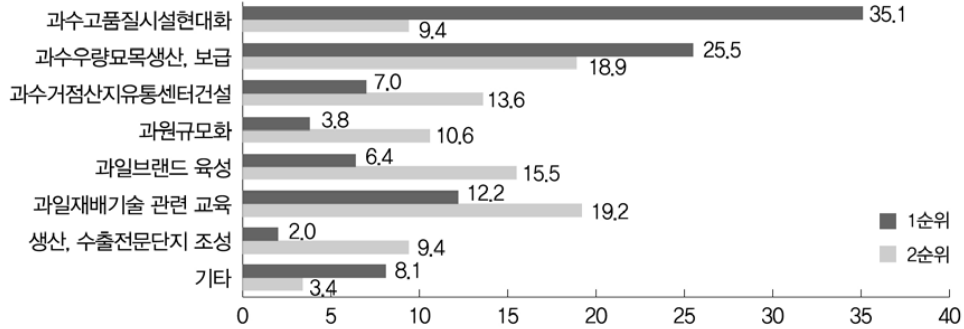
- 지원받는 사업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수립 시 우선 고려사항 간의 상호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지원 사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1순위 사업으로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35.1%,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이 25.5%, '과일재배기술 관련 교육'이 12.2%,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이 7.0%, '과일브랜드육성'이 6.4%, '과원규모화'가 3.8%, '생산 및 수출전문단지조성'이 2.0%로 조사되었다.
- 2순위 사업으로는 '과일재배기술 관련 교육'이 19.2%,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이 18.9%, '과일브랜드육성'이 15.5%,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이 13.6%, '과원규모화'가 10.6%,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와 '생산 및 수출전문단지조성'이 9.4%로 조사되었다.
- 1순위와 2순위요인을 합쳤을 경우,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는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비중과 같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지원받는 사업과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1순위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χ^2 -statistic=27.345, Degrees of Freedom=28, p-value=0.500이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2순위 사업 간 분석 결과는 χ^2 -statistic=27.305, Degrees of Freedom=28, p-value=0.718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 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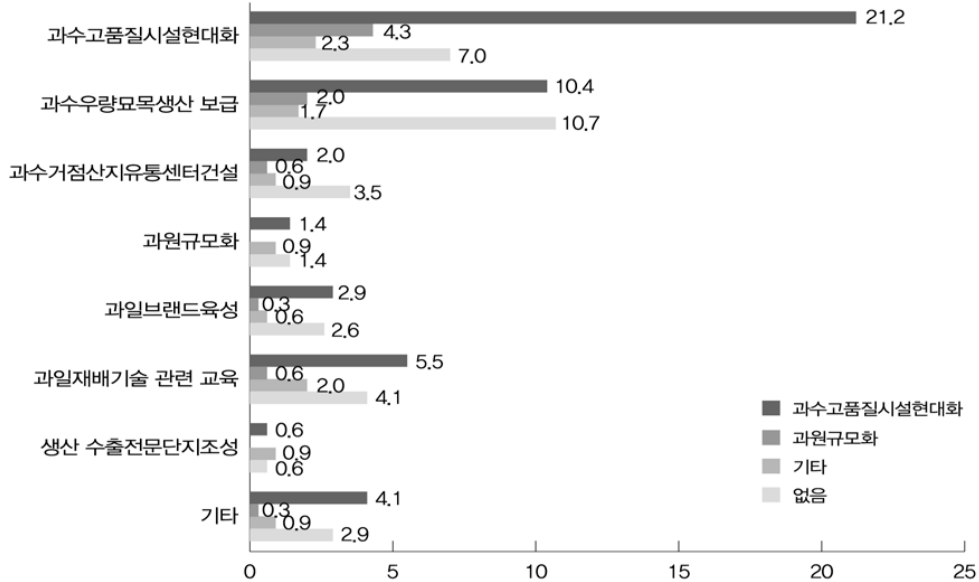
○ 지원받는 사업과 지원 사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1순위 사업과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⁴⁾

○ 그러나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과 '과원규모화사업 및 기타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1순위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선택하였다. 지원받는 사업별,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1순위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선택한 비율을 살펴보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21.2%, '과원규모화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4.3%, '기타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2.3%로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선택'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받는 사업이 없는 응답자들은 1순위 사업으로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사업 (10.7%)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7.0%)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41.861, Degrees of Freedom=28, p-value=0.045.

그림 3-22. FTA 보완대책 중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원예분야)



○ 지원받는 사업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2순위 사업 간의 교차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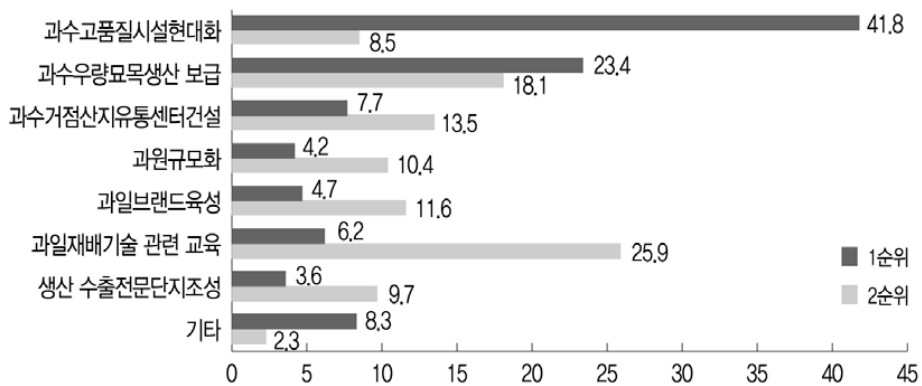
○ 지원 사업 중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로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41.8%,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이 23.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이 7.7%, '과일재배기술 관련 교육'이 6.2%, '과일브랜드육성'이 4.7%, '과원규모화'가 4.2%, '생산 및 수출전문단지조성'이 3.6% 순으로 조사되었다.

○ 2순위로는 '과일재배기술 관련 교육'이 25.9%,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이 18.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이 13.5%, '과일브랜드육성'이 11.6%, '과원규모화'가 10.4%, '생산 및 수출전문단지조성'이 9.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8.5%로 조사되었다.

35)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34.795, Degrees of Freedom=28, p-value=0.176

-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는 앞서 다른 사업에 관한 질문에서와 같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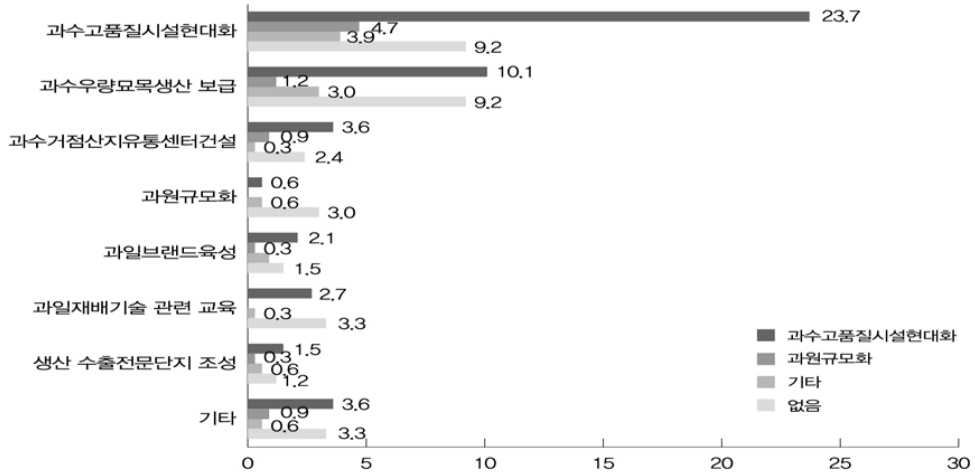
그림 3-23.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원예분야)



- 지원받는 사업과 지원 사업 중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1순위 사업과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⁶⁾
- 그러나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과 '과원규모화사업 및 기타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1순위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는 사업별,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1순위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선택한 비율을 살펴보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23.7%, '과원규모화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4.7%, '기타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은 3.9%, 지원받는 사업이 없는 응답자들은 9.2%로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는 응답자들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선택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받는 사업이 없는 응답자들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9.2%)과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사업'(9.2%)을 1순위 사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36)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47.193, Degrees of Freedom=28, p-value=0.013

그림 3-24.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업 1순위
교차분석(원예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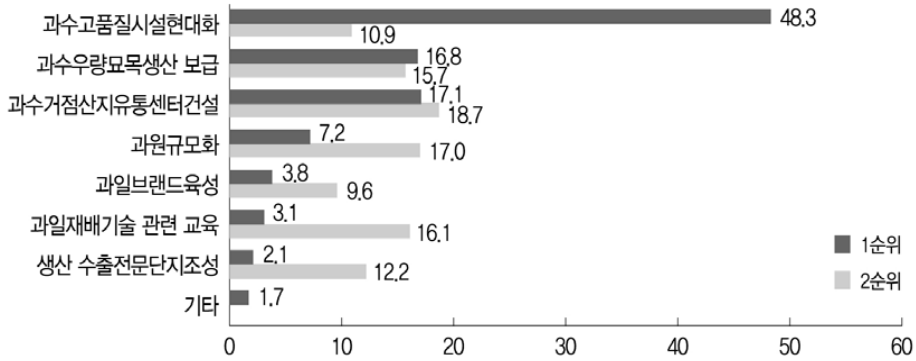
- 지원받는 사업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2순위 사업간의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3.1.6.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산업

- 투융자사업 중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1순위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48.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이 17.1%,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이 16.8%, '과원규모화'가 7.2%, '과일브랜드육성'이 3.8%, '과일재배기술 관련 교육'이 3.1%, '생산 및 수출전문단지조성'이 2.1% 순이었다.
- 2순위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이 18.7%, '과원규모화'가 17.0%, '과일재배 기술 관련 교육'이 16.1%,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이 15.7%, '생산 및 수출전문 단지조성'이 12.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10.9%, '과일브랜드육성'이 9.6%로 조사되었다.
-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투융자를 확대해야할 분야로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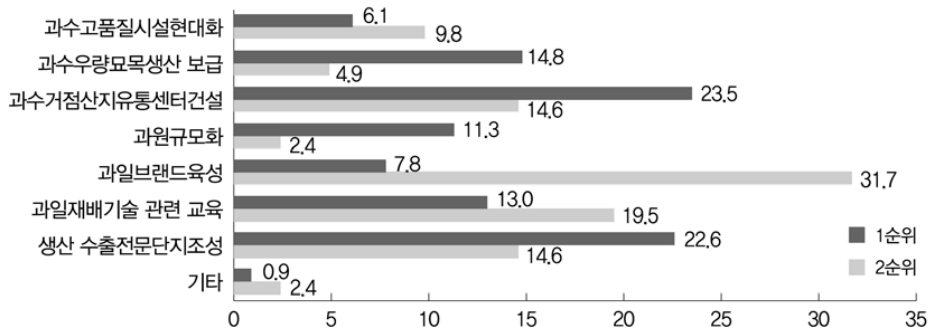
37)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39.327, Degrees of Freedom=28, p-value=0.076

그림 3-25. FTA 보완대책 중 투용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원예분야)



- 투용자사업 중 축소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1순위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이 23.5%, '생산 및 수출전문단지조성'이 22.6%,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이 14.8%, '과일재배기술 관련 교육'이 13.0%, '과원규모화'가 11.3%, '과일브랜드육성'이 7.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6.1%로 조사되었다.
- 2순위로는 '과일브랜드육성'이 31.7%, '과일재배기술 관련 교육'이 19.5%,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과 '생산 및 수출전문단지조성'이 14.6%,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가 9.8%, '과수우량묘목생산 및 보급'이 4.9%, '과원규모화'가 2.4%로 조사되었다.
-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투용자를 축소해야할 분야로는 '과일브랜드육성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순이었다.

그림 3-26. FTA 보완대책 중 투용자 축소가 필요한 사업(원예분야)



- 지원받는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융자사업 중 확대해야 할 사업 간의 교차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³⁹⁾

3.2. 심층면담 결과

-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주요 10개 사업(축산분야 4개, 원예분야 3개, 맞춤형농정 3개)에 대한 현장(지자체, 생산자 단체, 농협 등)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 여기에는 원예분야 3개 사업(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농산물브랜드육성, 인삼 약용작물계열화)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3.2.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설 사업

가. 사업 만족도 및 현황

- 본 사업은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하여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점(5점 만점, 9개 APC 기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실적이 저조한 APC의 경우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영기반이 열악한 산지농협에서 50억 이상의 고정투자는 어려운 실정인데, 50~70%의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38)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지원받는 사업과 투융자를 확대할 필요 있는 1순위 사업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χ^2 -statistic=32.403, Degrees of Freedom=32, p-value=0.447이고, 투융자 확대할 필요 있는 2순위 사업 간 분석 결과는 χ^2 -statistic=33.795, Degrees of Freedom=24, p-value=0.088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39)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지원받는 사업과 투융자를 축소할 필요 있는 1순위 사업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χ^2 -statistic=29.195, Degrees of Freedom=28, p-value=0.403이고, 투융자 확대할 필요 있는 2순위 사업 간 분석 결과는 χ^2 -statistic=24.919, Degrees of Freedom=28, p-value=0.632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9개 APC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29.9%이며, 충남 예산(71.9%)과 경북 영주(50.4%)의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9개 APC에 대한 평균 공동계산액(2012년 기준)은 129억 원이며, 당기순이익(2012년 기준)은 7,080만 원, 평균 가동률은(2012년 기준)은 저장고의 경우 297.5일, 선별기는 227.2일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3-4. 거점 APC별 사업만족도 및 경영지표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음성	아산	영주	예산	안덕	순천	나주	평균
만족도		4	5	4		2	2	4	3.6
매출액	2011년	17,860		14,086	18,251	4,716	10,728	31,076	16,120
	2012년	19,820		21,182	31,367	5,413	15,793	44,848	23,071
	증감율	11.0	30.0	50.4	71.9	14.8	47.2	44.3	29.9
공동계산액		8,734		15,292	5,482	2,795	4,306	40,621	12,872
당기순이익		-331		106	510		-252	321	70.8
가동율	저장고	300		365	300	300	210	310	297.5
	선별기	120		305	300	300	180	158	227.2
취급 물량	2011년	6,561		7,606	7,708	645	9,691	11,477	7,281
	2012년	7,616		7,428	9,509	654	9,521	15,022	8,292
	증감율	16.1		-2.3	23.4	1.4	-1.8	30.9	11.3

자료: 각 지자체 면담(서면)조사

나. 정책 건의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의 추가적 기능인 유통,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거점 APC의 추가적인 성장 도모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 현재 대부분의 APC는 개별적으로 영업 및 거래처 관리, 판매촉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단일창구 개설 및 조직화된 품목별 단일브랜드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 수입 농산물에 대응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와 소비자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농산물의 규격화와, 수확후 품질관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거점 APC 지원사업으로 품질의 규격화, 고급화를 이루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고가 시설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선별 수수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APC운영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APC 실무자들은 사후 평가를 통한 차별적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평가가 우수한 APC에 대한 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확장 등을 지원할 경우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2. 농산물브랜드육성 지원 사업

가. 사업 만족도 및 현황

- 2개 지자체, 1개 사업추진기관, 사업수혜자 2명을 조사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브랜드 형성이라는 마케팅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처리시설 건설로 인한 저장능력 향상 및 노동력 절감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농산물브랜드 육성은 발작물브랜드 육성과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으로 구분되며, 지원자금은 조직운영, 마케팅, 생산기반 조성, 종합처리시설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사업비의 가장 많은 부분이 생산기반 조성과 종합처리시설 지원되며 시설의 개보수 또는 신축에도 일부 활용 되고 있다.

나. 정책 건의

- 농산물 브랜드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사업이 많아 개별적 지원 보다는 종합적·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3.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지원 사업

가. 사업 만족도 및 현황

- 1개 추진기관, 3개 사업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한다는 의견과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족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에 도움(신뢰, 안전한 먹거리)이 되고, 사업자에게는 매칭사업을 늘려 안정적 원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불만족한다는 이유는 경작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생산단가가 높아져 판매가 어려워지고 재고가 쌓이면 소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 인삼의 유통구조는 정관장의 독점 체제였으나 농협이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현재는 정관장 60%, 농협 8~9% 선으로 농협이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나. 정책 건의

- 융자 지원의 이자율이 현재 상황에서는 높은 실정으로 시중 금리변화에 따른 유동성 있는 이자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력이 관리된 인삼과 그렇지 않은 인삼에 대한 가격경쟁력에 차이가 크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력관리된 인삼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4. 계량경제분석: 원예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계측

4.1.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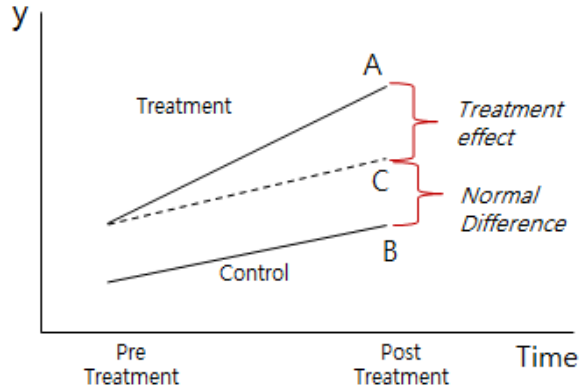
- 과수부문의 FTA 국내대책 투융자(기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금을 받은 지역의 농가와 기금을 받지 못한 지역의 농가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 지역별 특수성(성장 추세 등)에 따른 효과를 투자에 따른 효과로 착각하는 착시 효과(optical illusion)를 배제하고 정책만의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이중차분모형(DID)을 활용하였다.

4.2. 연구 방법 및 자료

4.2.1.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DID) Model)

- 이중차분모형(DID)은 자연과학이나 의학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험군(treatment group)과 대조군(cotrol group)의 비교분석 방식을 사회과학분야에 적용하여 특정 정책 프로그램(treatment) 시행의 효과성을 계측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 자연과학 실험에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대조군(cotrol group)이 특정한 실험조치(treatment) 외에는 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실험조치의 효과(treatment effect)를 규명해 내는 것을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 그러나 사회과학적 모델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자체적으로 가진 수많은 특성들로 인해 특정한 실험조치 외에는 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완화하여 두 그룹이 적어도 성장성이나 변화추세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즉, 아래 그래프에서 두 그룹의 성장성이나 변화추세는 동일한 것으로 평행선(C와 B)을 나타내고, 두 그룹간의 차이인 BC는 일반적인 차이(normal difference)를 나타낸다.
- 만약 두 그룹이 특정한 정책적 조치(treatment) 외에 차이가 없다면 특정 정책프로그램의 효과는 아래 그래프에서 AB가 될 것이나, DID 모형에서는 AC가 된다.

그림 3-27. DID 모형도



○ 정책지원을 받은 조직의 효과가 지원받지 못한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하더라도, 정책적 효과에 따른 차이가 아닌 지원받은 조직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자기선택의 오류(self-selection bias)⁴⁰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기식을 이용해 이중차분 효과(DID effect)를 추정할 수 있다.

$$Y_{i,t} = \beta_0 + \beta_1 T + \beta_2 S + \beta_{DID} T \cdot S + X_{i,t}' \beta + \epsilon_{i,t}$$

- T는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t=2기일 때, T= 1), S는 정책지원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S=2('정책지원')일 때, S=1), X는 그 외 통제변수를 나타낸다.
- T · S의 계수인 β_{DID} 를 통해 정책지원 효과를 측정한다.

표 3-5. DID 모델의 계수 비교

Y_{st}	s=1(비지원)	s=2(지원)	차분
t=1(1기)	β_0	$\beta_0 + \beta_2$	β_2
t=2(2기)	$\beta_0 + \beta_1$	$\beta_0 + \beta_1 + \beta_2 + \beta_{DID}$	$\beta_2 + \beta_{DID}$
변화(change)	β_1	$\beta_1 + \beta_{DID}$	β_{DID}

* 1기에 정책 비지원 조직의 상태는 β_0 , 1기에 정책지원을 받은 조직(지원조직)의 상태는 $\beta_0 + \beta_2$

* 2기에 정책 비지원 조직의 상태는 추세성장효과(β_1)가 더해져 $\beta_0 + \beta_1$

* 2기에 지원조직은 추세성장효과(β_1)와 정책자금 지원효과(β_{DID})가 더해져 $\beta_0 + \beta_1 + \beta_2 + \beta_{DID}$

40) 이러한 자기선택의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정책지원을 받은 조직이 정책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면 되나, 정책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받지 않는 경우는 사건의 독립성상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선택의 오류는 발생될 수 밖에 없음. 즉, 한 조직이 동시(같은 분석시기)에 정책지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비교할 수 없음. 그런 연유로 대안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대조군을 활용하는 DID 방법을 이용함.

- FTA 기금 지원을 받은 조직만을 분석대상으로 정책효과를 추정하면, 추세성장효과가 섞여서 추정되기 때문에 과도(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대조군 그룹(control group)의 추세성장효과도 같이 추정해서 차분하여 평가한다. 즉, $\beta_{DID} = (Y_{22} - Y_{21}) - (Y_{12} - Y_{11})$

4.2.2. 생산성 및 효율성 계측

- 과수분야 FTA 기금의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생산성(productivity)과 수익성(profitability)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 생산성과 효율성을 계측하는 방법으로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를 이용하였다.
-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는 한 기간이 아닌 여러 기간 동안의 생산성 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패널형태의 자료(Panel data)⁴¹⁾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생산성 변화 원인을 기술적 효율성 변화와 기술의 변화(기술진보)로 구분하여 지수형태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 생산성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의 변화와 함께 생산기술의 변화(발전)도 포함되어 있다.
-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PI)는 다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존재하는 생산주체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DEA 기법에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을 가미한 방법론이다.
 -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산프론티어의 변화(생산기술의 변화)와 각 생산주체들(DMU)이 이렇게 변경된 프론티어에 근접한 정도인 효율성 변화로 분리하여 생산성을 측정한다.
- 맘퀴스트 생산성변화 지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효율성변화지수(Technical Efficiency Chnage Index; TECI)와 프론티어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술변화지수(Technical Change Index; TCI)로 분리된다.

41) 패널자료(panel data)는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와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자료로, 다양한 의사결정체(DMU)들의 몇 년간의 축적된 자료 형태임.

$$\begin{aligned}
M(x^{t+1}, q^{t+1}, x^t, q^t) &= \left[\frac{D^t(x^{t+1}, q^{t+1})}{D^t(x^t, q^t)} \times \frac{D^{t+1}(x^{t+1}, q^{t+1})}{D^{t+1}(x^t, q^t)} \right]^{\frac{1}{2}} \\
&= \frac{D^{t+1}(x^{t+1}, q^{t+1})}{D^t(x^t, q^t)} \left[\frac{D^t(x^{t+1}, q^{t+1})}{D^{t+1}(x^{t+1}, q^{t+1})} \times \frac{D^t(x^t, q^t)}{D^{t+1}(x^t, q^t)} \right]^{\frac{1}{2}} \\
&= TECI \times TCI \\
TECI &= \frac{D^{t+1}(x^{t+1}, q^{t+1})}{D^t(x^t, q^t)} \\
TCI &= \left[\frac{D^t(x^{t+1}, q^{t+1})}{D^{t+1}(x^{t+1}, q^{t+1})} \times \frac{D^t(x^t, q^t)}{D^{t+1}(x^t, q^t)} \right]^{\frac{1}{2}}
\end{aligned}$$

- 또한 기술효율성 변화지수(TECI)는 다음과 같이 순수기술효율성 변화지수(Pure Efficiency Change Index; PECEI)와 규모효율성 변화지수(Scale Efficiency Change Index; SECI)로 세분할 수 있다.

$$\begin{aligned}
M(x^{t+1}, q^{t+1}, x^t, q^t) &= \frac{V^{t+1}(x^{t+1}, q^{t+1})}{V^t(x^t, q^t)} \\
&\times \left[\frac{D^{t+1}(x^{t+1}, q^{t+1})/V^{t+1}(x^{t+1}, q^{t+1})}{D^t(x^t, q^t)/V^t(x^t, q^t)} \right] \\
&\times \left[\frac{D^t(x^{t+1}, q^{t+1})}{D^{t+1}(x^{t+1}, q^{t+1})} \times \frac{D^t(x^t, q^t)}{D^{t+1}(x^t, q^t)} \right]^{\frac{1}{2}} \\
&= PECEI \times SECI \times TCI
\end{aligned}$$

- 생산주체들(DMU)의 t기와 t+1기의 맘퀴스트 생산성지수(MPI)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6개의 거리함수($D^t(x^t, q^t)$, $D^{t+1}(x^{t+1}, q^{t+1})$, $D^t(x^{t+1}, q^{t+1})$, $D^{t+1}(x^t, q^t)$, $V^t(x^t, q^t)$, $V^{t+1}(x^{t+1}, q^{t+1})$) 값이 필요하다.
- 이들 거리함수 계산은 비모수적 방법인 DEA 방법을 이용하는데, 각 거리함수는 다음과 같은 DEA 모형들의 해이다.

$$\begin{aligned}
D^t(x^t, q^t) &= \text{Min } \theta \\
\text{s.t. } &\theta x^t - \omega X^t \geq 0 \\
&-q^t + \omega Q^t \geq 0 \\
&\omega \geq 0
\end{aligned}$$

$$\begin{aligned}
D^{t+1}(x^{t+1}, q^{t+1}) &= \text{Min } \theta \\
\text{s.t. } &\theta x^{t+1} - \omega X^{t+1} \geq 0 \\
&-q^{t+1} + \omega Q^{t+1} \geq 0 \\
&\omega \geq 0
\end{aligned}$$

$$D^t(x^{t+1}, q^{t+1}) = \text{Min } \theta$$

$$\text{s.t. } \theta x^{t+1} - \omega X^t \geq 0$$

$$-q^{t+1} + \omega Q^t \geq 0$$

$$\omega \geq 0$$

$$D^{t+1}(x^t, q^t) = \text{Min } \theta$$

$$\text{s.t. } \theta x^t - \omega X^{t+1} \geq 0$$

$$-q^t + \omega Q^{t+1} \geq 0$$

$$\omega \geq 0$$

$$V^t(x^t, q^t) = \text{Min } \theta$$

$$\text{s.t. } \theta x^t - \omega X^t \geq 0$$

$$-q^t + \omega Q^t \geq 0$$

$$\sum \omega = 1$$

$$\omega \geq 0$$

$$V^{t+1}(x^{t+1}, q^{t+1}) = \text{Min } \theta$$

$$\text{s.t. } \theta x^{t+1} - \omega X^{t+1} \geq 0$$

$$-q^{t+1} + \omega Q^{t+1} \geq 0$$

$$\omega \sum = 1$$

$$\omega \geq 0$$

○ 이중 CRS 거리함수들($D^t(x^t, q^t)$, $D^{t+1}(x^{t+1}, q^{t+1})$, $D^t(x^{t+1}, q^{t+1})$, $D^{t+1}(x^t, q^t)$)은 CCR DEA 모형을 이용해 계산하고, VRS 거리함수들($V^t(x^t, q^t)$, $V^{t+1}(x^{t+1}, q^{t+1})$)은 BCC DEA 모형을 이용해 계산한다.

○ 이렇게 계산된 거리함수들의 값을 이용해 순수기술변화지수(PECI), 규모효율성변화지수(SECI), 기술변화지수(TCI)와 맘퀴스트 생산성지수(MPI)를 구할 수 있다.

4.2.3. 수익성 계측

○ 수익성은 기업의 수익성 지표들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표준소득자료(농촌진흥청)를 활용해 조수입, 경영비, 소득율, 부가가치율 등의 수익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 소득율 = (소득/조수입)x100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조수입)x100

4.2.4. 분석 자료

- 농촌진흥청(기술경영과)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산물표준소득 자료의 과수부문(포도,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지역별 기초자료(raw data)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 FTA 국내 대책 기금운용현황 자료(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 모형의 투입 변수로 사용되는 생산비 구성항목은 농산물표준소득 자료에 제시된 농약 및 비료비, 광열동력비, 제재료비, 과수원조성비, 고용노력비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전체 경영비의 75.9%(2010년 배 기준)를 차지한다.
- 이러한 기초자료 중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연속적인 데이터⁴²⁾가 존재하는 시군을 정리하여 맘퀴스트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 품목별로는 사과 18개, 배 18개, 포도 14개, 단감 18개, 복숭아 16개 지역
 - 품목별 대상이 되는 각 지역은 기초자료에 포함된 농가가 품목별로 최소 3개에서 최대 9개까지 존재하며, 이들을 평균한 값을 품목별 각 지역의 값으로 사용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패널형태의 자료(Panel data)이다.

표 3-6. FTA 지원 및 미지원 시군

작 목	FTA 지원 시·군	FTA 미지원 시·군
사과(18)	거창, 봉화, 안동, 영주, 의성, 상주, 문경, 청송, 정읍, 무주, 곡성, 장성, 아산, 예산, 충주, 제천	가평, 양평
배(18)	안성, 평택, 상주, 경주, 나주, 순천, 천안, 연기, 아산, 보은, 청원	남양주, 영천, 김천, 영덕, 광양, 구례, 신안
포도(14)	김천,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김제, 남원, 담양, 천안, 옥천, 영동	시흥, 경주, 무주
단감(18)	진주, 김해, 창원, 함안, 창녕, 강진, 광양, 구례, 순천, 여수, 장성, 포항	경주, 구미, 영덕, 마산, 양산, 고성
복숭아(16)	안성, 이천, 영천, 청도, 경산, 남원, 임실, 연기, 충주, 괴산, 음성	구미, 진주, 창녕, 순천, 화순

- 시점간 비교는 한칠레 FTA 대응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2004년도를 기준시점으로 2004년도 전·후로 두 시점을 비교하였다.
 - t=1기는 2004년 이전, t=2기는 2004년 이후

42) 1개 연도가 중간에 빠진 경우에는 인접한 양쪽 두 기간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보정함.

○ 생산성 및 효율성과 수익성 효과에 대한 DID 모형 분석을 위해 각 품목별 자료들을 통합(pooling)하여 분석하였다.

4.3. 분석결과

4.3.1. 데이터 분석

가. 생산성 및 효율성 지표

○ 아래 표에서처럼 두 시점간(t=1, t=2) 평균값 비교에서는 기술효율성지수(TECI)와 기술변화지수(TCI), 생산성지수(MPI) 모두 2기(FTA 기금사업이 시행된 이후)가 1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기술효율성지수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수기술변화지수(PECI) 평균값은 1기가 2기보다 높은 반면, 규모효율성변화지수(SECI)의 평균값은 2기가 1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 FTA 기금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두 그룹간(s=1, s=2) 평균값 비교에서는 기술효율성지수(TECI)는 지원받은 그룹(s=2)이 지원받지 못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기술변화지수(TCI)와 생산성지수(MPI)는 모두 지원받지 못한 그룹(s=1)이 높게 나타났다.

- 기술효율성지수를 구성하는 순수기술변화지수(PECI)와 규모효율성변화지수(SECI)의 평균값은 모두 지원받은 그룹(s=2)이 지원받지 못한 그룹(s=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7. 생산성 및 효율성 지표의 평균값 비교

비교대상	표본	기술효율성 지수(TECI)	기술변화 지수 (TCI)	순수기술변화 지수 (PECI)	규모효율성 변화지수 (SECI)	막쿼스트 생산성지수 (MPI)
T=1기(FTA 전)	168	1.020840	1.075221	1.014805	1.003415	1.085786
T=2기(FTA 후)	588	1.034785	1.820823	1.012032	1.020269	1.918584
S=1(비지원)	207	1.031041	1.955346	1.012529	1.015721	2.201451
S=2(지원)	549	1.031929	1.541939	1.012693	1.016827	1.557083

나. 수익성 지표

- <표 3-8>은 수익성 지표로 사용한 조수입, 경영비, 부가가치율, 소득율의 평균값을 두 시점간, 그룹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 두 시점간(t=1, t=2) 평균값 비교에서 모든 수익성 지표(조수입, 경영비, 부가가치율, 소득율)의 2기(FTA 대책사업이 시행된 이후) 평균값이 1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 즉, 조수입, 부가가치율, 소득율이 높지만 경영비 또한 FTA 기금사업 이후에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 기금사업을 통한 지원여부에 따른 두 그룹간(s=1, s=2) 평균값 비교에서도 모든 수익성 지표(조수입, 경영비, 부가가치율, 소득율)가 지원받은 그룹(s=2)의 평균값이 지원받지 못한 그룹(s=1)보다 높게 나타났다.
 - 즉, FTA 지원을 받은 그룹의 조수입, 부가가치율, 소득율이 지원받지 못한 그룹보다 높지만 경영비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8. 수익성 지표의 평균값 비교

	표본	조수입	경영비	부가가치율	소득율
T=1기(FTA 전)	168	3,095,736	1,095,399	70.12	62.56
T=2기(FTA 후)	588	4,071,469	1,381,610	71.64	64.17
S=1(비지원)	207	3,749,358	1,225,542	72.55	65.47
S=2(지원)	549	3,894,336	1,352,871	70.83	63.18

4.3.2. 생산성 및 효율성 효과 계측 결과

- 진술한 바와 같이 맘퀴스트 생산성지수(MPI)는 기술효율성 변화지수(Technical Efficiency Change Index; TECI)와 기술변화지수(Technical Change Index; TCI)로 분리되고, 기술효율성 변화지수(TECI)는 다음과 같이 순수기술효율성 변화지수(Pure Efficiency Change Index; PECEI)와 규모효율성 변화지수(Scale Efficiency Change Index; SECEI)로 세분할 수 있다.

$$\begin{aligned}
 MPI &= TECI \times TCI \\
 &= [PECI \times SECI] \times TCI
 \end{aligned}$$

○ 이러한 생산성 지수(MPI)와 효율성 지수들이 FTA 기금사업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 지 정책지원 시기(2004년 전·후)와 수혜여부(대책기금 지원받은 지역과 받지 않은 지역)에 따라 이중차분(DID)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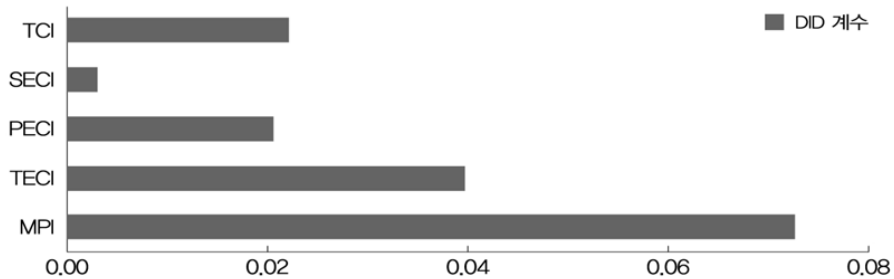
표 3-9. 정책지원 시기와 지원여부에 따른 이중차분 분석결과

생산성 및 효율성	DID 계수	표준편차	p-value
MPI (생산성 지수)	0.072843***	0.028163	0.0099
TECI (기술효율성 변화지수)	0.039652 [†]	0.025346	0.1181
PECI (순순기술효율성 변화지수)	0.020435 [†]	0.012958	0.1152
SECI (규모효율성 변화지수)	0.002906	0.012357	0.8142
TCI (기술변화지수)	0.021905*	0.012757	0.0864

주 1) 위의 결과는 각 지표들(생산성과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책지원 시점은 2004년 이후와 이전으로 구분하고, FTA 대책기금 지원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한 이중차분(DID) 모델의 각 결과들을 정리한 것임.

2) ***는 p<0.01, **는 p<0.05, *는 p<0.1, †는 p<0.15

그림 3-28. 생산성 및 효율성의 DDI 계수



주) MPI: 생산성 지수, TECI: 기술효율성 변화지수, Peci: 순순기술효율성 변화지수, SECI: 규모효율성 변화지수, TCI: 기술변화지수.

- 과수부문의 FTA 기금사업은 과수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성(MPI)은 7.3%, 기술효율성(TECI)과 순순기술효율성(PECI)은 각각 2.5%, 2.0% 개선되었고, 기술진보(TCI)도 2.2%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맘퀴스트 생산성(MPI)을 검토한 결과, FTA 기금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역의 과수농가 생산성이 지원받지 못한 지역의 과수 농가보다 7.3% 향상되었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생산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효율성(TECI)과 기술변화(TCI)에서 FTA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의 농가가 지원받지 못한 지역의 농가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효율성은 2.5%, 기술진보는 2.2%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효율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유의수준 11.9% 수준).
 - 기술효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모의 효율성(SECI)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순수기술효율성(PECI)에서 2.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유의수준 11.6% 수준).

- FTA 대책으로 지원받은 과수농가들의 생산성은 향상되었고, 기술진보를 이루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의성은 다소 약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에 비해 경영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3.3. 수익성 효과 계측 결과

- FTA 국내대책이 경영체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수익성 지표들인 소득화율(=소득/조수입)과 부가가치율(=부가가치/조수입)의 이중차분(DID) 계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분석결과, DID 계수 값이 양인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3-10. 수익성 효과 추정 결과

수익성	DID 계수	표준편차	p-value
소득화율	0.294403	0.768266	0.7017
부가가치율	0.010060	0.007547	0.1829

주 1) 위의 결과는 각 지표들(소득화율, 부가가치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책지원 시점은 2004년 이후와 이전으로 구분하고, FTA 대책기금 지원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한 이중차분(DID) 모델의 각 결과들을 정리한 것임.
 2)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는 $p < 0.15$

-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수입과 경영비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FTA 기금을 지원받은 과수농가의 10a당 조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경영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어 경영비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조수입은 FTA 기금 지원을 받은 이후(T)가, 그리고 받은 농가(S)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차분한(DID) 값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음의 값을 나타냈다⁴³⁾.
- 반면, 경영비는 FTA 기금 지원을 받은 이후(T)가, 그리고 받은 농가(S)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차분한(DID) 값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비 개선의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표 3-11. 정책시점과 지원여부가 조수입 및 경영비에 미친 영향

설명변수	종속변수	조수입	경영비
상수		2962052 ^{***} (56199.91)	994431.2 ^{***} (1433.907)
정책지원 시점(T)		1015965 ^{***} (121439.7)	264265.4 ^{***} (58392.15)
정책지원 여부(S)		161613.5 ^{***} (39883.66)	138654.9 ^{***} (5170.087)
시점*지원여부(T*S)		-93184.91 (106979.2)	-21349.85 ^{**} (8604.461)
총지원금(X)		0.038654 ^{***} (0.014933)	0.006553 (0.004934)

주 1) 위의 결과는 조수입과 경영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정책지원 시점은 2004년 이후와 이전으로 구분하고, FTA 대책기금 지원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한 이중차분(DID) 모델 결과임.

2) ***는 p<0.01, **는 p<0.05, *는 p<0.1, +는 p<0.15

- FTA 국내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은 농가와 받지 않은 농가의 조수입과 경영비에 대한 DID 분석결과, 지원받은 농가의 10a당 조수입의 성장성은 알 수 없으나 경영비 개선효과는 10a당 21,350원의 경영비 절감으로 계측되었다.

43)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차분효과(DID effect)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음.

4.4. 요약 및 시사점

- 과수분야의 FTA 기금 지원을 받은 지역과 받지 않은 지역 간의 과수농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수익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수부문 FTA 국내대책의 성과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FTA 국내대책 기금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수농가의 생산성(MPI)은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비해 7.3% 향상되었다.
- 농가의 생산성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효율성(TECI)과 기술진보(TCI) 측면에서는 지원받은 농가들이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에 비해 기술진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이루어졌으며, 기술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체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술효율성(TECI)은 2.5% 개선되었고, 기술진보(TCI)는 2.2%로 각각 개선되었다.
- 효율성 변화에서는 지원받은 농가들과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의 규모의 효율성(SECI)이 유의한 차이가 없고, 순수기술효율성(PECI)은 지원받은 농가가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비해 2.0%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성에서는 FTA 기금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가들의 소득화율(소득/조수입)과 부가가치율(부가가치/조수입)이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농가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수입과 경영비에 대한 FTA 국내대책의 효과 분석에서 지원받은 농가들의 조수입 개선효과는 명확지 않으나 경영비 개선 효과는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에 비해 10a 당 21,350원의 경영비 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제4장 근본적 체질개선 (맞춤형 농정,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제 4 장

근본적 체질개선(맞춤형 농정,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1. 종합평가

- FTA 대응 방안으로 농업분야 체질개선을 위해 맞춤형 농정 5개 분야(신규농업인력 육성,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경영안정화, 영농규모화, 생산기반조성), 신성장동력창출 5개 분야(친환경농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종자산업 육성, R&D 투자확대, 농식품 수출촉진)에 2012년 1조 2,66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실적 1조 3,160억 원).

□ 맞춤형 농정

- 맞춤형 농정은 영농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농지연금 가입률, 수리안정담보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환경 개선과 경영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맞춤형 농정 분야의 17개(사업수: 16개 사업)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2개, 미달은 2개로 계측되었다(성과목표가 없는 성과지표 2개, 2012년 신규사업 1개 존재).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2012년 신규농업인력(후계농업경영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대상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4년 동안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률은 증가 추세이며, 매년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후계농업인 육성 및 정착 강화라는 사업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정책수혜자 및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자금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사후평가를 통한 추가 지원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의 확대로 최근 5년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도 당초 목표인 40%를 5.1%p 초과(목표 대비 112.7%)하여 달성하였다. 이중차분분석법을 이용하여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농업소득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1년 농업재해보험의 과수농가 농업소득 증대효과는 약 786만원으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농업소득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지연금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으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및 고령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수혜자 조사 결과 농지연금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32.3%)보다 불만족하는 사람(41.9%)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80%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98%가 낮은 담보농지 평가액을 지적하였다.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는 모두 달성되었으며,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성과지표인 수리안전담물은 꾸준히 상승하여 재해예방 및 가뭄상습지역의 안정영농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 지속적인 투자로 수리안전담물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및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공급기반의 조기구축이 필요하다.

□ 신성장 동력 창출

- 신성장동력 분야는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단기적 성과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어 목표 대비 실적달성률이 미흡한 사업도 존재한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MOU 체결 식품기업 및 연구소 수, 국내 종자 보급률, 농식품 수출 전략품목의 수출액 증가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가 기대된다.
 - 신성장동력 분야의 25개(사업수: 21개 사업)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6개, 미달 2개로 계측되었다(성과목표가 없는 성과지표 10개, 2012년 신규사업 4개, 지표변경 3개 존재).

- 201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과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성과지표인 광역단지·지구 조성 내 친환경인증면적(ha)과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각각 96.1%와 93.6%로 다소 미흡하였다. 하지만 전년 대비 실적은 상승하였고 2012년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도 전년보다 9.5% 증가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농산물 유통확대의 전략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 2010년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 폐지, 친환경인증 농가수가 거의 적정단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인증 면적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2년도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을 2011년도 34%에서 38%로 설정한 것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판단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여 2012년에 MOU 체결 식품기업 및 연구소 수가 목표 대비 12.7% 초과 달성함으로써 연관산업의 집적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 국산품종(종자)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당초 목표인 47%보다 4.7%p를 초과(목표 대비 104.7%) 달성하였다. 다만 종자산업 육성실적 위주의 성과지표는 농가 생산 및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국산품종 보급률로 성과를 평가할 경우, 국산품종을 사용하는 품목의 재배면적 증가가 보급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요 품목(딸기, 장미, 국화, 마늘 등)의 수입 종자 국내산 대체율 등과 같이 정책의 효과 및 기여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체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와 국가 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1.3% 감소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12년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의 수출액의 14.3% 증가는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 성과목표 설정 시 성과지표의 추세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정책의 효과분석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4-1. 근본적 체질개선 유형화 예산 및 실적 현황(2012년)

단위 : 억 원

구분	사업명	회계	예산	실적		
총계			12,666	13,160		
대체재정 40점	신규농업인 력 육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농특회계	316	316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 (농협자체예산-이차보전)	농협자금	2,533	1,027	
	농업 경영체 역량강화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인교육훈련)	농특회계	361	361	
		농어업경영컨설팅	농특회계	21	21	
		농어업경영체등록	농특회계	167	167	
	경영 안정화	농어업재해보험	농특회계	1,568	1,420	
		농어업재해재보험금	재보험기금	80	2,974	
		발농업직불제	농특회계	624	269	
		조건불리지역직불(2012년 신규) -'12년 정부안 381억원 대비 증액	농특회계	55	52	
		농기계임대사업	농특회계	150	150	
	영농 규모화	농지매입비촉	농지기금	1,500	1,599	
		경양이양직불	농특회계	659	624	
		농지연금	농지기금	190	153	
	생산 기반조성	수리시설개보수(2012년 신규) -'12년 정부안 3,400억원 대비 증액	농특회계	300	267	
		배수개선(2012년 신규) -'12년 정부안 2,100억원 대비 증액	농특회계	400	3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2012년 신규) -'12년 정부안 1,800억원 대비 증액	농특회계	300	234	
	미분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FTA기금	10	10	
	신규전매입예산 40점	친환경 농업육성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광특회계	263	242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농안기금	289	289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농특회계	40	40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광특회계	50	50	
친환경농업연구센터			FTA기금	40	40	
친환경농업직불제			농특회계	436	364	
식품산업 육성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농특회계	40	40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농안기금	500	500	
		신선편이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의 내역)	농안기금	64	7	
		농식품시설현대화 (돼지고기수출작업장)	농안기금	70	70	

종자산업 육성	종자산업기반구축	FTA기금	74	68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농특회계	51	47
	원원종 및 원종 생산	농특회계	40	40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2011년 신규)	농특회계	29	3
	골든시드프로젝트 (R&D,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특회계	25	25
R&D 투자 확대	기술사업화지원(R&D)	농특회계	80	80
	생명산업기술개발(R&D)	농특회계	523	523
	농림수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수의과학기술개발 변경)	일반회계	245	238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2012년 신규)	농특회계	40	40
농식품 수출촉진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농안기금	314	314
	한식세계화	농안기금	219	196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2.1. 신규농업인력 육성

2.1.1. 개괄

사업명		개요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목적	▪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
	지원내용	▪ 창업기반 조성비용 지원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점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 자로 선발·추천한 자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316억 원 ▪ 실적 : 316억 원
후계 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목적	▪ 후계농업인에 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인력 체계적 확보·유지
	지원내용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영농규모확대 및 개보수 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또는 「농점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 한 자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533억 원 ▪ 실적 : 1,027억 원

- 신규농업인력육성사업은 FTA에 대응한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과 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여 후계농업인 육성하고 후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1.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 방법(공식)
신규 농업인 육성	공통지표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text{실제 영농종사자 수}) / \text{당해년 선정한 후계농업인 수} \times 10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증가율(%) ⁴⁴⁾	$(\text{당해년 선정 후계농 수} / \text{전년도까지의 전체 후계농 수}) \times 100$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자 수	선정자수(명)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지표 실적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목표	-	91	92	95	95
	실적	-	92.8	92.3	97.7	97.6
	달성률(%)	-	102	100.3	102.8	102.7
후계농업경영인 증가율(%)	목표	-	-	-	-	1.20
	실적	1.33	1.10	1.18	1.13	1.17
	달성률(%)	-	-	-	-	97.5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자 수	목표	-	-	-	-	-
	실적	-	-	959	438	327
	달성률(%)	-	-	-	-	-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공통지표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	○	○
후계농업인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증가율(%)					X
우수후계농업경영 인추가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자 수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44) 후계농업경영인증가율
 - 측정대상기간: '12.1.1~'12.6.31
 - 측정수행기관: 시도(시군)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2012년 신규농업인력 육성 사업 성과평가〉

단위: 개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2	0	0	1	1
		0%	50%	50%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1.3. 성과분석

- 최근 4년 동안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영농정착률 : 92.8%('09) → 92.3%('10) → 97.7%('11) → 97.6%('12)
 - 반면, 최근 4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증가율은 1.10~1.17%로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수의 성과목표 달성은 다소 미흡했으나, 2012년 목표 달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추가모집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목표인원의 약 98%를 달성하였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는 다소 미흡하나,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률은 증가 추세이므로, 후계농업인 정착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은 소기 달성되었다고 평가된다.

2.1.4. 개선과제

-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사업 취소 사유 및 정책자금 회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2.2.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2.2.1. 개괄

사업명		개요
농업인 교육 훈련	사업목적	▪ 농업기술·경영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지원내용	▪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361억 원 ▪ 실적 : 361억 원
농어업경 영 컨설팅	사업목적	▪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컨설팅업체 자문비용 지원 ▪ 법인 및 조직경영체 컨설팅 회의비, 자료조사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어업경영체 컨설팅비용의 일부(30%) 지원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컨설팅 비용의 일부(50%) 지원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1억 원 ▪ 실적 : 21억 원
농업 경영체 등록	사업목적	▪ 농업인·법인의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체 단위로 등록·관리 ▪ 맞춤형 농정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자금 지원시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정보 제공
	지원내용	▪ 등록된 경영체에 농림사업, 직불제등 우선 지원 ▪ 미등록(또는 변경등록 하지 않는)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한
	지원 대상 및 자격	▪ 용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농업인·법인)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167억 원 ▪ 실적 : 167억 원

○ FTA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농업인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농정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시행해왔다.

- 실습중심의 현장학습체제 구축 및 농업인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를 양성하며,

- 농업인, 농지·축사, 생산농산물, 가축사육규모 등 경영체 단위로 통합등록된 농업관련 경영정보를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12년도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증가율의 목표 달성률은 200% 이상이며, 컨설팅 대상 농업경영체의 소득증가율 목표 달성률도 118%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교육과 농어업컨설팅 사업은 FTA 대응한 전문경영체 육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농업경영체등록 사업은 농림사업과 연계하여 각 사업분야별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농가단위 품목, 영농규모,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각종 농림사업 분야에서 농업인 확인 및 지원 사업비 규모 확정 과정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어 당초 목표인 30%보다 9.3%p를 초과(목표대비 131%)하여 사업연계가 이루어졌다.

2.2.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 방법(공식)
농업 경영체 역량 강화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증가율(%) ⁴⁵⁾	(교육 후 역량지수- 교육 전 역량지수)/교육 전 역량지수×100 *조사항목의 5점 척도 평균치 *한국능률협회자료
	농어업경영컨설팅	컨설팅 전후의 소득증가율(%) ⁴⁶⁾	{(평가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조사방법: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정책 활용도(%) ⁴⁷⁾	(해당연도 정책연계 농림사업수-전년도 정책연계사업수)/전년도 정책연계사업수×100

45)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증가율(%)

- 농업교육 전후 역량 평가는 외부전문가(서울대학교, 김진모 교수)에 의뢰(11.3월)하여 개발하였고, 교육전·후에

나. 세부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대비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지표 실적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증가율(%)	목표				7	7
	실적			(변경)	16.7	16.7
	달성률(%)				238.6	238.6
컨설팅 전후 농가소득 증가율(%)	목표	6	20	20	20	25
	실적	7	37.3	25.7	21.3	29.5
	달성률(%)	116.7	186.5	128.5	107	118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의 정책 활용도(%)	목표				30	30
	실적			(신규)	64.7	39.3
	달성률(%)				215.7	131.0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증가율(%)	-	-	-	◎	◎
농어업경영컨설팅	컨설팅 전후 농가소득 증가율(%)	○	◎	○	○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정책 활용도(%)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 역량진단지를 측정 대상에게 배포·취합하여 설문조사 분석 전문기관(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결과 분석
-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은 전문농업인 및 예비농업인(농고·농대) 등을 대상으로 장기농업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대상: 전문농업인(1,561명), 예비농업인(2,334명)
 - 측정기간: (전문농업인) 교육 전 '11. 11월, 교육 후 '12. 11월
(예비농업인) 교육 전 '12. 4월, 교육 후 '12. 10월
- 46) 컨설팅전후 농가소득 증가율
- 분석조사기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조사·분석기간: '12. 10. 31 ~ 11. 30
 - 조사대상: '11년 농어업경영컨설팅 수행 934개 경영체 중 152개(컨설팅 대상 중 16% 표본조사)
 - 컨설팅 2~3년차 이상인 경영체 50% 이상 되도록 선정
 - RPC, APC,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사업법인 등 조직경영체 8개소는 전수조사
 - 표본추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컨설팅대상 경영체 DB를 근거로 추출
 - 조사방법: 대상 경영체 현장방문 대면(법인, 조직경영체) 및 전화(개별농가)조사
- 47)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정책 활용도(%)
-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의 각 사업에서 대상자 조건에 농업경영체 등록 명시 여부
 -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등재되지 않은 사업은 개별 사업지침 통보 문서를 통해 연계여부 확인 가능

〈2012년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사업 성과평가〉

단위: 개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3	0	2 67%	1 33%	0 0%

-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2.3. 성과분석

-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을 고령화와 농어업인구 감소에 대응한 맞춤형 농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대상 경영체의 역량 및 소득 증가 등 경쟁력이 향상되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경영체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농업인, 후계농업인, 귀농희망자, 결혼이민여성, 농고·농대생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실습교육, 창업·취업 활성화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핵심인력 및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기여하였다.
 - 2011년에 신규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달성목표치 기준을 관련분야·인접분야(3~7%수준)의 사례를 반영하여 가장 높은 수준인 7%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교육 확대·강화, 교육운영기관 현장 컨설팅, 교육생 역량변화율을 교육기관 평가에 반영 등의 노력으로 교육운영 내실화와 함께 목표치를 초과달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농업경영컨설팅은 물적·인적 경영자원 운용능력 등 경영체의 실질적인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컨설팅 이후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영능력 향상 요소: 신기술 도입 등 생산기술 개선, 매출증가 등을 통한 재무관리 개선, 홍보 마케팅 유통관리 개선, 회계·원가관리 등 경영관리 개선, 인력소급 및 교육 등 인적관리 개선 등

- 농업경영체등록 사업의 경우, 각종 농림사업에서 농업인 확인 및 지원규모 확정 과정을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어 당초 목표인 30%보다 9.3%p를 초과(목표대비 131%)한 정책활용도를 달성하였다.
 - 15개 농업관련 정보와의 전산검증을 통해 약 30만 농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과 현행화율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된 농림사업수 : 28개('11) → 39개('12)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활용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농림사업자금의 부정수혜를 차단함으로써 사업자금이 전문농업경영인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발농업직불금 지급시 대상자 및 지급필지를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한 결과, 21천 농가, 107억 원의 부정수혜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2.2.4. 개선사항

- 보다 신뢰성 있는 교육 및 컨설팅 효과 측정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업교육 및 컨설팅 효과는 농업분야의 특성상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전후 역량증가율 성과지표의 '11~'12년의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13년의 목표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현재 등록제와 농업사업의 연계는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중심으로 외형적 사항에 대해서만 연계되어 있으나, 자금배정 및 이행점검(사후관리) 단계 등에서 농업경영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 농가경영 안정화

2.3.1. 개괄

사업명		개요
농작물 재해 보험 (농어업 재해 재보험 포함)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위험을 국가가 일부 인수함(재보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지원(50% 보조)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00% 보조) 상품개발에 소요되는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100% 보조)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농업용시설물 소유자 또는 법인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경작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568억 원(농작물 재해보험), 80억 원(재보험) 실적 : 1,420억 원(농작물 재해보험), 2,974억 원(재보험)
밭작물 직불제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밭농업 대상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624억 원 실적 : 269억 원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 조성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55억 원 실적 : 52억 원
농기계 임대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일손부족 해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 농기계 구입과 사후관리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를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50억 원 실적 : 150억 원

- 농가경영 안정화 사업은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보전 및 농업생산성이 불리한 지역 지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통해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자연재해 등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피해를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농업생산성·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 및 생산이 감소하는 발농업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 및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여 농어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증가하고 있다.
 - 재해보험가입률 : 28.5%('08) → 31.4%('09) → 36.0%('10) → 40.2%('11) → 45.1%('12)
 - 2012년 태풍(볼라벤, 덴빈 등), 우박, 가뭄 등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로 5만 2천여 농어가에 5,9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어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정주농 비율(또는 이탈농 저지율)을 높임으로써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최근 5개년 동안 성과달성률은 100% 이상이며, 2012년도에는 117% 달성도를 보였다.

-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임대농기계 이용 비중 : 4.7%('10) → 6.4%('11) → 11.6%('12)
 - 임대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기종 우선구매, 임대사업소 농기계 정보공개 등이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2.3.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경영 안정화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보험 가입률(%)	(보험가입면적/대상면적)×100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 재보험금 지급율(%)	(재보험금지급액/재보험금 청구액) × 100
	발농업직불제	주요 발작물의 경지면적 변화율(%) * 주요 발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콩	{(당해년도 경지면적-최근 5년간 평균 경지면적)/최근 5년간 평균 경지면적}×100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정주농 비율 증가율(%)	해당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 *정주농 비율=(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비중(%)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전체 농가 수)×100

나. 세부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달성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재해보험 가입률(%)	목표	28.5	30.5	36.0	38.0	40.0
	실적	28.5	31.4	36.0	40.2	45.1
	달성률(%)	100	103.0	100.0	105.8	112.7
농어업재해 재보험금 지급율(%)	목표	-	-	100	100	100
	실적	-	-	100	100	100
	달성률(%)	-	-	100	100	100
주요 발작물의 경지면적 변화율(%)	2012년 신규사업					
정주농 비율 증가율(%)	목표	98.5	98.5	98.5	98.5	98.5
	실적	99.2	99.2	99.2	100.2	124
	달성률(%)	100.7	100.7	100.7	101.7	117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비중(%)	목표	-	-	-	-	-
	실적	-	-	4.7	6.4	11.6
	달성률(%)	-	-	-	-	-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보험 가입률(%)	○	○	○	○	○
농어업재해 재보험	농어업재해 재보험금 지급율(%)	-	-	○	○	○
밭농업직불제	주요 밭작물의 경지면적 변화율(%)	-	-	-	-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정주농 비율 증가율(%)	○	○	○	○	○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비중(%)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농가경영 안정화 사업 성과평가〉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3	2	0 0%

단위: 개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3.3. 성과분석

-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작물 5종과 가축 1종이 보험대상에 추가되었다.
 - 자연재해분야 뿐만아니라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 등으로 대상재해가 확대되었다.
 - 농어업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품목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험상품이 개발되었다.

- 2012년 태풍(볼라벤, 덴빈 등), 우박, 가뭄 등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로 5만 2천여 농어가에 5,9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어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 보험별 지급액: 농작물 4,910억 원, 가축 693억 원, 양식수산물 364억 원
- 태풍, 우박, 폭염, 집중호우 등 거대 재해로 인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 이중차분분석(DID)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농업재해보험이 과수농가의 농업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계량경제분석 참조)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결과, 이탈농가가 줄어들어 성과지표인 정주농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마을 활성화에 사용되는 조건불리지역의 마을공동기금용도를 정책환경 변화 대응과 주민복지 활동에까지 다양화시킨 것도 농업인의 조건불리지역 정주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함으로써 농업 생산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 농기계 자가구입 대비 단기임대의 비용절감 효과(1ha당) :
감자 84%, 콩·마늘 77%, 조사료 97%, 과수 54%(’08.4월 농진청의 농기계 이용 실태 조사자료(영농규모 4.5ha 기준))

2.3.4. 개선과제

- 직불금 수혜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받농업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불제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2.4. 영농규모화

2.4.1. 개괄

사업명		개요
농지 매입 비축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대상 : 이농·전업 희망농가, 고령 은퇴농 임대대상 : 영농규모 증대를 희망하거나 새로이 영농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500억 원 실적 : 1,599억 원
경영 이양 직불제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은퇴농가 소득지원을 통한 소득안정 및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 이양 후 고령농업인의 생활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659억 원 실적 : 624억 원
농지 연금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농업인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유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종신형은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일정한 금액 지급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가 3만^m² 이상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190억 원 실적 : 153억 원

- 영농규모화 관련 세 가지 세부사업(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들은 고령화, 시장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을 통한 영농규모 적정화와 고령농업인 및 경영이양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4.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영농 규모화	농지매입비축	'13년 이후: 농지매입비축 목표 면적 달성율(%) '12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당해연도 달성면적/당해연도 목표 면적)×100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비재배면적)×100
	경영이양직불제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율(%)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 면적/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 면적)×100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율(%)	(가입자 수/목표농가 수)×100

나. 세부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대비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지표 실적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 이후: 농지매입비축 목표 면적 달성율(%) '12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목표	36.0	38.0	40	42	45
	실적	36.0	38.0	41	44	46
	달성률(%)	100	100	102.5	104.8	102.2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율(%)	목표	-	-	-	-	100
	실적	-	-	-	-	91.7
	달성률(%)	-	-	-	-	91.7
농지연금 가입율(%)	목표				3.3	14
	실적			(신규)	6.7	14.7
	달성률(%)				203.0	105.0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농지매입 비축	'13년 이후: 농지 매입비축 목표 면적 달성율(%) '12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	○	○	○
경영이양 직불제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율(%)	-	-	-	-	X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율(%)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영농규모화 사업 성과평가〉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3	0	0
		0%	67%	33%

단위: 개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4.3. 성과분석

- 2012년도 농지매입비축과 농지연금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으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및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쌀전업농 벼 재배면적 비중 확대 : 28%('04) → 44%('11) → 46%('12)
 - 호당 경영규모 : 2.5ha('95) → 3.9ha('04) → 5.4('11) → 5.6('12)(396천ha/7만호)
- 농지매입비축을 통해 2010~2012년까지 고령 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업진흥지역 내부 농지 1,921ha를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고령은퇴, 이농·전업을 지원하였다.
 - 매입농지는 전업농·창업농 등에 장기임대하여 새로운 농업경영체 육성에 활용되었다.

- 2011년 농지연금 제도를 신규도입하고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였다.
 - 농지연금 가입율의 목표 대비 달성률: 203%('11) → 105%('12)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2년 말 농지연금 가입자 2,202호, 월 평균 연금액 81만 원, 총 225억 원('11~'12)의 연금지급액 등의 성과를 보였다.

- 2012년 경영이양 목표면적 달성율은 91.7%로 성과가 다소 미흡하나, 경영이양농지의 양수대상자 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12년 6월)과 현장밀착형 사업홍보로 향후 경영이양직불제 확대가 기대된다.

2.4.4. 개선과제

- 농지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농지의 담보평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큼에 따라, 농지 평가기준을 현재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5. 생산기반조성

2.5.1. 개괄

사업명		개요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목적	▪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지원내용	▪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수로 보수·보강
	지원 대상 및 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300억 원 ▪ 실적 : 267억 원
배수 개선	사업목적	▪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
	지원내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 공사비(자재대)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400억 원 ▪ 실적 : 300억 원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목적	▪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편의 기반 구축
	지원내용	▪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지자체 또는 토지소유자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300억 원 ▪ 실적 : 234억 원

- 생산기반 조성 관련 사업은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부족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 및 물이 부족한 가뭄 상습지역에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최근 5개년 목표 대비 성과지표는 모두 100% 이상 달성되어, 생산기반조성 사업의 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 특히, 농촌용수개발 준공(2.1천ha) 등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설치를 통해 수리안전답율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5.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생산 기반 조성	수리시설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율 (누계%)	(개보수 완료 개소수 /개보수 대상 개소수)×100
	배수개선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액(원)	최근 3개년 배수개선사업 완료지역의 농경지 침수 피해액 * 시도의 농경지 침수피해액 집계 자료
		2013년 이후: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해소율(%)	배수개선사업 완료지역(최근 3개년)의 농경지 침수피해면적 *(A-침수피해면적)/A(%) [A : 최근 3개년 준공지구 총 수해면적(침수면적)]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수리안전답율(%)	(수리안전답 면적/전체 논면적)×100

나. 세부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대비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지표 실적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율 (누계%)	목표	66.2	67.3	68.1	69.0	69.8
	실적	66.2	67.3	68.1	69.0	71.2
	달성률(%)	100	100	100	100	102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액 (원)	목표	0	0	0	0	0
	실적	0	0	0	0	0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수리안전 답율(%)	목표	45.7	46.0	50.0	50.1	50.5
	실적	47.4	47.8	52.9	56.0	56.4
	달성률(%)	103.7	103.9	105.8	111.8	111.7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수리시설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율 (누계%)	○	○	○	○	○
배수개선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액(원)	○	○	○	○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수리안전 답율(%)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생산기반 조성 사업 성과평가〉

단위: 개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3	0	0	3	0
		0%	100%	0%

-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5.3. 성과분석

- 수리시설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재해예방시설을 설치, 수혜면적 4.2천ha 침수피해 예방 및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였다.
 - 노후되거나 파손된 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등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 '12년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준공(2.1천ha) 등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설치를 통해 10년 빈도 가뭄재해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수리안전답을 제고 방안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2.5.4. 개선과제

- 기존 성과지표(배수개선·방조제개보수 완료지역 침수피해액)는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배수개선·방조제개보수 완료지역 침수피해 감소율' 등과 같이 사업시행에 따른 성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용수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뭄에 안전한 용수공급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및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확대지원 및 수리안전담을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6. 친환경농업 육성

2.6.1. 개괄

사업명		개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목적	▪ 광역·마을 단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지원내용	▪ 화훼류를 제외한 전작목 광역·마을 단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후보단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 지역농협, 생산자조직, 법인화된 조직과 마을단위의 농업인 등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63억 원 ▪ 실적 : 242억 원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매장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매장 임대보증금 및 매장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 및 자격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법인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89억 원 ▪ 실적 : 289억 원
국가 인증 농식품 산업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요를 민간이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원활한 인증 도모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적정수수료와 실행수수료 차액 지원(인증심사 실적분만 인정)
	지원 대상 및 자격	▪ 최근 2년간 행정처분 2회이상 받지 않은 업체로 사업전년도 또는 사업년도 1,000농가 이상 인증관리가 가능한 기관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40억 원 ▪ 실적 : 40억 원

친환경 농산물 물류 센터 건립	사업목적	▪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
	지원내용	▪ 종합물류센터 신규건립 설계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종합물류센터 1개소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50억 원 ▪ 실적 : 50억 원
친환경 농업 연구 센터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연구시설 건립
	지원내용	▪ '08년부터 '11년까지 3개소 건립 ▪ 전남대('08년), 강원대('09년), 고성군('10년)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역 맞춤형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능력을 갖춘 대학 및 지자체 등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40억 원 ▪ 실적 : 40억 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내용	▪ 친환경농가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2012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436억 원 ▪ 실적 : 364억 원

- 해당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이 기대된다.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전용 취급 종합물류센터 조성으로 판로확대 및 소비자신뢰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1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과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성과지표인 광역단지·지구 조성내 친환경인증면적(ha)과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은 각각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목표 대비 달성률은 각각 96.1%와 93.6%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성과지표인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 비중은 '12년 7.3%로 목표 대비 93.6%를 달성했다.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의 성과지표인 지구조성·광역단지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은 '11년도 34%에서 '12년도 36.5%로 증가하였으나, '12년도는 목표 대비 96% 달성했다.
- '10년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 폐지, 전년도 인증면적 증가 추세, 친환경인증을 하고자 하는 농가수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인증 면적의 급속한 증가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전체 인증면적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을 '11년도 34%에서 4%p 증가한 '12년도에 38%로 설정한 것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2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 8개소를 포함 4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신규 28개소를 포함 1,076개소 조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12년도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5%로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확대의 전략 목표는 소기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9.5%로 크게 증가하였다.

2.6.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친환경농업 육성	공통지표	친환경 인증 목표 비중 달성율(%)	(당해 연도 친환경 인증 면적 비중/목표 친환경 인증 면적 비중)×100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친환경 인증면적(ha)	연도별 인증면적 추이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 증가율(%)	(당해연도 시장규모-전년도 시장 규모)/전년도시장규모×100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민간인증기관 점유율(%)	(민간 인증면적/전체 친환경인증면적)×100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물류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중(%)	(물류센터들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액/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100 경기(광주) 물류센터 준공('12.8) 및 개장('12.10월), 전남(나주) 건립 추진('12~'15)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친환경인증 상승 농업인 비중(%)	(친환경인증 상승 농업인(또는 농가) 수/친환경농업연구센터 교육 및 지도 수혜 대상 농업인(또는 농가) 수)×100 친환경 인증 상승 농업인(또는 농가) 범위 무농약 이상 신규 인증 농업인(또는 농가) 수 인증 면적 증가 농업인(또는 농가) 수 인증 품목 수 증가 농업인(또는 농가) 수 인증단계 상승(저농약→무농약, 무농약→유기농) 농업인(또는 농가) 수	
			참여 전담연구인력 당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성과 증가율(%)	0.5(참여 전담연구인력 당 최근 3년 대비 SCI급 논문게재 건수 증가율)+0.5(참여 전담연구인력 당 최근 3년 대비 특허출원/등록 증가율) [당년도 실적(논문게재 건수×당년도 Imp act Factor)/최근 3년간 평균실적 -1]×100 [당년도 실적(특허출원 및 등록건수)/최근 3년간 평균실적 -1]×100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누적 개수	연차별 목표 대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누적 개수
	친환경농업직불제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인증)면적 비중(%)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전체 농산물 재배면적)×100	

나. 세부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대비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지표 실적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친환경 인증 목표 비중 달성률(%)	목표	-	-	-	-	-
	실적	-	-	11.31	10.17	9.50
	달성률(%)	-	-	-	-	-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내 친환경 인증면적(ha)	목표	20	23	30.0	33.9	38.0
	실적	20	25	30.0	34.0	36.5
	달성률(%)	100	108.7	100	100.3	96.1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 증가율(%)	목표	-	-	-	-	-
	실적	-	-	-	15.3	9.5
	달성률(%)	-	-	-	-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민간인증기관 점유율(%)	목표	60	70	-	-	-
	실적	67	69	65.95	70.34	73.72
	달성률(%)	111.7	98.6	-	-	-
물류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중(%)	2012년 신규사업					
친환경인증 상승 농업인 비중(%) 증가율(%)	목표	-	-	-	-	-
	실적	-	-	-	-	20
	달성률(%)	-	-	-	-	-
참여 전담연구 인력 당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성과	목표	-	-	-	-	-
	실적	-	-	-	-	5
	달성률(%)	-	-	-	-	-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누적 개수	목표	-	-	-	-	-
	실적	-	-	-	1	3
	달성률(%)	-	-	-	-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인증) 면적 비중(%)	목표	-	-	6.2	7.4	7.8
	실적	-	-	6.4	6.7	7.3
	달성률(%)	-	-	103.2	90.5	93.6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공통지표	친환경 인증 목표 비중 달성율(%)	-	-	-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내 친환경 인증면적(ha)	○	○	○	○	x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 증가율(%)	-	-	-	-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민간인증기관 점유율(%)	○	x	-	-	-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물류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중(%)	-	-	-	-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친환경인증 상승 농업인 비중(%) 증가율(%)	-	-	-	-	-
친환경농업직불제	참여 전담연구 인력 당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성과	-	-	○	x	x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성과평가〉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2	5	0	0	2
		0%	0%	100%

단위: 개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6.3. 성과분석

- '10년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 폐지, 전년도 인증면적 증가 추세, 친환경인증을 하고자 하는 농가수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인증 면적의 급속한 증가는 다소 무리가 있다.

-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인증 취소 농가 대량발생으로 '12년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은 당초 목표치(7.8%)에 미달하였다.
 - 친환경인증취소 건수 : 2,810건('10) → 7,900('11) → 5,502('12)
 - 지구조성·광역단지 친환경인증면적 비율도 전체 인증면적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을 2011년도 34%에서 2012년도 38%로 설정한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2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 8개소를 포함 4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통해 신규 28개소를 포함 1,076개소가 조성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확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에도 기여하였다.
- 저농약 인증면적이 크게 감소한데다 가뭄과 태풍 불라벤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12년도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7% 감소하였다.
 - 반면,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9.5% 증가하였다.
 - 전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 33,874억 원('10) → 32,602('11) → 30,809('12)
 -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 18,203억 원('10) → 20,991('11) → 21,256('12)
 -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110천ha('10) → 115('11) → 127('12)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추진 등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확대는 농가소득 안정 및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양관리개선 추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농업의 양적 육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제고 및 인증품의 질적 가치 상승을 위해 생산·유통단계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6.4. 개선과제

-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내실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광역단지·지구 내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완료에 따라 성과지표 변경이 필요하다.
 - 전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대비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비중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물류센터 건립효과 및 국내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파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관리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민간인증기관 행정처분(삼진아웃제) 및 단체인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직불금 지급유형 구분, 품목별·연차별로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 친환경농업 표준 유기기술 개발 및 농가보급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검토하겠다.

2.7. 식품산업 육성

2.7.1. 개괄

사업명		개요
국가 식품 산업 클러 스터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수출 중심의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 및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 투자 유치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익산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40억 원 실적 : 40억 원
농식품 모태 펀드 출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 집중투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우아이비캐피탈(주), 산은캐피탈(주), 유큐아이파트너스(주), (주)이앤인베스트먼트, 엘앤에스벤처캐피탈(주), 미래에셋벤처투자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500억 원 실적 : 500억 원
식품 외식 종합 자금 (신선 편이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제조·신선편이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정성 확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CCP, GMP 등 식품안전인증·개보수를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 및 농식품 수출업체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64억 원 실적 : 7억 원
농식품 시설 현대화 (축산물 열처리 가공 공장)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제조·축산가공 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제조업체·외식업체의 시설 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열처리 가공제품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70억 원 실적 : 70억 원

-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기의 네 가지 세부사업들은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생산액 증대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식품기업, 연구기관 등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R&D 중심의 수출 지향적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확보를 위해 신선편이 가공시설 및 농식품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여 '12년에 목표대비 12.7%를 초과달성함으로써 연관산업과의 집적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사업은 민·관합작투자 형태의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 2010년 이후 농식품전문투자조합(자펀드) 수가 증가하고 있어, 농식품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 식품제조·외식업체 시설현대화·개보수 자금을 통해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 등을 도모하여 식품·외식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아직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와 축산물 열처리공장 사업의 실적은 미미한 상태이므로, 실효성 있는 사업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7.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식품 산업 육성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MOU 체결 식품기업 및 연구소 수	투자양해각서(MOU) 등 체결 회사 및 연구소 수(개소수) (입주의향 기업 및 기관 수)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 수	연도별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 수
	식품외식종합자금(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	지원 수혜 업체수(누계)	신선편이 가공업체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 받은업체 수(누계)
	농식품시설현대화(축산물 열처리공장)(전 돼지고기수출작업장)	열처리공장 수(누계)	열처리공장 수(누계)

나. 세부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지표 실적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MOU 체결 식품기업 및 연구소 수	목표	-	-	32	40	55
	실적	-	-	32	40	62
	달성률(%)	-	-	100	100	112.7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 수	목표	-	-	3	3	5
	실적	-	-	5	6	7
	달성률(%)	-	-	167	200	140
지원 수혜 업체수(누계)	목표	-	-	-	-	-
	실적	-	-	-	-	1
	달성률(%)	-	-	-	-	-
열처리공장 수(누계)	목표	-	-	-	-	-
	실적	-	-	2	2	3
	달성률(%)	-	-	-	-	-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MOU 체결 식품기업 및 연구소 수			○	○	○
농식품모태 펀드 출자	농식품투자조합 (자펀드) 결성 수	-	-	◎	◎	◎
식품외식종합자금 (신선편이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수혜 업체수 (누계)					
농식품시설현대화 (축산물 열처리공장 장)	열처리공장 수 (누계)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식품산업 육성 사업 성과평가〉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1	3	0	1	0
		0%	100%	0%

단위: 개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7.3. 성과분석

- 2015년까지 전북 익산에 조성계획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여 '12년에 목표대비 12.7% 초과 달성함으로써 연관산업과의 집적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 클러스터 조성계획: 232만㎡(전북 익산), 총사업비 5,535억 원
- 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대부분 시작단계의 사업으로 단기적 평가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 식품제조·외식업체 시설현대화·개보수 자금을 통해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 등을 도모하여 식품·외식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2.7.4. 개선과제

- 현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단계로 단순한 성과지표를 사용하였으나,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는 '15년 이후부터는 식품산업 육성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2.8. 종자산업 육성

2.8.1. 개괄

사업명		개요
종자 산업 기반 구축 (우수 품종 증식 보급 촉진)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품종 증묘를 공급하여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을 완화하고 종자사고를 사전예방하여 농가 생산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구 생산 장비(하우스 조직배양실, 개량공간, 파종기) ▪ 증식시설(증식용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증막용 망실하우스, 육묘용 베드, 품종 전시용 철골온실, 종묘 증식용 철골 온실, 온습도 조절 장치) ▪ 종묘 저장(저온저장고) 및 품질관리 관련 기자재 ▪ 해외채종을 국내채종 전환시 소요되는 종자생산비 일부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 시·도 농업기술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 국립종자원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 종묘업체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74억 원 ▪ 실적 : 68억 원
품종 심사 및 재배 시험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기업의 신품종 육성에 따른 제비용 보상 ▪ 해외출원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으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최근 2년 이내에 품종 보호등록 또는 출원 공고된 품종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51억 원

	사업예산	▪ 실적 : 47억 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목적	▪ 우량 보급 종자의 안정적 공급 및 보급종의 원활한 생산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
	지원내용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종자 전량을 하위단계 재종을 위하여 무상 인도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씨감자(생산목표량)는 익년도 보급종 채종시 농가에서 보급종 생산용 종자로 사용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방자치단체 및 원종 위탁 생산 농가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40억 원 ▪ 실적 : 40억 원
민간 육종 연구 단지 조성	사업목적	▪ 국내 기업의 세계 종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육종역량 강화
	지원내용	▪ 민간육종기업유치 ▪ 연구인력양성 ▪ 종자육종지원서비스구축 ▪ 종자관련기관 클러스터링
	지원 대상 및 자격	▪ 전북 김제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9억 원 ▪ 실적 : 3억 원
골든 씨드 프로 젝트	사업목적	▪ 글로벌 종자 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기반 구축
	지원내용	▪ 전략 수출 종자 20개 이상 개발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종자업체 등
	2012년 사업예산	▪ 예산 : 25억 원 ▪ 실적 : 25억 원

- 종자산업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기의 5가지 세부사업들은 FTA에 대비하여 식량분야의 자율 수급조절을 통한 국내산업의 육성과 소비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종자보급 체계가 취약한 원예 특작종자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대외 로얄티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품종의 보급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강화와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가 지원 등을 통해 종자산업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우수 품종 증식·보급 촉진 사업은 국산품종(종자) 보급률을 확대시켜 국내 종자산업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국내종자 보급률 증대 : 40%('10) → 46.4%('11) → 49.2%('12)

○ 신품종육성과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에 대한 지원확대는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실적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량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8.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 방법(공식)
종자 산업 육성	공통지표	국내 종자(품종) 보급률(%)	(국산종자 재배면적/전체 재배면적)×100
	종자산업기반구축	주요 품목의 국산 품종 보급률(%) *딸기, 장미, 국화, 마늘 등	(국산품종 재배면적/전체 재배면적)×10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실적	0.5×(신품종개발비 지원건수)+0.5×(해외출원비 지원건수)
	원원종 및 원종생산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량(톤)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원종·원종 소요량 × 1.5 *조사방법: 매년 1월조사, 지원사업 결과자료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단지내 입주업체의 품종보호 출원건수 *2015년 이후 측정가능	연도별 품종보호 건수
	골든씨드프로젝트	GSP 수입대체 품목종자에 대한 국내 보급률(%) *2013년 이후 측정 가능	(GSP 수입대체 품목종자 이용량/수입대체 품목종자 전체 이용량)×100 *수입대체품목: 돼지, 닭,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김, 버섯

나. 세부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지표명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지표 실적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국내 종자(품종) 보급률(%)	목표	-	-	40	45	47
	실적	-	-	40	46.4	49.2
	달성률(%)	-	-	100	103.1	104.7
주요 품목의 국산 품종 보급률(%) *딸기, 장미, 국화, 마늘 등	목표	-	-	40	45	47
	실적	-	-	40	46.4	49.2
	달성률(%)	-	-	100	103.1	104.7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실적	목표	-	-	-	-	-
	실적	24.5	26	27	40	54
	달성률(%)	-	-	-	-	-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량(톤)	목표	1,503	1,454	1,441	1,443	1,495
	실적	1,508	1,510	1,457	1,450	1,497
	달성률(%)	100.3	103.9	101.1	100.5	100.1
단지내 입주업체의 품종보호 출원건수	2015년 이후 측정 가능 (2015년 공사 완료 예정)					
GSP 수입대체 품목종자에 대한 국내 보급률(%)	2013년부터 시행 (2012년 실적 없음)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공통지표	국내 종자(품종) 보급률(%)			○	○	○
종자산업기반구축	주요 품목의 국산 품종 보급률(%) *딸기, 장미, 국화, 마늘 등			○	○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실적					
원원종 및 원종생산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량(톤)	○	○	○	○	○
민간육종 연구단지조성	단지내 입주업체의 품종보호 출원건수					
골든씨드프로젝트	GSP 수입대체 품목종자에 대한 국내 보급률(%)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종자산업 육성 사업 성과평가〉

단위: 개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3	3	0	3	0
		0%	100%	0%

-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8.3. 성과분석

- 최근 3년간 국산품종(종자) 보급률은 증가하고 있다.
 - 국내종자 보급률 : 40%('10) → 46.4%('11) → 49.2%('12)
- 품종보호권 강화와 신품종육성의 지원 확대 등으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 (누계)실적 증가 추세
- 민간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로 FTA에 대응한 국내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2.8.4. 개선과제

- 종자산업 육성 실적을 나타내는 성과지표 위주에서 농가생산 및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할 수 있는 신규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2.9. R&D 및 펀드 투자 확대

2.9.1. 개괄

사업명		개요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농림 바이오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분야 신성장동력원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농가의 신소득원 창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바이오 분야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연구성과를 이용한 사업화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 등 산·학·연 협동 연구팀(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 참여 가능)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80억 원 실적 : 80억 원
생명 산업 기술 개발 (농림 기술 개발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인 '생명산업'육성에 기여 민간 주도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주도형 녹색 농업기술 개발 지원 고기능성 동식물 활용 천연소재 개발 지원 민간육종지원 동물자원화, 곤충자원화, 식물자원화, 미생물자원 기술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 등 산·학·연 협동 연구팀(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 참여 가능)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523억 원 실적 : 523억 원
농림 수산 검역 검사 기술 개발 (수의 과학 기술 개발)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 및 검역기술개발로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향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확충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 13개 부서 2개 검역검사소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245억 원 실적 : 238억 원
가축 질병 대응 기술 개발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긴급 재난형 가축질병 신속 진단, 예방, 소독, 방역 및 백신개발 가축질병 억제제 개발 및 질병예방·예찰 기술지원 동식물 자원활용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 등 산·학·연 협동 연구팀(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 참여 가능)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 40억 원 실적 : 40억 원

- 해당 사업 분야는 농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R&D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농림수산 바이오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농어가의 신소득원을 창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재난형 가축질병(광우병, 구제역 등) 및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 및 검역기술개발로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2.9.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R & D 및 펀드 투자 확대	농림바이오산업화 기술개발 (2011년부터 사업명이 '기술사업화지원사 업'으로 변경)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	① 실용화 성과=지식재산권[(특허출원건수 ×0.3)+(특허등록건수×0.7)] ② 산업화 성과=기술이전[(산업체기술이전 건수 × 0.4)+(농어업인 기술이전건수 ×0.2)+기술사업화건수[(사업화건수×0.4) ③ 과학적 성과=논문[(SCI급 논문건수 ×0.7)+(비SCI급 논문건수×0.3)]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인력양성 건수 ×0.6)+(교육지도건수×0.4)]
	생명산업기술개발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	① 실용화 성과=지식재산권[(특허출원건수 ×0.3)+(특허등록건수×0.7)] ② 산업화 성과=기술이전[(산업체기술이전 건수 × 0.4)+(농어업인 기술이전건수 ×0.2)+기술사업화건수[(사업화건수×0.4) ③ 과학적 성과=논문[(SCI급 논문건수 ×0.7)+(비SCI급 논문건수×0.3)]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인력양성 건수 ×0.6)+(교육지도건수×0.4)]
	농림수산검역검사 기술개발 (구 수의과학기술개발)	0.20×(검역검사정책 제안지수)+0.20×(검역검사 가이드라인 개발지수)+0.15×(검역검사 기술의 관련산업 영향지수)+0.15×(검역검사 기술 국제화 지수)+0.15×(검역검사기술 보급지수)+0.1×(검역검사 분야 지적재산권지수)+0.05×(검 역검사분야 학술활동지수)	① 검역검사정책 제안지수=0.4×(법, 시행규 칙 제개정)+0.35×(훈령 예규, 고시, 지침 제개정)+0.25×(기타정책건의) ② 검역검사가이드라인 개발지수=0.2× (동·식물질병 표준검사법)+0.25×(질병 방제 표준기술)+0.2×(독성·위해성 평가 법)+0.25×(축수산물중 유해물질 분석 법)+0.1×(기타) ③ 검역검사기술의 관련산업 영향지수 =[0.1×(산업체 공동연구 건수) + 0.9× (통상실시권 계약건수)] / (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10억원))

			<p>④ 검역검사기술 국제화 지수=[(0.6× OIE 표준실험실 운영건수)+0.35×(검역검사실 협실 공식인증건수)+0.05×(국제공동연구 건수)] / [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10억원)]</p> <p>⑤ 검역검사기술 보급지수=(0.3×기술잡지 게재건수+0.5×현장방문교육건수+0.2×홍보책자 발간 건수) / 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억원)</p> <p>⑥ 검역검사분야 지적재산권지수=[0.4 × 해외특허등록+0.3×국내특허등록+0.2×해외특허출원+0.1×국내특허출원] / [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10억원)]</p> <p>⑦ 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지수=[0.7×∑(SCI급 저널별 Impact Factor× SCI급 저널별 논문건수)+0.3×∑(비SCI급 저널별 Impact Factor×논문건수)] / 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억원)</p>
가축질병대응기술 개발	<p>① 실용화 성과</p> <p>② 산업화 성과</p> <p>③ 과학적 성과</p> <p>④ 산업기반구축 성과</p>	<p>① 실용화 성과=지식재산권[(특허출원건수×0.3)+(특허등록건수×0.7)]</p> <p>② 산업화 성과=기술이전[(산업체기술이전건수×0.4)+(농어업인기술이전건수×0.2)]+기술사업화건수[(사업화건수×0.4)</p> <p>③ 과학적 성과=논문[(SCI급 논문건수×0.7)+(비SCI급 논문건수×0.3)]</p> <p>④ 산업기반구축 성과=[(인력양성 건수×0.6)+(교육지도건수×0.4)]</p>	

나. 세부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지표명	목표대비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지표 실적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p>① 실용화 성과</p> <p>② 산업화 성과</p> <p>③ 과학적 성과</p> <p>④ 산업기반구축 성과</p>		2013년부터 측정 가능 (2012년 성과지표 변경)				
<p>① 실용화 성과</p> <p>② 산업화 성과</p> <p>③ 과학적 성과</p> <p>④ 산업기반구축 성과</p>		2013년부터 측정 가능 (2012년 성과지표 변경)				
<p>0.20×(검역검사정책 제안지수)+0.20×(검역검사가이드라인 개발지수)+0.15×(검역검사기술의 관련 산업 영향지수)+0.15×(검역검사기술 국제화 지수)+0.15×(검역검사기술 보급지수)+0.1×(검역검사 지적재산권지수)+0.05×(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지수)</p>		2013년부터 측정 가능 (2012년 성과지표 변경)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	2012년 신규사업
---	------------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	2013년부터 측정 가능 (2012년 성과지표 변경)				
생명산업 기술개발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	2013년부터 측정 가능 (2012년 성과지표 변경)				
농림수산검 역검사기술 개발 (구 수의과 학 기술 개 발)	0.20×(검역검사정책 제안지수)+0.20×(검역 검사가이드라인 개발지수)+0.15×(검역 검사기술의 관련 산업 영향지수)+0.15×(검역 검사기술 국제화 지수)+0.15×(검역검사 기술 보급지수)+ 0.1×(검역검사 지적재산권지수)+0.05 ×(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지수)	2013년부터 측정 가능 (2012년 성과지표 변경)				
가축질병 대응기술 개발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	2012년 신규사업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9.3. 성과분석

- 해당 분야는 농축산 분야 R&D 사업의 성과지표 개편으로 개별사업들에 대한 성과 계측은 2013년부터 가능하다.

2.10. 농식품 수출 촉진

2.10.1. 개괄

사업명		개요
농산물 해외 시장 개척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 과 현지시장의 한국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통해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 여 농가소득 증대,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 도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수출정보 등 인프라 구축, 수출 유망품목 육 성, 공동브랜드 육성, 품목별 공동마케팅 지원, 해외 물류기반 구축 등 ▪ 해외 마케팅사업: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 해외 판촉행사 지원, 바이 어 거래 알선, 해외 홍보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수출농가를 포함한 수출경영체 ▪ 지원 자격: 농식품 수출업체, 단체 및 협회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314억 원 ▪ 실적 : 314억 원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외식산업화를 유도, 지역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확대와 한식세계화 기반 구축 ▪ 한식 우수성 해외 홍보, 한식당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한식당 해외진 출을 확대함으로써 연관산업 성장과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 세계화 기반구축 ▪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 ▪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 교육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가 유망한 한국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시·도·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음식관련 법인·단체 ▪ 한식세계화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2012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219억 원 ▪ 실적 : 196억 원

○ 해당 사업 분야는 한식 세계화 추진과 더불어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 해외 진출 지원 및 해외 홍보사업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화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의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12년 농식품 수출전략품 목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하였다.

-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와 국가 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1.3% 감소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12년도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의 수출 실적은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최근 5년 동안 국내외식 기업의 해외진출 점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2년에는 목표 대비 102% 달성하여, 한식세계화지원 사업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외식 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 109개('08) → 210개('11) → 234개('12)

2.10.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사업 유형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 방법(공식)
농식품 수출 촉진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의 수출액 증가율(%)*	(당해연도 수치-전년도 수치)/전년도 수치 × 100
	한식세계화지원	국내 외식(한식)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사업시행 이후 5개년 수치-사업이전 수치)/사업이전 수치 × 100

주. 29개의 농식품 수출전략품목: 딸기, 장미, 사과, 버섯류, 토마토, 김치, 인삼류, 파프리카, 단감, 배, 소스류, 막걸리, 조제분유, 면류, 유자차, 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넝치, 굴, 김, 전복, 해삼, 참치,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나. 세부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지표명	달성률	최근 5개년 성과지표 실적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의 수출액 증가율(%)	목표					
	실적		9.1	20.97	18.34	14.3
	달성률(%)					
국내 외식(한식)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목표	109	109	113	120	230
	실적	109	109	170	210	234
	달성률(%)	100	100	150.4	175	101.7

구 분		2008년 달성	2009년 달성	2010년 달성	2011년 달성	2012년 달성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의 수출액 증가율(%)			-	-	-
한식세계화지원	국내 외식(한식)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	○	◎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012년 농식품 수출 촉진 사업 성과평가〉

단위: 개

기존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1	1	0	1	0
		0%	100%	0%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10.3. 성과분석

○ 2012년 수출전략품목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하여, 2011년의 18.5%보다 다소 둔화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 국가 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1.3%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성장세 유지하였다.

- 전략적인 해외시장 개척 전개 결과, 수출 성장세 유지와 시장 다변화 및 품목 다양화 등 수출 내실화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1억불 이상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11국, 12품목('11년) → 14개국, 13개 품목('12년)

○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증가율은 4.1%로 성과목표치에는 미달하였으나, 국내 전체 수출증가율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이어진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농림수산물 수출액(억 달러) : 45.0('08) → 48.1('09) → 58.8('10) → 76.9('11)

- 한식세계화 추진으로 외식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농식품 수출증가에 기여하였다.
 - 해외 주요 언론에 한식소개,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 정규강좌 개설 및 한식붐을 바탕으로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에도 기여하였다.
 - 한식업체 진출 현황: 24개 업체/48개 점포('05) → 27/109('08) → 41/234('12)

2.10.4. 개선과제

- 목표설정 시, 성과지표에 대한 추세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분석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추세치만을 반영한 과도한 지표설정이 성과목표 미달로 이어져 관련 정책 효과성 저조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목표설정 시 해당 지표의 추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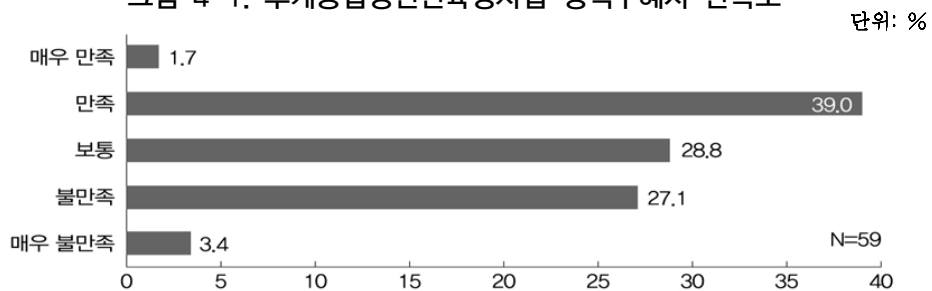
3.1.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3.1.1. 신규농업인력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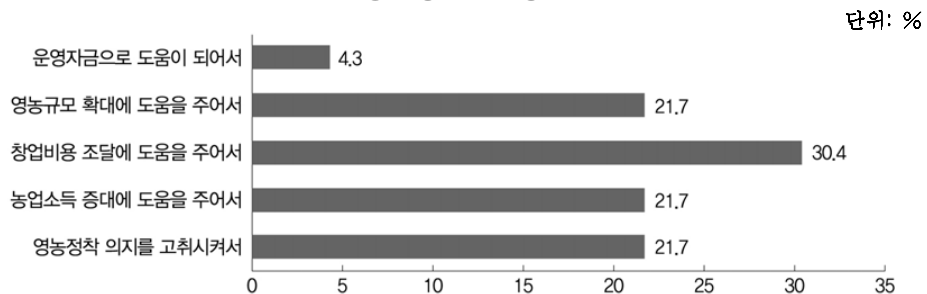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39%가 만족, 1.7%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40.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정책수혜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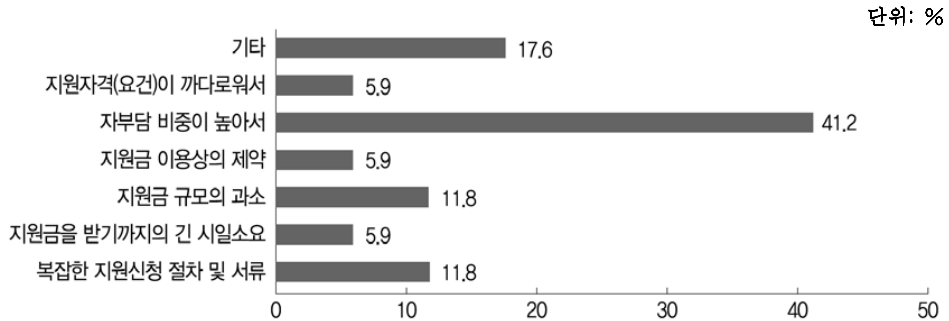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비용 조달에 도움 (30.4%)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영농규모 확대에 도움,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 영농정책 의지 고취 등(각 21.7%)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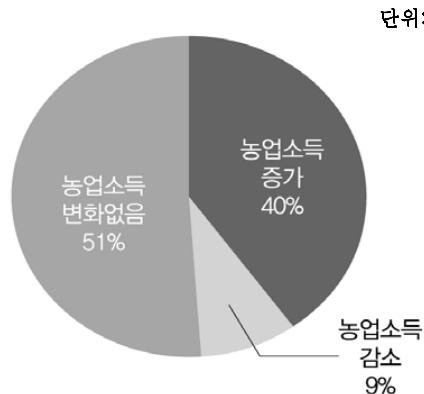
- 한편, 응답자의 30.5%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자부담 비중(41.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지원금 규모의 과소와 복잡한 신청 절차 및 서류(11.8%)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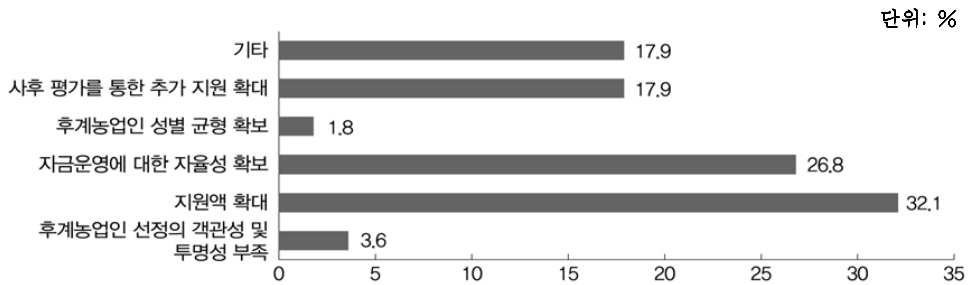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수혜를 받기 전후 농업소득 변화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0%가 농업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농업소득이 감소하였거나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60%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농업소득이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수혜 전후 농업소득 변화



-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보완 및 개선사항은 지원액 확대(31.2%)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자금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26.8%), 사후평가를 통한 추가 지원 확대(17.9%)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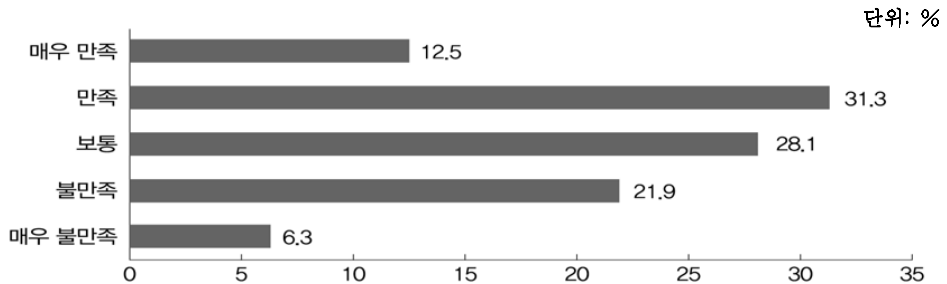
그림 4-5. 후계농업인육성사업 보완 및 개선사항



나.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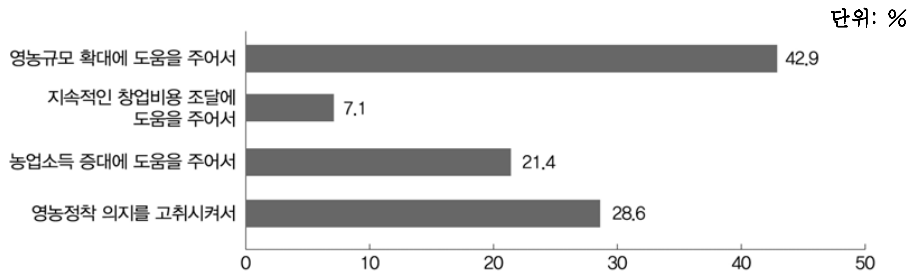
-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31.3%가 만족, 12.5%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43.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정책수혜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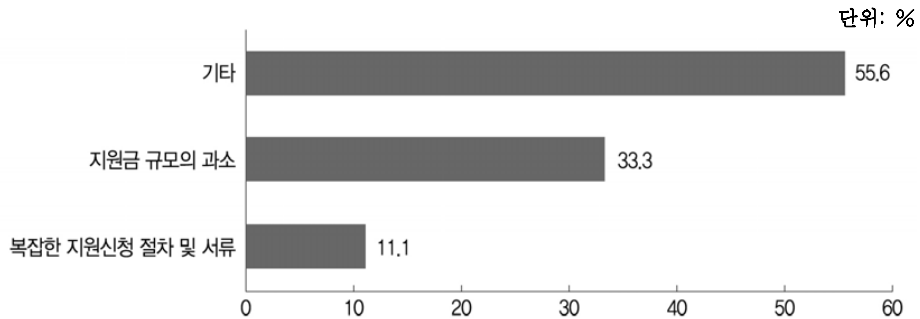
-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농규모 확대 도움(43.8%)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영농정착 의지 고취(28.6%),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21.4%)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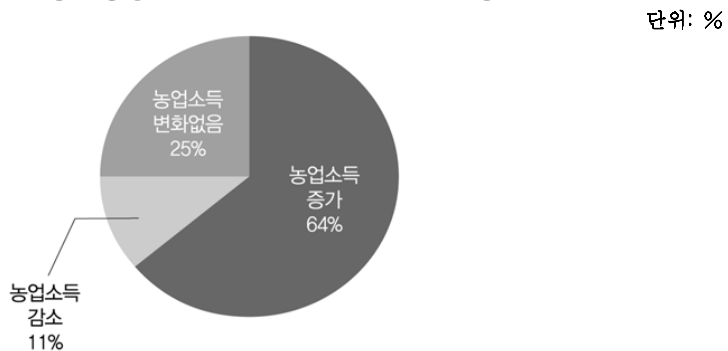
- 한편, 응답자의 28.2%가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 규모의 과소 때문(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복잡한 신청 절차 및 서류(11.1%)를 지목하였다.

그림 4-8.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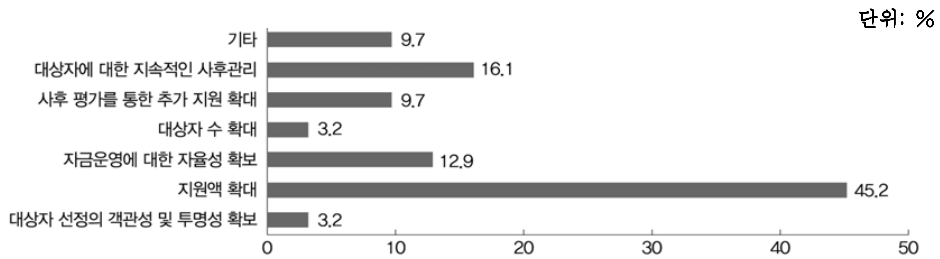
-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수혜를 받기 전후 농업소득 변화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11%가 농업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농업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64%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농업소득 증가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수혜 전후 농업소득 변화



-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보완 및 개선사항은 지원액 확대(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16.1%), 자금 운용에 대한 자율성 확보(12.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보완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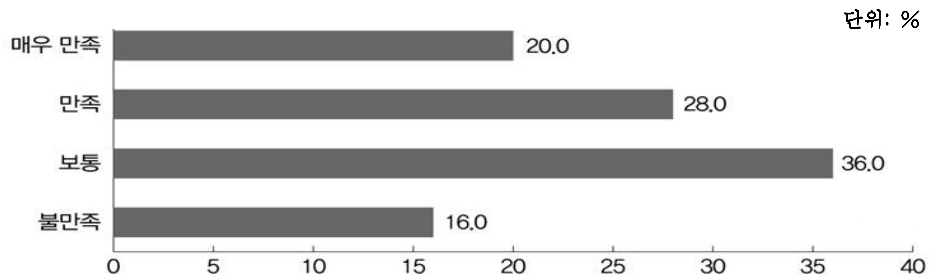


3.1.2. 경영안정화

가. 농어업재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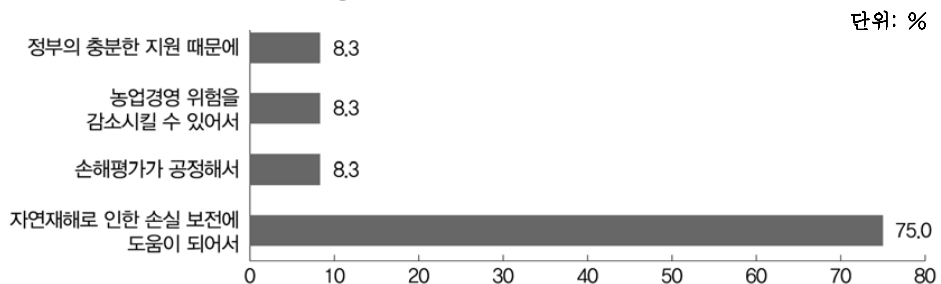
-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만족, 20%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4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농어업재해보험 정책수혜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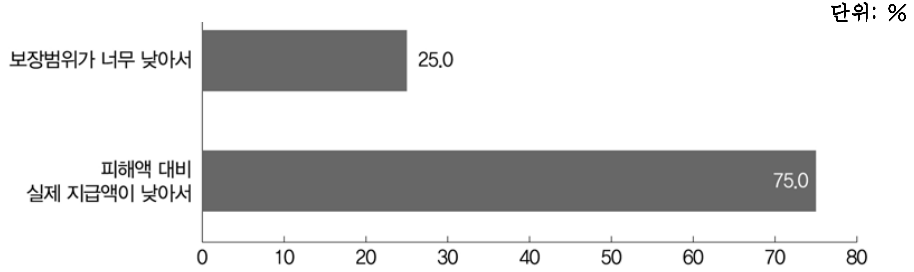
-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보전에 대해 도움이 되기 때문(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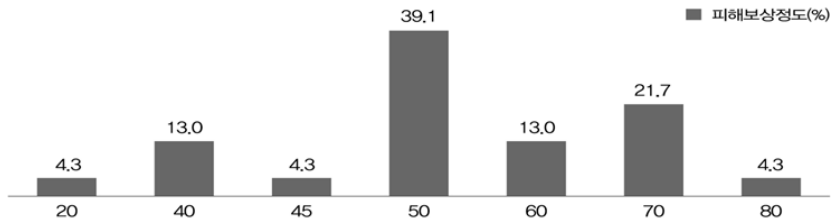
- 한편, 응답자의 16%가 농어업재해보험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피해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낮기 때문(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보장범위가 낮아서(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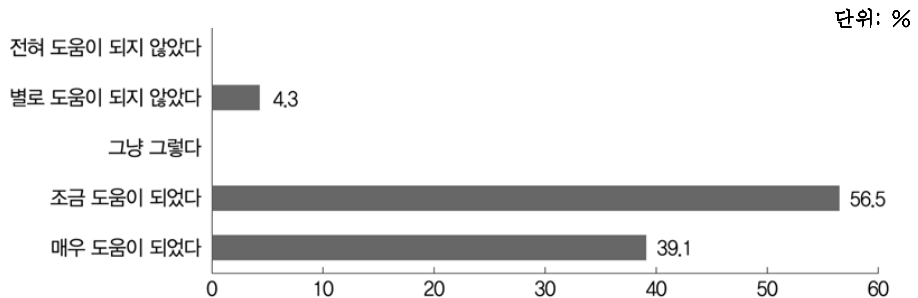
- 응답자의 78%가 피해액의 50% 이상을 보상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재해보험금의 피해보상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4. 농업재해보험 보상금의 피해보상 비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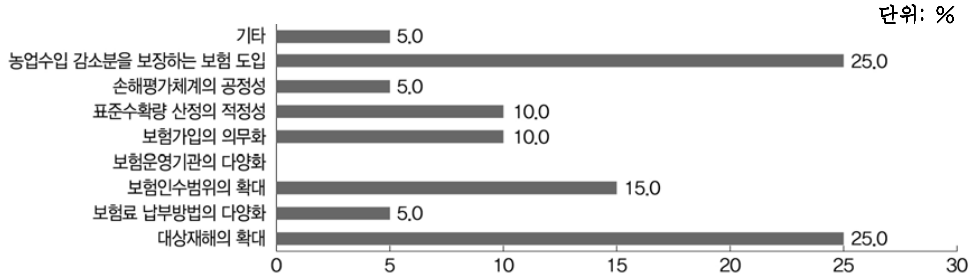
- 농업재해보험금 수령액의 손실회복 기여도에서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4-15. 농업재해보험금 수령액의 손실회복 기여도



-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장 중요한 보완 및 개선사항은 농업수입 감소분을 보장하는 보험 도입(25%)과 대상 재해의 확대(25%)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보험인수 범위의 확대(15%) 등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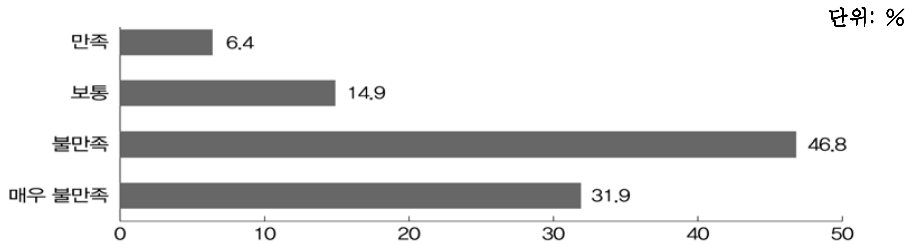
그림 4-16. 농어업재해보험 보완 및 개선사항



나. 발농업직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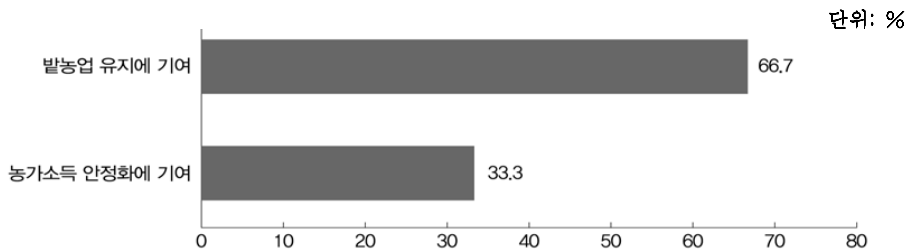
- 발농업직불제는 응답자의 6.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발농업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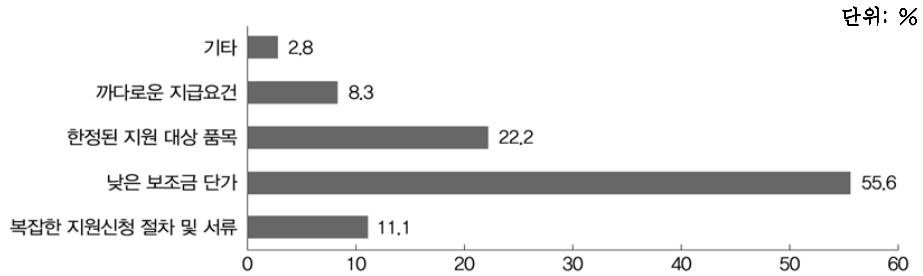
- 발농업직불제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농업 유지에 기여(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33.3%)로 나타났다.

그림 4-18. 발농업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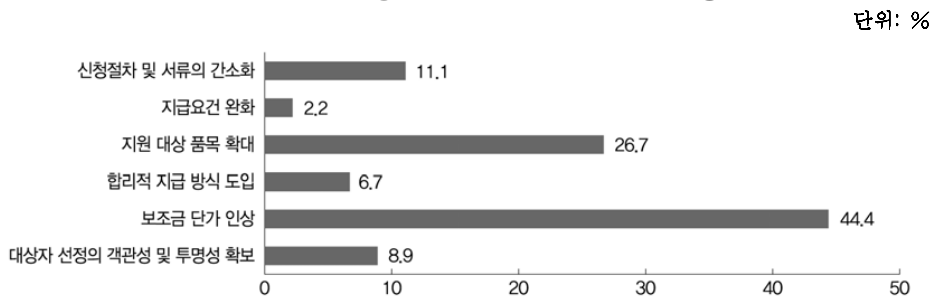
- 한편, 응답자의 78.7%가 발농업직불제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조금 단가 때문(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한정된 지원 대상 품목(22.2%)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발농업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 발농업직불제의 가장 중요한 보완 및 개선사항은 보조금 단가 인상(44.4%)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은 정책수혜자를 위한 지원 대상 품목 확대(26.7%),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8.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20. 발농업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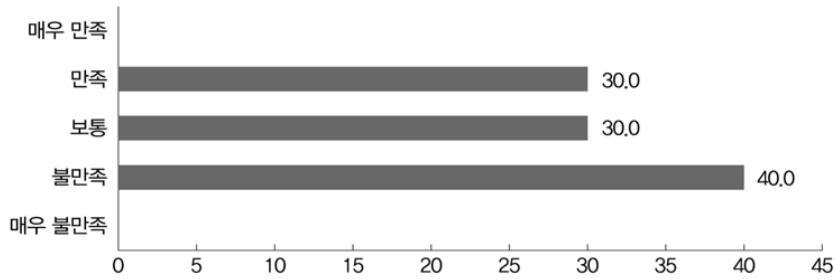


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 응답자의 3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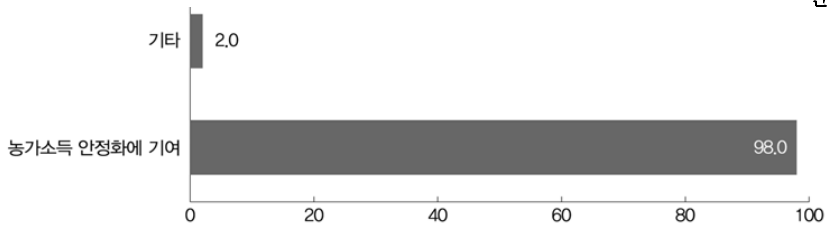
단위: %



-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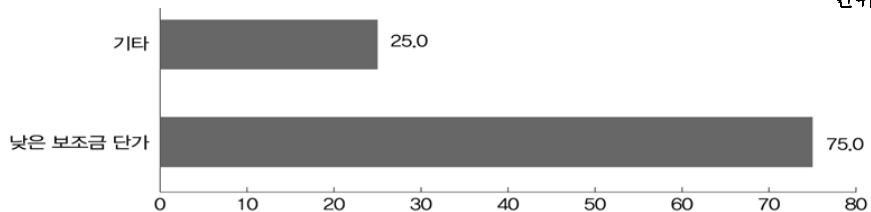
단위: %



- 한편, 응답자의 40%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조금 단가 때문(75%)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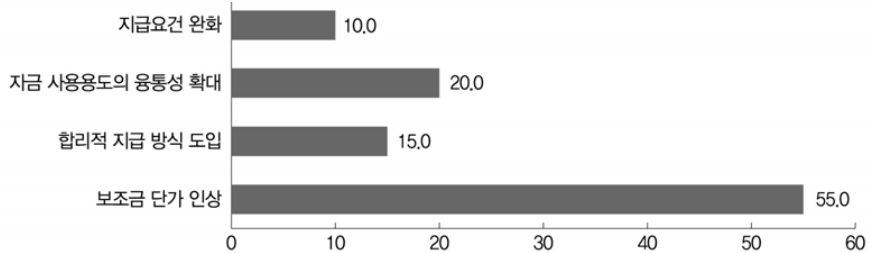
그림 4-23.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가장 중요한 보완 및 개선사항은 보조금 단가 인상(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자금 사용용도의 융통성 확대(20%), 합리적 지급 방식 도입(15%) 등을 지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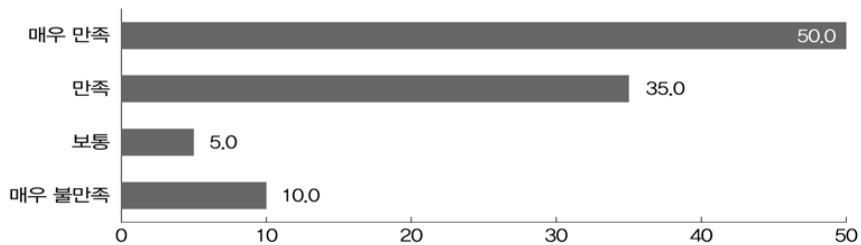
그림 4-2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라. 농기계임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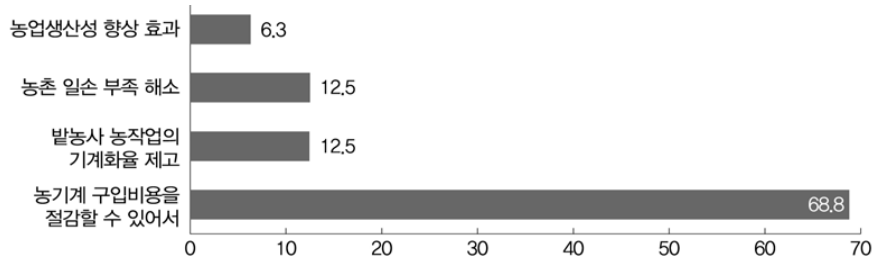
-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만족, 50%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8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농기계임대사업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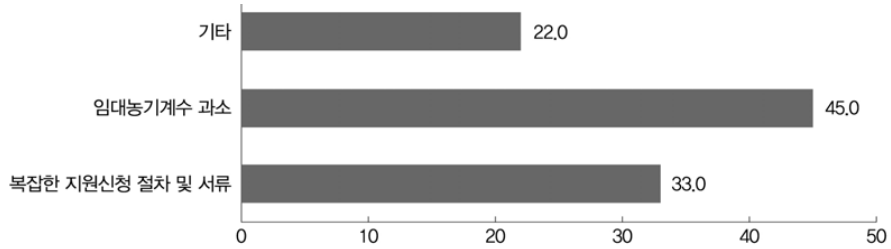
- 농기계임대사업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발농사 농작업의 기계화율 제고(12.5%), 농촌일손 부족 해소(12.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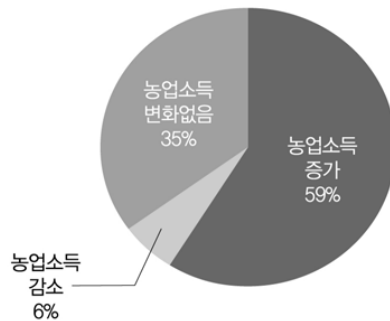
- 한편, 응답자의 10%가 농기계임대사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임대 농기계수가 적기 때문(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복잡한 신청 절차 및 서류(3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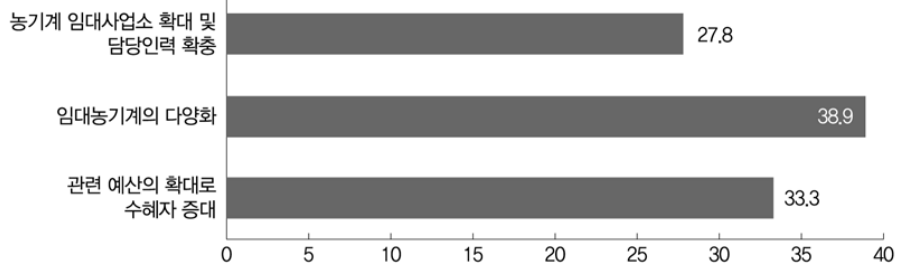
- 농기계임대사업 수혜를 받기 전후 농업소득 변화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가 농업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농업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59%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소득 증가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8. 농기계임대사업 수혜 전후 농업소득 변화



- 농기계임대사업의 가장 중요한 보완 및 개선은 임대 농기계의 다양화(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관련 예산 확대로 수혜자 증대(33.3%),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대 및 담당인력 확충(27.8%) 등을 지적하였다.

그림 4-29. 농기계임대사업 보완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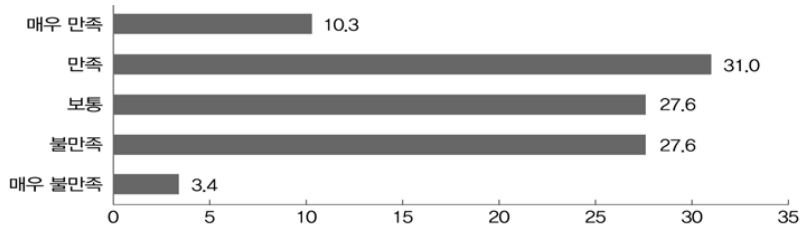


3.1.3. 영농규모화

가. 경영이양직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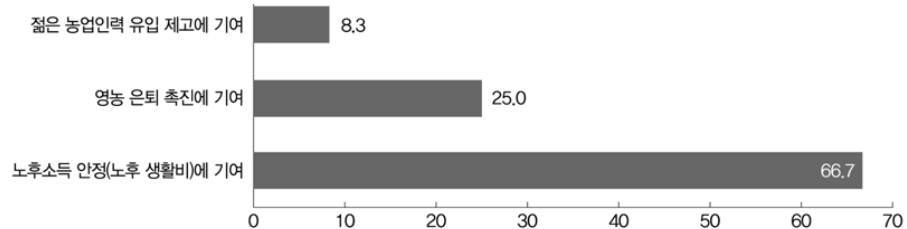
○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해 응답자의 31%가 만족, 10.3%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41.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0. 경영이양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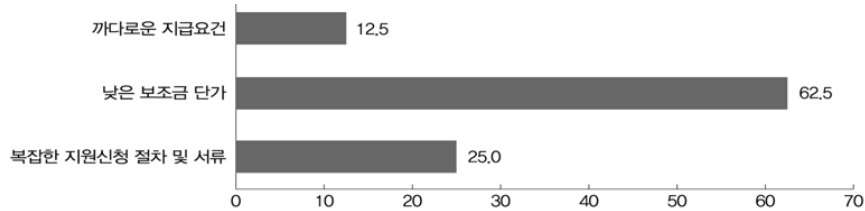
○ 경영이양직불제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소득 안정(노후 생활비)에 기여(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영농 은퇴 촉진에 기여(25%), 젊은 농업인력 유입 제고에 기여(8.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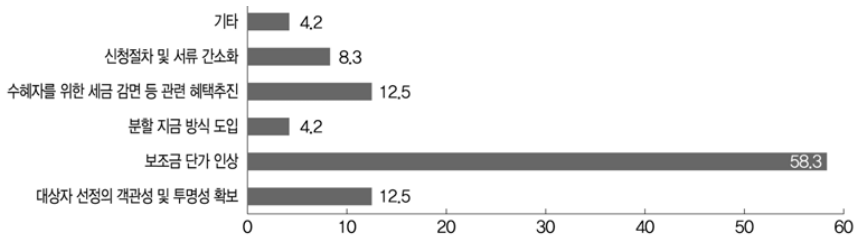
- 한편, 응답자의 31%가 경영이양직불제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조금 단가(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복잡한 신청 절차 및 서류(25%), 까다로운 지급 요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 경영이양직불제의 가장 중요한 보완 및 개선사항은 보조금 단가 인상(5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수혜자를 위한 세금감면 등 관련 혜택 추진 (12.5%),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12.5%) 등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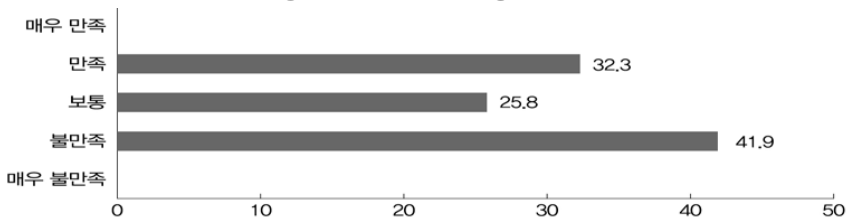
그림 4-33. 경영이양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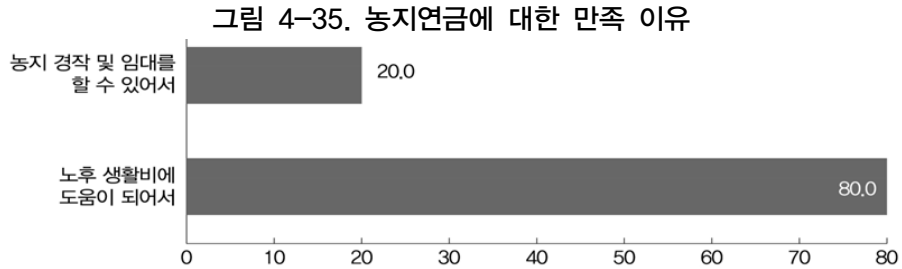
나. 농지연금

- 농지연금에 대해 응답자의 32.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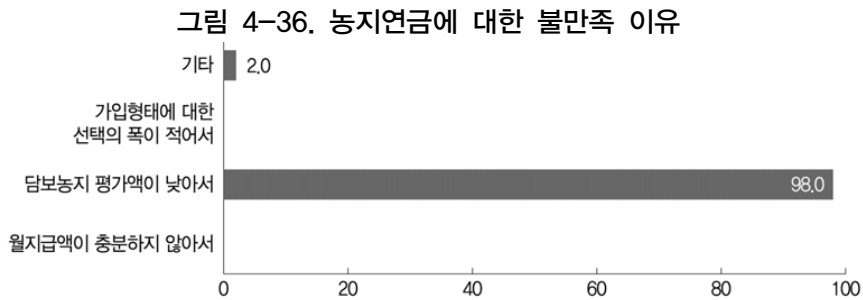
그림 4-34. 농지연금에 대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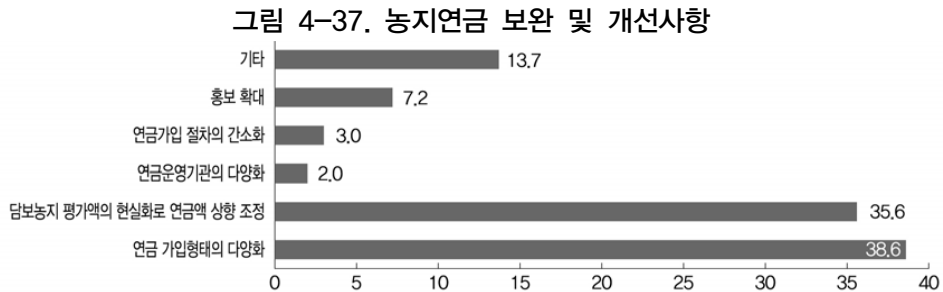
- 농지연금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80%)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응답자의 41.9%가 농지연금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담보농지 평가액이 낮기 때문(98%)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지연금의 가장 중요한 보완 및 개선사항은 연금가입형태의 다양화(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담보농지 평가액의 현실화로 연금액 상향 조정(35.6%)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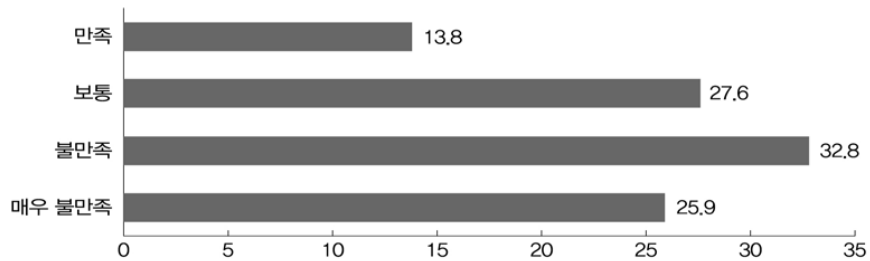


3.1.4. 친환경농업육성

가. 친환경농업직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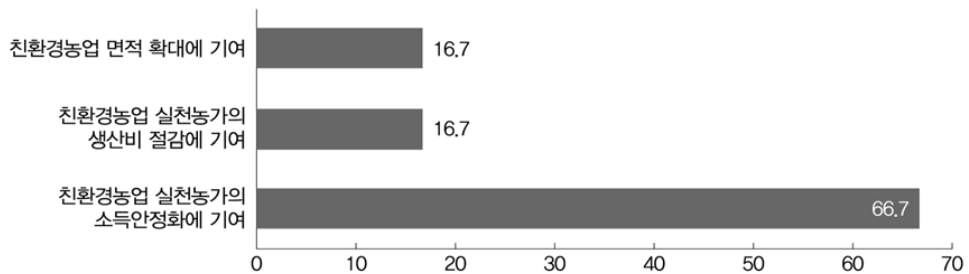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해, 응답자의 13.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8. 친환경농업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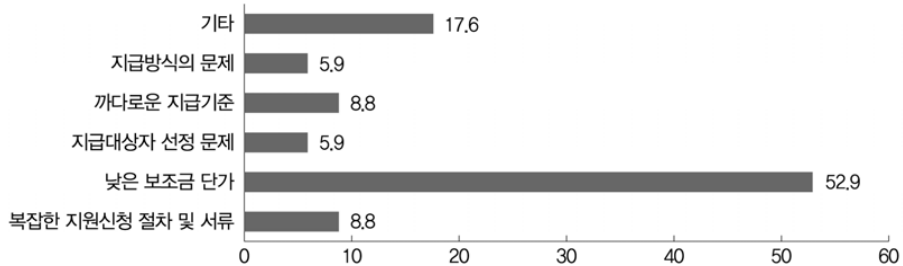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16.7%),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16.7%)에 기여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39.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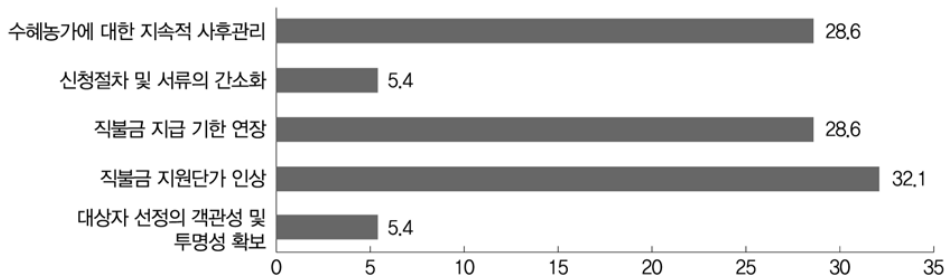
○ 한편, 응답자의 58.7%가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조금 단가(5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0.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가장 중요한 보완 및 개선사항은 직불금 단가 인상(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직불금 지급 기한 연장(28.6%), 수혜농가에 대한 지속적 사후 관리(28.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41.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1순위)



3.2. 심층면담 결과

3.2.1. 농업재해보험

가. 사업 현황

-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의 제정으로 사과와 배에 대해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대상품목과 보장수준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운영 중인 보험 상품은 총 62품목이다.
 - 이 중 양식수산물을 제외하면 농업과 관련된 상품은 51개가 운영되고 있다.

- '12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농작물(45.1%), 가축(71.4%), 양식수산물(43.9%)

표 4-2. 2012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구분	품목
농작물(35개)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뽕은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고추·양파·수박·벼· 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복분자· 시설팥고추·시설호박·시설장미·시설국화·시설멜론·시설파프리카·인삼·오디·차(茶)
가축(16개)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관상조·오소리
양식(11개)	넙치·전복·조피볼락·굴·감·참돔·돌돔·감성돔·쥐치·기타볼락·농어

주 1) 사과·배·복숭아·포도·감(단감·뽕은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대추 및 하우스 재배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

2) 제주지역은 6,500㎡

○ 사업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 해당 된다. 가입자격은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첫째,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표 4-3>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자이다.
- 둘째, 농업용시설물은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표 4-3. 품목별 영농규모 가입 조건

단위: ㎡

사과·배 등 ¹	고추·감자· 양파·마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²	밭	수박
1,000	1,500	2,000	3,000	4,000	4,500	10,000	하우스 1동

주 1) 사과·배·복숭아·포도·감(단감·뽕은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대추 및 하우스 재배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

2) 제주지역은 6,500㎡

- 지원대상은 순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 품목개발 및 통계 개발비 100% 이다.
- 순보험료(위험보험료) 지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을 의미한다.
 - 운영비(부가보험료) 지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의미한다.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지원은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기 위한 통계자료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 보험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을 의미한다.

- 최근 재해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전국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급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형태의 예측오차가 커지고 재보험 인수 기피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재해보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현행 보험제도의 손해율에 대한 인수범위를 살펴보면 손해율 180% 이하 손해는 통상재해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수하고 180% 이상을 정부에서 인수하는 구조이다. 이는 민영보험회사의 위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손해율이 120% ~ 180%인 경우에 재보험사의 인수비율이 증가하였다(코리안리 인수비율 11년 5%에서 12년 20%로 4배 증가).
- 정부의 농어업재해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기존 62개 품목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상 범위 또한 기존의 태풍, 우박, 호우에 동해, 설해, 조수해 등을 추가해 모든 재해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다.
- 또한 전문 손해평가인을 육성해 손해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하였으며, 피해조사 기간도 기존 7~10일에서 3~5일로 단축 하였다.

나. 정책 건의

-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반적인 손해가 아닌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의 원리인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작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장제도 및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보험관련 정책, 기술연구 등 미래 지향적 사업 기반 구축과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 보험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2.2. 농지연금

가. 사업 현황

-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실시되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 사업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m^2 이하일 것
 -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일 것
-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행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등 두 종류가 있다.
- 가입비는 가입 후 중도이탈 방지, 농지가격 하락, 이자율 상승, 수명 연장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목적으로 가입자에게서 징수하며, 담보농지가격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한다.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의 연 100분의 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한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그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정산하고 지급금을 회수한다.
- 농지연금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다만, 제한적으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 행사가 가능하다(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 담보농지에 대해서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채무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2012년말 현재 총 2,202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하였으며, 평균 가입연령은 74세이다. 가입자 평균 1억 3천만원, 4.4천 m^2 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였다.
 - 현재 가입자 1인당 평균 81만 원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가입방식별로 종신행 가입자는 31%, 기간형가입자는 69%이다.

나. 정책 건의

- 농지 평가에 있어서 현행 공시지가(국토교통부) 평가 기준으로 인해 가입자가 예상하는 연금 수령액과 실제 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농지연금 평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개정하여 농지연금 수령액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2.3.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가. 사업 현황

- 본 사업은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7년) 동안 교육·컨설팅·영농자금·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이다.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가 가능해 졌다.
- 지원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연령: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50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5개 지자체 사업 담당자 면담 결과 사업신청 및 선정인원은 2009년부터 점차 감소하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했으나, 자금 실행 비율은 매년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농업인이 대출하는 정책자금의 용도는 대부분 창업기반조성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농지구입과 시설설치비용에 투자하고 있다.

표 4-4.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선정) 및 자금실행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	신청(선정)인원	3	2	1	-
	자금실행인원	2	1	-	-
강원	신청(선정)인원	75	65	67	74
	자금실행인원	35	29	24	23
충남	신청(선정)인원	165	174	121	136
	자금실행인원	91	87	64	58
대구	신청(선정)인원	11	14	10	16
	자금실행인원	8	14	8	14
전남	신청(선정)인원	245	230	221	217
	자금실행인원	147	123	135	113
소계	신청(선정)인원	499	485	420	443
	자금실행인원	283	254	231	208

자료: 각 지자체 면담(서면)조사 결과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 자금의 용도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창업기반 조성 비용이 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교육 및 컨설팅 자금의 중요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5. 정책자금 용도별 중요도 평가 결과(5점 척도)

구분	창업기반조성	농업교육	농업컨설팅	평균
서울	4	4	2	3.3
강원	5	3	2	3.3
충남	2	4	4	3.3
대구	4	3	2	3.0
전남	5	5	4	4.7
평균	4	3.8	2.8	3.5

자료: 각 지자체 면담(서면)조사 결과

- 농업교육은 지자체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체 교육의 경우, 품목별 맞춤 교육과 국내연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해외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 외부 위탁의 경우, 거점대학이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CEO과정 및 품목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정책 건의

-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자금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사후평가를 통한 추가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계량경제분석

4.1. 농업재해보험의 농업소득 안정화 효과

4.1.1. 서론

- 농어업재해보험의 농업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의 농업소득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 미시적 차원에서의 정책 효과는 정책 대상자의 정책 수혜 이후의 성과를 기준으로, 만일 정책 수혜가 없었을 때의 성과(이를 가상성과라 함)와 비교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성과는 관측되지 않아, 통상적으로 비교그룹을 구성하여 비교그룹의 성과를 가상성과에 대신하여 사용한다.
 - 이때 비교그룹의 성과로 가상성과를 대신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이 전제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계량모형이 사용된다.
 - 비교그룹의 구성은 매칭(matching)의 방법을 이용하고, 구성된 비교그룹의 성과를 수혜그룹의 성과와 직접 비교할 수도 있고,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비교할 수도 있다.
 - 또한 정책수혜자의 이전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책수혜자의 수혜 전후의 성과 차이를 정책 비수혜자의 정책 수혜 전후의 성과 차이를 빼주는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4.1.2. 분석모형

- 이중차분모형(DID)은 어떤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단(treatment group, 처치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control group, 통제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정책수혜 여부 이외의 다른 특징들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지 않은 상태를 제거하여 정책수혜에 따른 순수한 효과를 추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안한 방법이 이중차분법이다.

- 다만, 처지 및 통제그룹이 적어도 성장성이나 변화추세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본 연구는 이중차분모형(DID)을 이용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 분석자료는 표본대표성이 높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2008년에 농업재해보험에 비가입하였으나, 2011년에는 가입한 농가그룹과 2008년, 2011년 모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그룹을 비교하였다.
 - 농가경제조사의 경비항목 중 '농업부문보험료(가축, 과수, 농작물재해보험료 등 농축산물보상관련 보험)'의 유무로 농어업재해보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그룹과 비가입 농가그룹간의 농업소득 차이가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이외에 다른 농가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자기선택의 오류 (self-selection 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설정하였다.

$$(1) y_i = \beta_0 + \beta_1 T + \beta_2 S + \beta_{DID}(T \times S) + x_i' \gamma + u_i$$

- t 는 시점을 나타내는 연도 더미변수($t=1, t=2$)
- s 는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비가입 $s=1$, 가입 $s=2$)
- $(T \times S)$ 의 계수인 δ_1 는 DID 추정량
- x 는 농가특성 설명변수

표 4-6. 이중차분법 평가

y_{ts}	s=1(미가입)	s=2(가입)	차분
t=1(1기)	Y_{11}	Y_{12}	$Y_{12} - Y_{11}$
t=1(2기)	Y_{21}	Y_{22}	$Y_{22} - Y_{21}$
변화	$Y_{21} - Y_{11}$	$Y_{22} - Y_{12}$	$(Y_{22} - Y_{21}) - (Y_{12} - Y_{11})$

-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균형패널(balanced panel)자료이므로 DID 추정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도 있다.

$$(2) \Delta y_i = \tau_0 + \tau_1 S + x_i' \gamma + u_i$$

- 분석자료가 균형패널 자료이므로 각각의 농가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2011년과 2008년에 대한 농업소득의 차이값(Δy_i)을 종속변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소득을 한번 차분한 것과 같다. 단, 설명변수는 재해보험 가입 여부 변수만 포함한다.
- 종속변수에서 이미 한번 차분되었고, τ_1 은 종속변수의 일계 차분값이므로 이중차분이 된다. 다른 설명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으며 이중차분 추정량은 τ_1 이 된다.

4.1.3. 분석결과

-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2008년 농업재해보험에 미가입하였으나, 2011년 가입한 농가 그룹과 2008년과 2011년 모두 농업재해보험에 미가입한 농가그룹의 평균 농업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 2008년의 미가입 농가그룹과 가입 농가그룹의 농업소득 차이는 -180만 원이고, 2011년 두 그룹의 농업소득 차이는 740만 원이다. 그런데 740만 원은 농업재해보험 가입 전의 농업소득 차이와 가입 후의 농업소득 차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한 농업재해보험 가입의 효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740만 원에서 2008년 두 그룹의 농업소득 차이(-180만 원)을 빼준 값인 920만 원이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순수한 농업소득 변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7. 과수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소득 변화

단위: 천 원

y_{ts}	s=1(미가입)	s=2(가입)	차분
t=2008	17,900	16,100	-1,800
t=2011	11,500	18,900	7,400
변화	-6,400	2,800	9,200

주: 농업소득은 GDP 디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전환한 실질소득

- 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과수농가 농업재해보험의 농업소득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농가의 DID 추정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 2008년 대비 2011년 농업재해보험의 과수농가 농업소득 증가효과는 약 786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8. 농업재해보험 이중차분 분석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농업소득 변화분(Δy_i)	
	추정치	t값
재해보험가입 여부(s)	7,861,000***	3.10
경영주의 연령	-225,777*	-1.84
경영주의 정규교육 연수	-771,713*	-1.78
과수원 면적(2008년)	-2.26e+10***	-3.70
전업농 여부	2,184,087*	0.65
상수항	2.21e+07	1.52
Prob > F = 0.0002		
Adj R-squared = 0.365		

4.2. 식품제조업의 경영분석

4.2.1. 경영분석 지표

- 성장성을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매출액증가율(growth rate of sales), 유형자산증가율(growth rate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총자산증가율(growth rate of total assets)을 이용하였으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 1 \right) \times 100$$

$$\text{유형자산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말 유형자산}}{\text{전기말 유형자산}} - 1 \right) \times 100$$

$$\text{총자산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말 자산총계}}{\text{전기말 자산총계}} - 1 \right) \times 100$$

- 매출액증가율(%)은 전기 매출액에 대한 당기매출액의 증가율로, 기업의 외형적 성장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유형자산증가율(%)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증가율로 기업의 설비 투자 동향과 성장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

- 총자산증가율(%)은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 수익성을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매출액영업이익률(operating income to sales), 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자기자본순이익률(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return on equity)을 이용하였으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text{기업 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 + \text{금융비용})}{\text{자산총계}} \times 100$$

$$\text{자기자본 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본총계}} \times 100$$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으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적을 나타낸다.
- 기업순이익률(%)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산의 운영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기업의 투자 대비 실현된 이익의 비율을 나타낸다.

- 안정성을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부채비율(debt ration), 유동비율(current ratio), 자기자본비율(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을 이용하였으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본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유동비율(%)은 단기 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규모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 지불능력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4.2.2. 이용자료

- 식품제조업의 경영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했다.⁴⁸⁾ 기업경영 자료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했다.
- 이 자료는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체와 업종별 매출액 상위기업을 전수조사 업체로 선정하여 매출액 규모에 의해 층화 추출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 분석기간은 1990~2011년이며, 식품제조업의 경영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제조업의 경영지표도 함께 분석하였다. 식품제조업은 다시 종업원 수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인 업체, 대기업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업체를 의미한다.

4.2.3. 식품제조업의 경영분석

가. 식품제조업의 성장성

- 1990~2011년 식품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성을 보였다. 식품제조업의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05년 이후 다시 반등세를 보이다, 2008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2011년은 전년대비 유형자산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증가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감소하였다.

48) 한국은행은 1962년부터 우리나라 전산업의 표본조사 기업을 표본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인 「기업경영분석」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는 산업별 종합재무제표를 통하여 산출된 산업평균재무비율이 수록되어 있어, 재무비율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면서 재무비율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표 4-9.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성장성 비교(1990~2011년)

단위: %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제조업	식품제조업	제조업	식품제조업	제조업	식품제조업
1990	23.79	20.24	18.95	18.81	18.81	16.15
1991	22.55	23.65	20.86	24.27	17.41	15.73
1992	12.27	14.7	11.00	13.98	10.34	12.36
1993	11.19	10.24	13.21	9.92	9.94	5.68
1994	16.85	12.97	13.15	12.23	18.23	13.23
1995	19.32	16.3	19.01	19.46	20.44	9.69
1996	15.01	13.32	18.18	12.16	10.26	12.22
1997	22.39	11.61	13.65	4.46	11.02	8.80
1998	3.47	10.66	17.15	21.25	0.71	6.06
1999	2.81	-0.7	-0.01	0.03	8.02	1.78
2000	-0.8	1.62	2.41	-0.78	15.2	3.42
2001	-1.81	-0.26	-1.54	3.01	1.69	5.79
2002	3.14	0.04	-2.22	-0.87	8.26	6.49
2003	6.94	0.13	1.67	0.85	6.12	2.09
2004	7.96	3.42	4.78	-0.47	17.1	6.75
2005	9.43	9.21	6.22	0.69	5.87	-0.28
2006	8.07	1.02	5.97	0.58	6.26	1.34
2007	13.51	8.42	4.88	3.92	9.28	4.33
2008	19.13	18.20	15.47	17.20	20.43	16.95
2009	8.77	10.77	8.04	11.27	2.21	9.38
2010	11.7	10.90	9.66	9.12	17.53	5.63
2011	10.70	10.35	9.80	5.89	13.55	12.51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http://www.bok.or.kr>)

-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식품제조업의 대기업을 중소기업보다 높은 성장성을 보이
나, 외환위기 시기에는 대기업을 성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인다, 2005년 이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
장성이 낮아졌다.

표 4-10. 식품제조업 대기업을 중소기업의 성장성 비교(1990~201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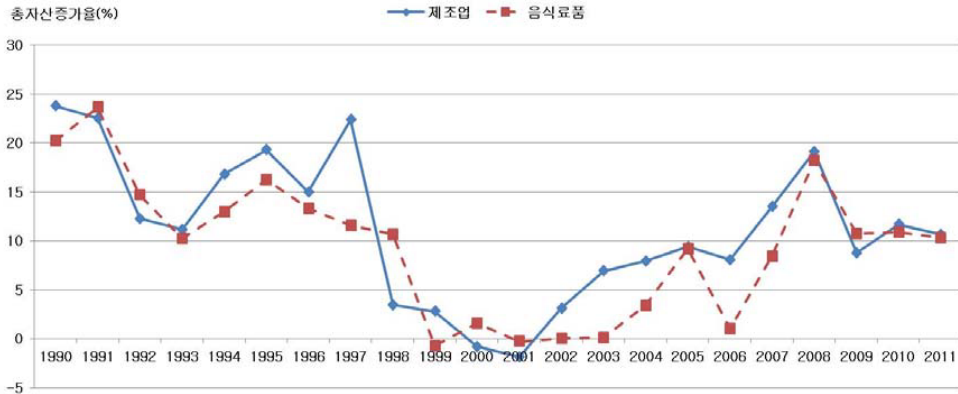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90	19.77	22.35	18.02	22.42	16.51	14.68
1991	25.31	14.73	25.94	14.28	16.52	12.18
1992	15.03	12.76	13.96	14.09	12.04	13.91
1993	10.54	8.75	11.00	4.37	6.03	4.28
1994	12.76	14.06	12.47	11.06	13.42	12.41
1995	17.49	10.21	21.82	8.71	9.94	8.61
1996	13.69	11.57	12.63	10.02	12.25	12.1

1997	13.4	4.81	5.11	1.74	9.55	6.68
1998	12.47	3.34	24.35	7.89	4.89	9.69
1999	-2.40	6.85	-2.48	13.14	1.38	2.84
2000	-0.40	8.58	-2.25	5.00	3.46	3.31
2001	-1.22	3.08	3.21	2.24	6.07	5.13
2002	-2.72	8.15	-3.04	6.82	5.05	9.39
2003	-1.78	5.24	-1.65	9.02	3.24	-0.23
2004	1.9	7.31	-1.82	4.2	6.21	7.84
2005	11.65	4.01	-0.37	3.32	-1.04	0.91
2006	-0.78	4.87	-0.87	3.79	1.51	1.09
2007	7.98	9.26	2.12	7.35	4.35	4.31
2008	18.34	17.87	19.46	14.37	13.62	20.97
2009	11.37	10.17	14.57	6.94	10.24	8.41
2010	10.27	11.70	2.85	18.25	5.47	5.98
2011	9.66	11.67	4.70	8.02	12.69	12.25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http://www.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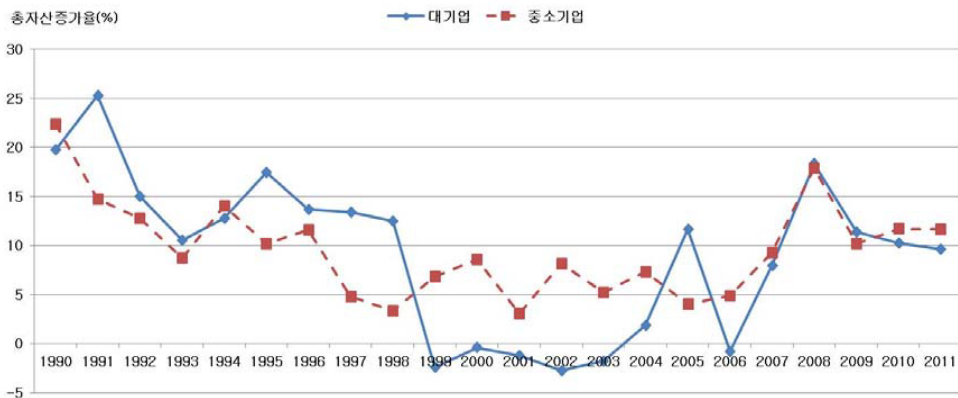
- 식품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하락추세를 보이다, 2002년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2008년에 18.2%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계속 하락하여 2011년 식품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10.4%이다. 이는 1990년 이후 식품제조업의 자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식품제조업의 자산규모 성장성이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2001년 -0.26%에서 2002년 0.04%로 상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투자는 매출의 선행지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총자산증가율이 음수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1990~2011년 기간 동안 식품제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 변화의 등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1993년까지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여 2004년까지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 특히, 1999~2003년 기간 동안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음의 값을 나타낸 반면, 동기간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오히려 상승추세를 보였다. 2005년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11.7%까지 크게 상승하여 중소기업 성장률보다 높았다. 2008년에는 18.3%까지 크게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 2007년 이후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8년에 17.9%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1년 11.7%로 나타났다.

그림 4-42.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그림 4-43.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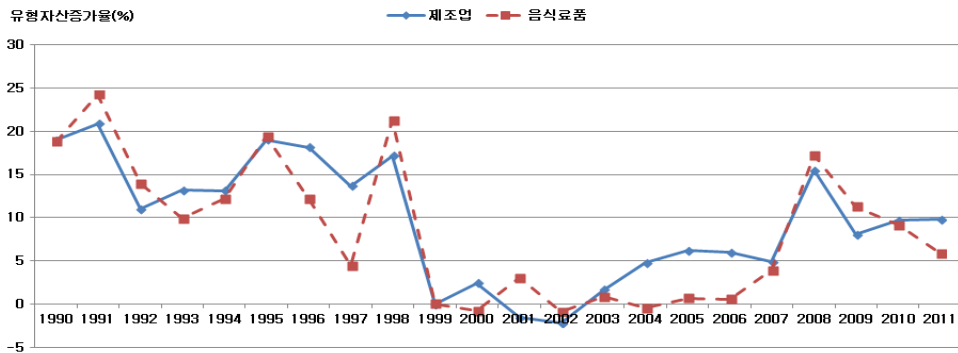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1990~2011년 기간 제조업보다 식품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등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외환위기 침체기간에 식품제조업의 성장 감소율이 제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식품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1999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여 2002년에는 -0.87%를 나타내었다. 2006년까지 정체상태에 있다가 2008년 17.2%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이후 유형자산성장률은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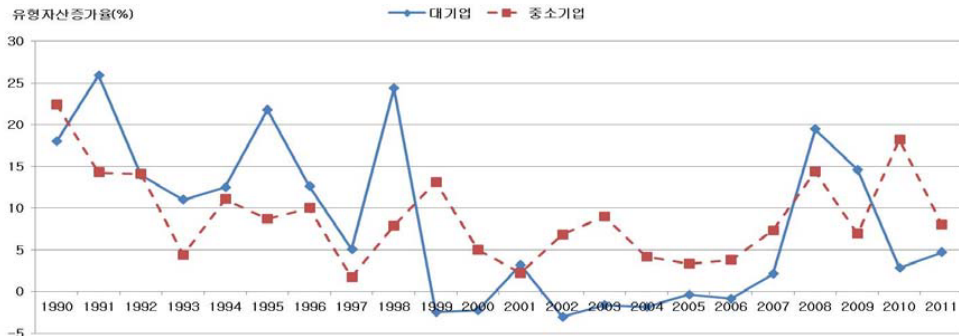
- 1990~2011년 기간 동안 식품제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변화의 등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1998년까지 대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중소기업보다 더 높았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대기업의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여 2007년까지 중소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이는 2000년에 접어들어 중소기업의 건물, 기계설비 등의 유형자산 투자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1999~2006년 기간 동안 대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음의 값을 나타낸 반면, 동기간 중소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였다.
 - 2007년부터 대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호전되었으며, 2008년에는 19.5%까지 크게 상승하여 중소기업 성장률보다 높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 중소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18.3%로 크게 상승하여, 대기업의 성장률을 크게 추월하였다.
 - 2011년에 대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4-44.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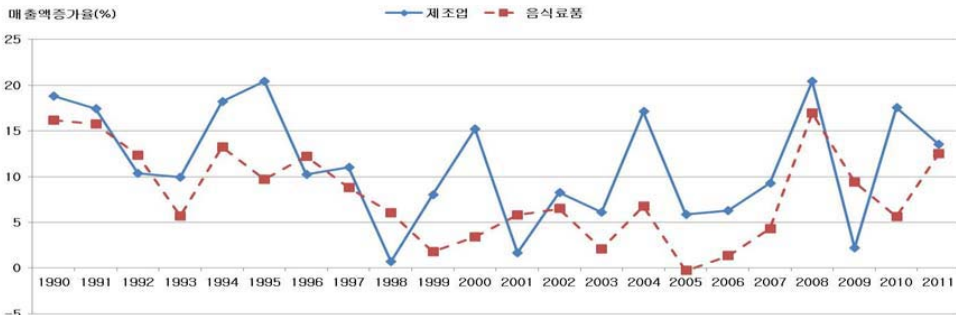
그림 4-45.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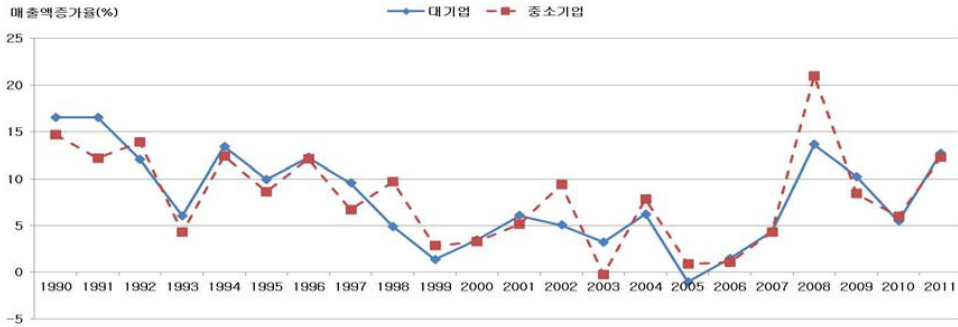
- 1990~2011년 기간 동안 1998년, 2001년, 2009년을 제외하고는 식품제조업보다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기간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07년까지 감소추세였으며, 이후 상승추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0.28%의 매출액증가율을 나타내었다.
- 1990~2011년 기간 동안 식품제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출증가율은 거의 비슷한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매출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06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0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에는 대기업 매출액증가율 13.6%, 중소기업 21.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을 추월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출증가율은 하락하다가, 2011년 다시 크게 상승하였다. 전년대비 2011년 매출액증가율은 대기업은 12.7%, 중소기업은 12.3%를 나타내었다.

그림 4-46.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그림 4-47.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나. 식품제조업의 수익성

- 외환위기 이전 제조업의 수익성이 식품제조업보다 높았으나, 외환위기 동안 제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반면, 식품제조업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환위기 후 제조업과 식품제조업 모두 수익성이 상승추세이나, 2010년 이후 수익성은 감소하고 있다.

표 4-11.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수익성 비교(1990~2011년)

단위: %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제조업	식품제조업	제조업	식품제조업	제조업	식품제조업
1990	6.53	5.24	6.82	7.37	5.56	5.98
1991	6.64	5.42	7.11	8.19	5.62	8.53
1992	6.64	5.26	6.88	7.56	3.66	2.7
1993	7.04	5.87	6.58	8.06	4.22	7.01
1994	7.65	5.92	7.35	7.38	7.56	4.96
1995	8.33	4.77	8.4	6.4	11.03	-2.35
1996	6.54	5.04	6.02	6.39	2.02	-2.1
1997	8.25	6.41	4.81	6.47	-4.21	-3.7
1998	6.11	6.34	3.79	7.35	-15.86	-3.89
1999	6.62	7.06	5.67	6.39	0.04	2.66
2000	7.4	7.3	2.63	5.01	-5.8	1.07
2001	5.52	6.91	4.1	7.33	0.02	9.47
2002	6.74	7.27	9.58	6.07	17.31	7.6
2003	6.87	7.01	6.26	4.11	9.56	3.7
2004	7.56	6.48	9.01	3.72	15.61	4.3
2005	6.12	6.15	7.72	6.84	12.87	11.64
2006	5.34	6.16	6.62	6.86	10.37	10.6
2007	5.88	5.54	7.03	6.17	11.1	9.09
2008	5.89	5.40	4.51	4.32	6.13	5.23
2009	6.15	5.93	6.83	6.97	11.34	11.45
2010	6.89	5.67	8.01	7.60	13.51	12.59
2011	5.57	4.89	6.01	4.95	9.76	7.48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1990~2011년 기간 동안 식품제조업의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동안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크게 악화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표 4-12.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비교(1990~2011년)

단위: %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90	5.3	5.0	7.3	7.6	6.2	5.1
1991	5.4	5.4	8.2	8.1	8.6	8.0
1992	5.5	4.2	7.7	6.9	2.5	3.8
1993	6.0	5.4	7.9	8.9	6.1	11.9
1994	5.9	5.9	7.3	7.9	3.8	10.1
1995	4.8	4.4	6.4	6.2	-2.8	0.4
1996	5.1	5.0	6.4	6.5	-1.9	-3.4
1997	6.8	5.3	7.4	3.0	2.2	-36.5
1998	6.4	6.3	7.7	5.7	-0.9	-37.7
1999	7.1	7.1	5.8	8.8	-0.1	16.3
2000	7.9	6.0	4.7	5.9	0.3	4.1
2001	7.4	5.8	7.3	7.6	8.7	12.8
2002	8.1	5.6	5.4	7.9	5.5	15.5
2003	8.1	4.7	3.7	5.1	2.7	6.7
2004	7.3	4.8	2.1	7.9	0.4	14.4
2005	7.3	4.3	7.4	5.5	12.8	8.8
2006	6.4	5.8	6.7	7.1	10.2	11.5
2007	7.0	3.6	6.2	6.1	9.0	9.2
2008	5.7	4.3	4.4	4.6	5.5	5.4
2009	6.2	4.2	7.0	6.4	11.4	11.4
2010	5.8	4.6	7.5	6.9	12.3	12.9
2011	6.0	3.1	5.2	4.3	7.8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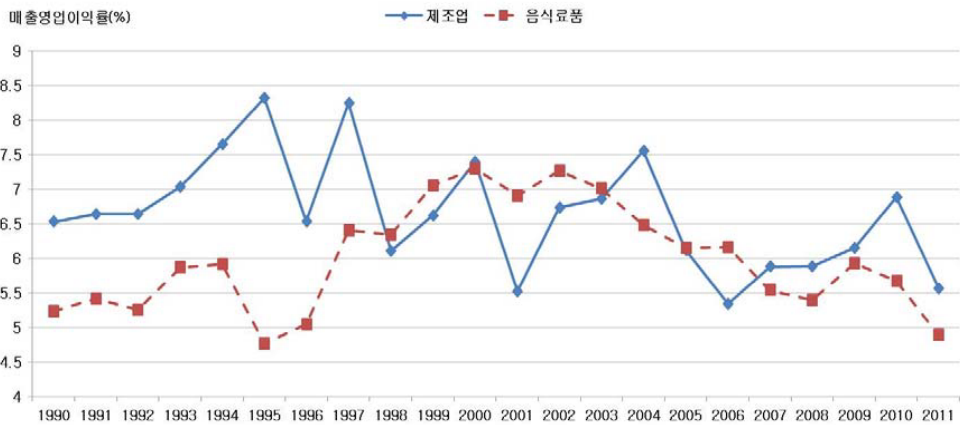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1990~2011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하락추세이나, 식품제조업은 5~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이다. 특히, 2002년까지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환위기 전까지는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식품제조업보다 높았으며, 1995년 그 격차는 2배 이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점차 제조업과 식품제조업간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가 좁혀지다, 1998~2003년에는 식품제조업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되어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은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제조업과 식품제조업 모두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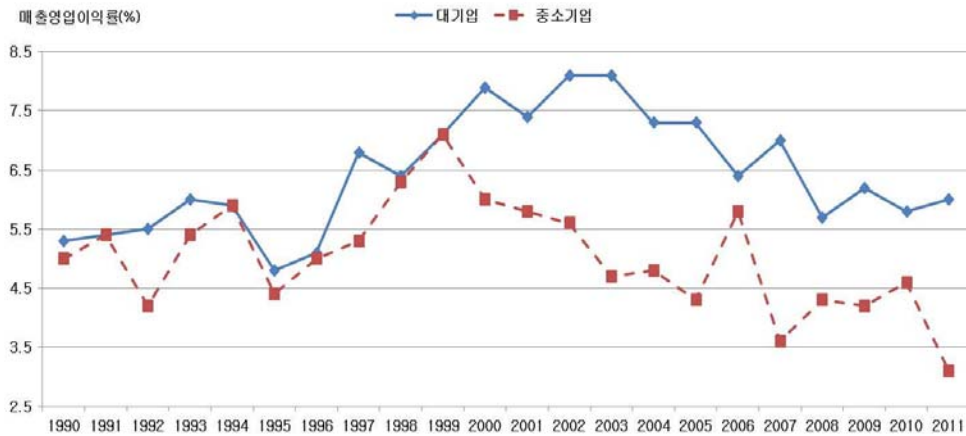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전까지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증가추세로 약 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크게 악화되었고 그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3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익률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식품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상승세는 대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2011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33%로 감소하였다.

그림 4-48.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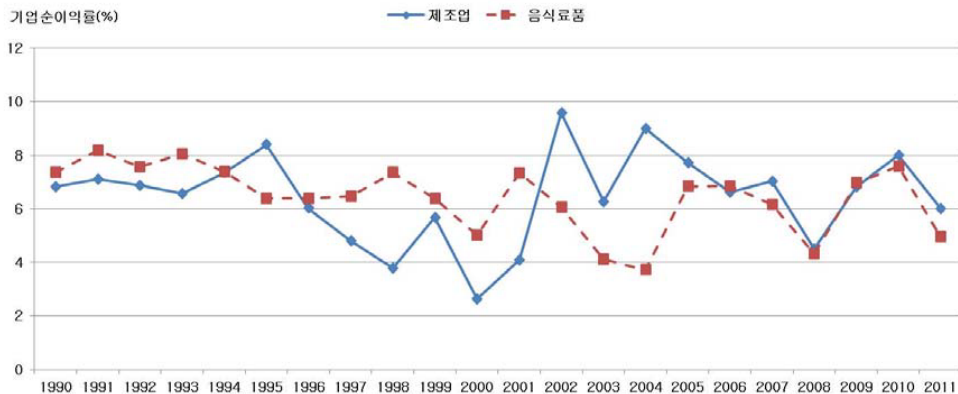
그림 4-49.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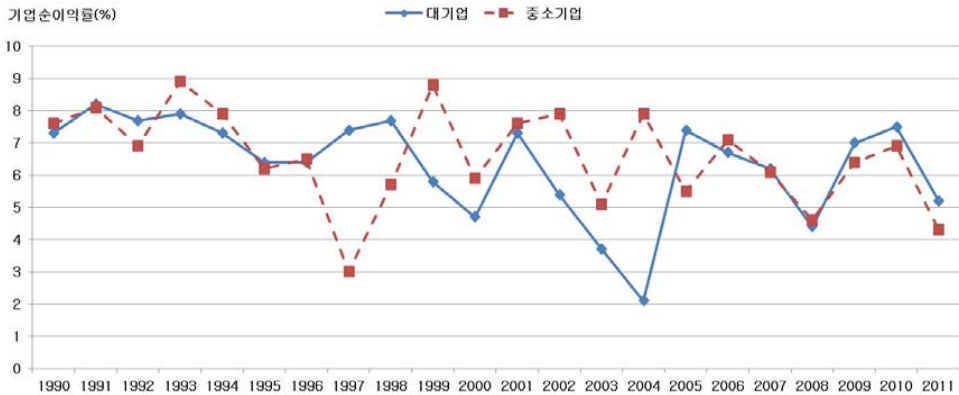
- 제조업의 기업순이익률은 2000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01년 4.1%, 2002년 9.6%로 반등한 이후 감소추세이다. 반면, 식품제조업의 기업순이익률은 2002년까지 약 7% 내외에서 정체 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2004년 3.7%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추세이다.
- 1990~2011년 기간 동안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순이익률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업순이익률은 1997년에 크게 감소하였고, 대기업은 2004년에 크게 감소하였다. 2011년 기업순이익률은 2010년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4-50.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기업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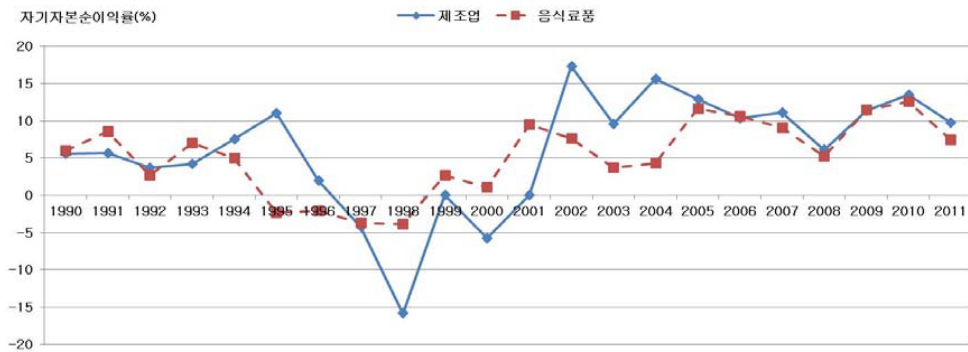
그림 4-51.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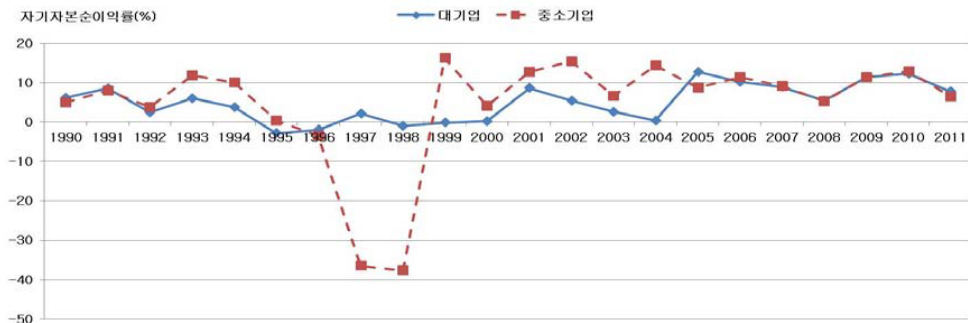
- 외환위기 기간 동안 제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크게 감소하여, 1998년에는 -15.9%까지 악화되었다. 2001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평균 12%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제조업도 외환위기 동안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제조업 보다는 그 적자폭이 적었으며 2008년 식품제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3.9%로 하락하였다.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며, 2005년 11.6%를 나타냈다.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1년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5%로, 201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1990~2011년 기간 식품제조 대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정체 또는 완만한 증가추세인 반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외환위기 기간(1997~1998)에 -37.7%까지 큰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2010년 대기업은 12.3%, 중소기업은 12.9%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1년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10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그림 4-52.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그림 4-53.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다. 식품제조업의 안정성

- 1998년 이전까지 식품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998년 이후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유동비율은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1년은 제조업과 식품제조업 모두 2010년에 비해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하락하였다.

표 4-13.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안정성 비교(1990~2011년)

단위: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제조업	식품제조업	제조업	식품제조업	제조업	식품제조업
1990	25.94	18.51	99.44	81.77	285.52	440.24
1991	24.59	18.68	95.33	80.29	306.68	435.38
1992	23.88	18.21	92.75	81.14	318.73	449.06
1993	25.32	19.01	94.13	82.32	294.88	426.01
1994	24.84	16.8	94.59	74.48	302.52	495.2
1995	25.86	17.06	95.39	73.19	286.75	486.27
1996	23.97	16.88	91.89	74.06	317.11	492.46
1997	20.15	15.19	91.77	75.12	396.25	558.42
1998	24.81	22.74	89.75	76.42	303.02	339.73
1999	31.78	27.5	92.02	81.48	214.66	263.64
2000	32.2	30.43	83.23	88.5	210.57	228.61
2001	35.44	35.76	97.87	85.82	182.2	179.66
2002	42.47	41.37	106.07	93.65	135.44	141.71
2003	44.77	40.66	109.75	92.34	123.39	145.95
2004	48.96	40.6	116.97	104.42	104.24	146.3
2005	49.78	46.87	121.35	113.65	100.9	113.34
2006	50.28	49.81	120.51	112.22	98.88	100.76
2007	50.55	51.64	121.31	103.19	97.83	93.64
2008	44.80	46.15	112.77	109.44	123.23	117.18
2009	47.70	46.81	121.18	111.91	109.62	113.94
2010	49.62	48.88	121.03	111.31	101.53	104.62
2011	47.80	47.24	116.73	109.84	109.19	111.96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졌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장기적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의 단기 채무이행 능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이후 대기업의 유동비율도 중소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안정성이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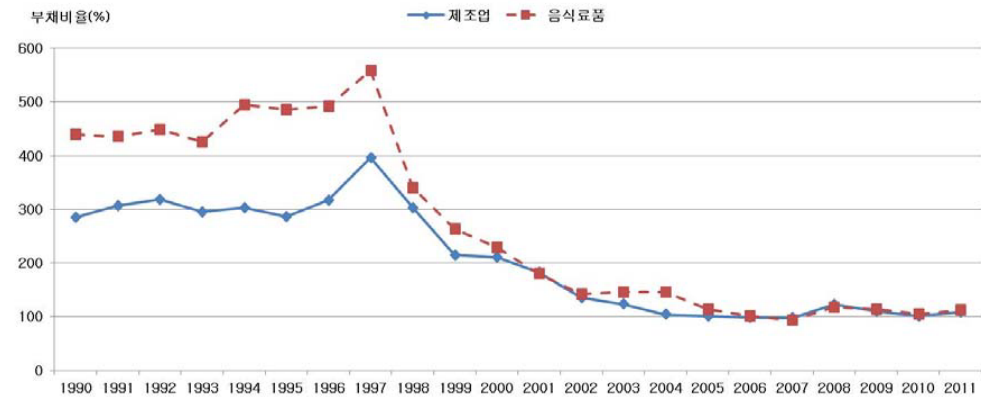
표 4-14.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성 비교(1990~2011년)

단위: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90	19	17	81	87	431	486
1991	18	20	79	89	443	395
1992	18	19	80	86	454	418
1993	19	19	82	85	424	439
1994	16	19	74	76	510	429
1995	17	15	74	68	473	568
1996	18	14	75	69	471	628
1997	16	10	75	75	508	902
1998	26	8	75	81	285	1087
1999	28	24	78	94	253	313
2000	32	26	84	99	215	280
2001	37	31	80	101	169	221
2002	44	34	85	111	126	197
2003	43	35	87	104	134	182
2004	40	41	97	117	147	144
2005	48	43	111	117	106	131
2006	52	45	109	117	91	124
2007	55	46	95	116	83	117
2008	52	38	106	114	92	165
2009	55	35	114	112	82	186
2010	58	36	114	110	73	181
2011	53	34	109	111	87	196

- 1990~1997년 기간 동안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부채비율은 모두 상승추세였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7년까지 식품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제조업보다 높았으나, 이후 그 비율이 하락하면서 비슷한 값을 보인다. 즉,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재무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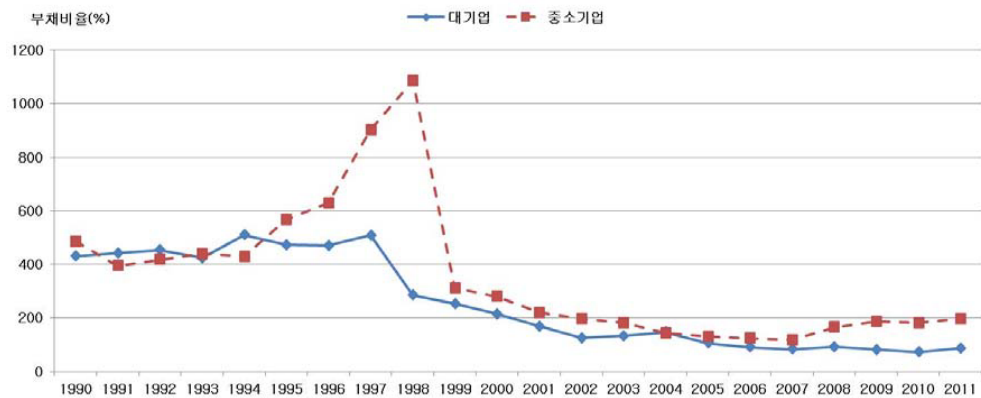
그림 4-54.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부채비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식품제조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9907년까지 완만히 증가하였다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는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완만하게 증가하며, 재무구조 안정성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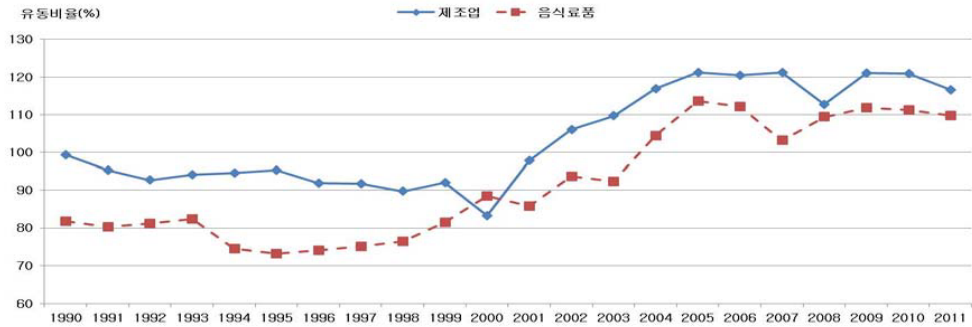
그림 4-55.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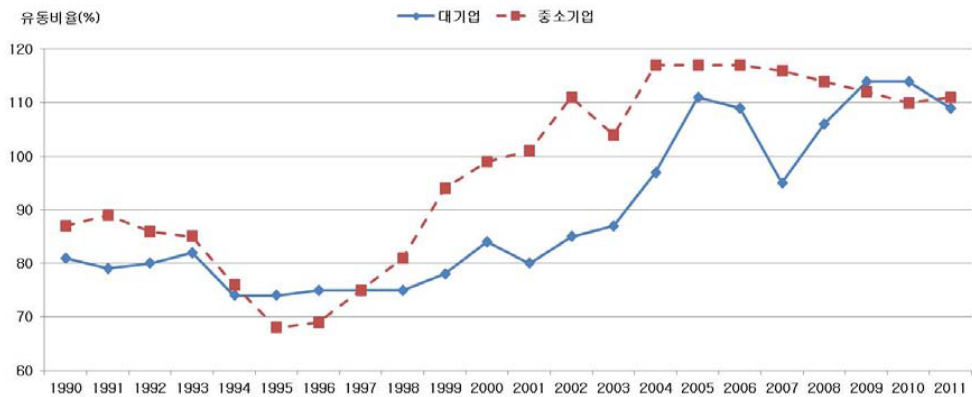
- 1990~2011년 기간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유동비율은 상승추세이며,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유동비율이 식품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단기 채무 이행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인 유동비율이 상승하여, 식품제조업의 단기 채무이행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제조업과 식품제조업 모두 유동비율이 하락했다.
- 1998년~2008년까지 식품제조 중소기업의 유동비율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나, 동기간 중소기업의 단기 채무이행 능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대기업의 유동비율도 중소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4-56.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유동비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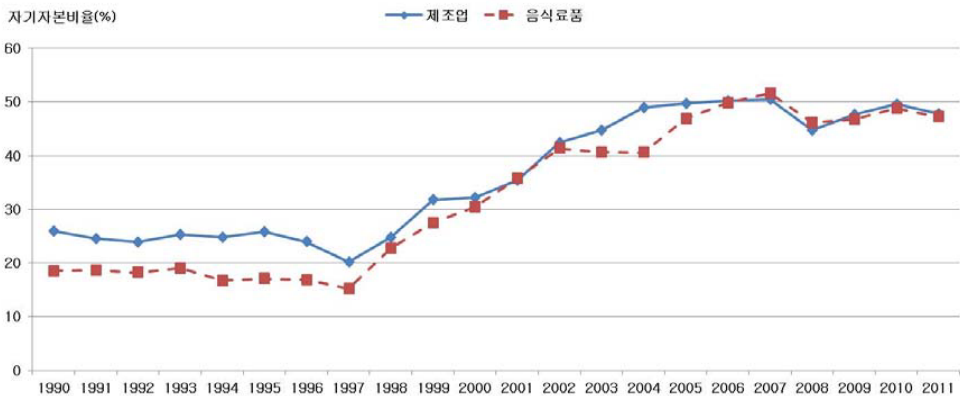
그림 4-57.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동비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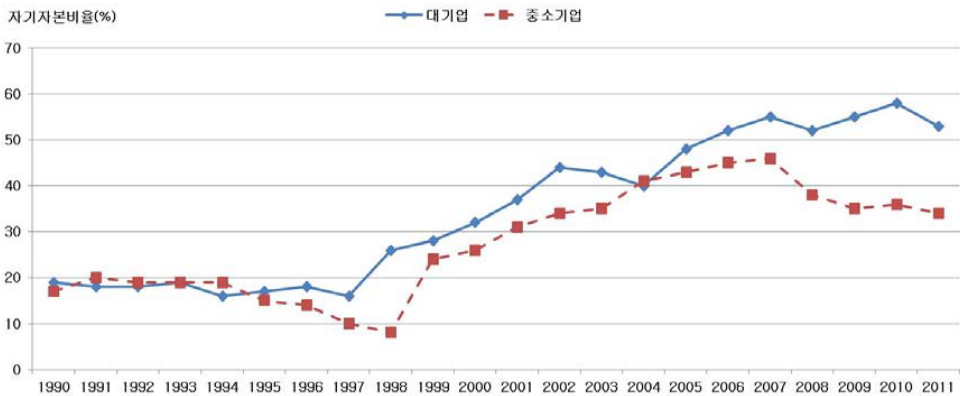
- 제조업과 식품제조업 모두 1998년을 기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1998년 이전까지는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즉, 1998년 이후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나, 특히 식품제조업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 동기간 대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나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대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53%인 반면, 중소기업은 34%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림 4-58.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그림 4-59.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 비교(1990~2011년)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부록 FTA 피해보전대책 개요

〈부록〉 FTA 피해보전대책 개요

1. 개괄

- 한·미 FTA의 체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농업 부문의 피해에 대응하고 농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FTA 특별법』을 개정하였음. 특히, 농어업인에 대한 단기적인 피해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였음.
 - 2002년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과수분야의 피해보전대책이 2004년에 도입되어 2010년에 종료되었으나, 2011년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대상 품목을 전체 농축수산물로 대상으로 확대되고, 발동기준과 보전비율, 시행기간 등이 개편된 상태로 재도입되었음.

- 피해보전직접지불은 협정의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것이며, 폐업지원은 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재배·사육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하는 농어업인에게 3년간의 순수익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 동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는 '사전지정제'였으나,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사후지정제'로 변경되었음. 한편, 폐업지원의 경우는 사후지정된 품목이면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보상금 산정규모는 기존의 순수입 기준에서 순수익 기준으로 재조정되었음.

- 피해보전대책에는 향후 10년간 전체 투융자의 5%인 1조 2천억 원(피해보전직접지불금 7천억 원, 폐업지원금 5천억 원)이 사용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가격지지 프로그램이나 직불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시행한 경험이 있음. 그러나 FTA와 같은 무역자유화 정책의 추진으로 발생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전,

보상, 구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해외에서는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가 우리나라의 FTA 피해보전대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비슷한 사례로 들 수 있음.

부표 1. 미국의 TAA와 국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비교

구분	미국의 TAA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지원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의 수입이 지난 3년 동안 증가된 것 - 현재가격이 지난 3년 평균과 비교해 15% 이상 하락한 것 - 지난 3년 평균과 비교해 시장가격, 생산량, 생산물가치, 소득 중 적어도 한 가지 요인이 15% 이상 하락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 총수입량이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 총수입량보다 증가한 품목 - 당해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직전 5개년 올림픽평균 수입량보다 증가한 품목 - 당해년 가격이 직전 5개년 올림픽평균 가격의 90%보다 하락한 품목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원서가 인증된 상품을 그 해 또는 1~3년 전에 생산한 생산자 - 개개인 생산자의 상품 평균 시장가격 또는 생산량이 감소한 생산자 - 농업외 소득 50만 달러 미만, 농업소득 75만 달러 미만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의 발효이전부터 생산한 자
지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 2천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3천 5백만 원/품목 - 법인: 5천만 원/품목
참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지원청, 경제연구소, 신청심의 위원회, 농업진흥청, 미국국립식량농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업인등 지원센터, 시·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201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농업인등 지원센터, 2013.3.

○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TAA는 수입증가로 인해 생산물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품에 맞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농어민 TAA 프로그램은 크게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현금 지원(cash benefit)의 두 가지로 분류됨. 기술적 지원은 생산량 증가와 마케팅 개선 방안 전수, 수입상품에 영향을 받은 상품의 대체상품 개발, 장기적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포함하며, 현금 지원은 승인된 최초 사업계획의 실행, 개발(development), 앞으로의 장기 사업조정 계획의 이행과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현재 농어민 TAA는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ARRA) 시행에 따라 2002년 당시의 TAA 프로그램보다 적용대상을 완화하

고 보상금액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운용되고 있음. 특히 당해년도 가격이 기준년도보다 '20% 이상 하락'해야 지원대상이 되는 가격요건이 '15% 이상 하락'으로 완화되었음.

- 농어민의 TAA 신청과정은 ① 농어업인의 탄원서 제출 → ② 탄원서 내용 및 적절성 심사 → ③ 탄원서 접수 현황 공고 → ④ 탄원서 인증 및 거부(ERS와 PRC의견 참고) → ⑤ 탄원서 인증시 90일 이내에 TAA 지원 신청 순으로 이루어짐.
- 해외농업지원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FAS)은 제도시행 전체를 총괄하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TAA 지원 적격 여부 판정 등을 수행함.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s, ERS)는 신청된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업무를 수행함. 신청심의회위원회(Petition Review Committee, PRC)는 ERS의 조사결과와 신청서류 등을 심사 후 의견제출 업무를 수행함. 농업진흥청(Farm Services Agency, FSA)은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현금지원 신청하는 것을 돕고, 현금 지원 신청 접수 및 농가별 적격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함. 국립식량농업기관(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Agricultural, NIFA)은 농어업인에게 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함.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용자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지원대상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⁴⁹⁾임. 대부분의 농식품 회사나 농산물 가공·유통업체가 여기에 포함

○ 무역조정지원제도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⁵⁰⁾

- 첫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정되며,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 한정함.

4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50)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총 7개 기업만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수입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농식품 분야의 영세업체들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12년 7월에 무역조정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지원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완화되었고, 국내시장 개방수준이 높은 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수입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둘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은 FTA 체결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원인이 되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며,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해당 농축산물의 당해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 및 기준수입량보다 증가해야 하고, 당해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 지원됨.
- 셋째, 지원금의 지급한도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용자지원은 업체당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이며, 컨설팅 비용은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됨. 반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농업인의 경우 3천 5백만 원, 법인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지원가능함.

부표 2. 무역조정지원제도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비교

구분	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근거 법률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단, 기업의 업력이 2년 이상 기업)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단,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지원 대상 품목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자)
지정 요건 / 지정 기준	- FTA 체결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원인이 되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고시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 2012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
지급 한도	-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 소요비용의 80%까지 - 용자지원 : 공자기금금리-0.45% - 업체당 30억 원(운전자금 5억 원)	- 법인경영체 : 5천만 원 - 개인경영체 : 3천 5백만 원
지원 절차	- 무역위원회의 피해 판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무역 조정 계획을 하고 타당성을 평가	-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자료: 「201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농업인등 지원센터, 2013.3.

2. 피해보전직불제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의 일환으로서 FTA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을 재배·사육·포획·채취·양식하는 농어업인에게 정부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인 소득감소를 일정부분 보전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가격차보상제도이며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FTA 특별법』 제6조 제1항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에게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기존대책(2004년 한·칠레 FTA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소득보전직불제”)에 비해 대상품목 확대, 발동요건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등의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 기능이 강화됨.
 - 대상품목은 사전지정 방식(키위, 시설포도)에서 해당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됨.
 - 발동요건은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의 '80% 하락'에서 '90% 하락'으로 완화됨.
 -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년 시장가격 차액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됨.
 - 지급한도의 경우 추가 보완대책(2012.1)을 수립하면서 신설하였는데,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3천 5백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사업 시행기간은 기존의 한·칠레 FTA 발효 후 7년(2004.4~2010.3)에서 한·EU FTA 발효 후 10년(2011.7~2021.6)으로 연장됨.

부표 3.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구 분	기준제도 (2004 도입)	2007년 대책 (2007. 11)	종합대책 (2011. 8)	추가 보완대책 (2012. 1)
발동 기준	국내가격 80% 이하로 하락	80% 이하	85% 이하	90% 이하
보전 비율	차액의 80%	차액의 85%	차액의 90%	
보전 기준	가격	조수입	가격	
지급 한도	-			법인: 5천 만원 개인: 3.5천 만원
대상 품목	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사후지정 (모든 품목)		
시행 기간	2004~2010	7년 (2017.12.31)	한·EU FTA 발효 후 10년 (2011.7.1 ~ 2021.6.30)	

- 농업(원예, 과수, 곡물)의 경우 농가당 수령하게 되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규모는 직불금 신청농가의 산출기준(해당농가의 생산면적에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을 곱한 값)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한 값임.
 - 지급단가는 '(기준가격 - 당해년도 가격) × 보전비율(90%)'임.
 - 기준가격은 해당 품목의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90%임.

- 한편, 축산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생산면적과 면적당 생산량)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2012.2.28)에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함.
 - 축산업의 경우 산출기준으로 “출하마릿수”를 적용하되, 적용이 곤란한 품목(낙농, 양육, 산란계, 양봉)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을 고려해 개별 기준안을 마련함.
 - '수익의 원천'으로 낙농은 농가별 평균 납유량을, 양육은 사육마릿수와 연간 마리당 녹용 생산량을, 산란계는 사육마릿수와 산란율을, 양봉은 봉군수와 연간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을 각각 산출기준으로 함.

부표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구분	산출 공식
농업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축산업	출하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낙농	납유량(Q)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양육	사육마릿수 × 마리당 연평균 녹용(녹각) 생산량(kg)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산란계	사육마릿수 × 1일평균 산란율(%) × 365일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양봉	봉군수 × 봉군당 연평균 부산물 생산량(kg)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형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형식이며, 재원은 FTA 이행 기금임.

○ 『FTA 특별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3항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접지불금 산출시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을 명시함.

- 조정계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실제 지급액이 WTO 협정에서 정해진 국내 농어업 보조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2012.2.28)에서 직접지불금 산출시 적용하도록 결정됨.

- 이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2013.1.13)는 WTO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 외에도 실질적인 수입피해에 대한 정확한 보전을 위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결정함.

$$\text{농축산물 조정계수} = \frac{\text{지급 가능 보조액}}{\text{지급 신청 총액}} \times \text{수입기여도}$$

- WTO 규정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감축대상보조(AMS)로 분류되나 개도국의 경우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지원한도인 특정 품목 생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⁵¹⁾

- 따라서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함.

51) UR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AMS) 상한은 2004년 이후 1조 4,900억 원이며,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개도국의 경우 생산액의 10%, 선진국의 경우 생산액의 5%까지 집행될 수 있음. DDA에서는 AMS와 de-minimis의 허용한도를 감축하는 방안이 합의되었지만 협정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FTA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FTA 이행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TRQ(관세할당물량)가 증가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이며, 지원 가능 품목 중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임.
 -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시 모니터링 품목과,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대책의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임.
 -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피해 조사·분석 결과(피해보전대책 발동기준의 충족여부, 수입기여도 등)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피해보전대책의 대상 품목에 대한 심의·의결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제출한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전년도 피해보전직불금대책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발생 여부를 심의·의결함.⁵²⁾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고시함.

- 『FTA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52) 아울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제시한 수입기여도 추정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실상 지원 대상품목의 직불금 규모 또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보전직불금의 신청자격은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 1) 농업인등⁵³⁾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는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의미
-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수산물 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 4) 전년도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며,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⁵⁴⁾를 갖추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3) '농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 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4)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관내/관의 생산지확인서,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판매/구매/계약재배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판매/구매 영수증, 전산출력물, 계약재배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사업시행지침에는 농업인등이 이들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증명 서류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절차는 <부표 5>와 같다.

부표 5.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 절차

날짜	시행절차	주요내용
2013 1.1~2.15	대상품목선정 신청	신청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신청기관: 시군구 담당과
2013 2.16~2.25	대상품목선정 신청접수 및 보고	시군구담당과→시도담당과(접수마감이후 5일 이내 보고) 시도담당과→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2013.2.21~2.25)
2013 3.31	피해보전 대상품목 조사·분석 결과 보고	농업인등 지원센터→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3.4~5	지원 대상품목 선정 및 고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2013.6~7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	지급신청기간: 고시일로부터 2개월 신청장소: 지원대상품목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서류 1.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3. 협정발효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2013.6~7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시 전산입력 병행(신청서 접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확인사항 -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완비 여부
2013.8~9	현지 및 서면 조사	관내외 생산(지)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기타첨부서류 등의 진위 여부 조사 (신청서 접수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2013.8~9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결과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확인 결과 전달 후 10일 이내 신청
2013.8~9	심사위원회 심사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내용, 현지 및 서면 조사결과, 이의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 심사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9.15) -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9.30)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2013.10~ 11	조정계수 산정 자금요청 및 배정	지급신청총액 산출 → 조정계수 산출 → 자금요청 → 지급 결정서 통보
2013.12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지급액: 심사를 통해 확정된 산출기준×지급단가×조정계수 지급방법: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보내는 사람에 “피해직불” 반드시 표기) 지급결과보고 - 시도지사는 지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2014년~	환수 및 이행점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과오 지급된 경 우 국세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라 환수됨(환수결 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자료: 2013년도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서

3. 폐업지원제

-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폐업지원은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폐업 농어가에게는 재취업 시기까지 안정된 생활기반을 보장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폐업지원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FTA 특별법』 제9조 제1항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 폐업지원제도의 발동기준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행 『FTA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모두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토록 함.
 - 한·칠레 FTA 대책에서는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세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피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폐업을 신청할 수 있는 폐업지원제도를 운용
 - 한·미 FTA 대책에서는 대상품목은 피해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모든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전직불제와는 달리 과수, 축산, 수산 등 초기 투자비용이 커 농업인들이 쉽게 폐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시설투자가 존재하는 작목으로 한정
- 폐업지원제도는 2007년 이후 FTA 국내대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폐업지원금의 산정방식 등이 일부 변경됨.
 -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은 기존제도(2004년 폐업지원제)에서는 순수입(조수입 - 경영비 - 자가노력비) 기준이었으나, 2007년 한·미 FTA 국내대책에서는 과도한 폐업신청과 이로 인한 해당 품목의 적정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 순수익(순수입 - 토지·자본 용역비) 기준으로 변경됨. 이는 또한 과원이나 축사 시설 등을 철거하더라도 토지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임.
- 시행기간은 폐업지원제의 경우 2008년 12월에 종료되었으나 이후 폐업지원제도로 확대 개편되면서 한·EU FTA 발효 후 5년간(2011.7~2016.6)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됨.
- 폐업지원금의 지원형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형식이며, 재원은 FTA 이행 기금임.

-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폐업 품목이 포함되는 품목군에 대해서 1) 5년간 재배(사육)가 제한되고, 2)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쟁력제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였음.

부표 6. 폐업지원제도

구 분	기존제도 (2004 도입)	2007년 대책 (2007. 11)	종합대책 (2011. 8)	추가 보완대책 (2012. 1)
지 급 액	3개년분 순수입	3개년분 순수익		
대상 품목	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사후지정 (모든 시설투자 품목)		
시행 기간	2008.12.31일 종료	한·EU FTA 발효 후 5년 (2011. 7. 1 ~ 2016. 6.30)		

- 폐업지원금의 일반적인 산출방법은 농업의 경우 철거·폐기 면적에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곱한 값에 3년을 곱하여 산출하고, 축산업은 출하마릿수에 연간 마리당 순수익을 곱한 값에 3년을 곱하여 산출(표 1-7 참조).
- '철거·폐기 면적'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을 의미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
 - ①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단,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

-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단,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전 년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순수익액을 산출
-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① 현지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 ② 현지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 축산업 중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일반적인 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2012.2.28)에서는 해당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을 중심으로 개별 산출공식을 마련함.
 - 폐업지원금의 경우 피해보전직불금과는 달리 개별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함.

부표 7.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구 분	산출 공식
농업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축산업	출하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낙 농	농가별 평균 납유량(Q) × 연간 Q 당 순수익 × 3년
· 양 록 (녹용)	사육마릿수 × 연간 마리당 녹용 생산량(kg) × 연간 녹용 kg당 순수익 × 3년
· 산란계 (계란)	사육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 × 3년
· 양 봉	봉군수 × 연간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kg) × 연간 부산물 1kg당 순수익 × 3년

-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정
 -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의 산정을 위해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개별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내용은 첫째,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위한 평균 투자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둘째,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셋째,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임.

- 폐업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FTA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임.
 - 1)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2)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우며, 최소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품목
 - 3) 기타 생산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인정된 품목

- 『FTA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FTA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임.

-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다음의 5가지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있음.
 - 1)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3) 해당 FTA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4)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
-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①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FTA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업인들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⑥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단,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용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
 - ⑦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평균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며,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들은 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⁵⁵⁾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55)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함.

1.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제출)
2.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판매/구매 영수증, 전산출력물, 계약재배 등)
3.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사업시행지침에는 농업인들이 이들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증명 서류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의 시행절차는 <부표 8>과 같음.

부표 8.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절차

날짜	시행절차	주요내용
2013.4 ~5	조사/분석 →심의/의결 →선정→고시	조사 분석: 농어업인등 지원센터(2013.4) - 조사 분석결과 보고: 조사/분석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2013.4~5)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선정 결과 고시(2013.5)
2013.6 ~7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장소: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서류: 1.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2.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기타
2013.8 ~9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접수시 전산입력 병행(신청서 접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완비 여부 확인 - 기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해당 여부 확인
2013.8 ~9	현지 및 서면 조사	-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진위 여부 - 신청내용 확인 결과서 작성 즉시 폐업지원금 신청인에게 전달 (신청서 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013.8 ~9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확인 결과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확인 결과 전달 후 10일 이내)
2013.8 ~9	심사위원회 심사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내용, 현지 및 서면 조사결과, 이의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심사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9.15) -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9.30)
2013.10 ~11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수립 자금요청 및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당연도의 재정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시도지사는 연차별 지원 계획을 수립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2013년도 자금배정 요청(시·도) 자금배정(농림축산식품부→시·도→시·군·구)
2013.12	폐업지원금 지급	최종 현장확인→지급대상자 결정통지→폐업 및 폐업통보→폐업 확인→폐업지원금 지급→지급결과보고
2013.12 ~	사후관리	관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관리내용: 대상자, 지급내용, 폐업여부, 폐업이후 재배 품목 등 - 폐업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전·중·후)사진을 부착 -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5년간 관리
2014 ~	지급된 지원금 환수	부정한 방법/ 과오지급 된 경우 또는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하는 경우 국세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라 환수 조치 (환수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자료: 2013년도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서